

# 대광과 4 · 19



대광 중고등학교 총동창회

### 일러두기

1. 대광고 13회, 14회 및 15회는 1960년 4·19혁명 당시 각각 고3, 고2 및 고1 이었다.
2. 글쓴이의 학년, 직급 및 직책은 자료 발행일 당시를 나타낸 것이다.
3. 편집에 있어 자료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화보



강당 앞에 있는 4-19의거 기념비(2008년 4월 19일 세움)



대광고 시위대는 “학생에게는 평화적 데모의 자유가 있다”,  
“경찰은 학원에 간섭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1960.4.19/연세대 박물관)



오전 9시 10분경 혜화동에서 대광고 학생들의 시위를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경찰들은 학생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였고 동대문 경찰서로 연행하였다.(1960.4.19/ 경향신문사)



419 혁명 때 불의를 규탄하며 광화문을 질주하는 대광의 황소들(1960년)



학생들과 행동을 같이 하다 경찰에 붙잡혀 가는 이동범 선생(1960년)



4·19희생자를 위한 모금활동(1960. 4.2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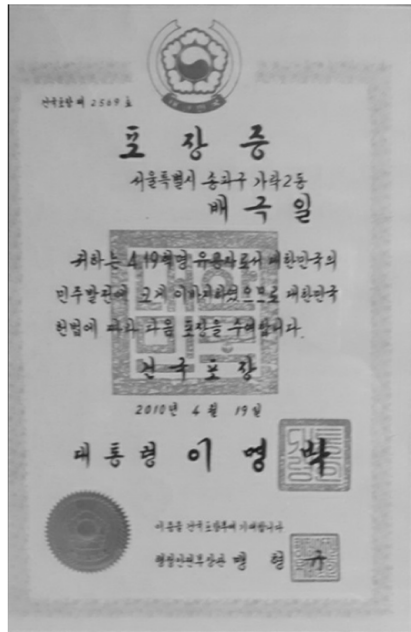
4·19 57주년 현화식(2017년 4·19 기념식)



매년 4·19 기념식 때 재학생에게 4·19기념 장학금을 수여해 4·19민주혁명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졸업 13,14 및 15회(4·19당시 고3,2,1)참석자와 발전재단  
그리고 학교대표들의 기념사진(2011년 4·19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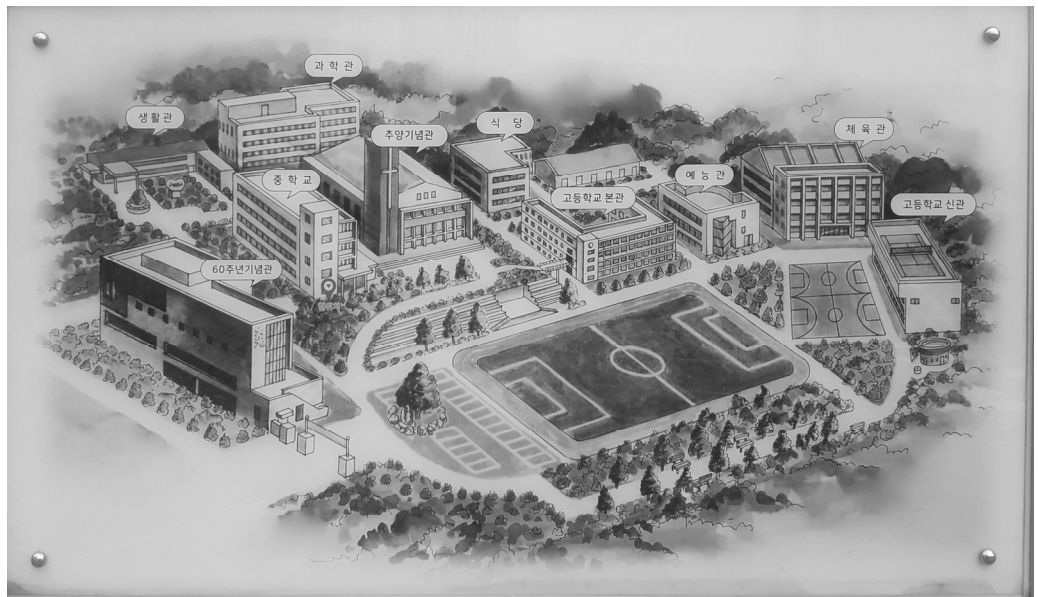
선배와 후배 재학생이 같이 하는 4.19 헌화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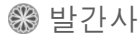
2010년 4.19 50주년 기념식에서 대광동문 18명이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어 건국포장을 받았다.



13회 배극일 동문이 유공자 대표로 건국포장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모습



대광학원 전경 및 조감도



## 4·19 혁명 60주년의 아침을 맞이하며

『대광과 4·19』 편찬위원회

1960년 4월 19일 아침 8시 30분,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는 대광고등학교 전교생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서울 시내 모든 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정의의 깃발을 드높이 세워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시위를 시작하였다. 큰빛의 아들들은 독재에 맞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신념으로 교문을 나섰다.

신설동, 동대문을 지나 종로 5가를 향해 가두 행진을 하던 중 경찰의 저지를 당해 대학로와 혜화동 쪽으로 방향을 옮겼다. 이때 서울대 학생들 및 동성고 학생들과 연대하여 서울 시내 거리에 학생혁명의 커다란 불길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의 행위는 서울의 여러 대학교, 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시위에 동참하게 자극하였다. 결과적으로 4·19 민주혁명의 성공은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고 장면의 민주내각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 이제 다시 4·19 혁명의 그날이 다가왔다. 우리 큰빛의 아들들은 그 후 격정의 시기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궁금하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황소처럼 썩 박고 돌아와 풀을 뜯는 것’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난 60년을 조용히 지내온 것일까. 4월 19일 그날의 혁명이, 학생운동에서 4·19 의거로 다시 학생혁명으로, 마침내는 4·19 민주혁명으로 그 평가와 명칭이 바뀌었다.

큰빛의 아들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그날의 가치가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각인되도록 노력해 왔다. 그들은 신문과 방송, 잡지 등 언론 매체와 더불어 관련 기념회와 좌담회 등 각종 모임의 참여를 통하여 그날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기억을 되새겼다. 그들은 또한 매년 4·19 혁명 기념식을 통해 4·19 혁명 정신이 모교 학생들에게 전해져 전통으로 이어져 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정의가 큰 강물과 같이 영원히 흐르기를 갈망하였다.

한편 우리 모교와 후배 재학생 및 동문들은 이러한 선배들의 4·19 혁명의 영광스런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학교 교지인 '대광'과, 학교신문 '대광 뉴스', 그리고 대광의 역사의 발자취를 기록한 '대광 25년사', '35년사', '50년사' 및 '60년사' 및 대광총동창회의 회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4·19 혁명의 기록과 기억을 계속해서 증언해 오고 있다.

4·19 혁명 이후에도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불의가 횡행하였고 체제가 불안정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에도 굴복하지 않고 불의와 부정에 저항하는 시민 저항정신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정치 현실에서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던 4·19 혁명 정신이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4.19 혁명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4·19 혁명과 그 혁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대부분의 책들이 4·19 혁명을 시작한 학생운동의 역사로부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미친 영향 등 정치사회적, 민족사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우리들은 4·19 혁명에 참여한 선배님들의 기억을 토대로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날을 새롭게 기억하고자 한다. 우리가 다함께 살아가는 민주공동체의 정착과 평화로운 삶에 대한 열망, 그리고 앞장서서 4·19 혁명의 아침에 불의와 부정에 저항한 선배님들의 숭고한 의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 책을 발간한다. 이 책에는 4·19 혁명과 관련한 대광인의 1차 자료와 더불어 4·19 혁명에 참여한 모교 선배님들의 귀중한 회고들이 들어있다. 이러한 기록이 거대한 혁명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자랑스런 기억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증언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님을 잘 알기에 큰 자부심을 갖는다.

끝으로 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13, 14, 15, 22회 동문님들과 아울러 조언을 해주신 김삼남, 김민수(13회), 서굉일, 이춘동, 김정남(14회), 김한영(15회), 손재완, 황상철(18회), 부길만, 조현제(22회)를 비롯한 여러 동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공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경 교장선생님과 학교당국, 그리고 4·19혁명기념관의 박민기님, 연세대학교박물관의 강희숙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또한 4·19혁명에 대한 높은 사명감으로 출판에 흔

꽤히 응해 주신 도서출판 서훈의 고우용 사장님과 편집과 디자인에 수고하신 책봄의 한은희 실장님 그리고 자료 정리 및 발간성금을 협찬해주신 모든 동문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인사말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sup>義</sup>를 구하라



박신환\*

1960년 4월 19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날 중의 하루입니다.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부패, 불의와 폭력에 항거해 젊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며 분연히 일어난 날입니다.

4·19 민주혁명, 그 맨 처음이 우리 대광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sup>義</sup>를 구하라”라고 배운 대광이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가장 먼저 나선 것입니다.

대광을 시작으로 모든 대학과 여러 고등학교에서 노도와 같이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시민들도 함께하고, 걱정으로 만류하던 선생님들도 보호와 지지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광 파이팅!”

교문을 타고 넘어 친구의 손을 잡고 후배와 어깨를 걸며 동대문으로 종로로 혜화동으로 뛰어가던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을 향한 대학생과 시민들의 응원이 제게도 들리는 듯합니다

대광은 4월 혁명의 알맹이만을 간직하고 4월 정신의 미래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 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스스로를 연마하고 학업에 정진하였습니다.

\* 박신환 : 대광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다시 한번 그날 아침의 선봉이었던 모든 대광 선배님께 무한한 존경을 바치며 4·19 민주혁명 60주년을 기념하는 이 책자가 발간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과 올바른 민주주의와 따뜻한 정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 다시 한번 4·19를 맞이하여



김삼남\*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 4·19 민주혁명 ... 그 발발의 이유와 평가 그리고 현대의 교훈에 대하여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4·19 민주혁명이 왜 발발하게 되었는가를 냉정하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한 그 당시 권력층들의 부정부패도 있었지만, 이들을 지지한 자들이 많았다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승만이 대한민국 독립영웅이라는 선전에 속아 무조건 지지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다 당시 많은 한국인들은 문맹인들이 많았습니다. 무려 78%가 문맹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성세대들은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며 민주주의에 대해 자각하지 못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배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생들은 1940년 이후 출생자들로 일제강점기는 너무 어려서 그 시대를 잘 모르는 대신 광복 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배우기 시작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의 맹목적 지지가 이승만 독재를 연장시켰고 이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

---

\* 김삼남 : 현재 대광 13회 동기회장

을 보고 1940년 이후의 세대들이 당시 학생 신분으로서 4·19 민주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후 이들이 바로 한국의 주류세대가 되어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끈 주역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이들은 모두 70대 후반의 노인 세대들이 되어 4·19 민주혁명 당시의 그 정신들을 잃어버리고 퇴색되어 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4·19 민주혁명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오늘이기를 바랍해 봅니다.

6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은 어떤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다시 한번 4·19를 맞이하며 그 당시의 학생운동이 의거로... 학생혁명으로... 다시 4·19 민주혁명으로 역사의 해석이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고 증언하면서 4·19 민주혁명의 교훈은 절대권력과 독재자를 찬양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권력자를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대광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대광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이라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대광 4·19 민주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책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여러 동문, 동창들과 대광학교와 총동창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4월

❁ 축사

## 4·19 혁명과 대광의 정신



방정웅\*

역사의 순간이란 자연발생적 사건이 아니라 전후의 연관된 사건 속의 한 토막입니다.

60년 전 4월 19일의 아침 일찍 대광의 건아들이 서울의 거리에서 불의에 대항하는 항의의 선봉에 서기까지는 축적된 울분과 정의감이 쌓였다가 폭발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 대구 학생들의 거사와 3·15 부정선거의 부패상 그리고 마산의 김주열 군의 시체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부정과 불의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거둬 쌓여가는 정부의 부패와 불법적인 탄압과 잔인한 경찰의 만행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참다운 민주주의는 어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곤 할 때에는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 지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하나하나가 자율적이고 각기 양심에 비추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실 때는 현실의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잡는데 앞장을 서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대광의 교훈은 ‘경천애인’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기독교 정신으로 대광인의 삶의 목표이고, 표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였으며 이루려고 하는 덕목은 ‘진실·용

---

\* 방정웅 : 4·19 당시 학생회 회장, 4·19 국가유공자, 현 달라스한인문화회회장

감·협동·근면’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는 교육이념으로 학교를 이끌어가는 학교당국과 이를 따르는 대광인의 학교생활은 자유선거를 통해 학생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학생회를 운영하였고 바른 기독교 정신과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신앙교육은 대광인들을 정의의 사도로 육성하였습니다. 60년 전을 뒤돌아보면 당시의 십대 후반의 철모르던 시절에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 고마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4월 19일의 아침 대광인의 혁명의 첫걸음은 13회 학생이 주동이었지만 이어서 참가한 14회, 15회를 포함한 고등학생 모두가 젊은 정열을 바쳐 일어난 쾌거였습니다. 학생들의 거사가 일어난 후에 서울이 시민들의 참여로 혁명의 소용돌이가 쳤고 대통령의 사퇴와 계엄령 선포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학생회장으로서 모든 행동의 결과적 책임을 지게 되어 계엄사령부의 수사 대상이 되었지만, 다행히 시국이 안정되어 4·19의 거사는 국가적으로 인정이 되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4·19정신이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4·19 혁명 6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대광인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여 방향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며 살 것인가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광인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대광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대광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잘못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오늘의 결과는 내일로 이어 집니다. 대광의 정신은 60년 전의 젊은 혈기로 나타나 4·19 혁명이라는 오늘날의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거룩한 역사적 사명이 이 시대에 어떻게 실현할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삶의 지표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이루며 살 것을 다짐하여야 할 것입니다.

60주년을 의미 있게 준비하여 주신 대광학교와 총동창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축사

## 정의로운 진정한 큰 빛



김철경\*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4·19 민주혁명의 시작은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안암골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그들을 바라다 본 대광고등학교 학생회 회장 방정웅을 비롯하여 배극일, 문복강, 박웅균, 이문길을 포함한 7명의 학생회 임원들은 그날 저녁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인 전병화의 집에 모여 거사계획을 세우고, 다음날 1960년 4월 19일 수업 예령 첫 종이 올리면 일제히 운동장에 집합하는 계획을 세우고, 결의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광 4·19 혁명은 고등학생으로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금년, 2020년은 대광 4·19 혁명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 김철경 : 대광고등학교 제13대 교장

학교와 총동창회는 당시의 주역인 13, 14회가 중심이 되고, 15~18회 동문들이 협력해서, 6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광 4·19 혁명 60주년 역사 사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광의 정신을 잘 표현한 당시 교목이셨던 황광은 목사님의 말씀 “대광은 황소, 받을 때는 썩 받고, 받고 나선 풀밭에서 꼴을 먹는다.”처럼 대광의 기독교 정신, 정의구현의 정신은 개교 이래 지금까지 73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며, 대광의 기독교 정신의 교육과 실천을 위해서 그동안 대광 구성원 모두는 선한 경쟁을 하며, 3만 명에 이르는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 이후 교훈 덕목인 “성실·근면·협동·봉사”를 “성실·정의·협동·봉사”로 변경하기도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정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의는 가장 큰 가치이며, 도덕적 덕목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불의<sup>不義</sup>가 용서<sup>容恕</sup>라는 것으로 인하여 정의로 둔갑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상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정의는 절대적인 가치이기에 상황윤리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도덕가치의 타락으로 인하여,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주관적일 수 없습니다. 정의는 개개인의 지적 수준과 도덕적 가치의 차이로 변질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가치혼돈의 시대 속에서, 거짓 정보와 잘못된 이념논쟁의 카오스 상태 속에서도 정의는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것이 진실이고 바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는 전쟁과 테러와 학살과 처절한 암투와 권력 다툼과 비리와 살인과 온갖 악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바른 가치관, 바른 기독교 신앙의 정립을 위해서, 교사들이 먼저 정의<sup>正義</sup>의 정의<sup>定義</sup>를 잘 세우고, 가장 먼저 정의<sup>正義</sup>로워야 하며, 학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의<sup>義</sup>로운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

의로운 것은 타협될 수 없으며, 불의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중도의 사상이 아닙니다.

“큰빛”은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큰빛”은 규모가 작더라도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요소요소에서 자그마한 등불이 되어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

는 것이 진정한 “큰빛”입니다.

대광고등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시대의 희망을 열어가는 기독교 전인 교육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광 4·19 혁명 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역사 사료집을 통해서, 대광의 교육 가치관을 다시금 짚어 보면서, 대광의 모든 동문들과 함께, 대광의 교육을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라는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대로, 시대가 악할지라도, 오직 기도의 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대광 4·19 혁명 60주년 기념으로 사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책이 읽어보는 모든 사람에게 귀한 자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발간을 계기로 대광교육을 새롭게 되돌아보며, 대광교육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4·19 민주혁명의 아침을 열며 / 대광과 4·19 편찬위원회 .....	13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sup>義</sup> 를 구하라 / 박신환 .....	16
다시 한번 4·19를 맞이하여 / 김삼남 .....	18
4·19 혁명과 대광의 정신 / 방정웅 .....	20
정의로운 진정한 큰 빛 / 김철경 .....	22

### 제 I 부 ㉮ 역사 기록으로 본 대광과 4·19

제1장 내부자료로 본 4·19 .....	32
1. 대광 25년사의 4·19 서술 .....	32
1) 4·19와 대광 .....	32
(1) 3·15부정선거 .....	32
(2) 마산사건 .....	32
(3) 4·19와 대광 .....	33
2. 대광 뉴우스에 나타난 4·19 .....	44
1) 대광 뉴우스 제35호 .....	44
(1) 학생의거와 대광학원의 위치 / 이창로 .....	44
(2) 민주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햇불 밝힌 4·19 / 편집자 .....	46
(3) 4·19 혁명의 불길을 올리던 날 / 좌담회 .....	48
(4) 4·19와 그 뒷날 주은 얘기 / 편집실 .....	55
(5) <시> 돌아오지 않는 형님 / 김정중 .....	60
(6) <시> 조국의 녀, 4·19 영령들에게 / 김재명 .....	61

(7) 부상자를 위한 가두 모두 모금 수기 / 조길성 .....	62
2) 대광뉴우스 제36호 .....	64
학원 민주화에 선행해야 할 일들 / 박중신 .....	64
3) 대광 뉴우스 제40호 .....	67
(1) <시> 4월의 사자들에게 / 최영일 .....	67
(2) 4월의 성난 사자들에게 / 김용석 .....	68
(3) 오직 이 땅의 양심이 돼라 / 이창린 .....	69
4) 대광 뉴우스 제45호 .....	71
(1) <권두시> 타오르는 촛불 / 홍세봉 .....	71
(2) 우리의 주장 / 고종진 .....	72
(3) 4월 혁명 두 돌을 맞으면서 / 박동진 .....	73
(4) 4·19의거와 우리 학교의 교풍을 중심으로 / 좌담회 .....	77
(5) <르뽀르따즈> 4·19 아침의 혈로를 더듬어 / 민영하 .....	80
5) 대광 뉴우스 제52호 .....	82
대광은 황소 / 황광은 목사 .....	82
6) 대광 뉴우스 제58호 .....	86
(1) 우리의 애국심을 무엇으로 나타낼까 / 김창주 .....	86
(2) 나는 똑똑히 보았다 / 송성찬 .....	88
(3) 4·19의 참뜻 / 편집자 .....	90
(4) 4·19와 민주주의 / 조성복 .....	92
3. 대광교지 제7호에 나타난 4.19 .....	95
1) <특집> 4월의 우리의 외침은 실현되고 있는가? / 편집반 .....	95
고 3-1 이문길 .....	96
고 3-4 백진호 .....	96
고 3-2 서용남 .....	97
고 3-1 김태웅 .....	98

고 3-1 이인행 .....	98
고 3-3 김기복 .....	99
고 3-4 최완택 .....	99
고 3-3 전정남 .....	100
고 3-4 최정용 .....	100
고 3-3 김명전 .....	100
2) <르쁘르따즈> 벽찬 젊은 가슴을 가다듬고 / 방정웅 .....	102
3) 시 .....	111
(1) 어머니 당신은 4월의 열매를 아십니까 / 홍철부 .....	111
(2) 4월의 어느 날 밤 / 표학길 .....	113
4. 총동창회 회보 제38호에 나타난 4.19 .....	115
1) 4·19 데모와 대광고 13회 / 이길남 .....	115
2) 대광의 문을 나선지도 어언 35년여 / 이상철 .....	117
3) 나의 학창시절 / 김 윤 .....	121
<b>제2장 4·19 민주혁명 기념식 .....</b>	<b>124</b>
1. 제51주년(2011.4.20.) / 내가 겪은 4·19 / 배극일 .....	124
2. 제52주년(2012.4.18.) / 나와 4·19 / 문복강 .....	127
3. 제53주년(2013.4.17.) / 자유를 달라!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 최대석 ..	130
4. 제55주년(2015.4.15.) / 헌화식 감사 인사 / 김정남 .....	134
5. 제56주년(2016. 4·19) / 김정남 .....	136
<b>제3장 외부자료로 본 대광 .....</b>	<b>138</b>
1) 4·19를 증언한다 / 한국일보 기사 .....	138
2) 먼저 가신 그들에게 / 박태수 .....	140
3) 4·19 혁명사 상고사 / 대광고등학교 편 .....	142

4) 4월 민주혁명의 재조명 / 대광고등학교 사례 .....	150
-----------------------------------	-----

## 제2부 4·19 민주혁명의 회고와 전망

제1장 13회 대광동문 .....	154
1. 4·19 회고록 / 배극일 .....	154
2. 4·19의거에 대한 나의 소고 / 조만옥 .....	156
3. 자랑스러운 대광의 친구 북강, 삼남, 극일, 민우들이여!/ 이인행 .....	164
4. 나의 4·19 혁명을 되새겨 보며 ... / 김삼남 .....	166
5.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수고를 감사하면서 / 김 윤 .....	169
6. 4·19 회고 / 조승호 .....	171
7. 나의 4·19일에 있었던 행적 / 문복강 .....	173
8. 4·19에 대한 나의 생각 / 조규홍 .....	176
9. 4·19와 나 / 박동수 .....	178
10. 데모 참여 동향 내용 / 백진호 .....	180
11. 4·19 민주혁명 그날의 회고 / 박강남 .....	182
12. 4·19 혁명 회고록 / 계경순 .....	183
13. 나에게 4·19란 / 이신실 .....	185
14. 4·19의 회상 / 김기완 .....	187
15. 4·19 혁명 공적서 / 정윤도 .....	189
16. 임정의의 4월 19일 / 임정의 .....	191
17. 4·19 혁명 / 권오진 .....	193
18. 회고록 /노광국 .....	194
19. 내가 겪은 4월 19일 / 이진우 .....	196

20. 4·19 그날을 기억하며 / 김민수 .....	198
21. 아! 어찌 내가 잊으랴, 4월의 그 날을! / 김기복 .....	202
22. 4·19! 그날의 기억들 / 김원민 .....	204
23. 4·19 혁명의 아침 / 방정웅 .....	206
24. 4·19의 회고록 / 주성기 .....	209
25. 나에게 있어서 4·19가 가지는 의미를 돌아봅니다 / 김 윤 .....	212
<b>제2장 14회 대광동문 .....</b>	<b>215</b>
1. 1960. 4. 19 / 이춘동 .....	215
2. 신들의 함성 - 천심의 승리 / 김영수 .....	215
<b>제3장 15회 대광동문 .....</b>	<b>219</b>
1. 4·19 기억 / 김한영 .....	219
2. 4·19 기억담 / 이석철 .....	220
3. 4·19 추억담 / 김문담 .....	220
4. 4·19 기억 / 오영열 .....	220
5. 4·19 기억 / 김성용 .....	221
6. 4·19 기억담 / 정신관 .....	221
<b>제3부 ㉮ 4·19 이후의 대광 학생운동</b>	
<b>제1장 1964년 한일회담 반대 학생운동 .....</b>	<b>224</b>
<b>제2장 1967년 6·8 부정선거 규탄 .....</b>	<b>225</b>
<b>제3장 1969년 3선 개헌과 반대 학생운동 .....</b>	<b>226</b>

1. 3선 개헌 파동과 학원 휴교8 .....	226
2. 3선 개헌 반대 학생운동 .....	226
3. 언론에 나타난 3선 개헌 반대 운동 .....	229

## 부록

• 국가유공자 명단 .....	232
• 4·19 혁명의 용사들 명단 .....	232
13회 졸업생 249명 .....	233
14회 졸업생 344명 .....	234
15회 졸업생 384명 .....	235
• 4·19 전야와 당일의 서울시 데모 상황 .....	237
1. 혁명의 불을 당긴 4·18 고려대 데모 .....	237
2. 4·19 총궐기의 경과 .....	247
• 편집 후기 .....	268
• 참고 문헌 .....	269
• 4·19행사 성원해 주신 분 명단 .....	270
• 『대광과 4.19』 편찬위원회 .....	271

# Ⅰ 부

## 역사 기록으로 본 대광과 4·19

제1장\_내부자료로 본 4·19

제2장\_4·19 민주혁명 기념식

제3장\_외부자료로 본 대광



# 제1장

## 내부자료로 본 4·19

### 1. 『대광 25년사』의 4·19 서술

#### 1) 4·19와 대광

##### (1) 3·15 부정선거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이승만이 7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한 후 북괴의 침략 계획을 간과 대비하지 못하여 인류사상 유례가 드문 전란을 자초케 한 실책을 범한 이래 1952년 7월에는 대통령 간접선거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선제의 ‘발췌개헌안’으로 정치 파동을 일으켰으며, 1952년 11월에는 이승만에 한하여 대통령 중임제한을 하자는 개헌안을 제출하여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1954년 11월 27일 ‘사사오입원리’를 내세워 동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하는 등 정치적 과오를 범하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동 정치를 자행 하더니 1960년 3월 15일에 실시한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전횡은 그 극에 달하였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말소 정책을 공격하는 경향신문을 폐간하고 이승만의 4선을 획책하여 야당 집회를 방해하며 사전투표, 3인조 공개투표 환 표 등 온갖 부정 방법을 동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 (2) 마산사건

3월 15일 많은 유권자에게 번호표를 주지 않고 야당 참관인의 참관을 거부하며 투표 소 시설을 내통식으로 만들어 장막 뒤에서 감시하여 비밀투표를 불가능하게 했고, 3인조 공개투표 때 선거위원에게 투표 기입 내용을 일람케 하였으며, 비 자유당계 시민의 투표 지를 빼앗아 찢은 후 선거위원이 다른 투표지에 투표하는 등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분개한 마산학생과 시민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경찰은 평화적 시위대에 발포하여 15명을 죽이고, 7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다수의 학생과 시민을 체포하여 공산당이 개입 조정하였다고 날조 발표하였다.



그 후 4월 11일 낚시꾼에 의하여 김주열 군의 시체가 인양되었다. 고교생 김주열은 제1차 마산 데모 때 행방불명되었는데 경찰이 살해하여 눈에 최루탄을 박아 바다에 던져 버린 것이다. 이를 본 마산 시민은 다시 데모를 벌여 경찰의 발포로 또 2명이 사망하였다.

### (3) 4·19와 대광

3·15 정·부통령 선거 유세가 일요일 대구에서 열리게 되자 청중의 수를 줄이기 위해 자유당은 학생들에게 일요일(2월 28일) 등교 지시를 내렸다. 이에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일어났던 대구학생사건, 3·15 부정선거, 4월 11일의 마산사건, 4월 18일 고려대학교의 데모 등에 자극을 받아 양처럼 순하기만 하던 대광의 아들들은 빈사 상태의 민주주의를 소생케 한 4·19의거의 선봉에 나서서 모교 대광과 조국에 보답하였고, 한국학생운동사상에 찬연히 빛나는 기록을 남겼다.

#### ① 4월 18일 거사 모의

4월 18일 월요일 오후 1시경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스크림을 짜고 데모에 돌입하여 안암동로터리 지서 앞에서 방망이로 무장한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안암 제2교까지 몰려갔다. 이때 비상 소집된 경찰이 방망이를 들고 새까맣게 안암교 일대를 포진하였고 계속 몰려온 고대생들과 2~3분간 대치하게 되었다. 점심시간, 운동장에 뛰어놀던 본교생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언덕과 옥상에서 박수와 환호의 성원을 보냈었다.(주1)

고대의 데모를 목도한 학생들은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고대 데모대는 종로 4가, 2가, 화신 앞 등에서 경찰의 방망이 저지선을 뚫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데모를 하였다. 국회의 책임 있는 발언을 요구하여 국회 대표가 나오고 데모대는 그들의 의사를 반영시킨 후 경찰 백차의 선도로 시청 앞을 지나, 을지로 4가에서 종로 4가 쪽으로 접어들어 천일백화점 앞에 이르렀을 때 예기치 않았던 불의의 습격을 당하였다.

자유당과 경찰에서 길러오던 깡패들을 급히 동원한 정부 당국은 깡패 40여 명에게 일당 얼마씩을 주고 쇠몽치와 갈고리 등 혈기를 소지케 하였다가 데모 행렬의 뒤로부터 학생들을 닥치는 대로 습격 난타케 한 것이다.

그날 저녁 해 질 무렵까지 학생회 문제와 3.15 부정 규탄 거사 방법과 시기에 대해 토의하던 제10대 학생회 회장인 고3, 방웅정과 백극일, 박웅균, 이문길을 포함한 7명이 귀가하기 위해 오후 8경 교문을 나섰을 때, 캠페의 습격으로 부상당해 피를 흘리는 수많은 학생들을 부축하고 귀교하는 고대 데모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 광경을 목도한 학생회 간부들은 공분을 참을 수 없어 귀가를 단념하고 다음 날 거사의 구체적 모의를 위해 동대문구 창신동에 있는 고3 전병화 집으로 모였다. 양조장을 경영하는 집이어서 건물이 큰 데다가 전병화가 쓰는 방은 구석진 곳이어서 모의에 적합한 곳이었다.

거사 준비를 논하여 당일 낮에 본 고려대학교 데모처럼 내일 점심때 거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보다 아침 일찍 거사한다면 출근하는 시민과 등교하는 타교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어 뒤따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는 박웅균의 의견을 따라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4월 19일 아침 교문에는 복장 검사를 가장하고 배극일과 세 명의 학생이 서 있다가 각 학급에서 주동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첫 종이 올리자 일제히 운동장으로 나와 집합하기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데모 코스는 동대문과 종로를 경유하여 세종로를 거쳐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하여 결의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부르기로 하였다.

토의는 세부적인 데까지 미치지 않았다.

직원회의 때 교무실 문을 밖으로 잠가 버리고 첫 종이 나면 학생회장 선거를 내걸고 고등학교 전교생이 운동장이 모이도록 할 것과 수의가 교문을 걸러고 할 때는 두 학생이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붙들고 꿈쩍 못하게 한 뒤 문을 활짝 열어 놓 것과 플래카드의 구호는 미술반원을 동원할 것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주1] 당시 고대 데모 주동급 학생이던 주강현이 해방 17년 일지인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에서 '순진하고 어린 대광교생들이 손뼉과 만세로 환호해 주는 그 열정은 눈물겹도록 우리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 결의문

우리는 제2세 국민으로서 아래와 같은 결의를 선포한다.

어디까지나 오늘의 정사를 내일에 물려받을 주인공으로서 붉게 피 발리고 때 묻은 정사를 물려받기 싫다. 그리고 3·15의 불법과 불의의 강제적 선거로 조작된 소위 지도자들은 한시바빠 물러가야 한다.

형제들이여!

대한민국 학도여! 일어나라!

피 묻은 국사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있단 말이나?

정의에 불타는 학도이거든 진정한 일꾼이 되려거든 일어나라!

3·1 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다. 우리 조국은 어디까지나 민주공화국이요, 결단코 독재국가나 경찰국가가 아니다. 법에서 이탈하고 만행으로 탄압하는 정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대광학생들은 평화적인 행위로 시정을 요구한다.

## 구 호

1. 정부는 마산사건을 책임지라.
2.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3. 3·15 협잡 선거를 물리치고 정·부통령을 다시 선거하라.

### ② 4·19

한방에서 자고 난 간부들이 이튿날 등교하자 그들의 활동은 시작되었다. 학생 간부들이 전병화의 집에서 허락도 없이 가져온 밀가루 포대로 미술부원 고3 김기원이 플래카드에 구호를 썼고 정문에는 규율부처럼 3명이 서서 각반 간부와 비밀 연락을 하였다.

8시 15분 아침 예령이 나자 교사들은 직원회의에 참석차 교무실에 모였다. 이 틈을 타 고3, 고2 학생들이 대부분 운동장에 모였을 때 직원회의는 끝이 났다. 고1 신입생

을 동원할 때 교실로 들어온 교사들은 다행히 적극적으로 길을 가로막아 가며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고3 간부들이 앞장을 서고 고2와 고1이 뒤따르고 등교하던 중학생도 몇 명 모여 플래카드도 그냥 손으로 벌려 쥐고 데모에 돌입하여 단숨에 동대문까지 달려가 대열을 다시 정돈하여 질서 있게 시위를 계속하였다. 출근과 등교로 포도를 메우고 있던 수많은 군중의 박수갈채와 환호는 데모대에게 더욱 큰 힘을 던져 주었다.

종로 5가에 이르러 경찰의 첫 저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때 경찰은 지나가는 오물차 한 대를 붙잡아 가로 세우고 백차 2~3대로 저지선을 친 후 방망이를 뽑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 데모대를 따라 나온 몇 명의 교사 중에 있던 김주영이 개인행동을 취하다가는 더 얻어맞기 쉬울뿐더러 많은 학생이 거사에 실패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개인행동은 하지 말고 앉아라! 앉아라! 앉아라! 멍쳐 앉아라!' 하고 소리 질렀다. 학생들은 경찰 저지선에 육박하여 백차를 떠밀고 경찰망을 뚫으려 하자 경찰은 머리고 얼굴이고 분별없이 방망이 세례를 퍼부었다.

차를 밀어 버린 후 저지선을 뚫고 종로 4가로 우르르 밀려가자 급거 동원된 경찰이 트럭에 실려 왔다.

아무리 내리라고 야단쳐도 머뭇거리리는 경찰을 보고 화가 난 경찰 간부가 트럭에 올라 욕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르자, 할 수 없이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미 데모대는 함성을 지르며 그곳을 빠져 버린 후였고 그리하여 데모대는 곧장 화신 앞까지 내달리기 시작했다.

제1차 저지선에서 많은 학생들이 붙잡히고 부상을 당하여 수가 줄어든 데모대는 두 번째 저지선에 부딪쳤다.

화신 앞에서는 백차가 와서 가로막고 트럭을 타고 온 무술 경관 60명이 우루루 몰려 내려 학생들 뒤쪽에서 가운데로 뚫어가며 사정없이 방망이로 내리쳤다. 수가 적은 학생들은 포위되어 많은 부상자를 내고 붙잡혀 연행을 당하였다.

제2진의 데모대는 주로 교문에서 저지를 받아 참가 못한 학생들과 늦게 등교하여 연락을 못 받아 머뭇거리던 학생, 그리고 운동장 구석진 곳에 산재해 있던 300여 명으로 급거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제1진이 데모에 돌입한 후 얼마 안 되어 9시경 뒷문과

담을 타고 넘어 데모대에 나섰다. 스크럼을 짜고 구호와 합성을 지르며 종로 5가에 다달았다.

제1진의 데모대가 5가 4가 사이에서 제지를 받는 통에 제1진과 합류하지 못하고 두 동강이 되자 제2진은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합류하고자 종로 5가에서 서울대학교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이라 아직 웅성대기만 하고 있던 문리과 대학과 의과대학 학생들은 “대광 파이팅”하면서 박수와 합성으로 격려해 주었다.

데모대는 계속 전진하여 아직 잠잠한 동성고등학교에 데모의 불길을 지르고 혜화동 로터리에 방어선을 친 경찰의 완강한 저지에 부닥치게 되었다.

이때 경찰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살인 경찰로 변하여 달려오는 학생들을 막고자 백차를 앞세우고 돌진해 오면서 차로 받아넘기며 무차별 난타를 자행하였다. 제2진의 데모대는 많은 부상자를 내고 경찰에 붙들려 지리멸렬되었다.

교사들의 권유로 교실에 들어온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은 다시 대열을 정돈하여 스크럼을 짜고 제3진의 데모대로 나섰다. 동대문까지 달려갔으나 인원은 적고 경찰의 방어선은 점점 강해져 가기 때문에 고대생과 합류할 셈으로 다시 고대 쪽으로 달리다가 안암교에서 경찰 방어선과 부딪혀 그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본교와 안암교 로터리 사이 대로에 그대로 주저앉아 고려대학교 데모대가 나오길 기다렸다.

연좌가 계속될 때 교장 이창로가 와서 귀교를 권유하였다. 한편 고대까지 연락 간 학생이 있었으나 고대 데모대가 나타나지 않아 많은 학생이 붙잡혀 가고 부상자를 낸 제3진의 데모대는 일단 귀교하였다.

이날 대광 건인들의 데모가 도화선이 되어 서울대학교에서도 시위의 대오를 갖추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산하 각 단과대학생 약 만 명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오전 10시 반까지에는 종로를 걸쳐 국회의사당에 도달하였다. 연이어 고대, 연대, 성대, 동대, 중대, 건대, 국민대, 경기대 등 데모 학생들은 시민들의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삼시간에 서울 시내를 덮었고 태평로와 세종로는 데모대의 물결에 완전히 덮이고 말았다. 서울 전역에서의 파상적인 데모로 경찰의 방어선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처럼 서울 시내가 데모대에 의하여 압도되었을 무렵 데모에 나가 경찰의 저지로 지리멸렬됐던 학생들은 경찰에 붙잡혀

연행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하나 둘 귀교하여 거의 전원이 모이게 되었다.

학생 보호를 위해 데모 행렬을 뒤따랐던 많은 교사 중 김승우는 잡혀가는 학생의 이름과 실어가는 차량의 번호를 적었다. 교사 이동범, 김규영은 학생을 때리는 경찰에게 항의하여 매를 맞고 많은 학생과 함께 경찰에 붙잡혀 연행되었다.

학생 점검을 끝낸 학교 당국은 붙잡혀 간 학생과 교사 석방에 힘을 쓰게 되었고, 교장 이창로는 동대문 경찰서에 달려가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창로가 동대문 경찰서에 들어서자 눈이 뒤집힌 경찰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느냐?”고 팔을 붙잡고 흔들면서 힐난하며 창피를 주었으나 결국 교사 이동범과 30여 명의 학생을 석방하였다. 한편 생활지도 주임 송성찬은 안암동 파출소로 달려가 17명을 데려 내왔다.

초지를 관철하지 못했다는 유감과 전교를 통한 거사를 못 한 울분에 전교생은 다시 한번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갖추고 행진할 것을 상의하고 학교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때 오후 1시 정각을 기해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학생들의 주장은 굽혀지지 않으므로 교사들도 행동할 터이니 질서정연한 행동으로 오전에 보여준 좋은 인상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자는 약속으로 고교생 전원이 제4차 데모에 나서게 되었다.

이때 교목 황광은이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이니 한번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떠나자’고 하며 데모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가호가 전교 학생들에게 깃들게 해 달라고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를 하였다. 데모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부형, 교사,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뜨거운 눈물로 옷깃을 적시었고 박수로 데모대를 환송하였던 것이다.

이때 ‘내 자식이거든 살 생각 말고 죽어도 한번 해 보아라’, ‘차라리 죽을망정 힘껏 해 보고 돌아오라’는 등 말로 격려하는 어머니들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방울방울 맺혔던 이슬은 뛰어가는 데모대의 함성과 함께 두 줄기 물이 되어 온 얼굴을 적시는 광경을 빚어냈다. 이번 데모는 오전의 경험을 살려 건장한 운동선수들이 앞장을 서고 주먹이 든든한 학생들이 좌우 옆줄과 맨 뒤에서 외곽을 이루어 경찰 공격에 대비하고 8열 종대로 1,000여 명의 행렬은 재차 시가를 누비었다. 신설동 로터리를 지나 동대문을 경유하여 종로를 지나 화신 앞에서 방향을 바꾸어 을지로 입구로 해서 미국 대사관 앞을 지나 시청 앞 광장에 도달하였다. 이때 국회의사당 앞은 연좌데모 학생으로 가득히 차 있었고 덕수궁과 시청 앞은 군중으로 짙게 메어져 있었다.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 앞에서 데모 중 경찰 발포로 학살된 학생들의 옷과 시체를 실은 지프차가 시청 앞을 향해 질주해 오고 있었다. 본교 데모대가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대한문 앞을 지나 남대문에 이르렀을 때 서울신문사에서 요란한 폭음과 함께 멩게멩게 검은 구름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때 고교 데모대는 시 경찰국 앞을 통과하여 한국은행을 지나 을지로 입구로 다시 돌아와 내무부 앞으로 향하려다 거기서 농성하는 군중으로 인하여 청계초등학교 뒷길로 하여 청계천 길을 돌아 을지로에 들어섰다. 질서정연한 대오를 유지하여 계속 구호를 부르짖으면서 을지로 6가에서 동대문에 다 달아 학교에 돌아왔다. 학교에 남아 있던 교직원들의 갈채 속에 귀교한 데모대는 교정에 정렬하여 교목 황광은의 기도 후 무기 휴교 전달을 받고 해산 귀가하였다.

### ③ 부상자와 연행된 학생들

4·19 데모 때 서울에서 많은 중·고, 대학생(145명)이 경찰에 의해 학살되었으나 4·19 날 데모의 불길을 지른 본교생은 다행히 학살당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붙잡혀 감당 못할 매를 얻어맞고 중경상을 당하였다.

이날 본교 제1진의 데모대가 종로 5가와 4가 사이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뚫으려다가 많은 학생이 부상을 당하고 30여 명이 동대문 경찰서에 붙잡혀 갔다. 이때 종로 5가에서 붙잡힌 고3 박예정 등이 동대문경찰서에 들어서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너희들이 뭘 안다고 데모를 하느냐?’ 등 폭설을 퍼부으며 그 많은 경찰들이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닥치는 대로 치고 발길로 걷어차 반죽음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나 2층 취조실에 있던 경찰들은 비교적 신사적이었다. 학생들이 응급 치료를 받고 진술서를 쓰고 있을 때 앞서 데모대를 따라나섰던 교사 이동범이 부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붙잡혀 왔다. 이 광경을 본 학생들이 흥분하여 왈각 눈물을 흘리며 일어서자 경찰은 이동범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제1진의 데모대가 화신 앞에서 무술경관 60여 명에게 사정없이 얻어맞아 지리멸렬될 때 고3 이문길, 김재영 등 20여 명이 종로 1가 파출소에 붙잡혀 연행되었다. 이곳에서도 역시 어른마져 감당하지 못할 모진 매를 맞았다. 화신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을 때 무술경관의 잔학한 난타에 흥분한 학생 하나가 달려들어 보기 좋게 펀치를 먹이기도 하였다. 방망이를 놓쳐서 굴러가는 것을 집으려는 경찰을 속 후련하게 발로 힘껏 걷어차고 비켜

난 고3 이문길은 사방에서 들어오는 방망이 물매에 귀 쪽이 절반이나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고 붙잡혀 연행되었다. 이때 교사 김주영이 ‘학생을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저 선생 놈부터 때려라’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 방망이로 얻어맞아 코가 찢기고 6명의 학생과 함께 거꾸로 실리면서 방망이로 다리를 얻어맞아 까무러질 지경이었다. 이 광경을 목도한 교감 박동엽이 ‘저 사람은 우리 학교 선생으로 데모를 제지하려고 나왔는데 왜 때리느냐?’고 하니 젊은 경관 한 명이 50여 세가 넘는 박동엽 교감의 뺨을 후려갈겼다. 이때 곧 박동엽은 개교 당시 본교 공민 강사를 지낸 적이 있는 검찰청 검사 오제도에게 달려가 진상을 이야기하고 평화적인 데모에 잔인한 폭행을 가함이 웬 말이나고 항의하자 오제도는 곧 시경찰국에 전화로 그 시정을 명령하였다. 이문길의 찢어진 귀에서 계속 흘러내리는 피는 목불인건이었다. 병원에 보내 달라해도 어느 경찰 하나 눈도 깜짝 아니하였다.

이때 종로 1가 파출소는 잡혀 온 본교생들로 꽉 차 있었다. 부상을 당하고 잡혀 온 교사 김주영이 잘 아는 경사 한 사람을 만나 슬그머니 뒷문으로 빼워서 이문길을 자동차에 태워 백병원에 입원시켰다. 진찰을 끝마친 의사는 ‘귀가 찢어진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귀가 제자리에 붙을는지 의문이고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수술을 받은 이문길이 밖의 소식이 궁금하여 입원도 고사하고 학교로 돌아왔다.

생활지도주임 송성찬은 종로 1가 파출소에 붙잡혀 있던 학생들을 찾아내어 트럭으로 인솔 귀교하였다. 경찰은 하도 많은 학생이 붙들려 와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 쉽게 내놓은 것이다.

제2진의 데모대도 혜화동 로터리에서 많은 부상자를 내고 여러 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데모대를 저지하고자 잔인하게 백차를 몰고 나오며 받아넘겼던 것이다. 맨 처음 고1 김형욱이 받히어 쓰러졌다.

닥치는 대로 두드려 패는 경찰에게 교사 이동범이 ‘평화로운 데모에 어째서 폭력으로 대하느냐?’고 항의하자 3명의 경관이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한 명은 바로 등 뒤에서 후두부를 난타하여 전치 2주간의 부상을 입히고 붙잡힌 많은 학생과 함께 트럭에 실은 후 동대문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김형욱은 질주해 오는 백차에 받치는 통에 까무러쳐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졌



다. 경찰 곤봉 난무의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온 친구의 부축으로 겨우 일어나 몇 발자국 걸은 후에야 겨우 의식을 회복하였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부축을 받으며 길 옆 사진관으로 뛰어 들어갔으나 불안스러워 2층으로 올라가려 할 때 2층에서 내려온 주인이 ‘저피, 저피!’ 하고 소리 지르면서 데리고 올라가 응급 치료를 하였으나 옷은 갈기갈기 찢기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리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며 살이 일그러졌는데 손목에 찬 시계는 간 곳이 없었다. 그러나 사진관 주인과 몰려 있던 동네 사람들이 모두 격려해 주는 바람에 아픈 줄도 몰랐다.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다리를 이끌고 곁에 있는 병원으로 갔을 때 의사는 자리에 없었고 간호원은 응급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미안해하면서 어디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만 하였다.

붕대만 얻어가지고 남의 집 뜰에 숨어서 상처를 싸매고 삼선교 어느 병원에 들어가서야 수술을 받고 열두 군데나 꿰매었다.

제3진 데모대에서는 붙잡혀 연행된 학생 수요는 많았으나 다행히 심한 부상자는 나지 않았다.

1, 2, 3진에서 경찰에 붙들렸던 교사와 학생들을 교장 이창로가 동대문경찰서에서 찾아 내오고 생활지도주임 송성찬이 안암지서에서 찾아 내온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교감 박동엽은 중부경찰서로 가서 고3 장일형 등 7~8명의 학생들을 찾아 내왔다. 이때 중부경찰서 형사들이 ‘이 자식아! 네가 교감이냐?’고 하며 제멋대로 욕을 퍼붓고 달려들어 무력행사까지 할 기세였고 그런가 하면 데모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운운의 훈계를 하고서야 학생들을 내놓았다.

민중의 의분이 불을 뿜던 이날 형사들은 학교로 달려들어 선생들의 학생 선동 여부와 학교 동정을 살펴 갔고 동대문 경찰서와 시 교육감, 심지어 구청에서까지 전화로 문책과 호통을 퍼부어댔다. ‘평소에 안전하던 대광이 왜 이러느냐’고 4월 19일 저녁까지 학생 3명이 행방불명이었다. 정기원, 김홍, 조승호가 경찰 백차에 실려 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나 행방이 묘연하였다.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 당국도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하루 밤을 드새고 20일 교목 황광은과 생활지도주임 송성찬이 행방불명된 학생들을 찾기 위해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현 우석대학교 부속병원)을 비롯하여 연세대 부속병원, 대학병원을 두루 돌아다니며 부상당한 환자는 물론 시체실에서 시체까지 일일이 점검하였으나 본교생은 없었다. 그런데 본교 졸업생이자 서울 문리대 철학과에 재학

중인 정학철이 서울대학 데모대 행렬에서 붙잡혀 서대문 경찰서로 끌려가 죽도록 얻어맞고 나오는 길에 유치장에 있는 대광 학생들을 보고 학교로 연락해 주어 그제야 저들의 소식을 알게 된 학교 당국은 즉시 달려가 정기원, 김홍 두 학생을 찾아내었다. 하나 조승호의 행방은 역시 묘연하였다. 19일 계엄령이 선포되자 국군이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고 20일에는 점차 질서가 회복되었으나, 경찰은 대광 모표를 보기만 하여도 복수심에 사로 잡혀 시내에 나온 우리 학생을 무조건 붙들었다. 잡힐 때마다 무조건 구타와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렸다. 그래서 20일 저녁부터 21일 아침까지 가정으로부터 학교에 연락된 행방불명자는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휴교 중이나 계속 출근한 담임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소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가정을 방문하고, 부상당한 학생을 위문하고 실종 경위를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다.

21일에 본교 졸업생인 연세대학교 재학생 이욱, 고원섭이 4·19날 데모로 남대문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풀려나오면서 조승호가 그곳에 유치되어 있더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 모교에 연락해 주어 학교 당국의 진력으로 구해냈다. 거리에서 연행된 학생들은 하루 밤 고생하고 난 뒤 모두 집으로 되돌아왔다. 이때 경찰서 안은 데모 때 붙잡힌 학생들로 꽉 차서 유치장이 없어 처치 곤란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조서를 받은 후 대부분 돌려보냈던 것이다. 후일 밝혀진 일이지만 중1 정해운이 4·19 데모 때 의정부까지 밀려갔다가 다시 고대 뒷산에 몰려와 국군에게 포위된 데모 군중 속에 휩쓸려 궁둥이에 총탄을 맞은 일이 있었다.

#### ④ 휴교 중에 된 일(4월 20~5월 1일)

마산사건 이래 이승만이 해야 성명을 발표한 4월 26일까지 전국의 희생자는 185명(서울 145명)이었고 부상자 수는 1,696명에 달하였다.

이때 본교 고등학교 재학생 조길성 외 2명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구호금품 모집 운동에 나섰다. 구호함에 동포애라고 쓰고 <모금>이란 완장을 팔에 달고 4월 23일~25일 3일간에 걸쳐 버스과 다방, 극장 음식점 및 기타 각 곳을 다니며 147,460환을 모아 한국일보사에 기탁하고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계엄령으로 휴교 중일 때 교직원은 계속 출근하였고 각 반 담임교사는 교실 환경을 미화하는 여유를 보여주는 한편 학생들을 맞을 준비에 바빴다. 뿐만 아니라 종래에 없던 숙직제도도

마련하였는데 이제는 통금시간 연장으로 근거리 교사들만 수고를 하기도 하였다.

당국의 개학 발표와 함께 본교에서는 4·19와 대광을 결부시키는 표어를 교사들로 부터 모집하였다. 수많은 교사들의 표어 중 교목 황광은의 〈대광은 황소, 받을 때는 썩 받고, 받고 나선 풀밭에서 꼴을 먹는다〉가 뽑혀 당선 작품의 영광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 표어는 대광의 정신과 기질을 대변해 주는 구호로 전해오는 터이다.

### ⑤ 4·19 1주년 기념

1961년 4월 19일에 서울운동장에서 4·19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본교는 학교 운동장에서 기념식만 거행하고 수업은 없었으며, 고3 각반에서 16명씩 선출된 75명이 교감 박동엽 인솔로 서울운동장 기념식에 참가하였다.

4·19 의거 때 선두를 선 본교생의 의기를 높이 평가한 당국의 배려에 따라 고3 방현기는 고등학교 대표로 조사를 낭독하였고, 저녁에 대통령 윤보선이 초대하는 만찬회에 참가하였다. 기념식이 끝난 후 교명에 의한 가나다순으로 시가행진에 들어갔는데 본교 학생들만은 이런 순열에 관계 없이 선두에 서라는 연락을 받았다. 본교는 데모의 선두를 나섬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사양하고 타교와 똑같이 가나다 순서에 의한 시가행진에 참가하였다.

발췌: 대광 9호(p389~p407), 1967.

## 2. 대광뉴스, 대광교지 및 총동창회 회보에 나타난 4·19

### 대광 뉴스 제35호

발행일 1960년 5월 20일

1. 四·一九 학생의거와 대광학원의 위치 / 이창로
2. 민주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햇불 밝힌 4·19 / 편집자
3. 4·19 혁명의 불길을 올리던 날 / 좌담회
4. 4·19와 그 뒷날 주은 얘기 / 편집실
5. <시> 돌아오지 않는 형님 / 김정중
6. <시> 조국의 뉘, 4·19 영령들에게 / 김재명
7. 부상자를 위한 가두 모두 모금 수기 / 조길성

#### ●●●1. 학생의거와 대광학원의 위치

이창로 <학교장>

4·19 학생 의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생운동 사상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양심적으로 살 수 있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정의는 마침내 승리하고야 만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했고, 또한 부정과 부패로 쓰러져 가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는 국가로 소생케 하였다. 이 얼마나 위대한 거사였느냐! 이와 같은 역사적인 학생 의거에 우리 대광이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그날에 있어서 선봉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 대광의 영광이요 대광 발전사 상에 획기적인 계기라 생각하여 기뻐 마지않는다.

과연 이날의 대광 건아들의 모습은 늠름하고 용감스러웠다. 그렇게도 패기가 없다고들 하던 대광의 아들들이 불의와 부정과 불법 앞에 감연히 나설 때에 그렇게도 용맹하였던가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오전 오후에 걸친 철저하고도 질서 정연한 데모를 끝내고 학교에 돌아와 교문을 나서 집으로 돌아가던 제군들의 모습은 비록 포악한 경관들에게 얻어맞고 얼굴과 팔다리에 부상을 입고 피곤할 대로 피곤하였지만 모두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다. 개선장군의 모습 그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도 제군들을 보호하는 일에 동분서주하시면서 진력을 다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비록 어려운 하루를 지내시느라고 뇌심하였지만 쓸만한 제자들을 가졌다는 긍지와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이와 같은 학생에 이와 같은 교사들을 대광은 가졌다는 생각을 할 때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이 있는 지 한 달이 된 오늘 대광학원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없게 조용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대광은 황소, 받을 때는 썩 받고, 받고 나면 풀밭에서 풀을 먹는다.」라는 우리들의 표어 그대로 대광의 아들들은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날의 할 일을 위하여 배우는 일과 몸을 연단하는 일에 전심하는 모습은 과연 대광다운 일이라고 모두를 치하하고 있는 형편이다.

나는 이러한 치하와 칭찬을 여러 방면 사람들에게서 받을 때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인지 무거워지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과연 우리 대광이 그러한 치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며 또한 우리 대광이 끝까지 이러한 영광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고 웃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비록 대광은 그 역사는 짧지만 그 개교 당초부터 의와 사랑에 입각한 기독교 정신 밑에서 참된 애국자와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을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왔다. 그리하여 「경천애인」이라는 대교훈 밑에 애국적이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시해오던 중에 특별히 금년부터는 사회정의와 사회봉사를 강조하는 교육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대광은 벌써부터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자타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며, 일반 과학교육을 통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판단력을 가지는 지성인 도야에 힘쓰며 자치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생활 방법을 터득케 하며 노작교육을 통하여 무실역행하는 사회봉사인을 함양하는 것을 그 교육 방침으로 하여왔기 때문에 대광의 아들들이 이번 의거에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각 학원이 분규와 분란으로 동요되고 있으나 대광학원은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 계속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19 학생의거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취될 제2공화국 탄생의 계기를 마련해 놓았다. 우

리의 참된 민주주의 국가는 학생의 힘으로 되게 되었고 또 되어나가도록 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인격함양과 시민 훈련의 터전이 되는 우리 학원은 진정한 민주사회의 축도인 민주학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학원에서 훈련받고 민주주의가 생활화된 우리 역군들이 민주사회에 나갈 때 진정한 민주국가 사회가 형성된다고 본다.

대광은 그러한 민주학원이 되어야 할 것을 대광학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학부형들과 그 외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민주학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는 것을 언젠가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나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처럼 남의 인격을 존중하기를 힘쓰며 남에게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보다 각자의 양심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율정신 밑에서 자치 생활에 힘쓰며, 각자의 맡은 바 의무와 직무에 대하여 강한 책임감을 가지는 동시에 남과 협조 협동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민주학원을 이룩하여 나가야 하겠다. 이리하여 대광은 참된 민주학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선봉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1960. 5. 19>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 : 8>

### ●●●2. 민주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햇불 밝힌 4·19

정의에 불타는 젊은이들의 불끈 쥔 주먹과 외침은 확실히 총칼보다도 힘 있고 무서운 것이었다.

어느 누가 감히, 화산의 분화구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약동하는 생명과 울분에 넘쳐 솟구치는 것을 막아낼 자 있었으랴! 20세기에서도 후반을 넘어선 오늘날, 주권을 도로 찾았다는 조국의 수도 서울 장안의 거리는 확실히 빛을 찾을 수 없는 암흑의 거리였다. 10여 년 고스란히 나라를 섬겨온 민중은 그저 우매하고 무지각한 딱지를 부쳐 어떤 법에도 굴복시킬 수 있는 오합지중으로 다루고 귀도 눈도 입도 다 막아야 편안히 살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진정 암흑의 거리가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그러나 이 겨레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견디었다. 그리고 피끓는 젊은 세대는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기에 4·19의 날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조국의 광채나는 하루가 된 것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을 우러러 섬기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대광의 아들들은 건디다 못한 황소처럼 뿔을 곧추 세우고 드디어 일어난 것이다.

4월 19일 아침 8시 30분 이슬에 씻긴 눈부신 태양을 머리에 이고 암흑에 휩싸인 서울 거리를 향하여 민주혁명의 횃불을 올린 것이다.

제1진은 그냥 줄달음질 쳐 단숨에 동대문에까지 달려갔다. 거기서 스크럼을 짜고 주먹을 휘두르며 “정부는 마산사건을 책임져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 “3·15 협잡 선거를 물리치고 다시 선거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

드디어 종로 5가에서 경찰 제1진과 마주쳤다. 거리거리에 민중들은 환호 소리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반면 감장 제복의 순경들은 나이 어린 학생들 머리 위에 곤봉의 세례를 사정없이 내려 퍼부었다.

쓰러지고, 백차에 실려 가고 백차를 떠밀고 서로 떠받고, 드디어 어둠의 첫 방과제는 터져 버렸다.

종로 5가 4가 또 종로 네거리, 방망이 끈들의 수비진은 묵묵히 지켜서 노도와 같이 몰려가는 학생들을 칼같이 찢어 피로 물들이면서 막아내려고 단말마의 발악을 다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1·2학년의 제2진이 또다시 출발하였다.

그들은 종로 5가에서 꺾여 서울대학교 앞으로 달려갔다.

머뭇거리고 있는 서울 문리과 대학, 의과대학 정문 앞에서 함성을 올려 잠잠하던 거리에 다시 한번 불길을 질렀다. 연달아 동성고등학교 앞에서 다시 함성을 올렸다.

혜화동 로터리에서 막아선 경찰들에게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까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백절불굴의 제3진이 또다시 교정을 출발하여 4·19 아침 서울 복판 암흑의 거리에 대광으로 혈로를 뚫어 놓은 것이다 드디어 모든 상급 대학생들이 뒤로 이어 아우성치며 쏟아져 나오자 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민중의 거리가 되어버렸다.

대광! 글자 그대로 나라에 빛이 되고 겨레 앞에 큰 빛을 나타낸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거리거리의 시민들은 대광의 건아들을 향하여 발을 동동 구르며 환호성을 올렸고 새로 부임하신 황광은 목사님은 이런 표어까지 지어 주셨다.

### ●●3. 4·19 혁명의 불길을 올리던 날 우리는 선봉에서 이렇게 싸웠다

《좌담회》      때 : 1960년 5월 7일 하오 3시~5시

                  곳 : 본교 고등학교 24호실

〈 참석자 〉

이동범 선생님	최영일 선생님	김주영 선생님	김승우 선생님
백진호	김형옥	김충삼	배극일
(사회) 박중신	(기자) 고원석	박예정	이춘식

#### 1) 데모의 선봉에 서게 된 동기

사회 : 4·19 데모의 선봉에서 과감하게 싸우신 형님들과 여러 벗들이, 여기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앉아 그날의 빛나는 우리의 업적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볼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뉴우스 편집반”에서는 그날의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생생한 기록으로 그날을 엮어 두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가리움 없이 그날의 모든 면을 자세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4·19 데모를 앞장서서 하게 된 그 동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웅 군 : 우리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솔선해서 데모를 계획하게 된 동기는 그 원인<sup>遠因</sup>과 근인<sup>近因</sup>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정부와 자유당이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야만정책을 오랫동안 강요하여 우리 학생들의 의분심을 계속적으로 자극시켜 왔다는 데 그 원인<sup>遠因</sup>이 있고 가까이 3·15 부정선거와 그 불의에 항거하는 “마산”지구 학생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 특히는 김주열 군에 대한 극악무도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하여 저희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기회를 엿보다가 “고려대학”생들의 18일의 봉기를 보고 우리도 봉기하게 됐어요.

박예정 군 : 선생님들의 평소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힌트(暗示)를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그 하고 싶은 말씀을 못다 하시고 늘 딱해하시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겐 외로웠던 선생님들의 간접적인 그 말씀이 언제나 가슴 뭉클하게 맺혔고 의분에 넘친 폭발을 은근히 바라고 계신 것 같기도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 용기를 얻은 바도 있지요.

이문길 군 : 고3 학생들 공부 못한다고 늘 압력을 받아 왔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또한 나의 동기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 2) 4·19 데모의 계획

사회 : 그러면 그 데모를 감행하려는 계획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웠던가요?

이문길 군 : 4월 18일 저녁 고려대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돌아오다가 캉패들에게 습격당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오는 그 광경을 보고, 곧 몇 친구들이 모여 동대문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가서 19일 아침 일찍이 서둘러 데모에 돌입하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박웅균 군 : 데모 시간을 처음엔 점심시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으나 그보다는 아침 다른 학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감행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도 뒤따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자극을 주자는 데 합의가 됐어요.

방정웅 군 : 그래서 아침 8시 15분에 선생님들의 조회가 시작되니까 그 틈을 타서 저희들은 일제히 뛰어나오도록 각 반에 책임자를 배정하고 또 학생회장 선거 운동을 방해 삼아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이도록 하려고 계획했어요.

배극일 군 : 수위 아저씨께서 눈치채지 않게 하느라고 규율부를 정문에 세워서 더러는 학생들의 규율 단속 복장 검사 같은 것을 하는 척하면서 교문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중 각 학급에 통솔자와 비밀리 약속을 전달했지요.

사회 : 그날 아침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데모의 계획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는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범 선생님 : 운동장에 모인 것을 보고 대개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그 전날 고대 학생들의 데모도 있었고 하여 심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주영 선생님 : 아침 출근할 때 교문에 모인 몇 학생들의 움직임은 보고 눈치챘어요. 나의 오해인지는 몰라도 우리 학교 출신인 고려 대학교 학생의 모습도 눈에 띄었고 그래서 무슨 계획이 마련되고 있구나하는 제 육감이랄까?

김충삼 군 : 그 고려 대학생은 데모 건으로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 전날 데모를 하고 집에

를 가지 못했기 땀에 자기 집에 연락을 부탁하러 잠깐 다녀갔을 뿐이에요.

최영일 선생님 : 그러니까 외부와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군그래.

이문길 군 : 네, 우린 외부와는 전혀 연락 없이 다만 우리가 먼저 일어나 다른 학교 학생들을 선동하자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어요.

박웅균 군 : 혹시 선생님들의 만류로 데모의 계획이 좌절될까봐 직원 조희시 직원실의 문을 잠가버리려고도 했었는데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최영일 선생님 : 직원조희야 직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회의 장소를 옮기니까 그 계획이 실현되기엔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그 플래카드 같은 건 언제 만들었나?

이문길 군 : 동대문 친구 집이 양조장이라서 거기엔 밀가루 포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밀가루 포대로 플래카드를 만들자고 가방 속에다가 저마다 두서너 장씩 집어 넣고 왔어요. 아직 그 친구 집에선 모릅니다. 이제라도 사과를 해야 하겠어요. 그리고 글을 쓴 건 미술반 학생들이예요.

최영일 선생님 : 그 플래카드에 쓴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문길 군 : “마산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책임을 져라” “3·15 부정선거 다시 하자” “경찰은 학원에 간섭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 3) 시가<sup>市街</sup>에서 데모하던 그때의 형편

사회 : 그러면 다음에 시가에서 데모 도중에 있었던 일, 또는 그때의 심경을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영 군 : 계획이 실패될까 봐 매우 초조했는데 교문을 뚫고 나가고 보니 참으로 통쾌했어요. 더욱이 시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데는 아주 신이 났어요.

최영일 선생님 : 그런데 그 교문은 누가 제일 먼저 열었나?

배극일 군 : 수위 아저씨께서 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그 책임을 맡은 학생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팔다리를 잡고 늘어질 학생까지 마련돼 있었지요.

이문길 군 : 그 후에 안 일이지만 수위 아저씨께서는 18일 저녁부터 벌써 눈치채고 있었대요. 그러나 학교 당국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19일 아침에도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아니하고 그저 빗장만 찢러 놓았었거든요.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박웅균 군 : 그러니까 쉽게 제가 먼저 교문을 선두에서 열었지요.

박예정 군 : 교문을 무사히 통과한 우리 데모대 약 300명 <제1진>은 마구 달려 동대문을 무사히 통과 종로 5가에 이르러 비로소 경찰의 제지를 받게 되었는데 먼저 경찰은 똥차 한 대와 백차 몇 대로 우리의 행진을 가로막고 곤봉으로 후려갈기기 시작했어요.

이문길 군 : 그때 언제 따라오셨는지 김주영 선생님께서 “개인행동을 취하지 말고 주저앉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 전우 스크럼을 짜고, 가로막고 있는 경찰 백차를 떠밀고 저지망을 뚫고 계속 의사당 앞을 목표로 달렸는데 종로5가 저지선에서 붙잡혀 간 학생들도 꽤 많았어요.

박예정 군 : 전, 종로 5가에서 동대문서에 끌려갔는데 서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순경들이 번갈아 마구 발길로 차는 바람에 혼났어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데모를 하느냐?”고 하며 그 많은 순경들이 한 번씩 다 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2층 취조실에 있는 경찰들은 아주 신사적이었어요. 상처를 응급 치료하고 진술서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동범 선생님께서 부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 들어오셨어요. 학생들이 막 흥분하여 일어서니까 이동범 선생님을 얼른 밖으로 데려 나가셨는데 그때 정말 눈물이 저절로 왈각 솟더군요.

김재영 군 : 저는 종로 화신 앞에서 끌려갔는데 순경들은 인정도 사정도 없었어요. 정신없이 얻어맞고 있는데 그때 김주영 선생님이 부상을 입고 끌려 들어오시더군요. 그때 종로 1가 파출소에 연행됐던 학생은 20명 가량이었는데 이문길 군은 한쪽 귀가 떨어져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보내 달라고 하여도 순경들은 마이동풍 격이었지요.

김주영 선생님 : 다행히 그때 내가 아는 경사 한 사람이 있다가 슬그머니 후문으로 빼 줘서 이문길 군을 자동차에 태워 백병원에 데려다 입원시켰어요.

사회 : 김주영 선생님은 어디에서 부상을 당하셨습니까?

김주영 선생님 : 종로 5가의 경찰 저지망을 뚫고 의사당 쪽으로 향하는 학생들을 따라 화신 앞에 이르렀을 때 경찰 백차가 앞으로 와서 가로막고 뒤로 트럭에 실어 온 5~60명의 무술 경찰들이 우루루 내리더니 학생들 뒷면에서 중앙을 뚫고 들어가며 방망이로 막 내리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때리느냐?”고 덤벼들었더니 “저 선생 놈부터 때려라”라는 소리와 함께

방망이로 얻어맞아 코가 찢기고 5, 6명이 경찰에 붙들리어 백차에 거꾸로 실렸는데 그때 방망이로 다리를 또 얻어맞았어요. 그만 정신이 아찔했어요. 아마 교감선생님께서도 그때 뺨을 얻어맞았을 거예요.

백극일 군 : 고등학교 학생들이 데모하러 나간 후의 중학생들의 동태는 어떠하였습니까?

김승우 선생님 : 나도 그날 교문을 박차고 나간 학생들의 뒤를 따라가며 도중에서 경찰에 붙잡혀 가는 학생들의 이름과 자동차 넘버를 적으면서 화신 앞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강제 해산당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학교에 돌아왔는데 그때 중학생들은 몹시 동요하고 있었어요. 데모하러 나가겠다고 소리소리 지르며, 떠드는 바람에 수업은 전혀 하지 못하고, 각 홈·룸 담임선생님들이 그들을 무마시키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학부형들도 많이 찾아와서 근심스런 얼굴로 떼를 지어 계셨지요.

사회 : 그럼 다음에 교문에서 저지당하였다가 다시 뛰어나간 제2진 데모대에 참가하셨던 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백진호 군 : 교문에서 저지 당한 건 주로 고1, 고2 학생들이었는데 약 30분 동안 머뭇거리다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말리시는 것 같지 않아 뒷문 쪽으로 몰려가서 뒷문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담을 뛰어넘은 학생은 모두 300명 가량이었는데 우린 스크럼을 짜고 동대문 쪽으로 향하여 종로 5가로 돌아 서울대학생들과 합류코자 서울 문리대 앞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곳에 모여 있었던 학생들은 “대광 파이팅”을 외치며 성원을 해줬습니다. 우린 계속 동성 고등학교 학생들을 합류시키고자 혜화동 쪽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혜화동 로터리에 이르러 경찰의 완강한 저지를 받아 곤봉으로 마구 두드려 맞고 20여 명이 짐짝 실리우듯 트럭에 실리어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되었는데 거기에서 이동범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대광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때의 감상은 마치 일제시대 독립투사가 감옥에서 동지를 만나는 거나 다름없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어쨌든 감개무량했습니다.

사회 : 이동범 선생님께서 한 마디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동범 선생님 : 늘 자유당 정부의 부패성을 지탄하면서도 선봉에 서서 항거하지 못한 것을 나 자신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요. 역시 우린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 행동 면에 제약을 많이 받는군요.

김승우 선생님 :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번 혁명의 선봉에 서서 싸우

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부정과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왔다는데서 그 책임을 충실히 다했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가 생산교육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 자신이 솔선 팽이나 샅을 들고 생산을 수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생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일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평소부터 오늘의 혁명을 쟁취할 수 있는 학생들의 정신을 길러왔던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동범 선생님 : 글썄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도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적이어야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최영일 선생님 : 이 선생님은 행동파니까 그렇죠 <일동 웃음>

이문길 군 : 사실 우리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한 무엇보다도 떳떳하게 생각하는 점이 그거예요. 지금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평소에 늘 정의에 입각한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참 떳떳해요.

사회 : 그럼 다음엔 제3진에 참가했던 고원석 형께서 말씀해 주세요.

고원석 군 : 선생님들의 제지를 받고 교실에 들어가 있으려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 지요. 선생님이 잠깐 나간 사이에 교실을 뛰쳐나와 정문 담을 뛰어넘어 동대문 방면으로 달려갔으나 우리 적은 수의 학생으로서는 경찰의 완강한 저지선을 뚫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합세할 셈으로 되돌아 안암동 쪽으로 향했는데, 안암교에서 또 경찰의 제지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 주저앉아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좀체 나오지를 않아 교장선생님 인솔 하에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우리 도저히 그대로 가라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4차 전교생의 데모를 강력히 주장한 거예요

최영일 선생님 : 글썄 그때 내무부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온 참이었는데 우리 학교를 선두로 각 대학이 쏟아져 나오니까 순경들은 다 없어지고 길이 자유롭게 활짝 열려서 이만큼 혈투에 공을 세웠으면 또다시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한마디 했더니, 고1 측에서 아주 완강히 반대한 것이 그 때문이었군.

이문길 군 : 우리 시내에서 너무 지쳤기 때문에 다시 서두를 기력도 사실 없었어요. 그러나 고1 학생들은 아직 못다 이룬 분이 풀리지 않아 그래서 오후의 전교생 데모가 다시 감행

된 거예요, 특히 이날 선생님들이 전부 따라 나가셔서 끝까지 보호의 책임을 다하여 주신 데는 진심으로 감격했어요.

사회 : 다음엔 이번 4·19 본교 학생 의거 시에 가장 심한 부상을 입으셨던 김형옥 형께서 감상을 좀 말씀해 주시죠.

김형옥 군 :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불러내려고 달려가다가 혜화동 로터리에서 경찰 백차가 달려와 받아넘기는 통에 그냥 쓰러졌는데 그땐 전혀 상처를 의식하지 못했어요. 엎드려져서 깜박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 무엇이 머리를 마구 밟고 넘어가는 듯해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친구들이 부축해서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서 도망쳐 옆에 있는 사진관에 뛰어 들어갔는데 사진관 주인이 급히 보더니 피가 흐른다고 하면서 데리고 올라가 응급치료를 하여 주었어요. 그때 내 다리를 보니 나도 차마 보기 끔찍하게 뼈가 보일 정도로 다리의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갔고 손목에 찻던 시계도 간 데 없었어요. <웃음> 그러나 그 사진관 주인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모두 격려하여 주는 바람에 아픈 줄도 몰랐어요. <웃음>

사회 : 다음은 이문길 형께서 말씀하시죠.

이문길 군 : 종로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방망이를 주우려는 순경을 차버리고 도망치려던 찰나에 <웃음> 경찰에 포위당하여 사정없이 방망이로 얻어맞는데 그때 귀가 한쪽 떨어져 나갔어요. 김주영 선생님께서 백병원에 입원시켜 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 되어서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귀가 제자리에 붙을런지는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어지간히 처량했어요. 그리고는 입원한 채 가만히 있어야겠다는데 수술 시간도 지루해서 참지 못할 지경이었고 바깥소식이 궁금해서 그냥 누워있을 수가 있어요. 수술이 끝나자 그냥 거리에 뛰어나오고 싶어서 도저히 입원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또 뛰쳐나와 친구들과 학교로 오다가 3가에서 최 선생님을 만났지요.

사회 : 그럼 이제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해서 이만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4·19와 그 뒷날 주은 얘기

편집실

“엄마 데모가 뭐예요?”

중학교 일학년 꼬마등이가 등교하자마자 찬송 책을 들고 아침 첫 시간 강당에서 예배 보는 줄만 알고 운동장에 나와 섰었는데 고등학교 형님들이 새까맣게 멩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루루 대문 밖으로 쏟아져 나가니까 얼겁 곁에 문밖에서 무슨 일이 난 줄만 알고 함께 휩쓸려 나갔다.

그냥 줄달음박질치는 고등학교 형님들 사이에서 “내가 떨어질까 보냐”는 듯이 주먹을 쥐고 모자도 못 쓴 채 그냥 따라갔다. 손에는 그냥 찬송가를 든 채로, 할딱할딱 가쁜 숨을 내쉬면서, 그런데 동대문 지나서는 모두 스크럼을 짜 가지고 행진인데 꼬마가 대체 어디로 끼어들어 가야 될른지 몰라 두리번거리다가 옆으로 비켜서서 황새걸음 따르는 병아리처럼 재빠르게 그냥 따라가고 있었다.

길가에 섰던 시민들이 모두 박수를 보내니까 자기도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걸까?

종로 5가에서 순경들과 만나 공기가 험악해졌는데 그만 놀라서 눈이 동글해졌던 꼬마는 길옆에 나와 섰는 자기 엄마를 발견하였다.

“엄마 우리 학교서 저렇게 데모를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 데모가 뭐예요?”라고 묻더라는 것이다.

종로 4가에서 종로 5가에 늘어난 경찰 포위망을 뚫고 일로 국회의사당을 향하여 질풍같이 구호를 외치며 돌진하는데 제일 방어선이 무너지자 동대문 경찰서는 급작스럽게 순경을 동원하여 트럭으로 4가에까지 실어 왔다.

학생들은 한차례 얻어맞고 실랑이를 쳤으니까 모자를 잃고 옷자락이 터져서도 개의치 않고 앞으로 앞으로 그냥 성낸 물결같이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자 트럭에 실려 온 소위 민중의 방망이단은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이 살아 있었던지 차에서 내릴 생각은 않고 명칭하니 서서 이 행렬을 바라고만 있더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시위에 늘어난 군중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올리니까 자연 겁도 집어먹을 수밖에.

그런데 뚱뚱한 무궁화짜리가 한 놈 기어오르더니 순경들을 마구 휘더듬어 쫓아 내리더라는 것이다.

어서 바빠 저 대광 학생들을 다듬이질하듯 하라고.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데모 행렬은 종로 4가를 벌써 지나 파고다 공원 앞까지 갔었다고 유명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

### “살 생각 말고 죽어도 한번 해 보아라”

제1진 2진 3진으로 서울 거리에 혈로를 개척하고 모두 돌아온 학생들은 다시 한번 점호를 끝내고 나서 고등학교 전체적인 질서정연한 데모를 다시 감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사실 보람 있고 사내다운 대광의 가치를 드높이 휘날렸는데 재삼 또 나간다는 것이 어떤가? 무법천지가 되고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된 시가지를 볼 때에 어쩐지 폭풍전야의 고요 같은 무시무시한 적막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주저 없이 또 한 번 일어서고야 말았다.

선생님들은 일말의 불안감이 떠돌아 마음이 석연치 않았으나, 그러나 학생들의 의기를 끝까지 살려낼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바로 이때 황 광은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하고 떠나자”고 크게 외치셨다. 더러는 앉고 더러는 서고 흥분에 넘친 학생들 한편 구석에서는 픽픽 웃는 소리도 났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나이 어린 학생들마저 일어나 외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게 된 기막힌 조국의 형편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는 학생들이 모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할 바에는 질서 정연하게 아침에 열어놓은 우리 공적을 더럽히지 않게 해보자고 굳게 약속하고 학생 직원 일동이 운동장을 출발하였다.

그때에는 학교로 달려온 학부형들도 여러분이 한자리에 서 계셨다. 같이 기도했고 같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들이 걱정스러워 달려왔던 한 어머니가 줄지어 나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주먹을 불끈 쥐시며 외치시는 말씀이 —

“내 자식이거든 살 생각 말고 죽어도 한번 해보아라”고. 그 어머니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번쩍이고 있었다.



## 과일 과자가 산더미 같이.

여기는 비상계엄하의 서울특별시를 떠나 부산으로 향해 달리는 급행열차 — 그 중에도 이등 차간 —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혼자서 외롭게 공부하며 지내던 김형욱 군이 4·19 날 최선두에서 돌진해 나가던 중 혜화동 로터리에서 그냥 무지스럽게 밀고 들어오는 백차에 떠받쳐 무르팍이 마구 찢겨서 열두 군데나 께매이고 누워 있었는데 이 급보를 받은 대전에 계신 형욱 군의 고모님이 허둥지둥 올라오셔서 지금 대전으로 데리고 내려가는 중이었다.

붕대를 칭칭 감은 다리를 비스듬히 올려 고이고, 교모도 못 쓴 채 남방셔츠로 가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 20일 날은 대광 모표를 보기만 해도 불꽃이 튀었던지 거리에 나왔던 수십명 시내 대광 학생들이 어제 데모를 감행했다는 복수심에서 순경들에게 무조건 붙들려가 행패를 당했던 때문이다.

그러나 찻간 안의 손님들은 젊은 학생의 부상을 보자 곤장 의거 사건에 관련된 학생이었던 것을 직감했던 모양이다.

어디서 다쳤느냐? 총에 맞지 않았느냐? 어느 학교 학생이냐? — 길고 지루한 기차여행에 별로 말하기를 원치 않은 고모님이었으나 결국은 한입 두입 건너가 여러 사람이 대광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야 말았다.

“아! 대광학교 학생들 참 용감했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동대문시장에 나갔다가 나도 본걸요.”

일이 이쯤 되고 보니 형욱 군도 속이 근질거려 입을 다물고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궁금한 눈초리로 주시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한바탕 그 데모하던 광경을 대담하게 신이 나서 설명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곁에 아주머니가 따끈따끈한 온기가 있는 달걀을 한 줌 꺼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이것 변변찮지만 먹어보라고 억지로 맡기는 걸 시작으로 하여 그 찻간 안의 손님들이 죄다 비스킷이다 초콜릿이다 과일이다 그냥 통째로 형욱 군 자리로 들고 모여서 정말 나중에는 먹을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처치하기에 땀을 뺐다는 것이다.

“아! 겨레의 마음은 살아 있구나”

외롭던 형욱 군은 더욱 마음 든든한 자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 잃어버린 학생들을 찾아서

데모의 뒤를 따라서 달려가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실어 가는 자동차번호를 적고 학생들의 이름을 살피고 했으나 나중에는 경찰서로 직접 돌입하는 수밖에 없이 되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은 검찰청으로 달려가시고 또 송 장로님은 안암동 파출소로 달려가 당장 17명을 데려 내왔고, 동대문 경찰서로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달려가셨다. 동대문서에 들어서자 눈이 뒤집힌 경찰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느냐고 교장 선생님의 팔을 붙잡고 흔들며 힐난해 왔으나 결국 30여 명 학생들과 또 이동범 선생님을 모두 석방해 주었다.

그러나 19일 저녁까지 세 명의 행방불명자를 그냥 찾지 못했다. 분명 백차에 싣는 걸 보았으나 어디로 데려갔는지 정기원, 김 홍, 조승호 —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무척 걱정스런 하룻밤을 드셨다.

10일 아침 황 목사님과 송 장로님은 수도의대 부속병원을 비롯하여 적십자, 서울대학, 세브란스 병원을 차례 찾아 시체까지도 일일이 찾아다녀 보시었다. 그러나 시체 중에도 우리 학생들은 없었다.

그런데 판매부에 있는 우리 학교 졸업생 정학철 군이 서울대학 데모 일행에서 서대문 경찰서로 끌려가 죽신하게 얻어맞고 나오는 길에 대광학생들이 유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연락을 받은 학교에서는 서대문서로 직행하였다. 거기서 정기원, 김 홍, 두 명을 찾아 내왔다. 그러나 조승호 군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했다. 그런데 이날(20일) 저녁과 다음 21일 아침까지 또 10여 명 행방불명자가 각 가정에서 전화로 보고해 들어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거리에서 흰빛 바탕의 대광 모표를 보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경찰들이 끌어다 보복을 했던 것이다.

재작년 졸업생 허 철군은 고대 선두에서 갈빗대가 부러져 백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고 같은 졸업생으로 연세대에 있는 이 욱, 고원성 군이 같은 날 데모에서 남대문서에 연행돼 있었는데 거기서 조승호 군이 유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와 연락해 주어서 사흘 만에 최후의 한 사람도 무사히 구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거리에서 연행되었던 학생들도 하룻밤 묵어 다 집으로 돌아왔다.

4·19 혈투의 날, 민주주의 조국의 모습을 바로 세워 보자는 의분이 불을 뿜던 날 형사들은

학교로 달려들어 선생님들의 동정만 올빼미처럼 살피고 있었고 경찰서와 시 교육감, 심지어는 구청에서까지 평소에 안전하던 대광이 왜 이러느냐고 전화로 문책이 연달아 왔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필귀정<sup>事必歸正</sup>으로 의는 드디어 승리했다. 그날에 만약 억압에 눌리고 탄압되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기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후의 생명을 내걸고 돌격할 기세가 말 없는 침묵 속에서도 대광가족 전체의 마음속에 어리어 드는 듯 싶었다.

●●●5. 돌아오지 않는 형님

김정중〈중1-5〉

젊디젊은 어린 심장이  
잇달아 깨어지고  
그칠 줄 모르는 핏줄이  
마구 이끌어 붙던 날  
  
4·19 데모의 앞장을 서던  
형님은 영영 돌아오질 않네요

하루하루 날이 저물고  
달이 바뀌어도  
가시지 않는 그날의 기억에  
엄마의 주름살은 늘고  
아빠의 시름이 날고 겨운데도  
  
피를 뿌리며 자유를 외치던  
그날의 형님은  
상기 돌아오질 않네요.

이제 말끔히 앗아간  
독재의 터전에  
민주의 새싹이 트고

자유와 해방의 푸른 깃발이  
훨훨 휘날리는데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  
마구 불길을 올리던  
그날의 형님은  
정녕 돌아오지 않네요

자유와 해방의 푸른 깃발이  
동녘 하늘은 아침 햇살이 밝아오고  
이제 천지가 모두 우리의 것인데도  
  
독재를 향하여 자유를 달라고  
소리 소리 지르던  
그날의 형님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머언 산 메아리되어  
되살아 이우는  
그날의 외침에  
저녁놀이 빨개지는 마을

●●●6. 조국의 녀, 4·19 영령들에게

김재명〈중2-1〉

4월의 하늘 밑  
먼지 쌓인 뽀얀 아스팔트 위에  
한 줄기 붉은 피는 조히 흘렀어라  
  
목 놓아 바라던 일  
손꼽아 기다리던 날  
  
그러나 나는 보았다  
때아닌 포수 앞에 쫓기우는  
민주주의의 씨앗들  
  
아름다운 꽃송이는 겹겹이 떨어지고  
붉은 저녁놀 위에 질어가는 울음소리  
  
아아 정녕 자유의 용사들은 갔고나  
  
원한의 거리거리에  
사무쳐 이우는 피 방울방울  
밤이 가고 어둠이 새면  
너는 길이 남을 조국의 녀  
  
4월의 하늘 밑  
휘몰아 씻기운 아스팔트 위에  
붉게 돌아난 민주주의의 싹  
아아 너의 이름은 온전히 살았어라

### ●●●7. 부상자를 위한 가두 모금 수기

조길성 <대광고 15회>

4월 23일 오후 2시 우리는 위문금을 모으기로 결정하고 양키시장에 가서 맥주박스를 하나 사다가 하얀 모조지로 바르고 앞에다 『구호함』이라 쓴 다음 위문금을 넣는 구멍 위에 『동포애』라 쓰고 익평 군과 문성 군과 함께 이화동에서 서울역행 버스를 타고 처녀 가두모금을 나섰다. 막상 딱치고 보니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고 얼굴은 까닭 없이 확확 달아오르는데 더군다나 버스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뿐, 운전수는 흥미 없다는 듯 크리치와 크락손을 누르고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차리고 혼자 용단을 내어 그중 말쑥하게 차리고 의젓이 앉아 계신 40대 신사분 앞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부탁합니다’라는 적은 소리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그 신사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백 환짜리 지폐 한 장을 시집가는 새색씨 처럼 얇전히 넣어 주셨다. 얼떨결에 나는 ‘고맙습니다’ 하고 그 옆에 앉아 계신 분께 또 ... 이렇게 하여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는 버스 안에 모든 사람 앞을 거쳤고 그들은 주머니를 아낌없이 털어주셨다. 결국 이렇게 하여 우리 꼬마들의 모금 운동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4월 23일부터 시작하여 25일까지 3일 동안 모금을 했고 그 모은 돈을 중학동에 있는 한국일보사에 가져다가 부상당한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 3일 동안에 우리 일행이 모은 돈은 모두 147,460환이었다. 3일 동안 거리에서 살던 생활에서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

- ◆ 첫날 대한극장 앞 삼복정이라는 음식점에서 어떤 어여쁜 여자와 식사를 하러 오셨다가 우리 일행을 만나자 위문금을 넣어 주시던 본교 S선생님.
- ◆ 을지로 2가에서 땀투성이로 직접 모은 돈 200환을 두 손으로 넣어 주던 담배팔이 소년과 50환을 넣으며 ‘수고하십니다’ 하시던 때 묻은 구두담이 소년의 그 조그마한 손.
- ◆ 남대문에서 고추장을 파시는 할머니께서 ‘우리 아들도 서울대학 다니다 군대에 갔는데 우리 아들 생각을 해서 낸다’ 하시던 할머니의 주름 잡힌 손.
- ◆ 수도극장 건너편 한의사께서 박 교감님 안부와 대광학생들 소식을 물으시며 1,000환을 넣어주시던 일.
- ◆ 예장동에서 10환짜리를 들고 뛰어와 ‘10환도 되나요?’ 하며 넣던 꼬마 동이의 조갑지갈

이 작은 손길.

- ◆ 상공장려관 옆 음식점 아주머니께서 2,000환을 넣어주시며 ‘수고들 하누만 밥들이나 먹고 가지’ 하시던 아주머님의 인자하신 그 얼굴.
- ◆ 수도극장 건너편 신천지 다방에서 영화배우 남춘역씨와 최성호씨가 주머니를 털어주시던 일
- ◆ 특히 이틀 동안이나 대한극장 안에 들어가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신 대한극장 기도주임 선생님의 모습.  
이런 일을 당했을 때의 기쁨과 감사함이란 오직 직접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며
- ◆ 을지로 황X다방에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신사가 수두룩한 500환짜리 지폐 속에서 고생 끝에 10환짜리를 겨우 한 장 골라주던 일
- ◆ 서울에서 손꼽는 대한극장 앞에 삼X정이라는 음식점 주인께서 가득한 돈 상자 속에서 100환을 주시던 가늠한(?) 손.

이것 역시 직접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뇌꿀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었다.

## 대광 뉴우스 제36호

발행일 1960년 6월 20일

학원 민주화에 선행되어야 할 일들 / 박중신

### ... 학원 민주화에 선행되어야 할 일들

박중신 <고2>

#### 1) 4·19 혁명과 우리의 각오

지금 우리 조국은 세계 전체 인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일대 변혁기에 처해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에 반영된 비민주주의적인 불미한 탈을 벗고 앞으로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할 때다. 그리고 세계 여러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대명사를 다름 아닌 그들의 입으로부터 불리워지게 하여야 할 때다. 이런 중대한 숨가쁜 역사적인 순간에 즈음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4월 혁명에 잇따른 학원 내의 분규, 심지어는 학교와 학교간의 집단 패싸움, 이런 어처구니없는 여러 가지 사건은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을 것이다. 아무리 스승이 비교육자라 할지라도 배척함과 같은 일은 배움만을 아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으며, 스승이라고 불리워졌던 그들의 입으로부터 돌변한 언사가 터져 나온 사실은 진정 우리의 젊은 시절의 하나의 오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 대광의 형제들은 4월 혁명의 정신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기는 우리는 4월 혁명의 앞장이었다. 까닭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학원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민주학원 건설에 매진하는 학도로서 최선의 방안을 확립해왔고 현재 또한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시정되어야 하고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일이 많다. 오직 4월 혁명의 앞장이었다는 이유만을 갖고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런 행동이 우리 학원에서 계속된다면 이 중대한 시



기에 있어서 이 얼마나 가탄해야 할 일이겠는가? 우리는 4월 혁명의 고귀한 영광을 남용하지 말고 이런 영예를 좀 더 우리 학원의 발전에, 더 나가서는 우리의 가정과 국가로 향해 우리의 빛나는 젊음을 불태워야 할 것으로 본다.

## 2) 학교와 나와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가꾸자

한 가정이 온화한 분위기와 사랑 속에서 가족 전체의 안락한 안식처로 이룩하는 요소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가 있지 않으면 한 가정은 행복할 수 없으며 결국은 가정의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원이 좀 더 민주화되어 타교예의 모범이 되려면 앞에서 말한 가정의 경우처럼 우리들 모두가 학원을 하나의 가정으로 또 우리들은 가정의 한 일원으로 학교에 대한 애착심과 스승에 대한 존경, 그리고 상·하급생과의 우애, 여러 면으로 학교를 알고 자기 각자의 마음으로 학교와 나와의 중대한 관계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정에 떨어진 한 조각의 휴지를 줍는, 또는 열린 변소의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적은 행동이지만 우리 모두가 행한다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학교가 될 것인가, 우리는 하루의 수업을 통해 만족한 생활을 영위해 왔을까? 비품의 남용, 책상위의 흠점, 친구들 사이에 사용되는 비어, 나가서는 선생님에게 대한 도가 넘는 행동 등 모든 것이 우리의 본분을 망각한 지나친 행위라고 한다면 이를 자신 있게 반대할 사람이 그 몇이나 될까? 우리의 학원이 참으로 민주화되려면 자기의 위치를 알며 서로의 인격을 돕고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의 무장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겠다.

## 3)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갖자

나를 떠난 학교 또는 학교를 떠난 내가 있을 수 없느니만큼 학교의 모든 조직과 움직임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가 없다고 본다. 가령 학생과의 여러 가지 모임이 개인의 독단에만 치우치지 말고 학생이 바라는 목적을 충실히 전할 수 있는 모임, 우리의 자치활동을 좀 더 기를 수 있으며 우리가 직접 시범할 수 있는 특별활동과 집회시간, 우리는 이 모든 조직체 속에서 좀 더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넓게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만일 이런 모든 행사에 각자가 등한시하며 '나하나 썸이야'식이 된다면 우리는 진정 우리 학원의 일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4월 혁명의 체험을 거울삼아 모든

조직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쏠려져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각종 행사를 위한 헌신적 정신을 가져야 하며 우리는 진정 학교를 떠난 “나”가 되지 말아야 하겠다.

## 대광 뉴우스 제40호

발행일 1961년 2월 25일

1. <시> 4월의 사자들에게 / 최영일
2. 4월의 성난 사자들에게 / 김용석
3. 오직 이 땅의 양심이 돼라 / 이창린

### ●●●1. 4월의 사자들에게

+ 제13회 졸업생들에게 부쳐 +

최영일 <국어과 선생님>

양지를 그리워하던 너희들이 벌써 이렇게 자라났구나  
호랑인지 늑대무리인지 구별 지을 수도 없이  
덤불 속에 싸여 덩굴던 복숭 강아지 같던 너희들이,  
제법 어금니를 부드득 갈며 노여움의 불꽃을 털끝까지 세우고  
불길 타오르는 네 눈을 부릅뜰 때에는 떡갈나무들도  
사지를 푸르르 떨게 만드는 드디어 젊음이 너희 가슴속에 깃들었구나

그렇다, 4월의 숲속에서 너희들이 그 날카로운 발톱을  
털 밖으로 세우지 않고, 인왕산이 메아리 지게 한 번 우짖기만 했어도  
양순한 토끼 다람쥐 새끼들만 못살게 뒤쫓던  
오소리, 여우, 능구리, 이리떼들이 모두 자취를 감추어 버리지 않았더냐!

안개와 어둠이 가시어가는 골짜기에서, 사자들이 일어나거라.  
젊은 피가 용솟음치는 그 억센 다리로 불끈 솟은

저 앞의 봉우리들을 단숨에 정복해 버리고 싶지 않으나.  
 이글거리는 4월의 태양이 어깨를 간지리는데, 아직도 평화로워야 할  
 저 들판에는 약한 것들의 생명을 노리는 잔인한  
 눈초리가 그물을 쳤으니 너희 분노의 갈기를 세워  
 다시 한번 산이 무너질 만큼 우짖어 보지 않으려느냐!

## ●●2. 4월의 성난 사자들에게

+ 졸업생들에게 부치는 글 +

김용석<역사 담당, 고 3-1 담임>

철학자 박종홍 선생은 4·19 정신을 규정지어 설명하기를 실존의 내면적 의지인 정의감과 당시의 객관적 정세가 알맞게 부합하여 그 내면적인 정의감이 맹목적이긴 하지만 객관과 맞아 들어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요, 합리와 비합리가 부딪쳐 열매맺은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일은 서구라와 어느 기성사상이나 체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4월 혁명이 값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간단하게 말하면 객관적인 과학이 바르게 조절되고 내면적인 것과 합치한다는 희망의 실례를 4·19혁명이 똑똑하게 제시해 주었다는 말인데,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듯 싶어서 다시 덧붙여 말해 두거니와 현대 철학의 과제인 실존과 과학이 서로 통하는 <길>의 모색이 4·19혁명의 실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는 말이다.

인간이 만든 기계를 인간이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계가 인간을 조절하게 되는 오늘의 비극 속에서도 실존과 과학, 합리와 불합리의 통하는 <길>을 4·19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한 4·19의 역사적인 순간 증인의 앞장을 섰던 대광의 성난 사자들이 교문을 나서는 마당에 주고 싶은 말은 기성세대는 현실의 고달픔 속에서도 과거의 낭만을 그리며, 미래의 이상을 구상도 해 보지만 십대의 신세대들은 미래의 이상을 그려볼 만한 아무런 밑받침도 없다는 점, 다만 현재에 있을 뿐인데 그 현실조차 질식 상태에 있다는 것 ... 여기서 젊은 세대들은 발버둥치며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현실만으로써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드는 그 행동이 과연 어떠한 행동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기 바라 마지않는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절박한 〈인간성〉에서 표현되는 행동, 이념의 뒷받침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동 ... 이것은 이념과 행동의 대결,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반목에서 조화에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현재라는 흐름 속에서 이 순간도 엄숙한 삶에서 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믿는 가운데서 세대를 초월한 인간과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인 새 시대의 새 윤리는 형성 되는 것이고 이것이 뒷받침이 되어 일어나는 진실한 신생활 운동의 선봉자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양심을 팔아먹은 기성세대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진실한 것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화평한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신의 검으로 그리스도의 완전무장을 갖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교훈을 높이 들고 새시대 창조에 총진군하는 큰 빛의 아들들 위에 무한한 광영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 ●●3. 오직 이 땅의 양심이 돼라

이창린〈과학 담당, 고 3-3 담임〉

영예로운 졸업에는 노고의 가시가 숨어 있음을 알고 진정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조용한 축하를 드린다. 특히 종교 교육을 받은 기독교생이야말로 이 나라의 자랑이며 나라와 교회의 양심이며 보배인 것이다. 우리가 즐거이 항상 암송하는 「나라이 임하소서」는 제군들의 생활 꽃대이며 하늘의 거룩한 뜻인 것이다. 제군들은 자유인인 동시에 완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는 교육받은 자로서 동녘의 햇살을 기다리는 조국을 위해 누구보다도 선두에 나서야 되며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의 양심과 소금의 직분을 과감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시궁창에서 피는 한 떨기 장미를 고운 옥토로 옮겨 심고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자가 제군들이며 교회의 생명을 불어 넣어 암흑과 절망 속에서 메마른 이 나라에 참다운 그리스도교 문화를 건설하며 그 선구자가 되어야 할 사람도 제군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군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혹은 진학을 하거나 실사회에 나아가든 여러분 앞에는 피와 땀과 역경이 있음을 잘 알 것이다. 제군들은 건설의 수고를 최대 가치로 인정하고 봉사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어 보라. 작은 한 마리 개미의 수고가 얼마나 그들의 공동생활

에 있어서 이바지하는가를 알 때 제군들 하나하나는 이 나라의 피며 또한 기둥인 것이다. 제군이 걸어가는 길에는 가시밭을 지나가듯 어려움이 많은 것이고 유혹이 많은 것이다. 4·19의 햇불을 밝혀 계곡을 휘몰아 올려온 그대들의 함성은 진정 하늘의 뜻을 받들어 어둠을 밝혔다. 어둠으로 가리어진 더러운 것들을 보았을 때 제군들은 무엇을 느꼈는가? 더러운 오물로 쌓인 사회를 미화시킬 군들은 봉사의 정신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는 식자도 많이 있거니와 영리하고 피 있는 자도 많다. 그러나 봉사의 정신을 가진 자들은 극히 드물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군들은 과연 어떤 생활의 궤도를 세우려 하는가? 육 년간 혹은 삼 년간 그대들은 대광교육의 참다운 모습을 찾고 무한히 발견하기를 노력했으리라.

섬기는 생활은 민주주의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거니와 교회를 통하여 사회의 빛이 되기에도 불가결한 것이다. 섬기는 생활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의 태세를 군들은 가지고 있는가? 봉사의 정신과 생활은 곧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다. 사랑의 사람, 봉사의 사람, 하늘의 뜻을 받들어 생활할 수 있는 이 땅의 양심이 되어 주기 바란다.

## 대광 뉴우스 제45호

발행일 1962년 4월 19일

1. <권두시> 타오르는 촛불 / 홍세봉
2. 우리의 주장 / 고동진
3. 4월 혁명 두 돌을 맞으면서 / 박동엽
4. 4·19의거와 우리 학교의 교풍을 중심으로 / 좌담회
5. 4·19 아침의 혈로를 더듬어 / 민영하

### ●●1. <권두시> 타오르는 촛불

+ 4·19 두 돌을 맞이하여 +

홍세봉 <중 2-3>

용솟음치는 붉은 피  
설레이는 젊은 피가  
붉게 붉게 타올랐습니다.  
멀리 성난 외침이 들리고,  
진홍빛 선혈이 유리 집 앞  
길을 빨강계  
물들였습니다.  
해가 가고, 또 한 해, 해  
는 바뀌어도  
우리 마음 위에 항시 밝은  
민족의 선열,  
당신의 기억이 지금 되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김없이  
우리들의 마음 밭에 피었습니다.  
당신의 피로 되새긴  
4월의 광장에  
재건의 함마 소리 드높고,

소리 따라 피어오르는  
아아, 4월의 꽃,  
4월의 태양,

당신을 기억하는  
피의 촛불이 지금  
한창 타오르고 있습니다.

## ●●2. 우리의 주장

고동진 <고3>

대광학원의 뚜렷하고 칭찬할 만한 전통을 하나만 들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는 후련한 대답이 없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 학원을 아껴 주는 친구와 학생들에게서 우리 학교에 대한 비판을 적지 아니 들어왔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들의 평은 한가지로 “대광학교 학생들은 불량꾼들이 많지 않아 좋지만 너무 맥들이 없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학교의 학생이 이렇다 할 뚜렷한 전통의 생활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신체를 남보다 힘껏 단련해서 운동경기에 나가 크게 싸워 이기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대학 진학률에 있어 다른 학교에 크게 앞장을 서 보지도 못했다. 단 한 가지 궁지가 있었다면 기독교 학생답게 은후하고 겸손하였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흔히 “사기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사소한 일에 남과 견줄 수 없을 만큼 겸손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1960년의 4월 19일 아침의 우리의 단호하고 용감한 의거 행동은 4월 혁명 정신과 우리 학교 전통의 문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 대광학생들의 겸손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널리 알렸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고하신 그리스도의 간곡한 말씀을 따라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앞장을 섰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겸허하는 가운데서 남다르게 강한 정의감을 키워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정신은 곧 우리의 교풍, 우리 학생의 생활 전통으로 확립돼야 할 것이다.

참된 교육이 반드시 대학 진학률에만 좌우된다는 논법은 있을 수 없다. 누구보다도 적은 일에 올바르게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 것이 우리의 배움의 완성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단 불의에 항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나 올바르게 판단하고 나면 누구보다 앞장을 서서 본을 보이며 스스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일, 이러한 것 모두가 대광 학생들이 가져야 할 앞으로의 생활 기풍이라고 생각된다.

4월 혁명 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때의 감상과 감격만을 되씹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완전히 우리의 어김없는 생활 전통으로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하다고 보는 바이다.

### ●●●3. 4월 혁명 두 돌을 맞으면서

박동엽 <학교장>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는 주님의 간곡한 요청은 4·19 아침의 대광 학생들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모름지기 이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기독교적 사명감을 새로이 깨닫게 한 역사적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광의 학생들은 이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의 학풍으로 만드는 것이 4월 혁명의 역사적 사명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따사로운 봄별이 이 땅에 찾아 들면 또 거기에 기억해야 할 벽찬 4월 학생혁명, 우리들 영혼 속에서 도사린다.

어디에서 배운 함성이 그렇게도 메아리처럼 온통 이 땅을 진동시켰으며 그토록 짙은 피를 마구 길에 물들였던가, 양팔에서 떨어진 흰 책들 위에 뿌려진 핏 무늬들을 밟으며 태양을 향해

화산처럼 뻗치던 그들의 두 주먹을 정의의 기수로 내세웠던 그 아우성의 4월이다. 형과 동생이 스승과 제자가, 너와 내가 부르짖을 수 있었던 민주주의의 합창이 눈물의 박수갈채를 받던 그날, 눈부신 햇살이 봄 하늘에 떠올거리던 화창한 계절의 연한 잔디에 누운 유순한 황소 대광의 녀들이 터질 듯한 혈관처럼 충천하는 의분과 걱정을 안고 광장을 향해 교문을 떨치고 터져 나가던 4월 19일, 그 아침이 두 해를 살아왔다.

오늘로 두 돌을 맞이하는 이 4월 혁명은 우리나라에 있어 단 한 번뿐이었고 그것 역시 학생혁명이란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역사적 의의가 자못 클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월 혁명으로 인한 한국의 정세나 그 당시의 국제정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정치적 의의도 관심할 만한 문제이다. 그러나 4월 학생혁명이 주는 사적 고찰이나 정치적 연구는 우리 밖의 전문학자들에게 속한 과제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4월 혁명이 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대광의 녀들이 이룬 기독교적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간곡한 요청이 이 혁명을 통해서 대광에 의하여 성취됐다는 사실이다.

잠깐 2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4월 19일 아침 8시 15분 예전처럼 수업 예령이 요란스럽게 울리는 순간부터 역사에 빛날 대광 건인들의 성사는 시작됐다. 이미 규율부원으로 가장한 두세 명의 혁명 동지들이 정문에서 각 급반 대표에게 지시한 대로 예령이 울리자 운동장에 집결됐다. 고3, 고2 들이 거의 동원될 무렵 간부들이 계획했던 직원회의 장소를 열쇠로 잠가 버리려던 것이 실현되지 못했으므로 이미 직원회의는 끝나고 선생님들이 나오고 있었다. 이미 쏟아 놓은 물이라 고3을 선두로 한 무리들은 성난 사자처럼 정문으로 몰려나갔다. 이미 준비된 밀가루 포대로 만든 플래카드를 양팔에 들고 힘찬 구호를 외치는 삼백여 명의 행렬은 단숨에 동대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찬연히 아침 햇살이 무리의 등에서 빛나고 있었다. 출근, 등교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첫 데모 행렬인 대광을 향해 박수갈채로 사기를 북돋우어 주었다. 국회의사당을 목표로 한 것이 종로 5가에서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다. 사복 경찰들이 주먹, 무릎, 구둑발로 맞고, 붙들리며 해서, 다시 밀고 나아가 4가에 이르자 트럭에 실어 온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의 충돌에서 30여 명이 연행된 후 이문길 군은 귀쪽이 절반 찢어지고 모든 학생들은 방망이 물매를 맞고, 그것을 말리려던 김주영 선생과 나도 매를 맞았다. 김 선생님은 얼굴에 상처까지 입고 끌려갔다.

한편 고2를 중심으로 한 제2진이 이동범 선생을 비롯해서 종로 5가에서 몸서리치는 매와 피를 흘렸다. 그러나 정의를 배우고 사랑을 먹고 사는 대광의 사자들은 이러한 소식을 듣자 고동

학생을 중심으로 제3진이 또 학교를 출발했다. 동대문에서 돌아오고 만 그들을 비롯해서 제1, 2진이 모두 일단 학교에 돌아왔다. 이미 서울 거리는 총성과 아우성이 들끓고 있었고 험한 초조감이 맴돌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본교생들은 다시 전교를 통한 행진을 감행했다. 황 광은 목사님의 “이 나이 어린 학생들마저 정의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조국을 굶어 살피옵소서”라는 간곡한 기도를 올릴 때 자식을 염려해서 찾아온 학부모들까지 뜨거운 눈물을 옷깃에 적시는 것이었다. 걱정에 쌓인 어머니들이었지만 “차라리 죽을지언정 힘껏 싸우고 돌아오라”고 주먹을 쥐고 계셨다. 이리하여 학생과 스승과 학부모의 힘을 합한 제4차 데모 행진은 동대문, 종로백화점, 을지로 입구를 지나 미 대사관 앞을 통해 시청 광장에 이르렀다. 다시 남대문을 지나 을지로 입구로 돌아와 을지로를 향해 아침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이 예리고성을 함락시키던 행렬과 대오처럼 을지로 6가로 동대문을 통해 본 교정에 무사히 돌아와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한 기도를 드린 뒤 이날의 데모는 끝났다.

4월 혁명이 가져온 정치혁명, 사회혁명, 문화혁명, 경제혁명 등과 함께 기독교인에게 이 역사적 사명이 요청되었다. 새로운 사명감이 불타기 시작했다.

각성과 결심을 기독교인에게 제시해주었다. 그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교육적 입장에서 기독교 교육에도 뚜렷하게 혁명이 와야만 했다.

대광은 이 사명의 선구자요, 또 완성자였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서 유유해선 안 된다. 비록 혁명이 4월 19일에 일어났지만, 오히려 혁명은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대광은 혁명 이후 다른 학교처럼 교내가 소란한 일이 없었다. 복도에는 “진정한 애국애족은 건설에 있다.” “대광은 황소, 받을 땀 썩 받고, 받고 나면 풀밭에서 조용히 꼴을 뜯는다.” 이러한 표어가 나붙었다. 이것은 혁명의 시작이다.

그러면 기독교의 사명을 이룩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혁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기독교 교육」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교육실천에 있어 사회과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종교 교육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평가되고, 교육, 인식되던 개념을 떠나 좀 더 영감적이고 구체성 있는 종교 교육을 함으로써 「참다운 인간교육」의 창조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독교교육의 교육자」의 주관적인 혁명이 있어야 한다. 일반 학교의 교육자와는 다른 교육적 태도와 인격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그 무엇을 학생들의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생명

있는 인간을 조성토록 염원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다운 교육의 이상과 목적이 있어도 그것을 갖고 요리하는 교육자 자신의 향상이 필연적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학생의 혁명적인 각오이다. 역사와 세계를 물려받을 학생들 가운데도 기독교 학생의 기독교적 사명을 걸머진 사명감에서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한다.

대광은 이러한 사명을 걸머졌다. 선배들이 쌓은 이 불멸의 탑을 후배 된 여러 학생들은 다듬고 보전해서 길이 빛날 대광의 앞날의 번영을 두 손 모아 빌어야 한다. 혁명의 선두로 나서게 한 대광의 교육, 학생들의 신앙적, 지적, 정신적 판단에 힘을 합한 대광의 선생님들, 그리고 희생과 협동, 형제애와 조국애의 피 끓는 대광의 학생들, 이 모두를 함께 뭉쳐 대광의 걸어 온 길을 이어받아 계승하는 학풍을 만듭으로써 우리 맑은 바에서 4월 학생혁명이 주는 역사적 사명을 받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좌담회〉

●●●4. 4·19의거와 우리 학교의 교풍을 중심으로

〈좌담회〉      때와 곳 : 1962년 4월 14일 하오 1시 중 11호실에서

사회: 민 영하      기록: 김동진·김 휘 동

〈참석자〉

선생님 측 - 김주영 선생님, 김승우 선생님

학 생 측 - 한동일, 김성현, 황길남, 김종일

졸 업 생 - 홍철부

사회 : 4·19 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요즈음 우리 대광 학생들로서는 남다른 감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오늘은 2년 전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그날의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오늘의 생활 위에 되살려 봤으면 하여, 이렇게 모임을 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4·19를 상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1) 4·19 데모에 참가하게 된 동기

김종일 : 그날 아침 일찍 학교 교문을 들어올 때 이문길 형이 우리 몇몇을 불러 우리가 밤을 새워서 오늘 데모할 계획을 세웠으니 잘 순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가할 결심을 했었어요.

김성현 : 아침에 학교에 들어오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기미를 알고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 그럼 그 당시 최고 학년이었던 홍철부 형은 어땠습니까?

홍철부 : 나는 4월 18일 저녁 학교에 늦게까지 있었는데 저녁에 졸업생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데모할 기미를 알아채지 못했는데, 19일 아침 일찍 내가 학교에 왔을 때는 벌써 데모한다는 소리가 확 퍼져 있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뭘 준비부터

했지요.

김주영 선생님 : 솔직히 말해서 그때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대광 학생이 될 하나 하지 못하  
나 하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와아! 하고 교문을 밀려 나가는 학생들  
을 봤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젠 학생들의 신변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학  
생들의 뒤를 따랐지요.

## 2) 4·19 아침의 데모 때 겪은 일들

사회 : 당시 데모 제1진에 참가했던 김종일 군, 데모 때 겪은 일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김종일 : 종로 5가의 경찰 저지선을 간신히 뚫고 종로 화신 앞까지 달렸으나 화신 앞에서  
트럭을 타고 온 순경들의 곤봉 세례를 받고 그만 대열을 잃어 갈광질광하다가 되돌아왔  
습니다.

황길남 : 저는 제2진에 참가했었는데 선생님들의 만류 때문에 망설이다가 뒷담을 넘어 나  
갔습니다. 신설동 로터리에서 약 200명이 정리를 해서 종로 5가를 거쳐 혜화동 로터리에  
이르러 해산당했는데, 나는 그때 순경에게 쫓겨서 무조건 어떤 집 안뜰로 뛰어 들어갔었  
는데 그 집에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면서 더욱 격려해 주는 데는 참으로 눈물을 흘리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승우 선생님 : 김주영 선생님은 그때 어디에서 부상당했어요?

김주영 선생님 : 종로 5가 저지선을 꿰뚫고 학생들을 따라 종로 화신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대열의 뒤에서 갑자기 경찰 백차가 전속력으로 우리 대열 중간을 뚫고 들어와, 곤  
봉으로 학생들을 때리는 순경을 잡고 왜 때리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곤봉으로 내려갈기  
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때 우리 박동엽 교장 선생님께서도 봉변을 당했어요. 분  
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트럭 위에 실어 놓고 곤봉으로 발길로 마구 때리는데 뭐  
별수가 있어야죠. 파출소까지 끌려갔다가 슬그머니 도망쳐 나왔지요.

김성현 : 저는 길남 군과 같이 제2진에 참가했었는데 아침에 집에서 단단히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몹시 망설였습니다만 그러나 내 젊음은 그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혜화동에서  
강제해산 당했지만 진정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 3) 4·19의거 정신과 우리 학교의 교풍

김종일 : 어쨌든 우리 대광의 학생들이 4·19 때 제일 먼저 앞장을 섰다는 것은 큰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앞으로도 이런 불의가 다시 없어야겠지만 만약 또다시 있을 때는 언제나 선봉을 서야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김승우 선생님 : 그건 바로 우리 학교의 교풍이라든가 전통으로 통하는 좋은 생각인데, 사실 나는 4월 혁명정신이야말로 대광의 유일무이한 전통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믿어요. 불의와 부정에 프로테스트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개혁 정신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래야 한다고 믿는데, 여러 학생들의 생각은 지금 어때요?

황길남 : 그러나 우리 학교 학생들은 너무 안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울귀 먹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일종의 혐오를 느끼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김주영 선생님 : 그건 겸손한 황소의 생리를 닮아서 그렇지,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썩하고 받아 치울 거야. (웃음) 왜 그거 있잖아 “대광은 황소, 받을 땐 썩 받고, 받고 나선 조용히 풀을 뜯는다”라는 그 표어 말이야. 정말 이것은 우리 대광의 성격을 잘 나타내었다고 보는데,

김승우 선생님 :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학생들은 각자가 하나의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그러한 긍지를 가졌을 때, 그것은 필경 하나의 교풍 또는 전통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피이” 하고 웃어넘길 것이 아닐 거예요.

한동일 : 그런데, 당사의 4·19 데모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향이 많은가 봐요. 사실 그때의 데모는 별 계획 없이 감행됐거든요.

김승우 선생님 : 별로 계획되지 않은 자연발생적인 데모였다고는 하지만, 조직되고 계획되지 않은 그러한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천여 명 학생이 순식간에 호응하여, 공동보조를 취하게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대광의 교풍이 벌써 뚜렷이 표현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것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평소의 교풍에서 영향 됐기 때문에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감행할 수 있었고 또, 호응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는데요.

김성현 : 그러니까, 4·19의 의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학교의 교풍이 어떠한 것인가

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김종일 : 참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었던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을 전통으로 가꾸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황길남 : 우리 학교의 교훈에도 정의를 목표로 하는 생활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역시 그런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압니다.

민영하 : 김승우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들의 4·19 의거 행위는 우리 대광학교의 생활에서 조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 4·19를 다시 맞는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은 각자가, 우리 학교의 교풍에 대한 긍지와 그에 따라서 제반 생활이 뒷받침하고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은 오늘 이 자리에 당시 우리들 때문에 봉변을 적지 않게 겪으신 박 교장 선생님, 송성찬 선생님, 이동범 선생님을 모실 예정이었습시다만 선생님들 사정에 의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 ●●●5. 〈르뽀르따즈〉 4·19 아침의 혈로를 더듬어

민영하〈고3〉

적막한 시간이었다. 그날 그때도 달빛은 밝았고, 별들은 저마다 슬픔을 지닌 가운데도 한 가닥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나는 별들이 지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으나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는 완전히 그 뜻을 알았다.

4·19의 핏빛 어지러운 길을 열던 아침, 나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아침에 등교하니 이상한 그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더욱이 그날은 조회도 없는 날이요, 조회가 있다 하여도 저마다 조회시간을 싫어하는 우리들인데 그날따라 운동장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이윽고 첫 예령이 울렸다. 이때까지 가만히 서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교문을 박차고 있었다. 학생들의 기미를 알아챈 수위 아저씨의 호의에 의하여 빗장만 질러 놓았던 육중한 교문은 박웅균(당시 고3) 형님에 의하여 활짝 열려졌다. 오전 8시 30분 고3 형님들을 선두로 한 300여 명 제1진은 노도처럼 동대문을 통과했다. 나는 대열을 벗어날세라 기를 쓰고 달렸다.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종로 5가를 달리고 있을 때다. 뒤따라 온 김주영 선생님



의 스크램을 짜라는 황급한 분부가 컷전을 스쳤다.

순간, 갑자기 눈앞에 무엇인지 나타났다. 뚱차와 백차를 동반한 경찰의 제지선이 펼쳐져 있었다. 눈앞에 곤봉이 왔다 갔다 하였다. 백차와 트럭에 짐짝처럼 묶여가는 형님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다. 그러나 그 성벽 같았던 제지선도 드디어 무너졌다. 와아! 환성이 올랐다. 재빨리 제지선을 돌파한 형님들은 벌써 4가 저쪽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겁이 났다. 발길을 돌렸다. 그때 종로 5가의 제지선을 피하여 혜화동 쪽으로 달리는 대광 제2진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허나 나의 발길은 여전히 학교를 향하고 있었다. 신설동 로터리까지 왔다. 그때 뒤늦어 나간 제3진이 동대문까지 달렸다가 경찰의 제지선을 뚫지 못하고,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합세할 생각으로, 안암동 쪽으로 되돌고 있었다. 나도 이측에 또 한 번 끼어 보았다. 허나 안암동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아,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의 권유로 돌아오고 말았다.

많이 뛰었다. 땀 어린 피로가 온 몸을 휘감았다.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아 오후 전교생의 행진 때에는 길을 가다 주저앉을 것 같기도 하였다.

이날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게였다. 집 앞길에는 언니, 오빠를 기다리는 어린 쫄맹이들, 손자를 기다리는 60 노인의 초조한 빛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다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했다. 나도 그때는 이렇듯 어느 누구 못지않게 뛰었으며, 나의 마음속 의사를 쾌히 발표하였던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때 우리의 의거를 나쁜 것으로 몰지 않을 것이며 그때의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 자 없으려면, 그 일이 있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혁명 대열에 참가하였던 자신을 원망도 하려 하였다. 학원에서 진리 탐구에 정진하여야 할 학생들이 너무나 정치에 간섭하려 하는 기미가 나의 비위에 거슬렸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이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너무나 미약한 나였기에 그저 나만의 반성에 그쳤고, 나만이라도 공부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였었다.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것이 기억에 새롭다. 그로부터 어언 2년! 내 마음이 자라고, 내가 컸지만 그날의 나는 아직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불의에 항거하고 싶은 마음, 우리 조국, 우리 강토를 푸지게 가꾸고 싶은 마음, 우리 학교를 더욱 빛내어 보고 싶은 마음,

4·19 그날의 나의 생각에 지금 내가 있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 대광 뉴우스 제52호

발행일 1963년 4월 일

대광은 황소 / 황광은

### ●●대광은 황소

+ 4. 19의 회고와 교훈 +

황광은 목사<교목>

3·1운동 땐 나이 어렸고, 8·15해방은 남의 덕에 춤을 추었지만 4·19혁명은 대광의거  
통에 특특히 혁명 맛을 본 셈이다.

그때 나는 대광에 부임한 지 한 달 남짓한 초년병인 데다가 정신면을 지도한다는 교목의  
입장으로서 생전 처음 당하는 애국적인 움직임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처했던 생각이 지  
금도 안타깝게 느껴진다.

도대체 교문을 뛰어나갈 때까지 학생들이 데모를 하리라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 그  
날 아침에 조회 후에도 교실로는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만 빙빙 도는 고3 중심의 학생들의 동  
태를 이상한 눈초리로 본 것은 나 혼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윽고 제1진은 동대문을 넘어 종로에까지 진출했고, 순식간에 제2진이 혜화동 로터리를 지  
나 서울대학 앞을 줄달음질 치며 혁명의 불씨를 뿌렸던 것이다.

“설마 대광 학생들이 데모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만큼 암전하기로 소문났던 대광 학생들이  
야수와 같이 덤비는 독재의 앞잡이들의 곤봉의 숲과 가죽잡바의 절벽을 뚫고 으르렁대며 달린  
것은 젊은 사자들이란 낱말을 만들기에 꼭 알맞은 모습들이었다.

그래서 머리가 터지고 무릎이 찢어지고 한쪽 귀가 반이나 떨어져 가지고 교문에 들어서던  
이문길 군의 당당하던 모습도 눈에 선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따라나섰던 선생님들의 데모는 한층 더 희생적이었다.

평화적인 데모를 왜 제지하느냐고 순경에 맞서다 붙들려 들어간 선생, 부상당한 학생을 빼어 돌리다가 도리어 얻어맞은 선생, 거기는 교장도 없고 교감도 없었다. 학생들과 동조했다는 점에서 모두 일괄해서 불순분자 취급을 받게 된 셈이다.

그래서 머리를 되게 맞아 실신했던 선생도 있고 코가 찢어져 유혈이 낭자한 선생도 있었으며 교감은 경찰서에서 떡찌름을 해야 했고 교장은 위협지구에 있는 학생들의 귀교를 줄라야 했고, 모두 거룩한 사제애로 수놓은 장면들이었다.

그러나 내가 회상해야 할 것은 제3진의 출동이다.

전 서울 시내가 혁명의 오후를 맞아 수라장이 되어 가는데 과연 다시 데모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직원들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거의 전교생이 교정에 운집하여 교문을 넘거나 그리 높지 않은 서쪽 담을 금시라도 넘을 기세며 교실에 갇혀 버린 중학생들이 책상을 두드리며 지르는 히스테리한 함성은 더욱 흥분을 돋구어 주는데 과연 이들을 저 소란의 도가니에 몰아넣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극력 제지하느냐는 문제는 교장의 결단에도 달려 있지만, 직원 전체가 짊어져야 할 하나의 역사적인 결단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일부의 직원은 데모를 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일부의 직원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두 가지의 의견은 다 같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그러면서도 학생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의 발로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꼭 나가야만 한다면 뺨드를 앞세우고라도 나가게 해 드리겠소”

이것은 안전하다면 나가도록 하고자 시간을 끌고 있는 교장의 말이었다.

“뺨드부원들 어디 있냐? 뺨드를 준비해라” 도리어 만류를 위해 한 말을 뒤집어 뺨드까지 앞세우고 어서 나가자는 것이었다.

나라를 위해서는 그들이 데모를 하고, 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선생들이 데모를 하기로 한 것이다. 떠나려는 무렵에 교목이 기도를 했다. 처음엔 기도가 이 마당에 무슨 소용이냐는 눈치의 학생도 있었으나 결국은 기도를 끝내고서야 행진을 시작한 것이다.

전 직원이 그들을 호위해서 행진했다 넓게 열린 철문을 뛰쳐나와 신설동으로 동대문으로 대광의 건아들은 물결처럼 그러나 대오 정연하게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해 가는 것이었다.

연도에서 박수가 쏟아져 나온 것은 물론이지만 마주치는 산발적인 데모대들마저 대광인 줄 알자 환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전 처음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그렇게 긴 거리를 걸어보지 못한 나는 동대문을 지나서부터 벌써 허리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 그때 보호 데모에 나섰던 선생은 다 그렇게들 고된 행진을 했을 것이다.

거리는 벌써 불바다요 피바다였다. 시체가 수없이 실려 나오는 시청 앞을 지나 남대문을 돌아서 총알이 콩 튀듯 하는 울지로 입구에서 청계천으로 빠져나와 서울신문사가 타는 검은 연기를 뒤로 두고 가장 위험한 코스를 가장 질서 정연하게 다녀서 오후 네시까지 귀교 해산 했던 것이다.

그날 밤새도록 학교 문 앞을 지나가던 자동차 탄 데모대들을 교정에서 지켜보며 실종 학생들을 수습하던 일이며, 이튿 날부터 학생과장과 함께 병원 시체실을 고루 찾아다니던 일이며, 다시 등교하는 젊은 사자들을 맞기 위해 직원들이 정성껏 환경정리를 하던 일들이 그 후의 4·19를 맞을 때마다 하나의 신화처럼 되살아나는 기억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대광이 학생의거에 선봉을 선 것은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교훈이다.

첫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예수의 인격에 동화시켜 보려든 평소의 종교 교육이 일단 유사시에 결정체가 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겸손하기 양 같으면서도 예루살렘의 부정과 의식을 보고는 분노의 신성을 폭발시키고야 만 예수의 인격을 닮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대광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 그 빛을 잃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둘째는 사제지간의 사랑의 결합은 기적을 낳는다는 점이다.

4·19 데모에 참가한 학교치고 희생자를 안 낸 학교가 없다. 그러나 대광만은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다. 물론 부상자는 많았고 또 제일 먼저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을 잃은 자가 없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제일 먼저 사지에 뛰어든 대광에 생명을 잃은 자가 없었다는 것은 사제지간의 단합이었다.

학생이 부상당한 만큼 선생이 부상을 당했다. 학생이 데모한 만큼 선생이 데모했다. 학생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데모했지만 선생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데모한 것이다.

모름지기 대광은 선생이란 사랑하고 학생이란 존경을 하는 데 있다는 교훈이다.

셋째는 황소의 교훈이다.

혁명 후 제일 먼저 안정된 학교가 대광이다. 가장 말썽 없었던 학교도 대광이다. 황소와 같이 순하던 대광이 성이 나니 맹수보다 사나웠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난 후에는 또다시 배움의 초장에서 내일을 위해 풀을 뜯는 것이 대광이었다.

받기만 하는 황소는 아무짝에도 못쓴다, 한번 받기 위해서는 코 께인 황소처럼 은인자중하는 「인격자!」 이것이 4·19가 규정지어준 대광의 별명이 아니었던가?

그래서인지 오월의 어느 아침 새하얀 학교 벽에 이런 쪽지가 걸렸던 것을 기억 한다.

“대광은 황소, 받을 땐 썩 받고, 받고 나면 풀밭에서 풀을 먹는다.”

## 대광 뉴우스 제58호

발행일 1964년 4월 4·19 기념특집

1. 우리의 애국심을 무엇으로 나타낼까 / 김창주
2. 나는 똑똑히 보았다 / 송성찬
3. 4·19의 참뜻 / 편집자
4. 4·19와 민주주의 / 조성복

### ●●●1. 우리의 애국심을 무엇으로 나타낼까?

김창주 목사<교목>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언 14 : 34)

4월은 우리가 애국의 달로 길이 상기할 달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애국의 지성이 발로된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뜻깊은 달을 맞으면서 우리는 여기서 애국심에 대한 성서의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서는 애국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라와 민족이 번영할 때에는 기뻐하였고 나라와 민족에게 불행과 치욕이 올 때에는 한없는 탄식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국의 수치와 멸망을 탄식하시면서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었던가”고 하신 것도 애국의 탄식이요, 애국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깊은 애국적 정신을 일으켜 줍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애국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의 애국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애국심을 발로하였으며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있어서 우리의 애국심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의 모든 애국자들은 그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민족과 국가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의로운 민족이 되기 위하여 하나

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하고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민족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민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마음속에 진정한 애국심을 품었다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거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성경의 모든 애국자들은 기도에도 그치지 않고 민족과 국가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죄가 모두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애국심도 국민으로서의 책임의식, 책임감으로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사회는 유기체요 국가도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대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국가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책임을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온 정력을 기울여 해야 하겠습니까. 학생들의 해야 할 일은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촛음을 아껴 공부하여 실력을 기르는 것으로 애국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참 애국심은 준법정신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국가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바로 서고 시행되어야 나라가 운영되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도 법률을 잘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질서와 법 아래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를 연습니다. 질서와 법을 떠나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애국심이 있으면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끝으로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의 수치”가 됩니다. 여기 의란 모든 의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법으로만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도덕과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방면에 유의하여 의롭고 깨끗한 생활로써 자유의 파수군이 되고 그러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직책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그 본분을 다 한다면 그것으로 세상의 부패는 방지되고 생명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으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요 동시에 밖으로 세상의 암흑을 밝게 하는 빛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4·19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부패를 방지하고 부정과 어둠을 밝히는 정의의 횃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민족의 의와 정기가 살아 있는 동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회의 부패를 규탄

하고 남의 부정을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 내 자신이 먼저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의로운 불길이 되어 세상을 정화할 힘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 속에 생명력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이번 4·19는 자기 속에 이런 것이 있는가 조용히 반성하여 보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2.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날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송성찬<고교 교감>

우리들은 이 달로 민권투쟁의 불멸의 기념일인 4·19의 네 뚝을 맞이하게 된다. 이날은 이 땅의 젊은 생명들이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여 총칼에 맞섰던 날이요 피를 쏟고 생명을 바쳐 악에 대한 정의와 분노를 터뜨린 날이다.

이 「4월의 대열」은 이 겨레의 깊은 가슴속에 참 자유의 파도를 다시 한번 일으켰고 이 민족의 양심에 새로운 결단의 불을 붙였다.

특히 우리 빛의 아들들의 그날의 시위는 성난 황소 떼의 돌격이었다. 발을 갈다 말고 받고 랑을 뛰쳐나온 성난 황소떼의 돌격이었다. 잠겨진 철문이 저들을 저지할 수 없었다. 경찰의 곤봉이 저들의 절규를 묵살시킬 수 없었다. 소방차의 호스가 저들의 분노의 화염을 진압할 수 없었다.

철모 쓴 경찰의 곤봉이 난무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생의 머리가 갈라졌다. 선혈이 쏟아졌다. 애국의 열혈이 땅을 적시었다. 자유를 위한 생명의 선혈이 분수처럼 뿜었다. 무장한 폭한의 갈고리가 번쩍이었다. 이 군의 귀가 찢어졌다. 선혈이 쏟아졌다. 애국의 열혈이 땅을 적시었다. 자유를 위한 생명의 선혈이 분수처럼 뿜었다. 백차가 달려온다. 김 군을 들이받았다. 교복이 걸레처럼 갈라지고 허벅다리가 종이처럼 찢어졌다. 선혈이 쏟아졌다. 애국의 열혈이 땅을 적시었다 자유를 위한 생명의 선혈이 분수처럼 뿜었다.

\*\*\*\*\*

잊을 수 없는 그 날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본다.

데모의 실천계획은 학생회 간부의 손에 의하여 철야로 이뤄졌다고 한다. 선봉대가 담을



뛰어 넘어갔다. 튀는 불꽃처럼 돌격해 나가는 이 황소 떼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성난 사자들의 우레같은 함성은 신설동 전역을 흔들었다. 제1진은 순식간에 동대문을 지났다.

종로4가와 혜화동 네거리에서 백차의 돌격을 받고 곤봉과 갈고리에 맞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피를 보았다. 이 피는 동료 학교를 쫓기시키는 불씨가 되었다. 이 피는 교정에서 돌격 시간을 기다리던 대학생 형님들에게 불을 붙이였다. 그러나 이 용감한 혁명군은 대부분 맞아 쓰러지고 가축처럼 트럭에 실리어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대오는 무너지고 말았다.

제2진은 고대생과 합류하기 위하여 행진하였다. 안암동 로터리에서 백차와 소방차를 앞세운 경찰과 맞서게 되었다.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봉선 학생 7·8명이 파출소에 끌려갔다. 새로운 계획을 약속하면서 전원 회군하였다

그날 오후였다. 전교 학생과 전교 직원이 교정에 집합하였다. 교장선생님의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교목님의 기도가 있는 후 전원 광화문을 향하여 행진하였다. 오전의 데모가 분노와 흥분의 데모였다면 이 데모는 생각을 수반하는 냉철한 데모였다. 아침의 데모는 분노의 불의 데모였으나 이 데모는 피의 데모였다. 피흘리며 데모한 우리들이 피 뿌리는 데모의 참모습을 보는 것은 더 큰 의의가 있었다. 골수에 새겨져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데모의 참모습을 보았다.

피의 데모를 보았다. 총탄에 쓰러진 동료의 시체를 메고 가는 데모를 보았다. 동료의 피묻은 셔츠를 깃발 삼아 휘두르는 데모를 보았다. 빗발치는 총알 앞에 맨주먹으로 육박하는 용감한 싸움을 보았다. 참 혁명을 보았고 불을 뿜는 참 혁명의 대열을 보았다. 독재의 궁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부정의 아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았다.

우린 그 데모를 하였고 또 데모를 보기도 하였다. 데모는 하기도 해야지만 데모는 보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났다. 혁명은 이뤄졌다. 젊은이의 피로 아로새겨진 이 혁명의 역사 곧 '4월의 역사'는 이 겨레의 '삼월의 정신'과 아울러 영원히 '건국의 정신'이 될 것이다.

행방불명된 학생을 찾기 위하여 교목님들과 같이 병원을 찾아다녔다 부상자의 명단을 열람하고 부상한 투사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다. 눈물 없이 병실을 나올 수가 없었다. 사망자의 명단도 들추었다. 시체실에 들어가서 분노의 표정을 거두지 못한 채 숨을 거둔 그 얼굴들을

보았다. 치가 떨려 눈물이 말라 들어감을 느꼈다.

\*\*\*\*\*

세월은 흘러 이미 4개 성상이 지났다. 키도 컸고 지혜도 늘었다. 이 위대한 4·19 혁명의 역사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 이 피의 기록과 땀의 경험 속에서 참 교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

그날 대열 선두에 높이 들리었던 데모의 깃발은 밀가루 포대 두 개를 이어서 만든 것이었고 쓰여진 구호는 “마산사건 책임지라” 학생 간부의 손에 귀중히 보관되었다가 지금은 내 캐비닛 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책임 정신’이다 또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도 ‘책임 정신’이다.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가정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에 있다 특히 이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마산사건(馬山事件) 책임지라고’ ‘책임’을 외친 여러분임에 책임을 지는 참된 자유인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에게 는 소금과 빛의 책임이 있으며 ‘사실인’의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자.

### ●●3. 4·19의 참뜻

+ 그 네 뜻을 맞이하면서 +

대광뉴스 58호 편집자

젊은 가슴을 독재와 불의 앞에 총부리도 불사하고 분연히 일어서 꺼져가는 이 나라의 국운에 「자유와 정의」의 횃불을 높이 든 4·19도 어느덧 네 개의 연륜을 새기게 되었다. 그 당시 부패와 무능 그리고, 심한 민권 탄압에 순수한 조국애와 정의감의 발로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게 한 순수한 학생들의 대열 앞에 독재자의 면상은 여지없이 부서지고 말았고, 이로 인하여 채 꺾보지도 못한 200여 개의 꽃송이들은 소리 없이 조국의 비약과 발전을 약속하며 떨어져 갔던 것이다. 누구나 알듯이 그 당시 자유당 정권의 몰락으로 민주당 새 정부가 제2공화국의 중책을 맡았으나 그들 역시 무능과 강력한 행정력이 결핍한 나머지 끝내 5·16 군사혁명을 유발시키고 말았다. 군정기간 동안 우리는 참신한 사회 기풍을 위한 제시책에 환호를 올

리기도 했다. 군정이 끝나고 제3공화국이 탄생된 후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곤란 속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먼저 간 영령들 앞에 삼가 죄송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들의 피 흘린 대가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아직도 당의 이익과 정파간에 치열한 설욕전만이 국회의사당을 울리는 것을 볼 때 조국의 앞날이 크게 걱정되는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늘의 현실은 일부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자들에게만 책임이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들의 잘못과 허점을 찌르기 전에 먼저 우리 학생들부터 반성하고 지양해야만 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까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4·19가 끝나고 그 당시 정권을 쥐었던 민주당의 급격한 몰락은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 특히 지성의 탈을 쓰고 4·19의 본뜻에 위배되는 망령된 자들 때문에 그들의 수명이 단축되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의 본분은 오직 다음 세대의 훌륭한 일꾼의 양성과 개개인의 인격도야에 그 의의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배우는 사람의 일인으로서 그러한 일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먼저 간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면 개개인의 일대 반성과 자각이 없이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은 소리 없이 으스러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남은 우리는 교내의 건전한 학풍 수립, 지각있는 행동 등을 하여 그들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 3 : 18)

#### ●●4. 4·19와 민주주의

조성복 <교사>

##### 1) 4·19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혁명이다.

18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 마치니는 “자유는 나무는 시민의 손으로 심어지고 시민의 피로 양육되고 시민의 칼로 수호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인류의 역사는 곧 자유를 전취하고 발전시키는 역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양의 근세에 있어서 시민혁명은 유혈의 투쟁을 통하여 압제자로부터 자유와 민권을 쟁취한 민주주의의 원대한 승리의 기록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16년 전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 헌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를 조직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이 강토에 심어진 자유와 민주주의는 우리의 자유적인 역량으로 된 것이 아니고 국제정세의 영향 밑에 피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우리의 피의 투쟁의 산물도 아니요 혁명으로 전취한 권리도 아니었다. 그러기에 우리 민족은 이것들을 아낄 줄 모르고 남용하기에 바빴다. 자유의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기 전에 병들었으며 관권은 자유를 무자비하게 유린하였다. 민주주의는 독재를 은폐하는 가면에 불과하였으며 절대권력의 그늘 밑에는 부정 불의 부패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났으며 드디어는 3·15 부정선거란 연극을 꾸며서 국민주권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독재자의 횡포와 부패정치를 눈앞에 보면서도 민중은 어떻게 할 바를 몰랐고 어떻게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을 갖지 못했다. 정의와 양심을 소유한 극소수의 언론인과 야당 정치가들이 불의를 규탄했을 뿐 민중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대다수의 기성세대들은 권세에 아부하거나 혹은 침묵과 체념 속에 힘없이 물러앉았다. 이때에 불의 아성에 대하여 피와 죽음으로써 결정적 일격을 가한 것이 학생이었다. 학생들의 맑은 지성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고귀함을 알았으며 그들의 강한 정의감은 민중의 대변자로서 대의를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항쟁에서 쓰러진 영웅들이 183명, 부상자가 6,258명이었다. 이같이 고귀한 피의 대가를 치르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비로소 뿌리를 박게 되었다. 이제는 남이 선물로 준 자유가 아니요 밖으로부터 받아들인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의 피로 산 자유요 민주주의이기에 우리는 이것의 고귀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

다. 그러므로 4월 혁명은 우리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전취한 민주혁명이요 자유민주주의 전취를 위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 떳떳하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상에는 광주학생사건이라든가 삼일운동과 같은 위대한 민족운동이 있었다. 이러한 운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항거하는 민족주의의 항쟁이었다. 이에 대하여 4월 혁명은 비민주주의에 항거하여 자유와 민권을 수호하려는 대내적 투쟁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 2) 4·19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이다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유와 민주주의란 개념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지 우리 속에서 우리나라의 진리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알뜰히 가꾸려는 생각이 희박하였고 이것을 빼앗으려는 자에 대하여 피로써 지킬 줄을 몰랐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는 내 것이 되었고 우리의 피부로서 자유의 고귀함을 느끼게 되었다. 젊은 학도들의 손으로 자유의 나무는 심어졌고 그들의 뜨거운 피가 이 나무에 뿌려졌다. 우리 온 겨레는 피와 땀으로 이 나무를 가꾸고 칼로써 이 나무를 지켜야 할 것이다. 혁명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혁명은 독재를 타도함으로써 민주개혁의 길을 터 놓았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방해하는 온갖 독소들 봉건적 잔재, 관료주의 획일주의 독재 등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칫하면 4월 혁명에서 흘린 피의 대가를 정치적인 데로 돌리기 쉽다. 그들의 고귀한 생명과 피는 정치를 위해서 바친 것이 아니고 정치보다도 더 영원한 것을 위해 바쳐진 희생이다. 정치보다도 더 귀중한 것 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와 정의인 것이다. 학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와 정의를 존귀히 여길 줄 안다. 그들은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 그러기에 저들은 꽃다운 젊음을 아낌없이 버리지 않았는가! 겨레들의 병든 인간성 속에 자유와 정의의 씨를 뿌려 건전한 인간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저들은 피를 흘렸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성을 무엇보다도 존중한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개혁보다 인간성의 발전을 더 중시한다. 저들은 우리 겨레의 인간성 속에 정의 자유의 터전을 굳건히 닦아 그 열매를 자손만대에 물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숨져갔던 것이다. 우리는 4월 혁명이 우리에게 심어준 이 자유와 정의를 우

리들의 이지러진 인간성 속에서 새롭게 싹트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 겨레의 인간성 속에 굳건히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은 조국 위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 대광 교지 7호

발행일 1961년 2월 일

1. <특집> 4월의 우리의 외침은 실현되고 있는가? / 편집반
2. <르쁘르따즈> 벽찬 젊은 가슴을 가다듬고 / 방정웅
3. 시

## ●●●1. &lt;특집&gt; 4월의 우리의 외침은 실현되고 있는가?

+ 성난 사자들의 발언 +

편집반

1960년 4월 19일 오전 8시 30분, 아침조회 집합 종이 울리자,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어나간 우리 대광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은 3·15 부정선거의 즉각적인 시정과 집권당의 앞잡이인 경찰의 중립화, 그리고 우리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단말마적인 자유당 정권에 항거하는 정의의 불길을 높이 올린 바 있었다. 종로 네거리에서 혜화동 로터리에서 소위 민중의 지팡이들이 마구 내려 갈기는 곤봉 세례를 받으면서도 끝끝내 불의에 항거하였던 성난 사자들, 우리는 그날 머리가 터졌고, 귀가 떨어졌고, 다리고 부러졌고 만신창이로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끝까지 독재정권에 항의했었다.

과연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관철되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다. 썩을 대로 썩었던 자유당 정부가 물러가고 민중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이 정권을 인계 맡았다.

우리는 박수갈채를 보내어 열렬한 지지를 표했다. 오직 4월의 우리의 외침을 기억하고 실현해 주기를 바라서였다.

이렇듯 국민의 절대한 지지와 세계의 각광을 받으며 민주당 정부가 수립된 지도 어언 반년이 넘었다.

과연 4월의 우리의 외침은 실현되었는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시정되고 혁명의 과업은

완수되고 있는가? 여기 4월의 혁명의 주인공들이 보는 비판의 눈이 있다.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염려하는 애국 학도들의 긴급 발언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금, 성난 사자들의 발언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들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 가림 없는 그들의 얘기가 있다.

#### 이문길 <고 3-1>

전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되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월 혁명을 회고하여 볼 때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그러나 현재의 감상은 오직 쓸쓸할 뿐이다. 우리가 4·19의 외침에서 기대하였던 것은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정당으로 하여금 사회 물정에 어두운 이승만의 정치와는 달리 국민이 바라는 정치 즉, 우리 민족의 어두운 곳과 우리 민족이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잘 관찰하여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는 일이었다.

과연 이승만 정권은 물러가고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정당이 일어나 제2공화국의 정치를 맡았다. 그러나 시원치 않으니 답답한 마음뿐이다.

여기 진심을 말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둥을 박아야 했을 터인데 새 기둥이 없어서 길모퉁이에 버려진 썩은 기둥을 대신 갈았으니 튼튼하기는커녕 무너질까 봐 가슴만 두근두근한 것이 입맛만 쓰디쓰다.

사실상 무엇 하나 새로워진 것이 없다. 혁명이라고 저마다 뇌까려 장사치처럼 팔아 먹지만 혁명답게 변한 것도 고쳐진 것도 없다. 4·19 이전과 무엇이 다른가?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기에 급급하고 현상 유지에 여념이 없을 뿐이니 안타깝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현재의 장면 내각에 긴급히 바라고 싶은 것은 제발 쓰러진 이승만 정권을 거울삼아, 나 하나의 영예와 자기 당파를 초월하여 제2공화국의 초석이 되어 달라는 것이다.

#### 백진호 <고 3-4>

세계 민주주의의 산 표본을 보여 준 4·19의 혁명의 대열에 끼어 과감히 부정에 항거했던 그날을 생각하니 한 마디로 감개무량하다. 돌이켜 생각건대 우리는 무엇보다도 매관매직의



부패상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영위한다고 하는 위정자들의 썩은 정치가 신성한 학원에까지 발을 내딛고 보니 이 나라의 민주정치가 썩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성에서 한 사람의 인격은 물론 그의 생명까지도 한 개의 물건 취급함으로써 이승만 독재의 본성을 드러냈고, 희생의 제물이 된 우리 젊은 학도들의 고귀한 넋을 대 받아 그들이 이루고자 하던 과업 즉, 이 독재의 물러감을 기대했었다.

과연 애국자로 존경받던 이승만의 일당독재가 젊은 학도들의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 물러가고 따라서 온 사회의 불안과 공포와 허식의 생활이 사라지고 참을 추구하는 우리의 외침은 성공되었다.

그러나 고귀한 희생의 제물이 된 학생 유족들에 대한 대우는 한낱 주권을 돌려받은 집권당의 값없는 희생물로 취급되고 있고 아직도 정실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의 인사 정책 등으로 유능한 자의 사회 진출은 막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것이 기대에서 어긋나고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 경제가 어려운 이때 하루속히 거대한 과업을 성취하고 지칠 대로 지친 국민 생활을 돌보고 국민의 생활에서 불안을 제거하여 주기를 긴급동의한다.

#### 서용남<고 3-2>

4·19의 본교생의 데모 시에 이창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 무자비한 경찰의 곤봉 세례를 받은 것을 생각하니 그놈의 경찰을 모조리 찢어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우리가 그날 위협을 무릅쓰고 데모를 감행한 것은,

참다운 민주주의 국가건설.

국민의 기본 자유 확립.

참다운 일꾼의 자유로운 선출.

학원의 자유.

경찰의 중립화를 기대하여서였다.

과연 우리들의 이러한 기대가 조금이라도 달성되었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바라건대 장면 내각은 하루속히 국가 질서를 확립하고 제발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라.

## 김태웅 &lt;고 3-1&gt;

나의 성격은 과격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딘지 좀 우락부락한 면은 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4월의 데모를 생각하면 갑자기 몽클하는 감이 되살아오곤 한다. 나의 조그마한 외침이 지금의 큰 것을 이룬 것을 생각하면 즐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나 지금에 이르러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 새삼 과거의 잘못을 비추어 보면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으며 부정을 보고 대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느낄 뿐이다.

홍분의 4월 19일, 우린 오래 전의 잘못을 책하러기보다는 3·15 부정선거의 시정과 우리 학생의 신분 보장과 또 나아가서는 우리 학원의 자유와 아울러 대한의 완전한 민주주의의 뿌리를 박으려고 외쳤다. 또한, 그 외침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길 기대하였었다.

기대하였던 그대로 되었는지는 나의 생각으로 아직 느껴 본 일이 없지만 추측과 예감으로 데모 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와 정치계와 각계각층에 부정분자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신문과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되는 공명선거란 한낱 허수아비 격... 지금에 이르러 부정선거란 웬 말이고? 4월의 데모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작은 일에 서로 반목하는 일을 통탄하고 싶을 정도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역시 작은 면에서 큰 면을 보지 못 한다고나 할까, 여하튼 우물 안의 개구리 격이다. 옛적에도 그랬지만 정당과 정당,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너무나도 높고 험한 성벽이 있어 여러 가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기에 다시 그런 일을 되풀이할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앞서 좀 더 친밀한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 이인행 &lt;고 3-1&gt;

4·19 데모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지만 현재의 실정을 볼 때 실망이 크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사회가 전개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4·19의 데모를 감행한 것은 일부 몰지각한 기성 정치인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과연 우리의 데모는 성공하였다.

불의에 반항할 줄 모르고 아부 아침만을 일삼던 어용 교육자들에게겐 일대 경종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성인들은 역시 아직도 각성 못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라 뿌리 깊은 기성세력은 4·19 후의 정치나 경제계에 보다 더 큰 혼란한 결과를 가져왔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각자가 정신 차려야겠다.

김기복 <고 3-3>

포악하던 경찰의 방망이 혹은 총부리 앞에서도 데모를 했던 것을 지금 생각하면 그때야말로 내가 어떻게 거기에 참가했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진정한 민주정치를 바라는 외쳤던 4·19 아침의 우리의 외침을 기억하는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자유당 정권만이 몰락되었을 뿐 우리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판판으로 정국은 가일층 혼란해 가고 있다. 내각책임제 개헌이 실현되었다고 하지만 국민은 벌써 불신임한 지 오래다.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날로 빈곤하여 가고 4월 혁명은 어느 한 정당을 위하여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다.

바라건대 장면 내각은 현 사태의 혼란한 시국을 타개해 주기를 바랐고 국민 경제의 재건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수행되기를 요구한다. 4월의 우리의 외침, 4월의 우리의 희생을 헐값으로 팔아먹지 말라.

최완택 <고 3-4>

결국 불의에 항거하여 데모한 학생들의 피가 헛되게 되고 혁명 후의 사회는 보다 부패한 것은 역사의 필연성 같은 것을 느낄 뿐이다. 우리가 4월의 불길을 올린 이유는 나의 조국을 보다 나은 민주주의 국가로 이루고 우리의 학원 생활을 더욱 명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지금은 약간의 자유가 허용된 것 같으나 별로 신통치 않다.

국교를 맺을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하는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이며 우연히 집권당이 된 민주당의 전 집권당보다 나은 것 없는 정책 등 섭섭하게 생각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늘의 위정자와 국민의 참된 자각이 있어야겠다.

## 전정남 &lt;고 3-3&gt;

4·19 날 아침의 우리의 데모는 정말 용감무쌍하였다. 서슬이 시퍼런 총부리 앞에 맨주먹으로 대들었으니 이거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도왔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날 우리가 기대하였던 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독재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다운 국가를 이룩하려 했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볼 때 무엇 하나 신통한 것이 없다.

쌀 한 가마에 2만 환 하는 요즈음의 경제 상태를 보더라도 오히려 4·19 전보다도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대로 현재의 장면 내각에 건의하라면 우선 농촌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일 년 죽도록 일하여서 일 년 간의 양식조차 갖지 못하는 농촌을 부흥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최정용 &lt;고 3-4&gt;

독재자의 뿌리를 뽑고 주권이 국민에게 정당하게 옮겨진 것은 좋으나 지금은 오히려 4·19의 피가 아깝게 느껴질 뿐이다. 우리가 4월의 길가에 붉은 피를 뿌린 것은 참된 민주주의를 이 사회에 확립시키고, 폭력화한 무자비한 경찰이 그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기성인들의 아부 정신이 가셔지기를 바래서였다.

그러나 이건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점에서 한 가지도 실현됐다고 생각되는 점이 없다.

모든 면에 있어서 4·19 전보다 더욱 기대에 어긋나고 있다. 시장은 일본 상품으로 가득 차고 민족정기는 간데없고 사회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 자립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질서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주기를 우리는 또한 외치고 있다.

## 김명전 &lt;고 3-3&gt;

어디서 우리에게 그런 힘이 나왔는지 경찰봉을 휘두르는 경찰관에게, 총을 막 쏘아대는 경찰

관에게 어찌면 그렇게도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는지 그 함성이. 아! 잊지 못할 4월 19일의 아침.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3·15 부정선거를 감행한 독재자들의 뿌리를 뽑아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려고 우리는 피가 나게 외치지 않았는가. 과연 모든 국민의 원대로 독재자들은 쓰러졌으며 개선기도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좀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형편없이 국민의 생활은 더욱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원하노니 장면 내각은 감투 싸움만 하지 말고 어서 속히 안정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루지 못한 남북통일을 이룩하도록 최선의 정책을 수립, 담대하게 감행하라.

## ●●2. 〈르뽀르따즈〉 벽찬 젊은 가슴을 가다듬고

+ 4·19 혁명의 불길을 올리던 날의 수기 +

방정웅〈학생회장〉

역사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후 연관된 사건의 한 토막이기 때문에 4·19 날 아침 일찍 대광의 건아들이 서울 거리의 선봉을 서기까지는 남모르게 축적된 울분이 쌓여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물론 대구 학생들이 남달리 일요일 등교의 명령을 받고 일어섰다는 신문 지상의 보도를 비롯해서 3·15 험잡선거의 부패상과 또 마산의 의거 그중에서도 김주열 군의 시체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을 때 우리네 가슴속에는 왜 그런지 숨 가쁘게 치밀어 오르는 몽클한 것을 억누를 길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쌓이고 쌓여 거둬하는 정부의 부패상과 불법한 탄압 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잔인한 경찰의 악귀 같은 만행의 모습.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장충단과 서울 운동장에서 동시에 있었던 자유당 민주당 선거 연설의 모습을 비롯하여 서울신문,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의 실지 논조를 비교해 가면서 참다운 민주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시곤 할 때에는 공연히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곤 하는 것이었다.

어느 길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나? 민주주의는 국민 하나가 자율적이고 각기 양심에 비추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4월 18일 점심때 대광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을 무렵 문밖으로 큰 환성이 올라 담장을 넘어다 보니 고려대학생 수천 명이 대빛자루 끝에 플래카드를 달고 외치는 구호 소리와 함께 스크림을 짜고 달려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학생들은 모두 쏟아져 나와 보고 있는데 고려대학생들은 그만 반 동강이 찢려 안암동 로터리에서부터 순경들과 승강이를 치고 밀고 닥치고 떠받고 하는 혼란이 바로 대광학교 뒤 다리목까지 밀려왔었다.

언제 동원되었는지 방망이를 든 순경이 새까맣게 울타리를 이루듯 섰고, 고대학생(1년생인 듯)이 와글와글거리며 대처하여 이삼십 분 지나는 동안 우리 대광학생들은 언덕과 교사 옥상에서 박수를 치며 성원을 보냈었다. 얼마 후에야 골목길을 잘 모르는 그들 선두에서 신설동

로터리로 빠지는 골목길을 알고 시내로 뿔뿔이 내달았다. 그날 저녁 해 질 무렵까지 학생회 문제와 또 우리도 어떻게 거사할까 하고 회의를 하던 학생회 간부들이 교문 밖을 나서자 천 일백화점 앞에서 강패들에게 무수히 부상을 당해 가지고 돌아오는 고대생들과 마주쳤다.

피를 본 학생회 임원들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일 거사할 모의를 하자고 의견이 일치되어 로터리 부근의 공중전화통을 붙들었다.

“전병화 군 있어요?”

“지금 나가고 없는데.”

“전군과 한 반 학생이에요. 학생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좀 의논할 게 있는데, 들어오거든 좀 기다려 달라고 그러세요.” 6, 7명 간부들은 그 길로 창신동 전 군 네 집으로 갔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 거사하기까지 행동하여야 되겠기 때문에 일부러 방이 많은 집을 생각했던 것이다. 전군네 집은 양조장을 하는 곳이라 집이 넓었고 가까이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구석진 방에 전군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6시가 넘은 그때도 전군은 돌아오지 않아 주춤하며 문밖에 섰다가 주인 없는 방이지만 허물없는 사이라 그냥 들어가 앉았다. 학교에서 운동하던 학생들은 옷을 벗어 붙이고 더러는 팔뚝을 걷어 올리고 의논이 밀담으로 시작되었는데 오늘 낮에 본 것처럼 내일 점심때 거사하는 것이 어떠한 의견이었다. 그러나 점심때쯤 되면 다른 여러 학교가 나올 테니 차라리 아침 일찍 거사하는 것이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 등교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어 뒤따라 일어나게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는 방웅균의 의견이 있어 그대로 실행하기로 결정을 지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교문에는 복장 검사하는 척하고 배극일 외 두세 학생이 지켜 섰다가 각 학급에 주동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붙들어 일제히 첫 종이 울리거든 운동장으로 나오도록 짜 놓았다. 그리고 목적지는 동대문을 지나 종로로 해서 세종로를 거쳐 국회의사당 앞까지 가서 연좌하기로 하고 거기서 입을 결의문과 구호를 초안하여 써 놓았다.\*

결의문은 노트 조각에 썼고 그 다음 플래카드는 무엇으로 만드느냐는 문제가 나왔다.

공리공리하다가 방구석을 바라보니, 마침 빈 밀가루 부대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야아, 이거 어떠냐?”

\* 『교지』 7호에서 소개한 결의문과 구호 내용은 '제1장 내부 자료로 본 4·19'에 나와 있으므로 생략함.(편집자 주)

“옳지 됐다.”

모두 달려들어 밀가루 부대를 두석 장씩 책가방에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쑤서 넣었다.

그러다 보니 통금시간이 지나버려 모두 그 방에서 함께 자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까 좀 더 세밀한 토론이 거듭되어 선생님들이 아침 조회할 때는 가만히 문을 잠가버리고 첫 종이 울리거든 학생회장 문제를 내걸고 각 학급이 운동장에 모이도록 하자는 것과 수위 아저씨가 대문을 걸러 할 때에는 두 학생이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붙들고 꼼짝 못 하게 한 뒤 활짝 열어 놓을 것, 문지기는 될수록 일찍 등교할 것, 플래카드는 미술반 학생들을 끌어다가 시킬 것 등 자세한 계획을 세웠다.

한방에서 자고 난 학생회 간부들은 일찍 등교하여서 모두 맡은 책임을 이행하였다. (벌써부터 대광은 실질적으로는 호국단 체제를 답습해 쓰지 않고 민주주의 그대로 정부회장의 자유 입후보와 정견발표를 하고 전교생이 비밀 직접 투표로 회장을 선거하여 행정부를 조직하고 각 학급에서 중학은 3명씩 고등학교는 4명씩 대의원을 선출하여 입법부, 즉 민의원과 같은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행정부에 제출하면 실제로 심의 배정하는 운영 훈련을 수년 내 실행하여 오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이미 고등학교에서는 나라의 되어가는 모습에 비판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학생회 간부들은 곧장 학생들 전체 의사에 따라 선출되었던 임원들이다.) 일찍 등교하여서 모두 맡은 책임을 이행하였다.

정문 안에 규율부처럼 2, 3명이 서서 지키고 한편에선 플래카드를 비밀히 쓰고 연락원과 하나씩 들씩 내통했다. 드디어 여덟 시 십오 분 아침 예령이 요란하게 울렸다.

선생님들은 모두 교무실로 모여 들어가셨다. 그런데 음악실이거나 화학실에 중고교 선생님이 다 한방에 모이셔야 문을 잠가 버리겠는데 이 날따라 중고교가 따로따로 직원 조회를 열었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는 문이 사통팔달하는 교무과가 보였기 때문에 그 많은 문 열쇠를 다 얻어내기가 어렵게 되어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연락원들이 조용조용히 연락하여 고3의 4개 학급은 물론, 고2도 대부분 운동장으로 나오고 고1 신입생들 동원할 무렵 그만 직원회의가 끝나 버렸다. 너무나 졸지에 학생들을 모은 일이라 고3 학생끼리는 의사소통이 빨리 되었으나 하급반은 행동과 이해가 좀 느려졌다. 어쩔 수 없이 모이는 대로 데모 강행의 취지를 개인 릴레이식으로 알리고 더러는 2학년 여섯 학급에 남은 학생을 들춰내려 들어간 사이에 선생님들께 탐지되어 버렸다. 그러나 예상 밖에 적극적으로 길을



가로막는 선생님은 한 분도 없었다.

어떻게 질서를 잡을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덮어 놓고 선두에 선 고3 간부들이 정문을 향하여 내달았다. 교문은 다행히 그냥 닫혀만 두었기 때문에 곧장 열려버렸다. 주동은 고3이고 고2, 고1, 또 등교하던 중학교 꼬마도 몇 명 섞여서 플래카드도 그냥 손으로 벌려 쥐고 동대문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거기서부터 정연한 행렬이 되었다.

시가에서는 한창 출근 등교에 번잡한 때이라 사람이 많았는데 모두 박수갈채로 의기를 돋우어 더욱 신바람이 나게 해 주었다. 그런데 종로 5가에 이르러 드디어 경찰의 첫 제지선에 부딪히게 되었다. 경찰들은 마침 지나가던 오물차 한 대를 붙잡아 거리를 가로질러 세우고 그 곁에 백차 두 세대를 가로 세워 놓고 방망이를 든 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뒤를 따라가던 몇 분 선생님은 앞에 나서서 소리치기를

“앉아라, 앉아라, 뭉쳐 앉아라!”

그것은 개인행동을 취하다가는 언어맞기 쉽고 붙잡혀 가거나 또 데모의 실패를 우려한 때문이다. 그리고 몇 분은 학생들 책임은 우리가 질 터이니 손을 대지 말아 달라고 경찰들에게 당부하여 학생들의 뻣뻣한 집합이 되기까지는(3백 명 가량) 손찌검을 앓고 서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한 걸음 두 걸음 제지선으로 육박하여 백차를 떠밀고 경찰들 사이로 그냥 빠져나가려 하자 드디어 경찰들은 방망이를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기다리 가죽 잠바 하나는 한 사람씩 붙잡아서 자기 무릎으로 내리 조지는데 왜 학생들을 때리느냐고 선생님들이 야단치면 안 때린다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었다.

여기서 몇 명이 백차에 실려 갔는데 군중들이 마구 모여들어 그 틈에 섰던 어떤 선생님은 학생을 싣고 가는 차의 넘버를 적어 놓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가로막았던 차가 밀려나고 종로 4가로 우루루 제지선을 떠밀고 밀려나가 버리자 종로 4가에는 트럭에다 급거 경찰들을 동원하여 실어왔다. 그러나 아무리 내리라고 야단쳐도 머뭇머뭇 거리는 사이에 학생들은 종로 쪽으로 아우성치며 달리고 트럭 위에서는 무궁화 짜리가 순경들을 휘몰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첫 번 방망이에 30여 명의 연행자를 뺏기고 종로 화신 앞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두 번째 제지선에 부딪쳐 버렸다. 그러자 뒤에서 트럭을 타고 달려온 순경들이 우르르 몰려 내려 뒤쪽에서 학생들 가운데로 몰려들어 사정없이 방망이로 내리쳤는데 학생들은 적은 숫자여서 포위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최후적으로 달려들어 떠받고 밀치고 펀치를 보

기 좋게 먹인 학생도 몇 명 있었다. 그러자 방망이를 놓쳐 굴러가는 것을 잡으려는 순경을 보기 좋게 발길로 걷어차고 비켜난 이문길 군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물매에 귀 쪽이 절반이나 찢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었다. 달려오던 김주영 선생, 교감 선생님이 아무리 함께 학생들을 수습해 보려 했으나 모두 한 가지로 매를 맞으셨고 김주영 선생님은 얼굴에 상처까지 입고 종로파출소로 끌려 들어갔다. 종로파출소 좁은 그 안에는 모두 학생들이 끌려온 대로 쭈그리고 앉았는데 부상당한 학생들도 얼른 놓아주지 않아 출혈이 심하였다.

얼마 후에 같이 끌려가셨던 김 선생님이 겨우 심한 부상자 한 명만 끌고 나와 백병원으로 차에 싣고 가서 수술을 받았으나 워낙 시간이 지연되어서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도로 완치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중에登高하여 충분한 내용과 이해를 얻지 못하고 또 연락이 잘 안 되어 적극성을 띄우지 못했던, 교실에 남아 있는 일부 학우와 운동장 다른 곳에 널렸던 학생들의 제2진이 뒷문을 타고 넘어 그 뒤를 따랐는데 거기는 고등학교 2학년생도 많았다.

2백 명 가량의 제2진은 종로 5가에서 서울대학 앞으로 꺾였는데 이른 아침 아직도 웅성대기만 하고 있던 서울문리과대학과 의과대학에 함성을 올려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선봉은 그냥 혜화동 로터리까지 전진하여 동성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잠잠한 그들에게 또한 불길을 올려 주었다. 혜화동에는 어느덧 많은 경관들이 방어진을 치고 있었다. 달려오는 학생들을, 백차를 선두로 그냥 몰고 나오며 받아넘겼는데 맨 첫째 번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김형욱 군이 받치어 쓰러졌다.

뿐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두드려 패는 데 따라 서 있던 이동범 선생님이 달려들어 왜 평화로운 데모에 학생들을 폭력으로 대하느냐고 대들자 경관은 서너 명이 달려들어 떡살을 잡고 어떤 자는 비겁하게 선생님 바로 등 뒤에서 후두부를 난타하여 전치 2주일의 부상을 입히고, 그냥 트럭에 떠 실어 동대문경찰서에까지 연행하여 갔다. 그밖에 학생들도 자동차에 실리어 갔고 얻어맞고 해서 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이 거기서 지리멸렬하게 되었다. 쓰러졌던 김형욱 군은 정신을 잃다가 한사코 달려든 친구의 부축으로 겨우 일어나 길가의 어떤 사진관으로 피신했는데 그때까지도 자신의 상처를 의식치 못하고 있었다. 문안에 셋기가 불안스러워 이층으로 올라가려 할 때 내려오던 분이

“저-피-저-피”

하는 소리에 다리를 굽어보니 무릎의 옷자락이 찢겨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일그

러졌는데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다. 간신히 곁에 있는 병원으로 갔으나 의사는 자리에 없었고 간호부는 응급치료를 해 줄 수 없다고 미안해하면서, 어서 바빠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만 하더라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봉대만 얻어가지고 겨우 남아서 남의 집 뜰 안에 숨어서 상처를 싸매고 섰다가 삼선교로 넘어와서 수술을 했는데 열한 군데나 꿰맸다는 것이다.

나머지 고등학교 일부 학생이 제3진의 데모대로 또 학교를 출발하였다. 그들은 스크램을 짜가지고 동대문까지 나갔으나 인원수는 적고 방어진은 점점 심해져 하는 수 없이 동대문에서 돌아섰다. 그리고는 다시 고대생들과 합작해서라도 거사해 보겠다는 결의로 일부는 고대까지 연락을 갔으나 안암동파출소에 17명이 붙잡혔고 고대는 아직 등교도 다 하지 않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로 학교 교정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제1진을 비롯하여 제2, 제3진이 한 시간 이내에 모두 출발한 셈이다. 중간에서 지리멸렬한 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각자 행동을 취하여 연행당한 자들을 내놓고 모두 모여들었다. 안암동파출소에는 생활지도 주임 송 선생님이 달려가서 붙잡힌 학생들을 모두 데려내왔고 동대문경찰서에는 이창로 교장 선생님이 직접 들어가 창피하도록 수모를 당하면서도 30여 명 학생을 모두 데려내왔다. 그러는 사이에 서울문리대를 비롯하여 건국대학 서울의과대학 서울상과대학 동성고등학교 등 꼬리를 물고 데모의 행진이 나섰는데 서울 문리대를 막아내려고 파고다공원 앞에서 최루탄이 터졌으나 서울 거리 전체가 뒤집혀 경찰들은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러니까 대광은 이날 아침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 선두로 혈로를 열기에 피를 흘린 과감한 투쟁을 전개한 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국회의사당 앞과 내무부 앞에는 점차 데모의 선봉이 도착하여 연좌하기 시작했고, 시가지로 몰려나온 전시민은 데모 행렬을 볼 때마다 박수갈채가 아니라 동시에 행렬 속에 흡수되어 갔다. 그래도 대광 학생들은 속이 시원치 않았다. 초지를 관찰하지 못한 유감과 전교적으로 통한 거사를 못한 울분에 전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시 한번 대열 정연하게 행진할 것을 모의하고 학교에도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이 어린 중학생들은 교실에 그냥 남아 있었고 학부형들은 근심스러워 가득히 몰려와 운동장에 둘러서 계셨다. 선생님들도 한편 시원히 나가게 해주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시가지를 돌아 학생들과 함께 오전 중의 형편을 꺾어보신 분들은 이미 혈로를 타개하여 보람 있는 공을 세웠으니 재삼 또 거동할 의의가 어디 있겠느냐고 걱정하시는 이도 계셨다.

사실 시가지는 거칠 것 없이 해방되어 버렸으나 오후 한 시 정각을 기하여 비상계엄령이

서울 일대에 내렸다고 신문사 벽보가 나붙어 있었으니, 폭풍전야의 고요 같은 일말의 불안감이 없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동행할 터인데 일사분란하고 질서정연한 행동으로 대광의 긍지를 가지고 오전에 세운 우리 공로를 무너뜨리지 않게 감행하자고 서로 약속하였다. 이때에 황광은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부탁하셨다.

“우리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이니 한 번 머리 숙여 하느님께 기도 올리고 떠나자.”라고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학생들이 냉소하는 듯한 태도도 없지 않았으나.

이렇게 나이 어린 학생들마저 정의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조국의 안타까운 사정을 굽어 살펴 줍시라고 가슴을 쥐어뜯는 기도를 올릴 때에 학생들은 물론 한자리에 섰던 학부형들까지 뜨거운 눈물에 옷깃을 적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신변이 걱정스러워 달려왔던 어머니들이었건만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을 향해

“차라리 죽을망정 힘껏 해보고 돌아오라.”고 주먹을 쥐고 오히려 격려까지 하는 분도 계셨다.

이리하여 학생들과 직원의 한결같은 마음 같은 행동의 보조로 제4차 데모는 다시 시작되었다.

시간은 오후 한 시 반 남짓 ...

일행은 첫 번 경험에 비추어 선두에 장대한 운동선수들이 서고 좌우 옆줄과 또 맨 뒤에도 주먹이 든든한 거인들로 외각을 짜 이루었다. 8열 종대 1천 명 가까운 고등학교 학생들은 행진하여 나아갔다. 교문에서 신설동 로터리를 지나 동대문에서 종로로 화신 앞까지 이르러 을지로 입구에 다다라서는 미국 대사관 앞을 지나 시청 앞 광장에 이르렀다.

군중은 덕수궁 앞에까지 메웠고 국회의사당 앞에는 연좌데모의 학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때에 경무대 앞에서 희생당한 학생의 웃옷과 시체를 실은 썰차가 시청 앞으로 질주하여 나오고 있었다. 데모의 선두는 대한문 앞에서 남대문으로 향하여 행진을 계속하였다. 일행의 선두가 남대문쯤 이르렀을 때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서울신문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경찰국 앞을 지나 한국은행 앞으로 을지로 입구로 다시 돌아온 데모대는 내무부 앞에 농성하는 군중 때문에 청계국민학교 뒷길로 청계천 길을 돌아 을지로로 들어섰다. 아침과 같은 구호

를 외치면서 을지로 육가로 동대문까지 정연하게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한 기도를 하느님 앞에 드린 후 이날의 데모는 끝났다.

각 교실로 돌아가 인원을 점검했는데 아침 출발 이후 행방불명자가 셋 그밖에 중상자가 우선 밝혀진 것 셋, 방망이에 맞고 교복이 찢어지고 모자를 잃고 시계도 어디로 달아났는지 모를 지경에 이른 학생은 고등학생의 삼분의 일쯤 되었다. 밤새도록 총소리는 서울의 밤공기를 들볶았다. 라디오에서는 듣기 역겨울이만치 계엄사령부의 한 가지 녹음테이프만 방송되고 있었다. 비상계엄령 하에 학교는 휴교되었으나 가정에서 끊임없는 연락으로 행방 모르는 학생들을 찾게 되었다. 20일에 이르러 본교 졸업생 중 서울문리대 철학부에 있는 정학철 형님이 데모 대열에서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되어 갔다가 대광학생들을 발견하고 연락해 주어서 학교 당국이 찾아 내왔고, 또 한 명도 마찬가지로 경로로 남대문에서 연행되었던 연세대학에 재학 중인 동문들의 보고로 나머지 한 사람마저 사흘 후에 유치장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20일에 이르자 거리의 경찰관들은 계엄령 하에 치안은 자기네 복수를 위한 기회인 것처럼 편승해 가지고 거리에 나온 학생들 중에 대광 모표를 단 학생들이라면 덮어놓고 무조건 끌어다 분풀이를 하려 대들었다. 그래서 20일 저녁까지 학교로 보고된 행방불명자는 다시 20여 명으로 증가되었다. 할 수 없이 담임선생님들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소식과 정보를 조사하여 부상자들을 돌보고 실종된 학생들 가정을 찾아 그 경위를 조사하여 찾아내기로 결정하였다.

생활지도주임 송 선생님과 교목 황광은 목사님은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비롯하여 세브란스 서울대학 적십자 백병원 등을 샅샅이 뒤져서 시체와 부상자까지 돌아보았고 매 맞은 자리가 도져서 자리에 누운 학생을 찾아간 곳도 여러 군데 있었다. 그러나 22일까지는 완전 전교생이 무사한 동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날은 새고 또 저문다. 평범하고 무자각한 이런 날들이 거듭되는 동안 국민이 뽑아 놓은 위정자들은 나라보다 자기 한 몸의 영달을 위하여 갖은 추태를 다 부러 이권 다툼과 세력 다툼에 눈이 멀었고 대통령은 어느 전제국의 제왕처럼 우상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허다한 굴욕의 날들 가운데에 제2공화국을 건설할 영광의 날도 끼어 있었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나! 어떻게 그처럼 탄탄한 허물을 벗어버릴 수 있는 탈피기가 그리도 빨리 닥쳐왔던가! 더욱이 우리는 그동안 소극적인 것만이 보이고 암전해 보이기만 하던 우리 미션스쿨의 대광 학생들이 4·19에도 첫새벽부터 살아 약동할 수 있었던가?

하느님을 우러러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경천애인의 교훈도 교훈이러니와 실지 매일 대하는 스승들에게서 정의와 불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올바른 신념과 은근히 학생들의 의기를 북돋아 주어진 평소의 영향력이 절대 한바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국에 밖으로 나타내어 서로 말은 아니 주고받아도 이미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 흐름은 오랜 세월을 두고 사제 간에 인격적으로 다정하게 접해온 하나의 결정체였다. 정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 있는 이런 결정체가 아니었던들 이런 의거를 어찌 감행할 수 있었으랴? 그러니까 오늘날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자 학원 안에 불순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숙청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갈지라도 대광학원의 건아들은 그날의 노기가 다 언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학교 복도마다 감격스런 4·19의 거사를 기념하기 위한 표어가 많이 나붙은 중에

“진정한 애국 애족은 건설에 있다.”

“대광은 황소, 받을 땀 썩 받고, 받고 나면 풀밭에서 꼴을 먹는다.”

또다시 뿔을 세워 받아야만 할 터전이 아닌 살찐 꼴이 우거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빌면서...

●●3. 시

1) 어머니 당신은 4월의 열매를 아십니까\*

홍철부 <고3>

어머니 당신은 나의 조국  
4월의 열매를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 추억일 수 없는 계절에  
채 피보지도 못한 꽃들이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  
어느 금언을 안고 돌아간  
화전민들의 전설이 아닙니다.

노오란 개나리 잎이 저버리던 날  
나비마저 찾아오지 않던  
오후의 역사였습니다.

그늘진 골짜기를 흘러내린 슬픔과  
밤을 이고 애태워야 했던  
이름 없는 꽃들이  
술한 돌부릴 울리고

---

\* 1960년 10월 15일 동국대학교 주최 한글시 백일장에서 차상(次上)으로 입선된 작품

머언 뒀안길로 사라져간 겨레들의  
침묵해 온 사연을  
마구 고백해 버리는 핏빛 강물에서  
달과 별을 사랑했다는 죄아닌 죄로  
무수한 꽃잎들이 고오운 행열을 지어 울렸고 ……

이스라엘 먼동이 터오는 소리에 화환의 행렬이  
소리소리 함성을 지르며, 사라져 간 자리에는  
3월이 괴여 있고, 8월이  
11월의 분화구가 그대로 있어  
4월의 열매가 심장보다 더 붉게 익어가는데

어머니, 이제 넘치도록 푸른 하늘을 형성한  
꽃과 강물의 풍화에 저렇듯 4월이 익는데

끝내 돌아서지 못할 핏빛 연륜을 안고  
아쉬운 눈물일랑  
모두 상처 입은 가슴에 깊이 새겨 두고

어서 당신의 고요한 기도로  
원색의 계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머니 당신은 나의 조국  
4월의 열매를 아십니까?



## 2) 4월의 어느 날 밤

표학길〈중 1~3〉

크리스마스 날의 선물로

어머니께서 사 주신 괘종시계가 3시를 울리고 있었어요.

철이도 자고

엄마도 자는 곁에서

정말 떠나야 할지 나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고요한 침묵을 깨뜨리고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

그리고 어둠을 뚫고 가는 총소리.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철이를 보고

엄마를 보고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벗들과 단단히 약속을 했었거든요.

4월의 바람이 밤을 달려

나의 귓가를 스쳐갔어요.

경석, 현옥, 순희, 영수 모두 있을거다.

현옥이네 집에 모였을거다.

괘종시계의 소리  
철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  
가쁘게 두드리는 내 맥박소리.

그날 밤, 4월의 어느 날  
그 무서운 총탄 앞에  
꽃처럼 꽃처럼 피어나고 싶던 밤.

군중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던  
4월의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맥박 소리를 혼자 듣고 있었어요.

## 총동창회 회보 제38호

발행일 1995년 5월 6일

1. 4·19 데모와 대광고 13회 / 이길남
2. 대광의 문을 나선 지도 어언 35년여 / 이상철
3. 나의 학창시절 / 김 윤

### ●●●1. 4·19 데모와 대광고 13회

이길남〈대광고 13회〉

1960년 4월 18일, 점심시간에 신설동 → 안암동쪽 지금의 고가차도 방향에 대광학교 담이 있는데 담 옆에 철봉, 평행봉, 씨름 모래장 등에서 운동하던 우리 학생들이 마침 고대생들의 철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가 낭자한 학생들, 발을 절면서 동료 학생들의 부축을 받고 고대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계속 고성으로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울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군대고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나가서 이 대열에 끼고 있었습니다. 오후 수업은 많은 자리가 비고 웅성대는 상황이라 제대로 수업을 못하고 있다가 일제히 나가자는 등 단상 토론이 벌어진 다음 교문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교문의 철문을 닫아 놓고 해서 단편적으로 데모를 하고 그날은 그 정도로 끝났고 하교 후 약 9명 정도가 동대문 조금 전에 창신동 산 동네 쪽 200m 가량 들어가 양조장 하는 급우네(전병화 군) 집에서 모여 토의를 하여, 내일 등교한 즉시 일제히 데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일부 띠를 준비하고 헤어졌습니다.

4월 19일, 등교 후 학생들을 집합시켜 어제 고대생들의 피해 상황을 발표한 후 데모의 필연성을 역설하고 대다수 학생들이 합성을 지르며 교문 쪽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알고 교문을 닫아걸고 학생들을 설득했습니다. 희생자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일부가 담을 넘고 후문을 넘어 신설동으로 집결하니 절반 정도가 집합하면서 선두는 송인동 쪽으로 전진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는 차단되어 전진이 별로 안 됐으나, 후진이 계속 밀려오면서 조금씩 전진했으나 동대문에도 도착 못하고 최루탄을 피해 이화동 서

울대쪽, 삼선교 쪽으로 흩어져 피했습니다. 2진은 종로 5가까지 진출하였다가 흩어졌습니다.

이때는 고등학교는 등교 후였고 대학생들은 등교 중이거나 학교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동성고등학교 쪽에 대고 데모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며 합성을 지르며 도주하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학생들이 학교에 재집합하게 되고 어디서 어떻게 피해 왔는지 얘기하면서 또 일부 부상당한 학생들은 학교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밖으로 나가 병원을 찾아가고 했습니다.

거의 전학생이 다 모인 다음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학교 선생님들과의 격한 토론을 벌였고 학생들은 이 시간 각 학교에서 데모에 돌입하였으니 2차로 데모에 나서자는 주장이었고 선생님들은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만류했지만 실제로 상황을 보았고, 특히 머리에 돌을 맞고 봉대를 감은 이동범 선생님과 학생들의 울분이 분노에 동조하게 되었고 적극 참여기로 하되, 단 질서 정연하게 데모하고, 절대 돌을 던지는 등 행위는 양기로 다짐하고 한마음이 되어 2차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일차 때는 따라오면서 만류하던 선생님들이 옆에 붙어서 질서를 호소하며 돌팔매질을 못하게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여러 차례 대치와 밀고 밀리면서 우리 맨 선두는 화신 앞에서 다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화신 뒷골목으로 해서 개인집 담을 넘어 도피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후진은 광화문까지 전진했다고 합니다. 밤에 집에 와서 들으니 부모님들이 해질 무렵까지 자식을 찾아 헤매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면서 너무나도 혼났고 걱정하면서도 비분강개해 마지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른 학우들도 비슷한 여러 상황들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 ●●2. 대광의 문을 나선 지도 어언 35년여.

이상철〈대광고 13회〉

벌써 반백의 머리에, 젊음을 아쉬워하는 아내. 어느새 자식들은 커서 짝지은 친구들도 있고, 거의 군대 아니면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허겁지겁 살아오다 보니 우리와 유명을 달리한 친구가 벌써 열세 명이나 되고, 따라서 상처한 친구도 서너 명은 되는 것 같다. 그래도 아직 연락이 되고 있는 친구들은 국내외 모두 약 100여 명은 확실하다.

6·25 동란 속에 피난 생활로 여기저기 부모 따라다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중학교에 들어올 때, 전차 타는 재미로 대광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누가 알겠느냐만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광의 가족이 된 나는, 3년간 입을 계산으로 부모님은 내 몸이 돌이 들어가도 여유 있는 교복을, 바지부터 소매까지 접어 넣어 꿰매 입히고 거기다 모자엔 왜 그리도 커 보이고 눈에 잘 띄는지, 대광의 모표와 목에 붙이는 뺏지. 신발도 고작 잘 신어야 검정운동화인데 발이 커지면 못 신는다고 아예 군대 훈련화 같은 크기로 사 주어 발에 맞을 만하면 다 떨어져 버렸고 양말은 제대로 신었던가, 운동화 바닥은 냄새와 때로 찢어... 그 이상은  $\pm 2-3$ 기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는 곧 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 학생들 99%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나는 완전한 대광인이 되었다.

당시 전쟁 이후라 폐허 속에 국가도 어려웠고 따라서 우리들도 그리 여유 있는 가정이 거의 없었다. 판잣집 가건물 교실에 밑바닥은 붉은 흙의 맨땅이었다. 교문은 지금의 후편 골목 쪽에 있었고 옆에는 우뚝 솟은 공장 굴뚝이 있었으며 그 아래 공장건물에는 부서진 큰 폐보일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금도 옛 시절 공부 좀 하던 친구들은 생생히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쉬는 시간이면 보일러실 아궁이로부터 굴뚝 밑을 거의 매일 누비다시피 했다. 이곳은 점심시간 후 예배시간이면 자주 이용하던 곳으로, 지리를 모르는 학생이나 선생님은 절대 출입을 할 수 없었다. 초보자는 옷과 얼굴이 검둥이로 바뀌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광의 역사 속에 대광의 면모를 갖추기까지의 학교 건물을 짓는데 토목공사의 인건비 2/3는 우리가 노력동원으로 감당하지 않았나 할 만큼 점심시간 후 한 시간은 흙과 돌

나르기로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콘크리트 건물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고, 학생이나 선생님들도 그때부터는 흰해 보였고, 학생같이 선생님같이 보였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은 노가다 패와 그 십장에 불과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준비 못한 친구들도 꽤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나누어 먹기도 많이 했고, 등록금을 내지 못해 가방을 도로 싸가지고 쫓겨가던 친구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는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대광 13회.

선생님들은 대광의 역사상 제일 문제 많고 제일 성적이 떨어지는 13회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관갓집 후문으로 입학하여 현재의 정문으로 졸업했다.

6·25 동란 이후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래도 선생님들과 우리가 그만큼 고생과 노력을 했기에 지금의 명문 대광이 있게 되지 않았는가.

당시 우리는 철없이 선생님을 많이 원망도 했었지만, 그때 그 은사님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추억과 애뜻함이 얽히어 있어 이 나이에 뒤를 돌아보면 짜릿함과 몽클함이 동시에 교차하고, 모든 추억들이 그리움과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다.

지난 Home Coming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13회만은 부부동반을 하기로 했다. 대광의 가족, 나보다 우리들 아내에게 대광을 더 알리도록 하기로. 왜? 우리를 키워준 대광의 동지를 보이고 싶어서 부인들과 함께 교정을 두루 돌아봤다. 그때 우리 친구 구교성의 부인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광의 아내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 역시 대광의 기본적 교육 바탕은 흔들거리지 않는다고 ...

우리가 자주 모임을 갖지만, 함께 식사를 하자면 자연스레 주<sup>酒</sup>를 가까이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시작 전에는 항상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부터이니깐.

여기서 잠깐 동창회의 이야기를 좀 하자.

졸업 후 동창회 모임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초년에는 직장생활에, 가정 갖기 바쁘고 하다 보면 동창회 회장도 뚜렷하지 못하고 총무도 그렇고.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모임을 갖다가 시들해지다가 또 모였다 또 흐지부지. 이렇게 한 이십년이 흐르고 나이 사십여 될 때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생각나는 게 바로 어렸을 때 친구가 아닌가. 이때부터가 진짜 동창회가 성립되는 순서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도 그 과정을 거쳐서 몇몇이서 맥을 이어오다 틀을 잡은 것이 약 10여 년 역사가 된 것 같다.

이때부터 초대회장이라고 부름이 맞을 것이다. 현재로 바서는 평생 회장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길남 회장이 초대부터 현재까지 장기집권 중이며 총무로는, 그동안 오늘이 있기까지 터를 닦아 뿌리를 내리게 한 밑거름인 김명원 전 총무가 90년까지 봉사를 해주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인수를 받아 동창들의 많은 협조 하에 현재까지 13회 동창회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해외의 동창들도 잦은 연락과 만남으로 예전과는 달리 가까이하고 있어 서로의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작년까지는 김광신 회원이 회장을 역임하여 많은 도움과 우의를 돈독히 하였고, 93년부터 매년 하절기에는 미국(L.A.) 동창회(회장 김희집)와 서울 동창회가 함께 가족 동반하여 1박 2일간 야유회의 기회를 갖기도 하여 미국에서 2년이란 실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바쁜 가운데 L.A 동창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임을 갖는 것도 17년 만에 처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으나 이젠 자주 만나게 되었다.

지난 봄에는 L.A. 동창회에서 서울로 감사패를 보내주어서 더욱 마음속에 따뜻함과 고마움으로 미국 동창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들은 이 모임을 더욱 발전시켜,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많은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들 입을 모았다.

한편, 이 시간에도 병고 속에 고생하는 친구가 몇이 있어 내심 우리들의 걱정이 되는데, 김광욱 친구가 지난 3월부터 자리에 누워 고생하고 있으나 많이 호전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있고, 김익웅 친구가 병원에 들락거리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다고 하며, 미국에 김길호 친구가 많은 고통 속에 병원에 누워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본인이 만나보고 왔지만, 당시는 많이 좋았겠다는 상황이었으나 나와의 대화는 글과 눈빛과 어색한 웃음으로 표정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어려움은 남의 일 같지 않으니 우리 모두 친구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매한가지 아니겠는가. 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가족과 함께 밝은 새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드리는 바이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대광에서 배웠기에 학창 시절 공부이야기는 삼가하기로 했다.

실력자들이여 이해하기 바란다.

13회 동문들은 4·19와 5·16을 고3과 대학 1년 때에 맞은 동문들로 1961년 3월 5일 졸업,

회원은 240명(4반)이다.

50대 초반으로 교역자로 문전섭 러시아 선교사, 백도웅 산성교회 담임목사, 이웅철 제주교회 목사, 이윤종 두정교회 목사.

실업계에 이길남 대륙항운(주)대표, 김관희 천일상사 대표, 강정웅 호텔리베라 상무, 강우구 한성화학건재(주)대표, 계경순 금강개발(주)전무, 구교성 평일전업대표, 김명원 현대해상(주)명리대리점 대표, 김의협 예전레코드 대표, 김삼남 건설업, 김창구 전매공사, 김태성 협진철강대표, 노광국 대왕콘크리트 상무, 문동근 원봉골재대표(공주), 박용철 청원건설 대표, 박예정 마니가든 대표(강화), 백선영 판네이션 대표, 배극일 코오롱엔지니어링, 백진호 홍신실업 대표, 서재복 동방지업, 서용남 쌍용자동차(주), 손종호 대호정보(주)대표, 송명남 포철광양(주)사업소장, 송인광 화백법무법인 공중실, 김민수 동아건설(주)부장, 신기원 한국비료공업(주)실장, 이상철(주)광일 전무, 이황 (주)홍진스프레이 대표, 정상춘 현대중공업(주)전무, 지선장 이레상사 대표, 최경일 신성기계(주)대표, 하대웅 (주)대동상무이사, 한관석 코벨소체육사 대표, 홍해웅 (주)주신상사 대표, 황원무 동신상역 대표이며,

중·고·대학에 권영중 울산대 조선해양학과 교수, 한상일 국민대 교수, 이창익 울산공업전문대 교수, 최택준 양강중 교사, 최성철 송곡여중교사, 안희복 대광중교사, 박영산 서울정진학교 교사.

은행, 보험, 생명계에 유병길 동양베네피트 생명(주)부사장, 김영강 주택은행 영등포지점장, 박동수 외환은행 잠실동지점장, 오승박 국민은행 지점장, 이재윤 상은 양평동지점장, 김성수 한일은행대천지점장(충남 보령시), 송기영 축협중앙회 부장 등이며

의·약학계에 김윤 외과의원장, 도호웅 소아과의원장, 문복강 치과의원장, 고광언 한의원장, 박옥호 상지약국 대표, 김황준 동산약품(주)전무 등이며

언론·방송계에 박강남 연합통신부장, 박영길 KBS-TV제작기술부장.

공무원에 한기풍 서울시 교육원, 노석갑 국회 농수산위원회, 박희조 인천세관, 김인환 강원화천군청 등에서 봉직하고 있으며,

윤영범 방주원장(김해)이 사회봉사에 진력하고 있다.

재미 김광신 동문을 위시 40여 명, 재 캐나다에 조승호 동문 등 7명, 아르헨티나에 우형순, 터키에 최평화, 싱가포르에 조영선, 방글라데시에 김재욱 동문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 ●●3. 나의 학창시절

김 윤 <대광고 13회>

1955년 봄 내가 대광중학교에 입학할 당시 나는 내가 왜 이 학교에 와야 되는지 생각도 하기 전에 어머니의 손에 의해 너는 믿는 학교인 대광학교에 가야 된다는 말씀에 대광의 식구가 되었는데 어느 틈에 벌써 40년이 지나서 아무런 일도 해 놓은 것 없이 옛날을 이야기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새삼스레 인생이 너무나 짧고 너무 초라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는 듯하다. 되돌아보면 우리 학년은 유난히도 말썽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의 속도 많이 상하게 하고 우리 때문에 다른 학년보다 주름살도 한두 개는 더 많이 늘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반에서는 퇴학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우리 반이었지만 실제로 우리보다 2년 먼저 입학한 계수생들임) 그날 오후 H.R. 시간에 공표를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김웅철 선생님의 모습은 지금도 내가 대광과 인연을 맺은 후 제일 처음 보게 된 대광의 참모습이었음을 이제 늦게나마 깨달으며 해가 갈수록 대광에서 보냈던 시간들의 소중함과 은사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비단 나만의 느낌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서로 확인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입학하던 해는 그때까지 주둔하던 군인들이 철수한 직후였으므로 운동장에는 아직도 철거한 텐트의 흔적이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공부할 교실이 부족해서 음악 시간이면 운동장 한 곁에 있는 산기슭의 바위에 둘러앉아 배우던 노래의 기억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 듯 선하다.

버스 샅을 아껴 군것질하거나 사고 싶은 것들을 사기 위해 미아리에서 신설동까지 한 시간 여를 힘든 줄도 지루한 줄도 모르고 걸어 다녔던 어려웠던 시절들이 지금은 오히려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으니 무어라고 표현을 해야 할런지! 중학을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 그동안 피난학교의 모습도 어느덧 정리되고 학교 교사들도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더구나 고등학교부터는 한 학급을 증설하는 바람에 여태까지 평안도, 함경도 사투리가 서울 표준어처럼 들리던 교실에서 이제는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들이 간혹 들리게 되고 피난 학교의 면모가 조금씩 새로워지는 모습도 띄게 되었다 하겠다. 추수 감사절 때의 교실에서의 파티,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축하예배(영락교회에서) 후 각 학급별로 매년 들었던 크리스마스 캐롤,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화음을 이루며 부르던 대광찬가... 등 지금도 마음속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간직되었음을 느낀다. 그중에도 특히 기억나는 것은 2학년 때 다락원에서의 며칠간의

생활은 아름다운 추억인 동시에 그 당시 어린 우리에게 귀한 강의를 해주신 김형석 교수님, 문명과 문화에 대한 강의를 통해 역사에 대한 인식과 내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 속에서 수천 년에 걸쳐 변화해 온 인간이 이룩한 문명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문을 열어 주신 이창로 교감 선생님. 마음껏 즐겼던 젊음의 시간들, 마지막 날의 연못가의 촛불 예배와 수면 위에 퍼지던 찬송, 하나님의 진리등대의 울림들은 아마도 대광인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귀한 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단지 아쉽다면 유난히도 말썽이 많았던 우리 학년들 인지라 다락원에 가기 전에 벌여졌던 집단 싸움의 후유증으로 몇 명이 징계를 받아 참석 못하게 되어서 그때 진호와 내가 황광은 목사님에게 찾아가 간청을 했더니 목사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으나 결과가 여의치 못해서 어린 마음에 그때 섭섭했던 생각이 지금도 나는 것이다. 그러나 뭐니 뭐니해도 우리 학년이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4·19일 것이다.

1960년 4월 19일 아침 조화가 끝나고 모차르트의 터키행진곡이 운동장에 울려 퍼지기 전에 당시 3학년이었던 우리 학년의 학생회 임원들이 전날 저녁 준비한 선언과 함께 4·19의 아침을 열었던 것이다. 전날 저녁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소위 반공청년단이라는 깡패들에게 집단 테러를 당한 사실은 알았으나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이 그 밤에 4·19를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은 몰랐던 것이다. 일차로 교문을 벗어난 우리는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종로를 향하여 각각 나누어 구호를 외치며 뛰었으나 서울대학 쪽으로 갔던 우리는 거의 모두가 반공청년단의 몽둥이에 쓰러지고 트럭에 실려 동대문 경찰서로 끌려갔다. 나는 다행인지 잡히기 직전에 길 옆의 어느 집으로 담을 넘어 뛰어 들어갔는데 그 집 다락에 숨겨 주어서 한참 후에 교복을 벗고 나올 수 있었다. 학교로 가니 전교생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선생님들이 제자들인 우리를 호위하는 모습으로 종로 쪽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얼마 있으니 이동범 선생님께서 경찰의 곤봉에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렸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들은 라디오를 들으며 걱정하고 있었다. 며칠 후 4·19는 대미를 내렸다.

만약에 4·19가 실패했다면 대광학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대광을 지켜주신 것으로 느껴졌다. 이제는 모두 흩어져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유난했던 덕에 선생님과 정도 더 깊이 들었던 것 같다. 숙제 안 해 왔다고 복도에 단체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허리 위로 걸어가시며 훈계하시던 선생님, 허리를 밟고 지나가시는 선생님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선생님이 너무 몸이 약하시

구나 하고 오히려 걱정이 되던 그 변익성 선생님. 엄하시면서도 인자하신 모습의 송성찬 선생님, 장윤철 선생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던 이동범 선생님, 늘 민족혼을 깨우쳐 주시려고 야단치시던 박동엽 교감 선생님,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여러 선생님들의 귀한 교훈과 성실하신 모습들은 우리가 대광인이었기에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재산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다. 학창 시절 생각도 못했던 친구들이 목회자가 되어 전국 각지에서 혹은 국외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대광인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된다. 우리 아직 60도 못 되었는데 벌써 많은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다. 추로, 충삼, 수남, 현삼, 기원, 문성, 준영, 현무, 건진, 문수, 인수 ... 내가 미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들 주님 품에서 안식하기를 기도하며 부족한 내 삶의 한 장을 돌이켜본다.



## 제2장

### 4·19 민주혁명 기념식

#### 1. 제51주년(2011.4.20)

#### 내가 겪은 4·19

배극일 <대광고 13회>

1960년 4월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3·15 정·부대통령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온 국민과 학생들은 분노하였고, 데모에 참여한 김 주열(당시 고교생)은 마산 앞바다에 버려져 시신으로 발견되어 온 국민과 학생은 분노하였다.

4월 18일 오후 늦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할 무렵 교문 밖의 고려대생들의 함성이 울렸고 머리와 얼굴에서는 붉은 피와 상처 투성이었다. 얼마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종로와 청계천 사이 천일백화점 앞에서 질서 있게 구호를 부르며 데모에 참여한 고려대생이 정치 깡패들에게 짓밟혀 기습을 당했다.

나는 당시 너무 분노하였다. 이 나라는 언제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려나 ...

마침 그때 운동장에서 이문길, 박웅균, 문복강을 만나 내일 우리도 데모에 참여하기로 다짐을 하고,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전병화에게 달려가 내일의 거사일을 너희 집에서 오늘 저녁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논 결과 쾌히 승낙해 주어 우리들 5인은 창신동 전병화 집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양조장이라 밀가루 포대도 많이 있어서, 현수막도 만들고 또한 이곳은 외부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기밀이 누설되지 않으리라 생각한 곳이기에 우리들은 이곳에서 밤을 새워가며 의논을 하고 결의를 하였다.

거사일은 다음날 오전 등교 시간에 고등학교 위주로 교문에서 행동할 동기와 후배들의 복장 검사를 하는 척(나는 당시 학생회 대대장이라) 별 의심 없이 진행되었는데 옆에서 박웅균과 문복강이 동기와 후배들에게 지시를 했고, 옛 강당으로 가면 그곳에 이문길이가 지시를 내렸다. 한

편 힘 있는 서너 명의 학생은 교무실을 차단하기로 하고, 8시 30분 내가 운동장에 있는 교단에서 호각으로 세 번을 불면 운동장에 모이기로 했다.

우리들은 교문을 나가 국회의사당까지 구호를 외치며 질서 정연하게 데모를 하기로 하였는데 일단 교문에서 차단되어 잠시 지체되었지만, 차후 교무실에서 나오신 선생님을 설득하였고, 교문을 박차고 나아가 신설동 로터리 부근에서 다시 모든 동문들을 정리를 하였다.

우리들이 구호와 애국가를 모두 한 마음으로 불렀을 때 주위의 모든 시민과 대학생들도 함께 환호해 주었다. 대학생들도 동참하겠다고 말해 주면서 우리에게 많은 박수와 격려를 해주었다.

우리들은 더욱 용기를 얻어 동대문에서 일부 경찰의 저지가 있었으나 우리들은 계속 저지망을 뚫고 나아갔다. 세종로 국회의사당 쪽으로 우리 동문들은 질서 정연하게 구호를 외치고 달리고 있을 때에도 수시로 박동엽 교감 선생님과 송성찬, 이동범, 김주영 선생님들은 우리가 다칠까 봐 계속 주시하고 계셨다.

종로 5가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무장 경찰과 군복을 입은 청년 등이 우리 학생들을 무참히 몽둥이와 주먹으로 힘없는 우리 학생들을 내려치기 시작했고, 사방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일부 학생들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고, 부상을 입은 많은 학생들 일부는 다시 대학로 방향으로 달려 서울대와 동성고, 경신고, 보성고 등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도중 경찰들로 또 제지를 받는 광경을 바라보던 서울대생들이 우리도 곧 동참하겠다고 많은 격려를 해주었다.

동성고 앞까지 달려간 우리 학생들은 또 제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구타를 당하는 학생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이동범 선생님은 경찰에게 어린 학생에게 구타를 해도 되냐고 항의하시던 도중 여러 경찰들에게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한편, 종로 5가에서 저지선을 뚫은 많은 동료들은 화신백화점 쪽으로 향하던 중 또다시 경찰의 저지를 받아 일부 학생만 제외하고 해산하게 되었다. 상처 입은 나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몸을 추스르며 피신을 하여 다시 학교로 복귀하였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많은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하여 점심 도시락을 먹은 후 간부회의를 하여 대광 전교생이 다시 질서 정연하게 운동장에 모여서 우리의 각오를 방정웅이 낭독 후 동

대문과 종로를 지나 시청 앞에 이르렀을 때 상황은 온 국민과 대학생, 고교생 등이 총상과 부상으로 격분하여 경무대 쪽에서 시청 앞까지 집결되어 있었다.

우리도 함께 같이 합류하려 했으나 송 장로님의 간곡한 말씀이 “우리 대광은 이만큼 했으면 되었으니, 제발 학교 쪽으로 방향을 돌려 달라”고 나에게 간곡한 말씀이 있었다. 나는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했고, 송 장로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학교로 방향을 돌렸다.

우리는 4·19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정부패와 싸웠고, 민주화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불씨가 되었다는 점을 지금도 자부한다.

지금은 작고하신 전병화 어머니를 비롯하여, 당시 4월 18일 밤새도록 민주화의 의지를 다지며 함께 했던 문복강, 박웅균, 전병화, 지금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문길과 대광고 많은 동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2. 제52주년 (2012.4.18)

### 나와 4·19

문복강〈대광고 13회〉

1960년 4월 18일 오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인데 배극일이가 ‘복강아 오늘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되면 우리 같이 전병화 집으로 가자’ 하는데 나는 직감을 하였다. 그것은 3·15 부정선거와 맞서다 마산에서 경찰 발포로 학생이 사망하게 되어 시국이 좋지 않은 데다 오전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행렬이 교문을 지나가며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았고 천일백 화점에 이르러 흥기를 휘두르는 정치깡패들의 기습에 폭행을 당해 많은 고대 선배들이 교문 밖으로 지나가며 ‘후배들이여 총궐기하여 민주주의를 지키자. 우리의 이런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라. 전국의 학생들이여 이 나라를 위해 일어나야 한다’ 하며 구호를 외쳤고, 어느 선배들은 교문을 흔들며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는 것을 우리 대광 학생들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배님들 힘내세요’를 외치며 독려한 것들이 어린 마음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구나 우리도 무언가 하려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복강아,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 될 뿐 아니라 가만히 주저앉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일어선다면 고대의 형님들뿐만 아니라 전국 학생들도 동참해 줄 거야. 너의 생각도 같고 뜻을 같이하고 싶다면 가자’, ‘좋아 나도 동참할 게’, ‘그럼 좋아 전병화 집에 박웅균, 이문길 그리고 나(배극일)와 너(문복강) 이렇게 다섯이 모이기로 했다. 몇몇 친구들을 더 모으기로 하였으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되면 우린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섯만 행동한다.

병화 집을 택한 것은 우리가 의논할 마땅한 장소도 없고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곳은 전병화 집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병화도 동의했어’ 하고 친구들과 굳은 약속을 하고 대대장이고 배짱 좋은 극일이 말에 무언가 두렵기도 하고 갈등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진정시키고 병화, 극일이, 문길이, 웅균이와 함께 병화 집으로 향했다.

양조장을 하는 동대문 근처에 있는 병화 집에서 병화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저녁을 먹고 내 기억으로는 양조장 계단이 있는 약간 윗 층에 있는 방으로 생각되는데 계획부터 의논하고

실천에 옮겼다. 우리는 성공이나, 실패나 하는 문제는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결의를 하며 둘러앉아 성공시켜야만 한다고 맹세하고 하나하나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먼저 플래카드를 만들기로 하여 밀가루 부대자루를 깨끗하게 털고 몇 장을 풀로 붙이는데 병화 어머니께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하시며 부대자루를 더 갖다 주시니 그때 고마움이란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였다.

플래카드에는 행진하며 외칠 구호를 썼고 결의문도 작성하여 가방 속에 숨기고 각자 할 일들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학교에 도착하여 각자 맡은 일에 착수하였다. 내가 맡은 일, 정문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책가방을 교실에 놓고 운동장에 집합하라고 전달하였고, 한 친구는 교실을 뛰어다니며 운동장으로 나가라고 하였고, 한 친구는 운동장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하는 등 자기 할 일을 하였다.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거의 모였을 때 대대장인 배극일이가 마이크를 잡고 우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뛰어 나가는데 선생님들이 달려 나와 교문을 막고 저지하자 교문을 넘어가기도 하였으나 미처 나가지 못한 학생들은 교정 뒷담을 넘어 신설동에서 합류하려 했는데 나는 정문에서 모두 나갈 때까지 독려하다가 교문이 잠기는 바람에 정문으로 가지 못하고 뒷담을 넘어 합류하였고 우린 뭉쳐서 구호를 외치며 가는데 동대문에서 경찰의 저지선에 막혀 스크럼을 짜고 밀어붙치며 종로 5가까지 달려갔다.

종로 5가에서 곤봉을 휘두르는 경찰에 맞기도 하고 붙들리기도 하여 흩어지게 되어 어떤 학생들은 종로 3가 쪽으로, 어떤 학생들은 서울대 쪽으로, 어떤 학생들은 다시 학교 쪽으로 돌아와 고대를 향해 달려갔다.

나는 서울대를 향해 달려가 수십 명의 학생들과 소리를 지르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니 서울대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였고, 그때 경찰들이 달려들기 시작하여 나는 뒷골목으로 도망을 가다 가정집으로 들어가 아주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숨겨주어 밖이 조용해져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학교를 향해 달려갔다.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매를 맞은 학생들, 경찰서에 붙들려 간 학생들 소식을 들었고, 특히 이동범 선생님께서는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셨고, 친구 이문길은 한쪽 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반창고로 붙여 놓고 있었다.

그때 서울 시내 각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거리로 뛰어나와 시민들과 합세하여 시청에서 경



무대로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우리가 재정비하고 학생들을 집합시키니 선생님들이 나가도 좋으니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하고, ‘하나님 정의에 부합하고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기를 도와주소서’ 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몇몇 선생님들이 우리의 행군 대열에 옆에서 따르셨다.

수많은 인파가 우리를 향해 구호를 외치며 손을 흔들며 주었고, 질서 정연하게 시청까지 갔을 때 경무대 앞에서 경찰의 발포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하였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깃발을 흔들며 경찰이 발포했다고 하니 우리와 동행하시던 선생님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니 돌아가자’ 하여 학교로 돌아왔다. 학교에 돌아와 몇몇 친구들과 오늘 일에 대해 의논하고 해산하기로 하였는데 경찰서에 붙들려 간 학생들을 찾으러 선생님이 찾아 나섰다.

나는 늦게 학교에서 나와 집으로 가며 전국이 아우성치는 소식을 들으니 아, 나도 드디어 해냈구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공하여 혁명다운 혁명이 돼야 할 텐데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우린 이렇게 쫓기하고 일어나 선두에 서서 4·19 혁명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끼며 지금도 옛일을 회상하면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고맙게 여기며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지금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때 그 혁명이 수포로 돌아갔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을까? 회상한다.

1960년 4월 18일 저녁에 밤을 새우며 거사를 도모하던 친구들 중에 국내에 배극일, 나(문복강)가 서울에 살고 박웅균, 전병화는 미국에 거주하는데 이문길은 행방이 묘연하다.

나는 대광의 학생이었다는 것이 언제나 자랑스럽고 사랑하고 있다.

### 3. 제53주년(2013.4.17)

#### 자유를 달라!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최대석 목사<대광고 27회>

제가 1990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리치먼드의 PSCE-유니온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에 시내 관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세인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영국 식민 정부에 저항할 민병대를 조직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임 중, 의견이 분분할 때, 버지니아 식민지 회의 의원으로 미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패트릭 헨리가 일어나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연설을 했고, 이것이 미국 독립운동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밀 브루너는 ‘정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역사를 ‘정의와 자유를 향한 운동’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는 ‘자유와 정의’가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역사는 이 가치들이 많은 희생의 대가로 얻어 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였습니다. 8·15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독립운동가들, 독립군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정든 집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지금도 후손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또, 해방 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전쟁으로 우리나라와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이 한반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미군만 보면, 모두 13만 7,250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 중 36,940명이 사망했습니다.

월남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도 과병했는데 5천 명의 한국군들이 전사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전쟁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대전현충원에서 제가 담임한 교회의 고 강원철 집사의 봉안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에 걸렸는데 다리를 네 번 절단했습니다. 몸통만 있는 이분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셔서 현충원에 봉안하게 된 것입니다.

53년 전, 4·19 학생혁명이 있었습니다. 4·19 민주묘지에는 혁명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발포로 숨진 사람과 혁명 유공자 등 300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배들의 피의 대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누리는 것.

자유,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의 비문에는 “Freedom is not free.” 즉,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자유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잃었던 자유를 되찾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엄청난게 큰 값을 치러 주셨으니 이 자유는 아주 소중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합니다. “굳건하게 서라”는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단어인데 군대용어입니다. 차렷 자세로 굳세게 서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또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얻는 것도 어렵지만, 지켜나가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봉건 제도에서 자본주의 제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유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개인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경제적 기계의 한 톱니바퀴가 됨으로써 불안한 자유가 되었고, 그래서 이 불안한 자유로 탈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향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권위주의로 도피입니다.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됨으로써 사라진 제1차적인 속박 대신에 새로운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동적 동조로 도피한다고 말합니다. 자동적 동조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으로서 외부 세계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면, 자신과 외부 세계 간의 모순은 사라지고 그와 함께 고독과 불안, 무력감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스스로 중시하는 것으로 자기 본연의 모습 즉 개인적 자아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릭 프롬은 한 마디로 매우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유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의 모순 때문에 자유를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자유를 향한 선배들의 의거

53년 전, 대광의 선배들이 이 땅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4·18, 고대의 데모대를 보고, 다음날 4·19 아침, 전교생이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서울대생들, 동성고가 합류했고, 이어서 각 대학들도 데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대광고가 전국적인 규모로 시위가 확대되게 하는 중대한 도화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4·19는 자유와 정의를 향한 운동으로 한국의 정치 발전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기록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동시에 4·19는 학생운동의 맥을 이어가는 사건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1919년 3·1 독립운동과 1926년 6·10 만세사건,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사건을 통해서 강한 저항의식과 열렬한 애족 애국심을 발휘한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맥을 4·19가 이어갔고, 그 선두에 대광이 있었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향한 이 학생운동의 맥을 앞으로 여러분이 이어가야 합니다.

## 맺음말

저는 올해 대광고에 입학한 지 만 40년이 됩니다. 40년 전, 고1 때,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에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춘계 심령수련회 때였습니다. 지금은 소망교회 원로목사이신 광선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말씀을 듣던 제가 목사가 되었고, 17년 전, 소망교회 부목사로 부임, 소망교회에서 7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광선회 목사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광선회 목사님은 빌 3:12,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는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잡힌 바 되었다” 는 것은 미쳤다는 말이라고 설명하시며 바울이 지금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여러분도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고 하시면서 대광이라는 교명에 대하여 말씀 ...

대광은 한문으로 큰 대(大), 빛 광(光)으로 “큰 빛이 되라”는 뜻인데 이 광을 미칠 광으 로 바꾸어도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광이 “크게 미치라”는 뜻이 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 크게 미친 사람들이니 크게 미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빛이 되려면, 크게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니 먼저 공부에 크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또,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이 고귀한 일에도 크게 미쳐서 대광 선배님들의 4·19 정신의 맥을 길이길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제55주년(2015.4.15)

### 헌화식 감사 인사

김정남 <대광고 14회>

헌화식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광 4·19 민주혁명위원회 위원 김정남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55년 전 그날의 일들이 하나하나 뚜렷이 기억나면서 불현듯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혁명 전야 피로 범벅이 된 고려대 형님들의 처참한 몰골부터, 혁명 당일 아침 제일 먼저 교문을 박차고 시위에 나섬으로 민주혁명의 불씨를 지켰던 우리 대광의 선배님들과 친구들의 결의에 찬 모습들,

경찰들의 무자비한 곤봉과 구타 세례에 이리저리 쫓기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독재에 항거했던 용기 있는 행동들까지 모든 일들이 오늘에 벌어진 양 아직도 가슴이 벌겍게 불타 옵니다.

우린 오늘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을 회고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희생되신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잔인한 4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과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 온 몸을 헌신짝처럼 내던지신 우리 천여 명의 대광고 민주혁명 동지들을 기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이토록 발전하게 된 것은 모두 자유와 정의를 위해 산화하신 우리 혁명 동지들의 숭고한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을 추모해 주십시오.

절대 그날의 아픔과 값진 교훈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귀한 시간 내어 주신 동창회장님과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학교 교정에 4·19 혁명 기념탑을 만들어주신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업에 빠지면서까지 같이 동참해준 우리 후배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시인 김수영의 시 ‘사령’ 한 구절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반짝거리는 하늘 아래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4월의 혼과 백이 항상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 제56주년(2016. 4·19)

### 4·19 회고사

김정남

이 자리에 모이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광 혁명위원회 위원이며 여러분의 학교 56년 선배 김정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후배들에게 56년 전 그날의 일들을 얘기하려 하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 뚫니다.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자니 심장 깊숙한 곳에서 피가 솟는 것 같고 그냥 먹먹하기만 합니다.

그해 4월은 정말 잔인했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던 고교생 김주열이 마산 앞바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 온 국민들의 분노는 극으로 치달았지.

마침내 4월 18일 우리 학교 이웃의 고대 형님들이 서울에서는 제일 먼저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나섰으나 그날 저녁 청계천 골목에서 정권의 사주를 받은 정치 깡패의 습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어.

우리 학교 앞에서 이 모습을 목도한 저와 친구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

다음 날 아침 등교하자마자 작금의 사태를 혁파하고자 전날부터 치밀하게 시위를 기획한 3학년 선배님들을 따라 우린 담장을 넘어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내달렸지.

우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목이 터져라 독재 타도 민주 수호를 외치며 세종로 국회의사당으로 전진했었어. 연도의 시민들이 보내주는 열렬한 환호에 우린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었지.

하지만 종로 5가에서 우린 무장 경찰의 저지를 받았고 그들의 무자비한 몽둥이 세례에 힘 없이 쓰러져 갔어. 쓰러진 학생들은 즉시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나머지 학생들은 부상을 입은 채로 일부는 종각 쪽으로 일부는 대학로로 방향을 틀어 행진을 계속했었어. 종각 쪽으로 진출한 동지들은 화신백화점 앞에서, 대학로로 진출한 동지들은 서울대 정문 앞과 동성고등학교 앞에서 경찰의 강력한 저지를 받게 되었고 우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일단 학교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

학교에서 잠시 동안 전열을 가다듬은 우리는 다시 교문을 박차고 시위를 계속했고 결국 시청 앞에 이르게 되었지.

시청 앞은 이미 학생들과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어.

우리의 용기 있는 모습에 직접 자극받은 서울대생과 동성고등학교 학생들, 우리의 소식을 전해 들은 수많은 학교 학생들이 다투어 시위에 참여한 거야.

우리들로 말미암아 서울 시민 전체가 시위에 나선 것이지.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이지.

학생 여러분!

4·19 그날, 여기 있는 우리 대광의 선배들은 누구보다 먼저 독재에 항거해서 일어났고 자유를 위해 온 몸을 바쳤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태동의 작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셔야 합니다.

피로 쟁취한 고귀한 자유, 여러분이 피로 지키셔야 합니다.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 제3장 외부자료로 본 대광

### 1. 4·19를 증언한다 ⑤〈취재기자가 본 그 밑바닥, 한국일보 1962.3.7.일자〉 성난 시위의 대열(상)

유난히도 눈부신 햇살로 〈역사적인 4월 19일〉의 아침은 밝았다. 이렇게 일파의 데모대를 거리에 쏟아 놓은 것은 대광고등학교였다. 8시 30분 직원조회의 틈을 타서 뛰어나온 이들을 보자 〈상대〉(서울대)데모대가 뒤따랐다. 고대에서는 수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어린 고교생들이 경찰관에 쫓기우는 광경을 보자 연 2일째의 데모에 나섰다. 전일과는 달리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자연 발생적이었던 것이었다.

〈경찰의 총부리 앞에 우리의 친구가 죽어갔다〉고 외쳐대던 이들은 과연 경찰과 부딪혔을 때면 격투도 불사한다는 놀라운 투지를 보였다. 몇 사람의 경관이 곤봉을 휘두르다가 이 어린 고교생의 못구듯 발길에 나자빠지는 장면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고소하다〉는 표정이었다.

〈대광고교〉의 2파가 〈서울대학교〉와 〈동성고교〉를 불러낸 것이 되어버린 10시쯤 경찰관들의 제지 전법이 달라졌다. 뒷통수를 갈기거나 발목을 치는 식으로, 그래서 쓰러지면 백차에 실어가곤 했다. 연도의 시민들도 〈저 개 같은 놈들〉이라고 욕지거리를 마구 퍼부어대는 판이었다. 〈서울대학생〉들이 투석으로 동대문서 앞 바리케이트를 뚫었을 때 쫓겨가는 경찰관에게 똥똥(분뇨통)을 끼얹었다. 그래도 시민들은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때 학생들이 수천 명이었으니 불과 50명도 안 되는 경찰관을 폭력으로 몰아내기로 했다 라면 엄청나게 경찰관은 다쳤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찰봉에 맞고 쫓기어 다녔던 것이다.

혜화동에서는 경찰관과 푸른 제복을 입은 〈반공청년단〉이 한패가 되어 학생들을 마구 두들겨 댔다. 〈대광〉의 L선생은 〈반공청년단〉을 붙들고 “학생을 때리면 되냐”고 호통을 치다가 되려 곤봉에 얻어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다. 학생들이 “병원에 데려 가야한다”고 아우성칠 때 경찰관은 L선생을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이럴 때마다 더한 용기와 분노로 〈바리케이트〉를 뚫어냈다. 사복(경찰)은 군중 틈에 끼었으면서도 투석하는 돌마니들을 보고도 못 본 채했다.

사태가 험악해지면 슬슬 공포니를 빼는 꼬락서니를 목도할 때 <정복(경찰)>에 비겨 더욱 알미워지는 것이었다.

이날 모든 데모 대원의 목표는 의사당이였다. 맨 먼저 도착한 것이 <서울대학>, 이어 건국대학과 동국대학이 지나쳤다. 의사당 앞에 눌러 앉은 서울대학 데모대는 여기서 학생회와 다름없는 토론만 일삼아 왔다. 문리대의 B위원장은 연행학생 25명의 석방 문제와 그들만이 뚜렷이 시위 목적을 내걸었다고 자부한 구호 “대한민국의 생명선은 대법원에 달려 있다”를 반영시키기 위해 책임을 다 질테니 해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저놈 죽여라! 경찰에서 몇만 원 얻어먹었느냐”는 욕지거리와 함께 <데모대> 가운데 떠밀려 지독하게 얻어맞았다. 그들 자신이 뽑아 놓은 위원장을 때리는 순간은 형언키 어려운 장면이었다. 그러나 B위원장이 다시 등단하여 전언을 취소할 때 박수로 맞아주는 것이었다.

윤일선 총장을 비롯하여 각 대학의 학장들과 교수들이 건너편 국회 사무처에서 유시경 국장과 협의하여 시위 도중 연행된 학생들을 석방키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건만 학생들에게 알려줄 도리조차 없었다. 마치 토론 대회처럼 되어버린 연좌 시위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줄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앉아 있는게 아니라 석방교섭차간 대표들의 구출 시위를 하자”고 한 학생이 제의하면 다른 학생은 “우리의 집결 역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모략이다” 운운으로 반박하는 등에 - 그러자 한 학생이 이렇게 외쳤다. “잘난척 하지 말라 너희들이 떠들어대는 지성만큼은 전 서울대학생이 다 지니고 있다. 우리는 행동으로 시위하자!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우리지 말고 뒤로 돌아 앉아 사기라도 높이자”

이런 말과 함께 <서울대 학생>답게 전학생이 의사당을 등지고 <서울신문사>쪽으로 돌아앉아 버렸다. 이하생략

## 2. 먼저 가신 그들에게

박태수 <대광고 14회>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가신 이보다

그네들의 영광이로소이다.  
그네들은 죽음의 승리자이로소이다

어지러운 시국을 비관하다 못해  
용감히, 굳세게 뛰어들었지만  
공산 오랑캐도 아닌 동족의 창 앞에서  
아깝게도 쓰러지신

그네들이여!  
그네들이여!

알뜰이 알뜰이 가꾸던 삶을  
죽음이 무서우랴  
용감히 쓰러진

그네들이여!  
그네들이여!

용감도 이만저만

정의도 이만저만

총칼이 무서우라

뛰어드신

그네들이여!

그네들이여!

목마르게 고대했던

민주국가를

그네들의 외침으로 이룩할 날까지

고이고이 잠드시라

크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리

\*(동아일보 1960.4.22일자)계재/4.19혁명사 하권 P714

### 3. 4·19 상고사\*

대광고등학교(523 ~ 529쪽 발췌) 편

아침 조회가 끝나고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모이면 문을 잠가버리고, 첫 종이 울리거든 학생 회장이 각 학급에 알려 운동장에 모이도록 하자는 것, 수위 아저씨가 교문을 잠그려 할 때에는 두 학생이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붙들고 꼼짝 못 하게 한 뒤 활짝 열어 놓을 것, 문지기는 될수록 일찍 등교할 것, 플래카드는 미술반 학생들을 끌어다가 시킬 것 등 자세한 계획을 세웠다.

한 방에서 자고 난 학생회 간부들은 일찍 등교하여 모두 맡은 책임을 이행했다. 정문 앞에 규율부처럼 2, 3명이 서서 지키고, 한편에선 플래카드를 비밀리에 쓰고, 연락원과 하나둘씩 내통했다. 드디어 8시 15분, 아침 예령이 요란하게 울렸다. 선생님들은 모두 교무실로 가셨다. 그런데 음악실이나 화학실의 중, 고교 선생님도 다 한방에 모여야 열쇠로 잠가버리겠는데, 이 날따라 중, 고교 따로따로 직원 조회를 열었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문이 사통팔달하는 교무과에 모였기 때문에 그 많은 문의 열쇠를 다 얻어내기도 어렵게 되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연락원들의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고3 네 학급은 물론, 고2도 대부분 운동장으로 나왔고 마지막으로 고1 신입생들을 동원할 무렵 직원조회가 끝나버렸다. 너무나 졸지에 학생들을 모은 터라, 고3 학생끼리는 의사소통이 빨리 되었으나, 하급반은 행동과 이해가 좀 늦었다. 어쩔 수 없이 모이는 대로 데모 감행의 취지를 각자 릴레이식으로 알렸다. 그러다 1학년 여섯 학급에 남은 학생들을 더 동원하러 내려간 사이에 선생님들께 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적극적으로 길을 가로막는 선생님은 한 분도 없었다. 어떻게 질서를 잡을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덮어두고 선두에 선 고교 간부들이 정문을 향해 내달았다. 교문은 다행히 그냥 닫아만 두었기 때문에 곧장 열렸다. 고3이 주동이 되었고, 고2와 고1을 비롯한 등교하던 중학생까지 섞여, 플래카드를 손으로 벌려 쥐고 동대문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 4·19 혁명사 (50주년 4·19혁명 기념사업회, 2011)

거기서부터 구호를 외치며 나갔는데, 오히려 질서는 이때부터 정연한 행렬이 되었다. 시가에서는 한창 출근, 등교에 번잡한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는데 모두 박수갈채로 의기를 돋우어 더욱 신바람이 나게 해 주었다. 그런데 종로 5가에 이르러, 경찰의 첫 저지선에 부딪치게 되었다. 경찰들은 마침 지나가던 오물 차 한 대를 붙잡아 거리를 가로질러 세우고, 그 곁에 백차 두세 대를 가로 세워놓고 방망이를 든 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뒤를 따라가던 몇 분 선생님은 앞에 나서서 소리치기를 “앞아라, 앞아라, 뭉쳐 앞아라!” 하셨다.

그것은 개인행동을 취하다가는 얻어맞거나 붙잡혀 가기 쉬운 데다, 또 데모의 실패가 우려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몇 분은, 학생들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 손대지 말아 달라고 경찰들에게 당부하여, 학생들의 뺨뺨이 집합이 이루어지기까지는(3백 명 가량) 손찌검을 앓고 서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한 걸음 두 걸음 저지선으로 육박하여 백차를 떠밀고 경찰들 사이로 그냥 빠져나가려 하자, 드디어 경찰들은 방망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사복경찰 한 명은 학생 한 명씩 붙잡아서는 무릎으로 내리밟는데, “왜 학생을 때리느냐”고 선생님들이 소리치면, 곧 “안 때렸다”고 시치미까지 댔다. 여기서 몇 명이 백차에 실려 갔는데, 어떤 선생님은 학생을 싣고 가는 차의 번호를 적어 놓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가로막았던 백차가 달아났다. 종로 4가로 저지선을 떠밀고 나가자 급히 트럭에다 경찰들을 동원해 저지선을 복구했다.

그러나 경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학생들은 종로 쪽으로 아우성을 치며 달렸다. 첫 번째 저지선에서 30여 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었고 종로 화신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두 번째 저지선에 부딪쳤다. 그러자 뒤에서 트럭을 타고 온 경찰관들이 학생들 가운데로 몰려들어 사정없이 방망이로 내리쳤다. 학생들은 적은 숫자여서 금방 포위되어 버렸다.

그러나 경찰에게 보기 좋게 주먹을 먹인 학생도 몇 명 있었다. 방망이를 놓쳐 굴러가는 것을 잡으려는 순경을 보기 좋게 발길로 걷어찬 이문길 군은 사방에서 몰매를 맞아 귀가 절반이나 찢겨져 나가는 등 피투성이가 되기도 했다. 달려오던 김주영 선생, 교감 선생님이 학생들을 수습해보려 했으나, 모두 매를 맞으셨고, 김주영 선생님은 얼굴에 상처까지 입고 종각파출소로 끌려 들어갔다.

목표는 국회의사당 앞이었지만, 목표에 이르기 전에도 중과부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좁은 종각파출소 안에는 끌려온 학생들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경찰들은 부상당한 학생들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 출혈이 심했다. 얼마 후 같이 끌려가셨던 김 선생님이 심한 부상자

한 명만 겨우 끌고 나오셨다. 바로 백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으나, 워낙 시간이 지연되어서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완치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말도 있었다.

나중에 등교하여 충분한 내용을 듣지 못하거나, 연락이 잘 안 되어 교실에 남아 있는 일부 학우 등이 제2진으로 뒷문을 타고 넘어 그 뒤를 따랐다. 거기는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많았다. 2백 명 가량의 제2진은 종로 5가에서 서울대학교 앞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 웅성대기만 하고 있던 서울 문리과 대학과 의과대학생들은 함성을 울리며 지나가는 그들에게서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제2진의 선봉은 혜화동 로터리까지 전진하여 동성고등학교 앞에 이르렀다. 잠잠한 동성고 학생들에게 또한 불길을 올려 주었다. 혜화동에는 어느덧 많은 경관들이 방어진을 치고 있었다. 달려오는 학생들을 백차가 그대로 들이받기도 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 2학년생 김형옥 군이 쓰러졌다. 뿐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방망이를 휘두르며 학생들을 두들겨 뺐는데, 따라나섰던 이동범 선생이 달려들어 왜 평화로운 데모의 학생들을 폭력으로 대하느냐고 대들자, 경관 서너 명이 달려들어 목살을 잡았다. 어떤 경관은 비겁하게 선생님 바로 등 뒤에서 후두부를 난타하여 전치 2주일의 부상을 입혔다. 그리고 트럭에 실어 동대문경찰서에까지 연행해 갔다.

그 밖의 수많은 학생들이 트럭에 실려 갔고 그 자리에 남은 이들도 언어맞아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쓰러졌던 김형옥 군은 정신을 잃었다가 친구의 부축으로 겨우 일어나 길가의 어떤 사진관으로 피신했는데, 그때까지도 자신의 상처를 의식치 못하고 있었다. 문 안에서 있기가 불안스러워 2층으로 올라가려 할 때, 내려오던 어떤 이가 “저 피!”하는 소리에 다리를 굽어보니, 무릎의 옷자락이 찢겨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일그러졌는데,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간신히 부근에 있는 병원으로 갔으나, 의사는 자리에 없었고, 간호사는 “응급치료를 해 줄 수 없다”고 미안해하면서, “어서 바빠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만 하더라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봉대만 얻어 가지고 나와 남의 집 뜰 안에 숨어 상처를 싸매고 썼다가, 삼선교로 넘어와서 수술을 했는데 열한 군데나 꿰맸다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나머지 고등학교 일부 학생이 제3진을 이루어 또 학교를 출발했다. 그들은 스크림을 짜고 동대문까지 나갔으나, 인원수는 적고 방어진은 점점 심해져 하는 수 없이



동대문에서 돌아섰다.

그리고는 다시 고대생들과 합작해서라도 거사를 해보겠다는 결의로 일부는 고대까지 연락을 했으나, 안암동파출소에 17명이 붙잡혔고, 고대는 아직 등교도 다하지 않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로 학교 교정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제1진을 비롯하여 제2진, 제3진이 한 시간 이내로 모두 출발한 셈이다. 데모 중간에서 이미 몹시 지친 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돌아왔다. 그리곤 연행당한 학생들을 내놓으라고 시위하기 위해 다시 모여들었다. 안암동파출소에는 생활지도주임 송 선생님이 달려가서 붙잡힌 학생들을 모두 데려왔고, 동대문경찰서에는 이창로 교장선생님이 직접 들어가 수모를 당하면서도 30여 명 학생을 모두 데려왔다.

나이 어린 중학생들은 교실에 그냥 남아 있었고, 학부모들은 근심스러운 마음에 몰려와 운동장에 둘러서 계셨다.

학생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동행할 터인데, 일사불란하고 질서 정연한 행동으로 대광의 긍지를 가지고 오전에 세운 우리 공로를 무너뜨리지 않게 감행하자고 서로 약속했다.

1천 명에 가까운 고등학생들은 8열 종대로 행진했다. 교문에서 신설동 로터리를 지나, 동대문에서 종로로 화신 앞까지, 그리고 을지로 입구에서는 미국 대사관 앞을 지나 시청 앞 광장에 이르렀다. 군중은 덕수궁 앞까지 메웠고, 국회의사당 앞에는 연좌 데모하는 학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때 경무대 앞에서 희생당한 학생들의 옷옷과 시체를 실은 지프차가 시청 쪽으로 질주하여 나오고 있었다. 데모의 서두는 대한문 앞에서 남대문을 향하여 행진을 계속했다. 일행의 선두가 남대문에 이르렀을 때,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서울신문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 오르기 시작했다.

시 경찰국 앞을 지나 한국은행 앞으로, 다시 을지로 입구로 돌아온 데모대는 내무부 앞에서 농성하는 군중 때문에 청계초등학교 뒷길로 청계천 길을 돌아 을지로로 들어섰다. 구호를 외치면서 을지로 6가를 지나 동대문에까지 이르렀고, 이렇게 일동이 학교 운동장까지 질서 정연하게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 이날의 데모는 끝났다.

각 교실로 돌아간 학생들은 인원을 점검했는데 아침 출발 이후 행방불명자가 셋, 그 밖에

중상자가 우선 밝혀진 것만 셋, 방망이에 맞고 교복이 찢어지고 모자를 잃고 시계도 어디로 달아났는지 모를 지경에 이른 학생은 고등학교 학생의 3분의 1쯤 되었다.

밤새도록 총소리는 서울의 밤공기를 들볶았고, 라디오에서는 듣기 역겨우리만큼 계엄사령부의 한 가지 녹음테이프만 방송되고 있었다. 비상계엄 하에 학교는 휴교되었지만 행방을 모르는 학생의 가정과는 끊임없이 연락을 했다. 20일에 이르러 본교 졸업생 중 서울 문리대 수학과 재학생 정학철군이 데모 대열에서 서대문서로 연행되어 갔다가 대광고 학생들을 발견하고 연락해 주어서 학교 당국이 찾아냈고, 또 다른 한 명도 마찬가지로 남대문서에 연행되었던 연세대학교 학생이자 동문의 보고로 사흘 후에 유치장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20일 저녁까지 학교에 보고된 행방불명자는 다시 20여 명으로 증가되었다. 할 수 없이 담임선생님들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소식과 정보를 얻는 대로 부상자들을 돌아보고, 실종된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 그 경위를 조사하여 찾아내기로 결정했다.

생활지도주임 송 선생님과 교목 황광은 목사님은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비롯하여 세브란스, 서울대학, 적십자, 백병원 등을 샅샅이 뒤져서 시체와 부상자까지 돌아보았고, 매 맞는 자리가 도져서 자리에 누운 학생을 찾아간 곳도 여러 군데였다. 22일에는 전교생 모두 무사한 것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었다.

## 2) 서울 고교생들 산발적 시위(175 ~ 178쪽 발췌)

2·28 대구학생시위와 3·15 마산 데모, 그리고 김주열 죽음이 전체 학생 및 국민의 격분을 사게 된 것이었지만 그 이전부터 꾸준히 자유당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 음모를 규탄하는 분위기를 이끌어간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서울뿐 아니라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국 각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저항의 작은 사건들이었다. 서울에서 조직적 연대를 갖고 시위를 주도한 고교 학생간부 모임인 협심회 회원들의 활동은 또 다른 의미에서 4·19 혁명의 단초를 이루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 협심회, 고교 연합조직으로 확장

서울시내 야간고교 학생회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고교 회장단 모임 협심회를 만든 것은 1959년 10월경이었다. 중동고 설송웅, 동북고 홍춘식이 주도하고 양정고 이상철, 강

문고 권오주, 성남고 김진태, 김종운, 대광고 김동선(13회), 덕수상고 김갑중, 중앙고 남궁진 등이 주요 구성 멤버였다.

처음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었으나 자유당 정부의 횡포와 부정선거 음모가 속속 드러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정부를 규탄하는 대화로 이어졌고 무언가 항거를 해야 한다는 데에 의기가 투합되기 시작했다. 또한, 시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외연을 넓혀 전체 학생회 간부들의 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서울 전체 고교생 간부들의 연합조직을 만들게 된 것이다. 각 고등학교 학생회장, 대대장, 규율부장이 핵심 멤버였고 나중에 대전 고등학교 대표가 지방 고교학생으로서는 유일하게 동참했다.

3·15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월 초부터 각종 정치집회가 많았는데 이에 따라 민심도 흥흥했다. 자유당 독재와 경찰의 횡포에 민주당 당원은 물론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희생당하는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는 고등학생들도 모이면 하나같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지만 워낙 치밀한 권력의 감시 속에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다. 자연히 협심회에 참여한 학생회 간부들의 분노는 더욱 격양되어 만나면 대학생 형들은 무얼 하고 있느냐는 불만의 소리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특히 2·28 대구 고교생들의 시위 직후 서울 학생들의 격분은 더욱 고조되어 있었다. 수도 서울의 학생들로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하는 등의 격양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위 결행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다.

이 무언의 결의에 따라 협심회 창립 멤버인 설송웅, 이상철, 홍춘식, 김종운, 남궁진 등이 서울 시내 남녀 각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을 찾아다니며 참여를 호소하여 마침내 서울시내 고교 한두 곳을 제외하고 전체 고등학교 학생회 간부들이 동조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수표교회 고교생 집단 회합이었다.

## (2) 수표교회에서 1차 연합집회

청계천 2가 수표교 옆에 있는 수표교회에서 각 고등학교 학생회 간부들이 모임을 갖게 된 것은 1960년 2월 10일 경이었다. 동북고 홍춘식과 인연이 깊은 동 교회 목사의 승낙을 얻어 2층 예배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날 학생회 간부들 집회에는 7대 공립학

교를 비롯해서 성남, 군명, 중동, 경신, 중앙, 대동, 회문, 보성, 용산, 대광, 동성, 동북, 보인, 낙양, 송인, 송문, 양정, 강문, 서울, 배제, 영등포공, 숙명, 이화, 진명, 덕성 등 48개 학교에서 학생회장, 대대장, 규율부장 급으로 2~3명씩 90여 명이 참석하여 결의대회를 가졌는데 이 집회의 주제를 맡은 설송웅(중동고)이 장장 80분에 걸친 연설을 했다.

평소 언변술이 뛰어난 설송웅은 현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 자유당 정부의 반민주적 횡포, 부정선거 음모, 경찰의 폭력에 민주시민과 학생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현실 등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젊은 학도들의 궤기를 호소했다. 이 집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학생회 간부들은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위를 하지는는데 쉽게 의기를 투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학교 단위로, 혹은 연합 집단으로 시위 계획을 세워나갔다.

### (3) 화신 앞 햇불 데모

수표교회 집회 이후 학생회 간부들의 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은 더욱 뜨거워졌으나 행동으로 옮기기에 당시 상황은 너무 어두웠고 전체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기엔 당국의 감시가 너무도 엄혹했다. 특히 학원 내 동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경찰 당국의 정보망을 피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부 강경한 학생들만 소규모 시위 작전을 시도했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2월 12일 저녁 종로 1가 화신 앞 햇불 데모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행 직전에 정보가 누설되어서 17일 주모자 설송웅이 종로경찰서에 끌려갔는데 담임과 교장선생이 종로경찰서에 출두, 각서를 쓰고 나서야 풀려났다. 그러나 다음날(18일) 저녁 각 고등학교 주동자(학생회 간부 급) 300여 명이 집결하여 전격적으로 햇불 데모를 전개했는데 경찰에 급습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으나 구호를 외치던 학생 등 여러 명이 붙잡혀 가서 못매를 맞고 앞으로 데모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나서야 겨우 풀려났다.

### (4) 시공관 뼈라 살포

화신 앞 햇불 데모 이틀 후 명동 시공관 뼈라살포 시위가 결행되었다. 서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인 데다 명동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는 시공관을 시위 장소로 택한 것은 학생들의 뜻을 시민에게 알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주동자였던 설송웅(중동), 이상철(양정고), 홍충식(동북고), 김종운(성남고)이 시공관 2층에 올라

가 등사기로 인쇄한 삐라를 뿌리고 시공관 앞에 시위 주도 학생 100여 명이 구호를 외치는 소규모 시위였지만 학생들의 의지를 시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시위이기도 했다. 물론 설송옹 등 주도자들은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붙잡혀 연행되고 혹독한 폭행을 가하는 고문을 당해야만 했다.

화신 앞 햇불 데모에 이어 3·15 선거 전 날인 3월 14일에도 명동 시공관에 몰려가 공명선거를 절규하는 구호를 외치고 삐라를 뿌리며 전격적으로 시위를 단행하고 명동으로 빠져 달아나는 식의 치고 빠지는 궤기였지만 시민들의 호응도 컸다. 도망치는 학생들을 연도의 시민들이 숨겨 주어 연행을 모면할 수가 있었다. 백 명 2백 명 단위로 나뉘어 10분 내지 20분 정도로 구호를 외치고 달아나는 식으로 마치 경찰과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시위 작전이었다.

4월 16일 안국동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의 햇불 데모(시민들 400여 명도 합세)에 이어 밤 8시부터 10시경까지 화신 앞, 광화문 사거리, 서대문 로터리 등 때를 지어 전단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위를 단행했다. 삐라는 학생들이 연필과 펜으로 쓴 것을 2~3백 장씩 묶어 한 장소에서 뿌리는 식이었다.

이날 밤의 산발적 데모를 당시 동아일보는 “약 두어 시간 사이에 경찰에 잡힌 학생 수는 3백 명에 가까웠으며 데모에 참가한 학생들의 총수는 천 명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중동고, 대동고, 균명고, 강문고 등을 비롯하여 10여 개 야간고교생이 주동이 된 이날 밤의 데모는 황적 연락이 없는 산발적인 것이었으며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17일 성남고를 시작으로(80여 명 경찰에 연행) 해서 고등학교 시위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고 다음 날, 마침내 4·19를 촉발시킨 4·18 고대 데모가 일어났던 것이다.

4·18 고대 데모대에 대한 깡패들의 폭행이 4·19의 직접적 동기였다면 그 이전부터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와 경찰의 제지, 연행, 수감, 폭력은 4·19 혁명의 불씨를 심는 초기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4월 민주혁명의 재조명\*

대광고등학교 사례 / 배극일 <대광고 13회>

3·15 정·부통령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온 국민과 학생들은 분노하였고, 데모에 참여한 김주열(당시 고교생)은 최루탄을 맞아 죽은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버려져 당시 시신으로 발견되어 온 국민과 전국의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을 때, 4월 18일 저녁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할 무렵 교문 밖의 큰길에 고대생의 구호와 함성이 울렸고 머리와 얼굴에는 붉은 피와 상처투성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 알게 된 일이지만 종로와 청계천 사이 천일백화점 앞에서 질서 있게 구호를 부르며 데모에 참여한 고대생들을 정치 깡패들에게 짓밟혀 기습을 당해서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 1명까지 나왔다 하여 대광고생들은 당시 너무 분노하였다.

대광고생들은 대한민국에는 언제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려나, 부정부패 없이 국민이 빈곤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어 왔었다. 마침 그때 학교 운동장에서 이문길, 박웅균, 문복강을 만나 내일 대광고도 아침 일찍 데모에 참여하기로 다짐을 하고,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전병화에게 달려가 내일의 거사를 그의 집에서 오늘 저녁에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의논한 결과, 쾌히 승낙해 주어 대광고 학생간부 5인은 창신동 전병화 집에 도착하였다. 그곳 집 옆에는 양조장 공장과 붙어있어 주모자들의 계획을 세우는 데는 적격이었고, 공장에는 많은 밀가루 빈 포대가 있어서 채수리하여 현수막으로 만들어 쓰기로 하였다. 학교에 일찍 가서 미술반원들이 현수막을 쓰기로 하였다. 대광고 지휘부는 결의문과 데모 시 구호도 결정했다.

대광고 지휘부는 학교에 일찍 가서 모든 것을 계획대로 실행했다. 역사적인 4·19의 날은 밝아왔다. 유난히도 아침 햇살은 빛났다. 오전 등교 시간에 고등학교 학생 위주로 교문에서 서 행동을 같이할 동기생과 후배들의 복장 검사를 하는 척하여(배극일은 당시 대대장이었음) 외부에서 누가 보아도 별 의심 없이 진행되었고, 옆에는 박웅균과 문복강이 동기와 후배들에게 지시를 했고 옛 강당 뒤편에서 이문길이 각자 하여야 할 일들을 알려주었다.

한편 힘 있는 서너 명의 동기들이 교무실 문을 차단하기로 하고 8시 30분 배극일이 운동장

\* 4월 민주혁명의 재조명(공동체, 2010), 162 ~165쪽 발췌

에 있는 교단에 올라서서 호각으로 3번을 불면 고교생 전원이 운동장에 모이기로 했다. 각 교실에 연락을 하여 빨리 운동장에 나오도록 이상철, 한관석과 조만옥 등 십여 명의 동기생들이 각 학교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빨리 운동장에 모이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

호각소리와 동시에 운동장에 약 500여 명이 모였다. 그때 시간은 8시 25분, 배극일은 흥분된 목소리로 결의문을 반 정도 낭독할 즈음 교무실 창문을 열고 두 분의 선생님이 뛰어오셔서 학생들은 황급히 교문 쪽으로 뛰기 시작하였다.

문이 닫힌 교문 앞에서 동기생 몇몇이 선생님을 설득하여 교문이 열리고 학생들은 동대문 쪽으로 스크럼을 짜고 뛰기 시작하였다.

애국가도 부르고 구호도 부르면서 달리는데 동대문에서 경찰들에게 일단 저지당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종로 5가 쪽으로 달리고 있을 때 연도에서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학생들을 환호하여 주며 학교로 출근하던 대학생들도 대광고생들에게 박수를 쳐주며 대학생들도 나갈 테니 더욱 힘을 내라면서 격려도 해주었다.

종로 5가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순경과 군복을 입은 청년 등이 대광고 학생들을 무참히 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내러치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비명 소리와 구두발로 차기도 하고 순경들은 학생들이 뛰 안다고 데모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사이 시민들은 학생들에게 물을 주면서 다친 학생들을 감추어 주기도 하였다. 부상자도 많이 속출하고 경찰서에 몇몇의 학생은 잡혀갔으나 그래도 반 이상의 학생은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달려갔다.

학교에서 미처 못 나온 대광학생 200여 명이 학교 담을 넘어 후문 등으로 나와 20여 분 뒤에 달려와 종로 5가에서 혜화동 방면으로 구호를 부르며 달려 서울대 정문 앞에 왔을 때 경찰차와 순경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대광학생들은 서울대생들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고 하였지만 경찰차에 실려가고 부상자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선두 그룹은 다시 혜화동 로터리 옆 동성고등학교 앞에서 경찰들과 군복으로 착용한 젊은 청년들에게 맞고 잡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곳까지 대광학생들과 함께 대광학생들을 보살피 주신 수학 선생님 이동범 선생님이 곤봉으로 맞는 학생들이 걱정이 되어서 경찰들을 향해 소리치자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들에게 붙잡혀 트럭에 실려 동대문 경찰서로 잡혀가셨다.

얼마 후 대광고 학생들의 데모 광경을 목격한 서울대생과 동성고등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데모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 배극일은 종각 옆 화신백화점 근처에서 왼쪽 팔과 허리 쪽 곤봉으로 약간 부상을 당하였는데 시민이 좁은 골목에 숨겨주고 도와주어서 그 길로 청계천 개울로 돌아와 학교에 도착하니 반갑게도 동기생 후배들이 많이 와 있었다. 학생들은 다시 가다듬어 남은 고교생 900여 명이 황광은 목사님의 간결한 기도와 방정웅 회장의 결의문 낭독 후 오후 2시가 넘어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동대문 종로를 지나 시청 앞에 있을 때는 많은 고교생과 대학생 일반 시민이 합세하여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경무대에서 발포하는 총소리와 화약 냄새가 이곳까지 풍겨왔다. 서울신문사는 불에 타고 있었다. 시신들을 차에 싣고 여기저기 달려가는 모습이 눈에 보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왔고 서울의 하늘은 불길과 학생들의 여기저기 구호 속에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다.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은 4·19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정부패와 싸웠고 민주화를 위하여 시위 도중 학생들이 경찰서에 연행되고 부상자도 많았지만, 그날의 의거는 민주화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불씨가 되었다는 점은 지금도 자부하고 싶다.

대광고교 13, 14, 15회 동문들 1,000여 명 중 실로 50년 만에 정부로부터 18명이 4·19 민주혁명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건국포장을 받았다.

수상자는 18명으로 배극일, 이인행, 김기복, 박예정, 최완택, 조승호, 정기원, 이문길, 서용남, 백진호, 방정웅, 박웅균, 김성옥, 김태웅, 김충삼, 김재영, 김명진, 고원석이다.



# II 부

## 민주혁명의 회고와 전망

### 13회 대광 동문

- |         |         |
|---------|---------|
| 1. 배극일  | 14. 김기완 |
| 2. 조만옥  | 15. 정윤도 |
| 3. 이인행  | 16. 임정의 |
| 4. 김삼남  | 17. 권오진 |
| 5. 김 윤  | 18. 노광국 |
| 6. 조승호  | 19. 이진우 |
| 7. 문복강  | 20. 김민수 |
| 8. 조규홍  | 21. 김기복 |
| 9. 박동수  | 22. 김원민 |
| 10. 백진호 | 23. 방정웅 |
| 11. 박강남 | 24. 주성기 |
| 12. 계경순 | 25. 김 윤 |
| 13. 이신실 |         |

### 14회 대광 동문

- |        |        |
|--------|--------|
| 1. 이춘동 | 2. 김영수 |
|--------|--------|

### 15회 대광 동문

- |        |        |
|--------|--------|
| 1. 김한영 | 4. 오영열 |
| 2. 이석철 | 5. 김성용 |
| 3. 김문담 | 6. 정신관 |



# 제1장

## 13회 대광동문

### 1. 4·19 회고록

배극일

1960년 4월 18일, 오후 6시경 학교 정문 앞에 고려대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일부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고대 안암동 쪽으로 지나고 있다.

나는 고 이문길, 박웅균, 문복강 등과 같이 동대문 친구 부모님이 경영하는 경향 양조장에 갔다.

우리들은 친구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신 저녁을 먹은 후 밤새도록 현수막과 결의문 등을 작성한 후 아침에 등교했다.

당시에는 집에 전화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못했던 상황이라 걱정이 되신 어머니가 학교에 오셔서 어머니께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후 안심시키고 집으로 잘 보내드렸지만 마음은 편하지 못했다.

나는 바로 학교 정문에서 대대장 완장을 차고 학생들을 검열과 동시 차후 데모 시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각 학년 13회, 14회, 15회에서 인원을 정해서 학교 굴뚝 뒤에 집합하도록 전달했다.

8시 30분 교단에 서 있던 나는 호각소리와 동시에 각 교실에서 뛰어나온 학생들을 모두 집합하여 교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선생님들이 이러한 일을 눈치채시고 교문을 잠그기 시작할 무렵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을 설득하고 교문을 박차고 우리 대광고 학생들은 뛰기 시작했다. 신설동 로터리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뛰고, 구호 외치며 질서 정연하게 종로 5가 도착 즈음 경찰들에게 차단당하며 곧바로 우리 학생들을 때리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되었다.

우리 대광고 학생들은 많은 부상자가 나오고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주위에 있는 시민들은 경찰들에게 욕하고 물통에 물을 가지고 와서 경찰들에게 뿌리기도

했다. 지금 회고해 보면 4·19는 이러한 상황을 본 대학생들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이곳을 빠져나가 광화문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진행하여 데모를 하고, 약 25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은 서울 문리대와 법대 방향 혜화동으로 진입했다. 우리가 경찰의 제압을 받고 곤봉으로 맞는 것을 본 서울법대와 문리대, 그리고 동성고에서 오후에 청와대 쪽으로 진입하여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가 나왔다. 광화문 방향으로 간 우리 대광고 학생들과 혜화동 방면으로 간 우리 대광고 학생들 모두 오후 1시경 다시 학교로 집결시키고, 나는 다시 교정에서 전교생을 모아서 재정비하고 우리들은 다시 동대문 종로 시청 앞, 서울신문사 쪽으로 가는 도중 중앙에는 데모하다 사망한 시신들을 대학생들이 들고 차량으로 추모 행진을 하고 있었다.

서울신문사는 불에 타고, 서울 각 대학 및 고등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나는 우리 학생들을 이끌고 다시 학교로 이동하는 도중 계엄령이 선포 되었다.

자유당 말기 시절이었으며, 불타는 서울신문사와 모든 거리는 너무 비참하였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황광은 목사님이 우리가 정의를 위해 밀어붙이는 것을 보시고 대광고는 역시 황소구나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2019. 7. 6.

## 2. 4·19의거에 대한 나의 소고<sup>小考</sup>

조만옥

1 나는 평소, 학교에 등교를 할 때에도 ...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 그리고 하학 후 집에 돌아오기 전 ... 항상 평행봉으로 가서 신체 연단과 함께 인내를 위한 지구력을 길렀다.

1960년 4월 18일 방과 후... 그날도 나는 전과 다름없이 학교 운동장 담 쪽의 평행봉 틀로 향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평행봉에 올라앉아 있는 나의 눈앞에... 담 너머로 벌어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다.

한 무리의 많은 고려 대학생들이 부정선거 규탄의 함성을 지르며 안암동 3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 ... 출동한 동대문서의 무장 경찰들이 신설동 도로를 차단하고 그 대학생들과 치열한 육박전을 치르고 있었다.

골목으로 도망하는 학생들... 그리고 경찰에게 붙들려 매 맞는 학생들... 그러자 서너 명의 대학생들이 우리 학교 담장 쪽으로 달려와서 저들의 팔을 내 저으며 운동하는 우리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야!...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야... 너희도 나와야지... ?”

나는 그러한 소리들과 함께 눈앞에 벌어지는 그 혼잡한 상황들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혼잡으로 인해 밀려있던 많은 버스와 차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 무거운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4월 19일 아침.

등교해 보니 극일이가 다가와 “오늘 우리도 데모를 할 거니까 넌 2학년 교실들을 맡아 전부 나오라고 해, 네 동생이나 내 동생이 다 2학년이니까”

그래서 “알았어” 하고 난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2학년 교실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교실마다 들어가 ‘오늘 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할 거니까 빨리들 운동장에 모이라’고 소리치며 모

두 내쫓기 시작했다.

운동장에서는 갑자기 큰, 한 무리의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극일’이가 단상에 올라 모인 학생들에게 데모를 위한 정렬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와중에 교무실 쪽의 창문이 열리고 선생님들이 우리의 모임을 저지하기 위해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선생님들을 피하기 위해 굳게 닫힌 학교 정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닫힌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수위 아저씨를 제치고 제각기 철문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뒤따라 철문이 열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밖으로 밀려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의 대다수 학생들은 모두가 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무질서 그대로였다.

그러나 우리 뒤를 따라 나오던 선생님 가운데 박동엽 교감 선생님이 앞장섰던 우리를 제지 하시며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모두 좀 앉아 달라고 했다.

그곳은 학교 교문이 그리 멀지 않은 안암동 입구 삼거리였다.

상해 임시 정부 주석이었던 고 김구 선생 비서 출신의 박동엽 장로 ... 그가 평소 그를 존경 하던 우리들을 제지하여 거리에 앉힌 후 우리를 향해하신 말씀, “난 너희의 데모를 막으려는 게 아니다, 해라,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 다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다, 그러니 형들 된 너희가 앞에 서고 뒤의 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제발 몸조심들 하고 ...”

떨리며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권하시던 그 음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우리는 즉시 운동을 하던 ... 긴장한 체격의 친구들로 어깨동무 대열을 갖추고 최소 앞줄 3줄은 각 줄 8-10명 정도로 철저한 대오를 갖추었다. 그리고 동대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 대열의 곁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감독을 하면서 따라오셨다.

당시 우리의 구호는 “자유당은 물러가라, 부정선거 규탄한다”요, 부르던 노래는 ‘애국가’와 ‘3·1절 노래’였다. 모두가 굳세게 주먹을 휘두르며 선창을 따라 구호를 외치면서, 특히 3·1절 노래의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란 가사를 부를 때에는 눈시울을 적시며 목이 메어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시대의 부끄러움 ‘앞에 분개했고, 우리들의 마음은 온통’ 애국의 정신과 부정의 타파로 그 아침을 뒤흔들었던 것이다.

햇살도 맑은 조국의 화창한 봄 거리 …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정치인들의 부정으로 어두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고 … 동대문을 지나니 종로 5가에 경찰들이 비상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멀찍이 중무장한 경찰들이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때 우리 중에 누군가 “야, 혜화동으로 빠져 … 서울대학에도 가고, 동성, 경신 애들도 나오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줄의 우리는 경찰들과 맞붙을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드디어 경찰들과 맞부딪치게 되었고, 우리는 물불 가릴 것 없는 날쌔 동작들로 경찰들을 맞잡아 치거나 경찰봉을 빼앗아 함께 때리기도 하며, 그중 일부는 그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다시 계속해서 광화문 방면으로 종로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길가의 군중들은 온몸에 땀범벅이 된 우리를 보면서 물도 떠주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종로 5가에서 많은 학생들이 혜화동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며, 학생 중에 귀가 찢기고 선생님들이 경찰들에게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고 한다.

종로 5가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 쪽으로 달리던 우리들 … 얼마를 달렸을까, 갑자기 우리 앞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미 공보실 왜곤 차량이(그 차의 지붕에 설치된 무비 카메라로) 우리를 앞서가며 계속해서 데모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데모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위한 현장 촬영이었을 것이다.

멀찍이 종로 3가에도 많은 경찰들이 저지선을 이루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다. 우리는 그 저지선을 뚫기 위해 또 한 차례 치열한 전투를 해야 했다.

그 와중에 우리 대열은 흐트러짐을 당하면서 수가 많이 줄었고, 그 저지선을 뚫은 소수의 무리들은 또다시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화신 앞에 다다르자 우리 숫자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찰들이 가로막았고, 결국 우리는 제각기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화신 건너편에 있는 ‘고바우 문방구’ 앞 화원 앞마당에 파놓은 구덩이에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 조용해진 것 같아 다시 뛰어나와 “대광 모여라”라고 소리를 외쳤다. 그때 뒤통수를 내리치며 뒷 목덜미를 조이는 형사들에게 붙들렸고, 결국 화신 네거리에 있는 파출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파출소의 경찰들은 나를 조그만 화장실에 집어넣고는 몇 명이 구둑

발로 차고 짓밟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지서 안의 전화벨이 울렸고, 조금 있다가 그 지서주임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임마 …” 하기에 밖으로 나오니 그 길가에 세워둔 자기 지프차에 타라고 한다. 그리고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주어졌는 것인지를 몰랐다.

그러나 훗날 … 내가 나가던 영락교회에서 박동엽 장로님을 통해 사석에서 직접 들은 말씀 …

“난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 달려갈 때 다른 생각보다 학생들이 다칠까 봐 걱정이 된 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즉시 오제도 검사(당시 영락교회 집사였고, 당시에는 반공 검사로 명성을 떨치던 분임)께 연락을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 경찰에 연락해서 모두 학교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오제도 검사는 그 박동엽 장로의 부탁을 받고 모든 경찰서에 그대로 하달했고 그로 인해 체포되었던 대광의 학생들은 무사히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역사적 의거 뒤에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학교에 돌아와 교실에 머물던 우리는 삼삼오오 모여서 바로 직전까지 자신이 체험한 일들을 얘기하며 다른 친구들의 소식을 궁금해 하는 와중에 … 그때까지의 상황을 듣기로는 … 서울시가 온통 데모로 혼잡해지기 시작했다는 소문들이었다.

그런데 …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다시 교정에 모이라는 것이다.

어느 선생님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아마도 이창로 교장이었을 것이다) 연단에 서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했다’고, ‘무사히 학교로 돌아와 감사한다’고 …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대광 학생들답게 평화롭고 질서 있는 가두 행진을 하자고 …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국회의사당(태평로) 앞쪽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당시의 교목이셨던 황광은 목사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신 후 출발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미 시간은 오후가 되었고 … 어떻게 된 영문인지 거리에는 경찰들과의 충돌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질서 있게 대오를 정리하여 평화 행진을 하기 시작했다. 신설동을 지나

송인동으로 향하는데 왼쪽을 바라보니 과거 우리 대광의 교목을 지내셨던 홍동근 목사가 손뼉을 치면서 환한 미소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다.

시내는 혼란과 데모와 무질서 ... 각 거리엔 여러 학교 학생들이 데모 행렬을 이루었고(여고생들도 보였음), 우리는 그러한 틈새에서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는 때 ... 바라보니 시청 뒤편의 '서울신문사'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곳곳에 들리는 소문들 ... 서대문 쪽의 이기봉 부통령 집이 데모 군중들에게 공격을 당한다는 말 등 ... 우리는 평화 행진을 마치고 모두 무사히 학교로 돌아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심들 하라는 주의를 들으면서 데모의 혼란으로 인해 버스가 없으니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 동대문을 지나니 누군가 '대광 학생은 모자를 벗고 다니라'고 주의를 주었다.

대광이라면 경찰이 붙든다는 것이다. 모자를 벗어 감추고 뒷골목을 택해 을지로 3가에 이르니 곳곳에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된다는 것이다.

서둘러 겨우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니 반기는 부모님의 표정이 말이 아니다. 군사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한다.

이상이 나 자신이 경험했던 4·19의 잊지 못할 기억들이다.

**2** 오늘에 들으니 ... 4·19 보상 운운하는 얘기들이 들린다. '4·19 혁명(?)'이라는 말도 들린다. 우리는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족과 조국의 앞날을 염려하여 의거를 했을 뿐'이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그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목적은 '역사는 역사요, 사실은 사실이기'에 후세를 위한 증언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 정신은 영원히 보존해야겠기에 ...

왜 '4·18'이라 하지 않고 '4·19'라고 하는가?

그날에 이루어진 역사요, 그날의 의거요, 그날의 행적으로 인함이었기 때문이다.

그 아침, 부정을 향해 대광의 학생들이 휘두른 정의의 주먹 ... 그 외침과 항거가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을 거리로 이끌어 내었고, 결국 '고등학교들이 나서는 데모는 성공한다'는 말을 남기게 된 계기가 되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다른 학교나 다른 학생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제껏 그 날의 추억을 품고 50여 년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면 ‘그 누구나, 모두가 4·19의 폭발’을 일으킨 의협심이 강한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누구나 이러한 ‘정의와 애국’에 대한 정신을 우리의 모든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교의 귀한 전통으로 보존케 되기를 원할 것이다. 오늘의 우리 조국이, 시대에 따른 이러한 희생과 애국의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국제적 선진 대열’에 오른 민주 문명국가가 된 것 아닐까 …?!

### 3 이제 지난날을 회고하며 오늘의 우리 모습을 돌아본다.

지난 2008년 4월 어느 날, 이곳 미국의 ‘김재영’을 방문했던 김재욱(당시 13기 동창회 총무)이가 만나기 원한다는 말을 듣고 오랜만에 셋이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었다.

여러 얘기를 나누던 중, ‘재욱’이에게 한마디 했던 말이 있다.

나는 우리 대광 동창들에게 한 가지 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 13기들이 귀하게 간직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도했던 …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일으켰던 4·19의거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사를 후배들과 사회 앞에 ‘영원한 표상’으로 남겨야 할 사명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껏 우리가 동창이라고 서로 모여서 옛정을 되새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 나이 어느덧 60 중반을 넘기면서 우리의 인생도 정리 단계에 들어섰는데, 재욱이 네가 동창회 총무이니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동창회를 소집하여 이 말을 꼭 좀 전해 달라. 즉,

1. 이제 우리가 할 일은 ‘4·19의거 기념탑’을 학교 교정에 세우는 것이다.
2. 그리고 이 4·19 정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게 하기 위하여 후속 사업으로 장학 사업을 지속해 가는 것이다. 난 이 문제를 내 일생의 숙원 사업으로 생각을 해 왔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단독으로라도 이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말이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있던 재욱이는 그 자리에서 내 말에 적극 찬동했다. 그리고 이제 귀국하면 이 문제를 친구들과 꼭 얘기하겠다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후, 그 문제는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다지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해 9월에 내가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 친구들이 '기독교 회관'에서 환영회를 해준다고 하기에 모두 바쁜 생활들을 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친구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다면 그곳에서 동창회 임원급 정도로만 국한하여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고 ... 우리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런 때 우리가 4·19 기념사업에 대해 중요한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 소집에 대한 그러한 수고를 삼남이가 좀 맡아 줄 것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리고 후일(그해 9월에), 한국에 나갔을 때 ... 동창회 친구들 약 15명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배극일을 4·19 기념사업 회장으로 전격 추대하여 본격적으로 기념사업을 위한 발판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 나로서 이러한 전모를 분명히 밝히는 이유가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누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는지'에 대한 취지를 강조하기 위함뿐이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인생 70 문턱에 서서 ... 모교만이 아니라,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학창 시절의 우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 우리가 고등 교육을 받았고, 더욱이 대광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우리들로서, 그리고 재학 시절 우리가 이루었던 그 귀한 거사에 대하여 잘 다듬고 기리어 후세에 남겨 줄 만한 역사적 표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기념사업을 잘 이루어 놓았다. 수고한 여러 친구들의 노고를 진정으로 고개 숙여 치하하는 바이다.

그러나 4·19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한 가지 욕심을 더 가져 본다면 ... 국가 보훈처로부터 그 어떠한 보상이나 표창의 문제들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게 될 때 느끼는 바로 ...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 ?

우리는 누구에게 그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거사를 행했던 것이 아닌데 ... 이제 그러한 공적에 대해 누구에게 치하를 받기 원하거나 요구하는 ... 그러한 것을 우리의 취지로 삼지 말

아야 하는 건데 ...

4·19에 대해 다른 학교들이나 그 누가 어떠한 생색을 내더라도 우리는 저들과 그 정신적 차원을 달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하는 생각이다.

우리는 단지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정부의 관계 부처에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역사적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 하면 좋지 않을까 ...? 하는 생각이다.

여기서 혹, 친구들이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이러한 것은 단지 내 개인적 의견에 불과할 뿐, 친구들에게 강요의 의미를 담는 요구 사항은 아니요, 단지 나의 과욕에 불과한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

어쨌든 수고하는 모든 친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내가 기억하고 기리고 싶은 '4·19 기념 사업'에 대한 의견을 대략적으로 여기에 밝혀 놓는다.

조금이라도 참고 내용이 될 수 있다면 ... 하는 것이 더함 없는 바램이다.

혹, 미숙하거나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길 바란다.

2010. 3. 10.

### 3. 자랑스러운 대광의 친구

이인행

#### 복강, 삼남, 극일, 민우들이여!

나는 민족항쟁에 1차로(선두) 참여하였습니다.

앞의 4·19 혁명 공적서 참고 바랍니다.

2. 종로 5가까지는 별 저지선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뒷 대열 사항은 파악치 못하였음) 동성고교에 이르렀을 때 서울대 의대 쪽에서 사복(푸른 제복?)의 특수대와 경찰차가 과감히 데모대 중간으로 돌진하며 무차별 진압을 시작하여, 골목으로 피신하여, 종로 5가로 되돌아 나왔습니다.(김기복 군에게 경찰 곤봉이 내리치는 신문사진기사 보았음).

3. 그날은 국내 유일한 태화고등합창단의 제3회 공연 준비와 더불어 KBS에서 T.V. 녹화 예정이 계획되어 있어서 귀교/귀가 후 용모, 복장 단정히 하고 오후 4시 반경 종로 4가까지 걸어 나갔으나 이미 거리는 아비규환이 되었고 데모대와 당시 동대문경찰서 경찰들은 전차를 방패 삼아 공방전을 벌리고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첨부 : 혁명 공적서, 나의·419)

2010. 3. 8.

#### (혁명 공적서) 나의 4·19

1960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3·15 부정선거, 마산 시위사태, 학생 김주열의 죽음, 4·18 고대생들의 시위, 캠페 피습 사건)들은 비록 당시 미성년자들이었던 학우들까지도 울분케 하였다. 4·18로 오후 늦게 고대생들의 데모 귀교 길에 담 넘어 박수를 보냈고, 우리 학우들은 하교 시 학생회 간부들인 방정웅, 배극일, 문복강들로부터 명일 아침 일찍 데모할 것을 귀뜸 받고 학교 비상연락망 1호가 우리 집인 관개로 신설동, 송인동, 안암동, 보문동, 돈암동에 사는 학우들에게 아침 일찍 등교하여 시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알렸다.

4·19 아침 등교하자마자 운동장에 모였고 선생님들께서 교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하는 사이에 문을 걸어 잠갔고, 우리 학우들은 교문을 박차고 나섰다. 신설동 로터리, 동대문, 종로를 거쳐 국회의사당까지 평화적인 시위(구호 : 부정선거 다시 해라! 부정부패 관련자 처벌하라! 강패 소탕하라!)를 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으나 종로 5가 사거리에서 이르렀을 때 경찰들이 트럭으로 길을 막고 저지하여 대학로 혜화동 쪽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그때 서울대생들과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정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가 우리들의 구호 소리를 듣고 밀려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경찰들의 진압이 시작되었다. 우리 학우들은 곤봉을 피하며 일부는 골목으로 숨기도 하였고, 다시 종로 5가로 되돌아왔을 때 우리의 존경하는 이동범 선생님께서 학우들이 걱정이 되어 따라 나오셨다가 곤봉에 머리를 맞으시고 피 흘리며 경찰 트럭에 실리는 것을 목격되었다. 4·19 포상을 받으실 분은 우리들의 은사 이동범 선생님이다.

우리 학우들은 뽀뽀이 흠뻑이 흠뻑이 흠뻑이 학교로 돌아와 담임선생님의 칭찬과 훈계를 듣고 해산했다.

2. 부상자 위문 : 본인이 소속된 교회에서 위문품을 준비하고 보문동 윤복영 외과, 혜화동 우석병원 그리고 돈암동 병원 등을 방문하여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3. 그해 발행된 교지에 짧은 기고를 하여 게재되었고, 우리의 불의에 대한 항거는 민주화에 보탬이 되는 씩씩한 쾌거였으며, 중국에는 전국적인 시위를 이끌어 내는 건인차 역할을 한 것이다. (이후 우리 학우들은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학업에 매진하였다.)

2009. 11. 30.

#### 4. 나의 4·19 혁명을 되새겨 보며 ...

김삼남

1960년 4월 18일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운동장 평행봉이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담장 밖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구호를 외치는데 밖을 내다보니 많은 고려대 학생들이 부정선거 규탄의 합성을 지르며 안암동 로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여럿이 보았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서 출동한 경찰들이 신설동 방향 도로를 차단하고 대학생들과 치열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도망치는 대학생들 ... 경찰에 붙들려 경찰봉 세례를 받는 대학생들 ...

그 와중에 밖을 내다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 너희도 나와야지?” 하며 고함을 치는 학생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 당시 학생 대대장이던 배극일이가 “아~ 우리도 준비하여 동참하도록 하자”며 학생회 간부들과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 내일 4월 19일 아침에 데모를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몇 개의 팀을 짜기 시작했다.

문복강에게는 플래카드를 준비하도록 하고 김기복은 플래카드를 운반하여 시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몇몇에게는 아침에 교실을 돌며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모이게 하는 행동 지침을 전달하고 김삼남은 여느 조회 때와 같이 단상에 앰프와 마이크 설치를 ... 일부는 학교 교무실을 봉쇄하며 선생님들을 따돌리는 일을 ... 김명원 등 2명에게는 학교 정문을 유사시에 개방하는 일을 지시한 후 내일은 각자가 맡은 바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다짐하며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를 빠져나갔다.

나는 4월 19일 아침 8시쯤 등교하여 2학년 과학부원과 함께 오늘 운동장에 행사가 있어 앰프와 마이크를 설치해야 된다고 장비를 운동장 교단으로 옮기고 설치를 하고 있는 중 뭔가 차질이 생겨 운동장으로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월요일도 아닌데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모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교무실 선생님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며 무어라 말씀하시자 운동장에 모였던 학생들이 교문을 열고 밖으로 정신없이 달려 나갔다.

급작스레 일어난 일로 너무 산발적이고 무질서하게 뛰어나가는 걸 보고 박동엽 교감 선생님이 나서서 신철동 로터리까지 뛰어 오셔서 잠깐만 내 말을 듣고 같이 가자며 흥분된 학생들을 진정시키며 “난, 너희들의 데모를 막으려는 게 아니다 … 해라 … 해야 한다 … . 그러나 너희들 다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다. 그러니 형들은 앞에 서고 뒤의 동생들을 보호하며 질서 있게 해라”, “제발 몸조심들 하고 …” 떨리며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권하시던 그 음성이 귀에 쟁쟁하다.

우리는 즉시 체격이 건장한 학생들 8~10명으로 대열을 정비 3열을 앞세우고 동대문을 향하여 구호를 외치며 달려 나갔다.

우리는 “자유당은 물러가라”, “부정선거 규탄한다.”고 외치며 애국가와 3.1절 노래를 부르면서 굳세게 주먹을 휘두르며 때로는 선창을 따라 구호를 외치면서 …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가사를 부를 때에는 눈시울을 적시며 분개했고 또한 “애국의 정신과 부정타파”로 이어갔다. 동대문을 지나서 종로 5가에 경찰들이 비상대기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중무장한 경찰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그때 우리 중 누군가 “아~ 혜화동으로 빠져 … 서울대학에도 가고 …

동성, 경신 애들도 나오라고 그러자”고 외치기 시작했다.

약 200여 명이 혜화동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대 앞을 지나며 “형님들 나오세요.”라고 외치며 계속 대열을 따라 뛰는데 동성고 앞쯤 이르렀을 때 경찰 트럭 여러 대가 길을 막으면서 무장 경찰들이 내려 마구잡이로 우리 학생들을 경찰봉으로 때리며 유도식으로 내던졌다. 우리는 경찰봉으로 장딴지를 여러 대 맞으며 피하는 순간 몸이 공중에 뜨며 개천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이때 같이 따라나섰던 이동범 선생이 “왜? 평화로운 데모의 학생들을 폭력으로 대하느냐?”고 대들자 경찰 서너 명이 이동범 선생의 목살을 잡고 흔드는 순간 이동범 선생 등 뒤에서 후두부를 경찰봉으로 난타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는데도 무조건 트럭에 태워 동대문경찰서로 피

를 흘리며 학생들과 함께 이송되는 걸 목격하였다.

난 개천에 빠져 정신 차려보니 교모와 안경을 잃어버리고 교복 오른쪽 소매가 어깨죽지부터 찢어져 있었다.

개천에 떨어진 후 붙잡혀 대기하고 있던 경찰 지프차에 태워졌는데 이미 후배 두 명이 잡혀와 있었다. 전부 4명이 잡혀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야 튀자” 하고 일제히 지프차에서 뛰어내려 무작정 명륜동 쪽으로 달리기 시작하자 2명씩 흩어지기로 하고 달리다 보니 막다른 골목 할 수 없이 담을 넘어 숨어 있기로 했다.

조금 숨을 고르고 있는데 주인아주머니가 고생한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물을 얻어 마시고 조금 있다가 밖이 조용해졌다고 하여 나와서 후배와 따로따로 행동하여 학교로 가기로 하여 난 버스를 타고 돈암동으로 해서 신설동 학교로 왔다.

무사히 왔다고 반가워해 주면서 다시 집합해서 이번에 선생님들과 함께 질서 정연하게 가두 행진을 하여 국회의사당으로 가자고 했다.

나는 아침에 연단에 앰프와 마이크 설치 상태가 그대로 있음을 보고 이들을 정리하여 과학실 방송반으로 옮겨야겠기에 오후 가두 행진에는 빠지기로 하였다.

군사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한다. 걸어서 종로구 경운동 나의 하숙집으로 왔다. 지난날을 회고하며 나의 4·19 당일의 행적을 돌이켜 보았다.

2010. 3. 10



## 5.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수고를 감사하면서

김 윤

4월 19일 아침 조회를 마친 즈음 누구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 급우 중 한 분이 단상에 올라가 3·15 부정선거의 규탄과 함께 마산 김주열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열변을 하였으며 전날(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귀갓길에 반공청년단이라는 푸른 제복의 깡패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에 예민해 있던 우리는 모두 동의를 표하며 정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당황한 정문 수위 아저씨가 정문을 닫고 잠그자 일부는 문을 넘어서 시내로 뛰어가는 대열에 합세하는 것을 보면서 뒤에 있던 저는 누가 뒷문으로 가자 하는 소리를 듣고 뒷문으로 뛰어가서 뒷문도 이미 닫혀, 모두들 담을 넘어 대열을 정비하고 시내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뒷문 쪽에 있던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뛰어나와 “대광 학생들이 왜 그래?” 하면서 막는 것을 그대로 밀치면서 시내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2. 신설동 로터리에서 순경들의 제지를 받은 우리는 순경들을 밀치면서 서울대학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3. 신설동과 동대문을 지나 서울대학 방향으로 들어서서 한참 뛰다가 서울대학 앞을 지나며 그때 우리를 쳐다보고 있던 서울대학생들을 향해서 “형들 뭐 하는 거요? 빨리 나와요!”하면서 서울대학을 지나 혜화동 로터리 쪽으로 동성고등학교를 향해서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며 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수선하더니 군용 지프차 한 대가 우리 대열 옆으로 지나 우리 대열을 멀찌감치 앞서가서 혜화동 로터리 가기 전에 정지하여 우리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뒤에서는 트럭에서(몇 대인지는 기억에 없지만 여러 대였음) 내린 푸른 제복의 소위 반공청년단(깡패집단)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 대열 사이로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몽둥이로 때리고는 들어서 트럭에 싣는 광경을 보았다. 비교적 앞 대열에 있던 나는 앞에서 지프차를 막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민가 쪽으로 뛰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에 돌아보니 두 명이 쫓아오기에 무슨 힘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두 명을 머리로 받고 집어 던지고 도망하여 골목길로 들어가 담을 넘어 어느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방에 있던 아주머니가 나를 들어오라고 하더니 다락에 숨겨주고 자신은 골목으로 나아가서 상황을 보시며 상

황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숨어 있다가 상황이 끝났다고 하기에 나왔다. 모자를 벗고 큰길을 피하고 골목길을 골라 학교로 돌아와 보니 모두 제2진으로 시청 앞쪽으로 갔다고 하기에 그 상황에서 교복 입고 혼자 시청 쪽으로 가기에는 자신이 없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저녁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2010. 2. 25

## 6. 4·19 회고

조승호

나는 고려대학교 형님들이 4월 18일 청계천에서 강패들에게 피습당한 사실을 알고 4월 19일 아침에 학교에 도착하니 우리들이 데모를 하게 됐다고 이문길씨 전해 주면서 시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끼고 있던 RADO 시계를 이문길씨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스크랩을 찢고 동대문 쪽으로 달려서 종로 5가에서 경찰의 저지를 받았지만 저지선을 뚫고 화신 앞까지 왔는데 경찰의 저지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청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저지선을 피하여 시청 앞까지 갔는데 경찰들이 시청 앞에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청 앞에서 경찰에 쫓겨 건물 안으로 피하였는데 피한 곳이 국회 별관 건물이어서 안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태평로 파출소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최수남과 잡혀서 태평로 파출소에 같이 있는데 조금 후에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취조를 받고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붙잡혀 들어오는 수가 많아지자 지하실 넓은 홀로 옮겨지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서 있게 되었고 머리를 들기만 하면 형사가 개머리판으로 사정 없이 때리곤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취조를 받는 중 연세대 신학대학에 다니던 이욱(2년 선배) 선배님이 붙잡혀 들어왔는데 맨 앞에서 기를 들고 주동적으로 데모를 했다고 사복 근무 중이었던 형사가 봤다고 하면서 무수히 때리면서 겁을 주면서 취조를 하였습니다. 계속잡혀 들어와서 지하실이 딱 차 280여 명이 될 정도였는데 훈방으로 많이 석방되고, 30명 정도는 계속하여 지하실에 있으면서 학교에도 집에도 연락이 안 되어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박동엽 교감선생님과 아버님이 오셔서 최수남과 같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대광고등학교 학생으로는 제일 늦게 경찰에서 풀려났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연락이 없어서 죽었는 줄로 알고 시체라도 찾겠다고 삼촌과 함께 병원을 다니면서 시체를 하나하나 들추어 보면서 애를 태우셨습니다. 집에 가니 죽은 자식이 돌아왔다고 동네 분들을 모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나도 지금 자식을 키워 보니 그때 아버님과 삼촌께서 시체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을 졸이고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남대문서에서 같이 남아 있던 30명 정도가 석방이 되면 한 달 후 서울역 앞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한 달 후 정말로 다 모여서 남대문서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취조하였던 형사들과 화해하고 악수도 하고 헤어졌습니다. 형사들 말로는 그 당시에 몇 사람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들고일어날까 봐 겁을 주기 위해 심하게 다루게 됐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니 꿈만 같습니다.

2010. 3. 15

## 7. 나의 4·19일에 있었던 행적

문복강

### 1) 참가하게 된 동기. 4월 18일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철봉대에서 몇 명이 모여 있을 때 배극일이 나를 불러 낮에 고대 형님들이 피투성이 되어 교문 앞을 지나며 구호를 외치고 행진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며 ‘오늘 몇 명이 모여서 의논하기로 했는데 복강이 너도 동참하자’ 하여 마침 화가 나고 울분에 차 있던 때라 쾌히 승낙을 하였다. 모이는 친구들은 다섯 명이라 했고 들키면 우린 죽는 목숨이니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 2) 친구들과 모의

승인동에 양조장을 하고 있던 전병화 집이 모의하기에 적합하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전병화에게 모의할 장소로 너의 양조장이 적합하다고 뜻을 전달하여 승낙을 받고 전병화, 배극일, 이문길, 박웅균, 문복강, 다섯 명은 전병화 집에 도착하니 전병화 어머님께서 저녁을 해주셔서 먹고 양조장 2층에 다락방 같은 곳에 모여 전병화 어머님이 가져다주신 밀가루 포대 등 종이들을 풀로 붙여 플래카드를 만들고 의견 글을 모아 종이에 쓰고 행진하며 외칠 구호도 밤을 새우며 작성하였다. 전병화 어머님도 큰 공로자일 것이다.(아직도 내가 공로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내 이름이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지만 친구들은 알고 있다.)

### 3) 각자 임무를 부여받고 실행. 4월 19일

동이 트고 어둑어둑한 아침에 모든 자료들을 숨겨 지참하고 모두 몰려가지 않고 따로따로 흩어져 학교에 도착하고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내 임무는 교문을 맡게 되었고 교문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조용조용하게 교실에 책가방을 두고 방송을 하면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전달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뜻을 이해한 친구도 같이 동참한 것으로 기억한다.

#### 4) 거사 진행

대대장이었던 배극일이 마이크를 잡고 운동장에 집합하라는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모든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운동장에 집합하게 되었으며 그때 선생님들이 뛰어나왔다. 배극일이 오늘의 뜻을 방송으로 낭독하고 있을 때 수위 아저씨가 교문을 닫으려고 하여 내가 못 닫게 하고 학생들은 줄을 지어 교문을 뛰쳐나가며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구호를 외치고 신설동로터리 쪽으로 몰려나갔다.

#### 5) 1차, 2차 거행

먼저 달려 나간 학생들은 1차였고 선생님들이 교문을 막고 말리는 바람에 후문 담 쪽을 이용해야 하겠다고 담을 뛰어넘어 나도 학생들을 독려하다가 1차로 교문으로 나가지 못해 2차로 신설동 로터리에서 1차로 나간 학생들과 합류하게 되었다. 우리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시민들이 지켜보며 환호하여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송인동 동대문에서 경찰차들이 막고 있어 스크럼을 짜고 밀고 완강히 저지하는 경찰차를 뛰어넘어 종로를 향해 달려갔다. 그때 다친 친구들도 있었고 잡혀간 친구들도 있었다.

나는 경찰들의 저지선에 막혀 많은 학생들과 서울대 문리대 쪽으로 방향을 틀고 경찰에 쫓겨 달려가는데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과 건너편에 가운을 입은 서울대 의대생들이 나와 있어 구호를 외치고 손을 흔들며 동참하자고 외치니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였다.

그때 같이 서울대 쪽으로 간 학생들이 많았는데 경찰들과 싸우며 도망치다가 잡히거나 맞은 친구들도 많았다. 기억에 남는 것은 백진호도 옆에 있었던 기억으로 남는다.

#### 6) 학교로 귀교

나는 서울대 문리대 뒤편 골목으로 피신하였는데 골목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집으로 끌고 들어가며 숨어 있으라 하여 피신했다가 아주머니가 조용해졌으니 가도 되겠다고 해서 집을 나와 골목골목으로 해서 학교로 갔다. 종로에서 많이 다쳤고 이동범 선생님도 경찰에게 맞아 피를 흘려 머리에 붕대를 감고 계셨고, 그 외에도 친구들이 경찰서에 잡혀있다는 소식 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광화문 쪽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운동장에 집합하여 광화문으로 가자고 하는데 교목님이 다 같이 기도

합시다 하여 기도가 끝나고 우린 질서 정연하게 교문을 나서 광화문으로 행진했다.

## 7) 광화문에서 학교로

광화문에 도착하기 전 많은 인파가 시위를 하고 있었고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친 사람들을 차로 실어 나르는 광경을 보고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사상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로 가져하여 학교로 되돌아와서 질서 정연하게 운동장에 모여 해산을 하고 집으로 귀가했다.

## 8) 거사를 마치고 귀가

같이 모여 거사했던 친구들은 내일 만나자고 하고 집으로 귀가했다.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할 때면 혁명이 실패하였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들을 한다. 나도 혁명을 이끈 주역의 한 사람임을 자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4·19혁명에 앞장섰던 행적이다.

## 8. 4·19에 대한 나의 생각

조규홍

4/18 오후,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우리학교 앞에서 경찰로부터 저지를 당하면서 무차별로 구타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우리들은 내일[4/19] 이번 데모에 동참할 것을 결정하고 밤새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첫째 참여에 필요한 플래카드 등을 준비하고,

둘째 아침 일찍 교무실을 차단하고, 1, 2학년 교실을 돌면서 후배들을 운동장으로 집결시키기로 했다.

잘 되어가고 있는데, 체육선생님이 교무실 창문으로 운동장으로 뛰어나오셨다. 길원보가 체육 선생님의 조카였는데, 막아서면서 “삼촌! 이리지 마세요!” 했다.

하여튼 우리는 운동장에서 출정식을 하고, 교문을 나서려는데, 이번에는 ‘박동엽’ 교감선생님이 가로막으셨다.

‘나가려거든 나와 함께 나가자’ 하시며 우리 대열 앞에서 우리를 이끄셨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 당시 검사 ‘오제도’씨와 학교 동창이셨던 교감선생님은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들이 나와 함께 데모에 참여하니 한명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해달라’ 하셨다고 한다.

처음 부딪힘은 동대문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앞에서 막는 경찰들을 우리는 쉽게 물리치고, 종로 5가까지 잘 나갔다.

종로 5가에서 경찰의 대처는 동대문하고는 달랐다.

뒤에서는 데모대를 후려쳐서 흩어지도록 만들고,

앞에서는 무술경관들이 대항하는 학생들을 그냥 차에 던져 태웠다.

그러나 이 작전도 뚫고서 종로 2가까지 진출했는데, 이번에는 종로 5가에서의 작전에 최루탄 공격이 추가돼서 감행됐다.

나는 대열에서 벗어나 누군가와 종로 2가에 있는 다방으로 피신을 해서 들어갔다. 그러자



다방에 있던 분들이 여기는 위험하다 하시며 주방에 있는 창문을 통해 우리를 도피시켜주셨다.

우리는 광고를 통해 을지로 2가로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어떤 신문사 기자를 만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리고 걸어서 시청 앞을 지나 국회의사당까지 갔다가,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왔다.

## 9. 4·19와 나

박동수

그날 아침 따라 학교 분위기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정부패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고려대학 형들도 참여한다며 고등학생들도 함께하기로 했으니 운동장에 모이기 바란다는 구두전달을 받고 모두 모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신설동 로터리를 돌아 동대문을 향하면서 우리의 약하고 조그마한 힘이 과연 이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모두 함께 한다고 하니 힘을 내어 구호를 외치며 의기양양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과 맞부딪혀 부상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그러던 중 어느덧 시청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청 앞에서 우리 행렬이 잠시 멈추어 서는 순간 나는 “탁” 소리와 함께 등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나는 무심결에 뒤 행렬의 친구가 고무줄로 장난을 치다가 내 등에 맞은 것인 줄 알고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신경질을 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 할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행렬은 시청 앞에서 학교로 돌아왔지만 친구들과 수학 선생님이 경찰봉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선생님은 잡혀 가기까지 했다는 등 학교 분위기는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가방을 챙겨 들고 집으로 와서 교복을 갈아입는데 무언가 묵직한 것이 방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총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행진 때 친구가 고무줄로 장난을 친 건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거울에 등을 비추어 보니 그 이후로 5시간 정도가 흘렀지만, 그 부위가 빨갱고 누르면 매우 아팠습니다.

바로 교복 상의 등 쪽을 확인해 보니 총알 크기보다 조금 큰 구멍이 나 있었으며 그 총알은 유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엄청나게 놀라셨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만일 나의 걸음 속도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머리카락에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소름이 끼치곤 합니다.

2010. 3. 2.

## 10. 데모 참여 동향 내용

백진호

본인은 당시 대광고등학교 3학년 4반 학생으로서 4.18 고려대학교 데모 행진 대열을 보면서 선배님들의 독재정권 타도의 애국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았습니다.

다음날 4·19 아침 조회시간과 때를 맞춰 전 중·고교생 모두가 정문과 신설동 방향 학교 담을 넘어 동대문 방향으로 데모 행진 대열을 갖추어 돌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고교 3년 동기 대부분이 동대문을 지나 종로 광화문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을 때 본인은 종로 5가에서 혜화동 로터리 방향의 당시 서울대 문리대 및 의과대학(문리대 건너편 소재) 선배님들을 데모 행진 대열에 동참시키고자 많은 후배들과(주로 중 3과 고1, 2학년) 행진 대열을 갖추어 혜화동 쪽으로 돌진하였습니다.

당시 개나리꽃이 만개한 문리대 정문 안에서 박수를 치며 웃고 있던 문리대 선배님들에게 “이승만 독재정권 타도”, “부정부패 물리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함께 데모할 것을 울부짖으며 호소한 후 계속 혜화동 로터리 방향으로 돌진하였습니다.

혜화동 로터리에는 이미 많은 경찰병력이 저지선을 마련하고 대기하고 있어 우리는 “죽어도 뚫고 나가자”고 외치며 좌측에 위치한 당시 수도의과대학(우석대학병원) 방향으로 돌진하던 중 데모저지 경찰들의 무자비한 “곤봉세례”(주로 어깨, 등, 허리, 발목)를 받으며 안국동 방향으로 돌진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우리 대광 중·고교생들이 부상을 당하고 본인도 경찰 4명으로부터 어깨와 발목을 구타당하면서 현장에서 잡혀 손과 발을 잡아 시위대를 태워 연행하려는 트럭에 강제로 던져져서 이미 트럭에 실려 있던 후배들 등 위로 떨어져 실려 종로 경찰서로 연행된 후 2층 화장실에서 경찰관 2명에게서 안면을 구타당하여 코에 출혈을 하는 등 머리 부분이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트럭에 던져져 실려 가는 모습을 동창 김운군이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조사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조서에 지장을 찍은 후 다시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지나가는 경찰들이 고3 놈이 무슨 데모냐고 하면서 발길질을 해 많은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기 2층 유리창이 깨지면서 투석에 의한 돌과 벽돌 조각이 사무실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뒤따라오던 서울대 문리대생들과 의대생들이 우리가 경찰서로 혜화동 로터리에서 연행당한 사실을 알고 종로경찰서를 파괴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돌과 벽돌 조각을 던져 석방하라고 구호를 부르짖었다는 얘기를 경찰서에서 내보내 주어 경찰서 앞에서 잡아탄 시발택시 기사에게 들어 알게 된 사실입니다.

경찰서 사무실이 돌과 벽돌 조각 등으로 아수라장이 될 때 경찰관이 본인을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또 데모하면 그뎨 죽을 줄 알라”고 하면서 빨리 집으로 가라고 놓아 주어 경찰서를 나와 인근에 있던 당시 “시발택시”에 급히 승차하여 학교로 가자 했더니 기사께서 지금 막 서울대생들이 경찰서를 부수고 중앙청 쪽으로 진출했다면서 요금도 받지 않고 동대문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학교에 가니 텅 빈 교정뿐이었기에 학교 인근에서 누나와 함께 자취하던 동창 강박유 군의 집을 찾아갔더니 당시 서울음대 기악과(피아노 전공)에 재학 중이던 누나와 함께 목이 많이 잡혔다고 하면서 생계란 2개를 먹여 주었고 본인의 귀 뒤가 많이 다쳤다고 하면서 무슨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그 후 걸어서 정릉 집으로 아리랑고개를 넘어 귀가하였습니다.(강박유 군이 본인의 귀가 찢어져 다친 사실을 확인한 사항임)

다음 데모에도 참여하여 을지로 입구와 당시 청계천 끝 지역이 만나는 지점에 있던 한성라사 양복점까지 갔을 때 대학생 데모 대열이 지나가면서 동국대생이 죽었다고 울부짖으면서 경무대로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서 발포까지 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모두 귀교하자고 하여 청계천을 따라 귀교하였습니다. 당시 운동장 담 쪽에 있던 평행봉 운동 시설 옆에서 역사를 가르치신 3학년 1반 담임 김용석 선생님께서 뒷짐을 지시고 고개를 숙이고 서성대시면서 우리 국민들이 저주를 받은 백성이야... 하시면서 당시의 시국을 개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본인은 이 역사적 과업에 주저 없이 고교 3년생이라는 선배의 위치에서 앞장서 후배들과 함께 순수한 투쟁으로 독재정권의 종말을 보여주는 현장을 누볐다는 역사적 사실에 삶의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며칠 후 담임선생님이신 이동범 선생님의 지시로 당시 남산에 위치한 KBS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 아니운서 “황우겸 님”과 4·19 데모와 관련한 대담을 한 바 있습니다.

## 11. 4·19 민주혁명 그날의 회고

박강남

19일 아침 일찍 교실에서 오늘 국회의사당까지 ‘데모’를 한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 호각소리에 많은 학생들이 달려 나오며 순식간에 운동장에는 약 600여 명의 재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오늘 ‘데모’에 관한 취지와 계획을 배극일 대대장이 재학생들에게 설명했다.

곧이어 키 큰 학생들이 앞에 서고 나도 선두에서 ‘스크럼’을 짜고 정문을 통해 구호를 외치며 신설동으로 뛰어나갔다. 동대문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내 기억으론 가벼운 경찰 저지가 있었고, 이어 종로 5가 쪽으로 계속 행진하는데 전방을 바라보니 꽤 많은 경찰들이 자동차와 여러 가지 장애물로 길 전체를 가로막으며 바리케이드 쳐 놓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힘차게 모두 구호를 외치며 경찰 저지선을 정면 돌파, 곤봉에 맞고, 발로 걷어차이고, 부상당하고, 경찰의 저지를 뿌리치며 돌파에 성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생기고, 대열이 일부는 흩어졌다. 나도 저지선을 재빠르게 돌파하면서 차에 부딪치며 보도에 넘어져 오른쪽 교복이 찢어지며 무릎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생생하게 그 상흔이 남아 있다.

저지선을 돌파한 우리는 4가에서 다시 모여 대열을 정리하며 1가 쪽으로 구호를 외치며 계속 행군했고, 전방을 바라보니 1가 쪽에 수백 명의 많은 경찰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쳐 놓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모두 이젠 죽었구나 하는 공포감이 엄습하는 가운데 정면 돌파를 감행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역부족, 곤봉에 맞고, 상처 나고, 일부는 연행당하고, 화신 뒷골목, YMCA 골목 등 사방으로 도망가고, 나는 다행히 연행당하지 않고 도주했다. ‘대광고 제1진 데모대’는 이곳에서 장렬하게 끝을 맺었다. 나도 선봉에 서서 경찰들의 무력진압으로 모두 해산될 때까지 열렬하게 참여했음에 항상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있다.

이날 오후 늦게 전교생이 학교에 다시 모여 질서정연하게 종로, 을지로를 통해 시청 앞까지 진출했다가 모두 무사히 귀교했다.

2019. 7. 8.

## 12. 4·19 혁명 회고록

계경순

### 1) 4·19 혁명의 동기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 시절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마산에서 일어났다. 4월 11일에 이 시위에 가담했던 김주열 군의 시체가 무참히 희생된 모습으로 바다에서 발견되었다. 4월 18일 고려대 시위가 있었고 저녁에 청계천 4가 부근에서 폭력배를 동원한 습격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모든 국민이 격분하게 되었다.

### 2) 4월 19일 당일 겪은 일 회상

나는 당시 대광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다.

그날 학교 등교 시 첫 수업 벨이 울리면 모두 뛰어나와 시위에 가담하기로 암암리에 전 달받고 기다렸다. 드디어 수업 벨이 울리자 우리 13회 학생들은 거의 전부가 뛰어나갔고 일부 선생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 담도 넘고 대열을 갖추며 신설동 로터리를 지나 종로로 향하기 시작하였다. 종로 5가에 이르자 경찰들이 앞 선두부터 곤봉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경찰들이 학생들을 제지하기 시작하자 대열이 무너졌으나 이들의 방어 체계를 피해서 다시 모여 대열을 재정비했다. 종로 2가를 지나 화신 앞 조금 못미처 YWCA 근처에 다다르자 이번에 더 많은 경찰들이 대열 앞뒤로 곤봉 세례와 같은 폭력을 사용하여 진압했다. 혼비백산으로 대열이 흩어져 버리게 되자 학생 중 일부는 목적지였던 경무대에 이르지 못하고 근처 다방으로 숨어들었다.

이미 민심이 변하여 주인과 종업원들이 땀범벅이 된 우리 학생들에게 물수건과 음료수를 건네며 응원까지 했고 일부 기자들은 구호나 관련 정보를 취재하였다. 시민들의 큰 관심과 격려에 다시 용기를 내어 다방을 빠져나갔지만 잠복하고 있던 사복형사에게 연행되고 말았다. 결국 영락교회 옆 중부경찰서에 유치되고 취조도 받았다. 특히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거인 형사(요인들이 덕수궁 앞을 지날 때 경호했던 무진장 키가 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겁도 났고 큰 일 났다고 생각하며 시름에 빠져 있었다. 한참 시간이 지나 오후가 되자 우리를 연행했던 경찰들이 우리에게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 말하며 믿기지 않게도 서두르기까지 해서 의아해

하면서 밖을 나서니, 시민과 학생들이 소방차 및 경찰 백차들을 몰고 사이렌을 울리고 만세를 부르며 전국 치안을 장악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집을 향해 갈 때(당시 집은 서대문합동) 한국은행 근처에서 총성 소리를 들었다. 안타깝게도 나중에 전해 들은 바는 우리 뒤에 시위를 한 동성고 학생들이 경무대를 넘다 경찰 발포로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했다.

### 3) 맺는 글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왔다.

이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전할 때 흐리게 왜곡되게 하거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사적 정신을 바탕으로 무궁한 발전을 이루기를 오늘도 기도하면서, 새삼 그때 희생된 학생의 영혼께 삼가 묵념을 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2019. 7. 5



### 13. 나에게 4·19란

이신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대광학원은 해방 후 38 이북에서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다. 교훈인 경천애인의 뜻을 따라 인성교육이 우선인 학교다.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4월 19일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등교와 동시에 교문을 박차고 뛰어나가게 되었다.

당시 고3이던 나는 이 데모에 적극 참여했다. 우리들은 선생님들의 만류에도 정문을 나섰고, 신설동 로터리를 지나 종로를 거쳐 세종로 쪽을 향하여 질주했다.

‘독재정권 물러가라’ ‘부정선거 다시 하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연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환호와 박수갈채로 우리들을 격려하였으며, 그 많은 시민 가운데 나는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목격했다. 흰 양복에 빨간 넥타이 ... 환한 얼굴에 미소를 띠시며 양손에 V자를, 그리고 박수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는 분,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학교 교목으로 계시던 홍동근 목사님이시다.

지금도 그 당시의 목사님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다. 홍 목사님과 눈을 마주친 우리들은 손을 흔들며 답례하면서 계속 세종로 방향으로 질주했다.

순간! 선두가 멈추었다.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였다. 그것은 도로 중앙의 전차선로에 상·하행 전차를 강제로 정차시키고, 그 전차 옆으로 트럭과 시내버스를 강제로 정차시켜 저지선을 만들었다.

이 저지선을 뚫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생겼다. 나도 발목이 다쳤고 바짓가랑이가 뜯겨졌다.

이때 경찰의 저지선을 뚫지 못한 일부 대원들은 혜화동 방면으로 갔다. 화신백화점 앞에 이르렀다. 갑자기 뒤에서 여러 대의 트럭이 오고 수많은 경찰이 내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곧바로 사정없이 내리친다. 우리들의 대열은 순식간에 흩어졌다. 잘 훈련된 무술경찰들이었다.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곧봉에 맞은 나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한 경찰관이 쓰러진 나를 붙잡더니 “이놈들 공부는 안 하고” 하면서 집어던졌다. 나는 어느 가게 쇼 윈도우(종로주단을 뚫고 안으로 뒹굴어 떨어졌다.

순식간에 가게 안은 이수라장이 되었다. 쓰러진 내 몸 주위에는 유리파편 투성이었고, 등, 허리, 어깨 등 심한 통증을 느꼈다. 다행인지 피는 흘러내리지 않았다.

겨우 정신 차리고 일어난 나에게 가게 여주인은 “다친 데는 없니?”

걱정하시면서 학생이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몸조심해야지라고 격려해 주셨으며, 본의 아니게 유리창이 깨져 어쩔 줄 몰라하는 나에게 학생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괜찮다 하시며 지금 나가면 위험하니 잠시 있으라 하면서 바지까지 꿰매 주셨다. 고마운 분이시다.

주위가 조용한 것을 확인한 여사장님은 뒷문을 열어주었다. 바로 보신각이 눈에 보였다.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왜 인사를 못드리고 나왔는지, 낮이 뜨거워지고 죄송할 뿐이다.

## 나에게 4·19란

1. 정의를 위해 불의에 맞서 두려움 없이 데모 대열에 참여하여, 정권이 바뀌는 4·19 혁명에 주역의 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갖는다.
2. 어린 나이에 국가권력 기관인 경찰에 의해 무참히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았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정의로운 일을 하였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그동안 4·19 혁명의 정신과, 이념이 5·16 군사 쿠데타로 오랜 세월 말살되어 온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원통하다.

그나마 지금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이 꼭 다행스럽다.

앞으로 4·19 혁명 정신은 영원히 빛나야 할 것이다.

2019. 6. 25.

## 14. 4·19의 회상

김기완

본인의 임무는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책가방 교실에 두고 운동장에 모이라고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정에 모여 학생 임원으로부터 오늘 행사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을 듣고 대광의 용사들이 성난 황소처럼 교문을 빠져나갔고 신설동 로터리에서 집결하여 종로 쪽으로 행진하였고 수많은 시민들이 박수치며 우리를 격려했습니다.

종로 5가에 이르렀을 때 무장 경찰들의 제지를 받았고 많은 친구들이 경찰의 곤봉 세례를 받고 발로 차이고 쓰러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순식간에 대열이 흩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오뚝이처럼 일어섰고 경찰의 저지망을 뚫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독재정권 물러가라 구호를 외치며 맨 앞에서 종로 길을 달렸습니다.

종로 2가에 이르렀을 때 다시 무장 경찰과 마주쳤고 경찰들은 무자비하게 곤봉으로 내리치며 워커 발로 찼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친구들이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본인도 뒤따라오던 경찰의 워커 발에 차였고 곤봉으로 옆구리를 강타당하며 신신양복점 대형 유리창으로 쓰러지면서 우리가 깨지고 그 파편으로 손을 다쳐 피를 흘렸습니다. 이때 주머니에 있던 만년필이 부러졌습니다. 본인도 그 자리에서 파고다파출소로 연행되었고 한참 후에 지인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4·19의 긴박했던 상황을 잊을 수가 없고 오랫동안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고자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거리로 뛰쳐나갔고 4·19 혁명의 선봉자가 된 것입니다.

4·19 혁명의 데모는 13회 동기들과 후배들이 함께한 역사적 큰 업적이며 13회 동기 모두가 주인공이며 유공자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따르며 피의 대가인 것입니다.

장하도다  
대광의 건아들아  
부정부패의 문을 여는

밀알이 되고자  
자유를 외치던  
빛의 사자들이여  
장엄하고 우렁찬  
그 분노의 함성이  
파도가 되어  
바람이 되어  
화음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히는  
불씨가 되었네  
이제  
그 진리의 불꽃이  
새 세상 밝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가 되었네  
평화와 화합의 깃발을 날리며  
큰 빛으로 온 누리에 퍼지네.

2019. 6. 25

## 15. 4·19 혁명 공적서

정윤도

저는 4·19 혁명 당시 대광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에 갔을 때 우리 3학년이 주축이 된 1진은 이미 동대문 쪽으로 가두시위를 나갔고 내 친구 조병일과 배일선은 1진으로 나갔으나 저는 1진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진에 못 나간 친구들과 모여서 우리도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나가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져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인원수가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고려대학교로 가서 대학교 형들과 합치기로 하고 고려대학교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암파출소 쪽에는 이미 우리들을 막기 위한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우리는 행진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모두 도로에 앉아 구호를 외치다가 한순간 일시에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봉을 휘두르며 우리 학생들을 잡으려는 경찰들과 잡히지 않고 도망치려는 학생들로 한동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다가 붙잡혔는데 잡히는 과정에서 저는 다행히 경찰봉에는 맞지 않았으나 목덜미를 잡혀 교복 칼라가 찢어지고 단추가 떨어지고 찢어진 칼라에 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안암파출소에 잡혀 온 학생은 약 20여 명 정도였고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학교에서 송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도록 석방시켜 줄 것을 요구하셔서 결국 조사를 받고 풀려나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우리 학교 전교생이 가두시위를 나가기로 하여 교문을 나서는데 이창로 교장선생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교문을 막아서서 우리들에게 제발 나가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나 결국 황광은 목사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주신 후 교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들이 시청광장, 을지로 입구 쪽에 도착했을 때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고 자동차 위에 올라탄 사람들은 피로 물든 옷을 흔들며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신문사에 불을 질러 시커먼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또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돌아가자고 만류하여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는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일이 생기면 시골집으로 제가 어디 있는지 형사가 조사를 왔었다고 저의 부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8. 10. 31.

## 16. 임정의의 4월 19일

임정의

1960년 4월 18일은 나에게 죽어서도 잊지 못할 날이다!

이날 오후 방과시간 무렵 교문 밖이 떠들썩하였다. 다들 하교하기 위하여 교문을 향하여 나가던 중이었다. 사태를 보니 고대 형들이 때로 몰려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

독재정권 타도하자! 등이었다.

대광고 3학년 2반 친구들과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수위 아저씨가 교문을 걸어 잠그려 하였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뛰쳐나가 신설동 로터리로 향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구호를 따라 외치면서... 동묘를 지나 동대문에 이르렀고 계속 행진하며 종로 5가, 3가를 지나 YWCA 앞을 통과 시간이 많이 흘러 어두워지고 있었다.

화신백화점을 지나 을지로 입구로 향하는 팀에 섞였는데 갑자기 기마경찰이 나타나고 산업은행 건물 앞에서 공격을 당하여 흩어지면서 경찰인지 군인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였다. 나는 한 경찰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곤봉으로 얻어맞았다. 들고 있던 가방으로 방어했지만 소용없었다.

다시 구타당할 순간 길 복판에 말 탄 경찰이 소리 질렀다.

“야! 보내 줘!”

그 순간을 틈타 산업은행 옆 골목으로 도망쳤다. 총소리도 들렸다.

정신없이 도망하여 시청 앞으로 나왔으나 그곳도 막혀 있어 덕수궁 담장 길을 따라 서대문 쪽으로 달렸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응암동에 있어 영천을 지나 무악재를 넘어 홍제동을 거쳐 지나야 하는 길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보자 많이 걱정했다고 하시면서 나를 이리저리 살피셨다. 내가 모자

를 벗자 내 머리에 핏자국을 발견하시고 놀라시며 무슨 일이나? 고 하셨다. 나도 깜짝 놀라 손으로 머리를 만졌다.

머리 위에서 목 뒤로 끈적이는 것이 만져지고 손바닥을 펴 보니 피였다. 모자를 뒤집어보니 거기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아버지께서 상처 난 곳을 살펴보고 머큐롬과 연고를 바르고 낄 새기를 기다려, 한성교회 앞에 있는 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무언가 머리 위를 스쳐가면서 상처를 냈다고 하시면서 상처가 좀 더 깊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다. 이 상처의 흔적은 머리를 만질 때마다 만져졌다.

지금은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자국은 만져진다.

처음 치료할 때는 상처 부위의 머리털을 잘라내고 치료하였다.

데모자를 검거한다는 소문 때문에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지냈다.



## 17. 4·19 혁명

권오진

“대광의 건아들은 박을 때 썩 박고 잔잔한 물가에서 풀을 뜯는다”라는 표어를 교실과 복도에 부착된 그때를 생각하며 몇 자 적어봅니다.

1. 1960년 4월 19일 등교 후 동기 간부 중 한 사람이 나에게 귀뜸하며 조심스럽게 계획을 설명하고 데모대가 고대생과 합류 시 안쪽으로 열리는 교문을 담당하여 무사히 정문을 통과하여 고대생과 합류하였음을 기억하고.

2. 어느 정도 질서 정연한 행동으로 종로 5가 가까이 진입 시 1차 저지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종로 4가에 도달 시 경찰 백차 3대와 전차 2대가 길을 막고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동안 우리는 백차를 멈추는 시간에 등 뒤에서 경찰 트럭 3대가 몰려와 데모대들을 목, 어깨, 종아리를 무차별 공격하여 모두가 산산이 흩어지면서 우리는 막다른 골목길로 피신, 그러나 끝까지 따라온 경찰과 투석전이 벌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들은 담 넘어 가정집으로 피신하여 집주인에게 보호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3. 그 후유증으로 나는 미비한 느낌으로 목, 어깨가 아파 왔고 수년이 지난 후 전신 마비로 91년 3월, 영동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원활한 사회생활을 못하고 지냅니다.

## 18. 회고록

노광국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부정선거로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공론화되면서 산발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하여 잘못되었음을 발표함과 동시에 반기를 들고 항의하는 시위가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4월 18일 우리 대광 중고등학교와 이웃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부정선거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고 그 와중에 많은 학생들이 다쳤는데 그중 우리 대광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도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4월 19일 아침 등교한 후 우리 학교 선배들이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후배인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면서 3학년 학생들이 서둘러 수업 시작하기 전에 3학년은 물론 1, 2 학년 교실을 찾아다니며 운동장에 모이도록 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채 정비가 안 된 상태로 교문 밖으로 1차 선발대가 뛰쳐나가게 되었다.

시간에 쫓기며 급하게 모인 학생들만 출발한 관계로 전교생이 뭉치지 못한 고로 남은 학생들은 재차 모집토록 하여 출발하려 했으나 선생님들께서 정문을 잠그고 해산케 하므로 정문 통과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와 같이 우리 3학년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을 후문으로 방향을 잡고 모두가 후문을 향했으나 역시 후문도 잠겼으므로 3학년 학생을 비롯해 힘을 쓸 수 있는 후배들이 후문 위 또는 담장 위에서 끌어 주고 밑에서 밀어주며 밖으로 나와 2차대를 형성하게 되어 동대문 방향으로 부정선거 반대 구호를 외치며 달려갔다.

나는 3학년 동창들과 앞서가며 후배들과 같이 동대문 근처까지 갔을 때 1차 선발로 갔던 우리 대광고 학생들이 쫓겨 오면서 빨리 피하라고 하여 2차대 학생들도 1차대와 같이 교정으로 쫓겨 왔다.

오후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이대로 놓아두면 또 일을 저지를 것이니 선생님들이 앞서서 학생들의 질서를 잡도록 하고 전교생을 인도하여 3차 시가행진을 하게 함으로써 전교생이 질서 있게 종로 5가까지 데모 행진을 하고 귀교하였다.

오후에 계엄령이 발표되었는 바 우리 대광고 학생들은 할 만큼 했으니 신변을 조심하며

안전하게 귀가하라는 선생님 지시에 따라 해산하였다.

당시 나는 우리 집이 서대문에 있어서 서대문 집까지 걸어오는데 종로 3가쯤에서 총포가 발포되는 통에 뒷골목을 돌아서 늦게야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아들 걱정을 크게 하셨단다.

당시 아버님은 지방에 공사를 하시느라 집에 안 계셨는데 훗날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을 비롯해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데모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신문과 방송을 보고 놀라셨다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꾸지람 반 칭찬 반을 들은 기억이 있다.

## 결론

우리들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건 사실이었다. 계속 들려오는 부정선거, 독재 정치,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던터, 이웃 대학교에서 불씨를 지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동심 일체가 되어 일을 벌였고 성공을 보게 되어 우리 일생에 한 획을 긋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9. 07. 02

## 19. 내가 겪은 4월 19일

이진우

4·19가 지난 지 근 육십여 년 전이 지난 지금 생각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을 더듬어 그때 일을 적어보려 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앞뒤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가 4월 18일 서울에서 제일 먼저 시위가 있는 후 다음 날 아침 조회를 하기 위해 교정에 모인 전교 학생이 조회가 시작도 되지 않아 함성과 함께 돌발적으로 교문을 향하여 돌진하자 황급해하는 선생님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수위 아저씨는 급기야 교문을 닫으려 했으나 우리들은 아랑곳없이 밀치고 교문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교문이 굳게 닫히자 담을 넘어 나온 친구 후배와 합세하여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스크랩을 짜고 선두에서 나와 친구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했습니다.

신설동 로터리를 빠져나와 동대문을 향하여 행군을 하였습니다. 가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박수를 치며 우리들을 환호하였습니다. 동대문을 막 지나자 벌써 알고 차(일반인 자동차로 생각됨)로 바리케이드를 쳐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와~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차를 밀어제치고 종로 1가 방향으로 갈 즈음 수십 명의 경찰관이 방위 벽을 만들어 놓고 시위하는 우리를 저지했습니다. 우리들은 도로 위에서 주저앉아 구호를 외치고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관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리면서 경찰봉으로 무자비하게 내리치며 잡아 연행하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위 행렬이 흩어져 도로 양옆 상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많은 학생이 잡혀가고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상가로 뛰어들어 몸을 피신한 후 뒷문을 빠져나와 종로 2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늦게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미처 참여 못한 친구들과 먼저 온 친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대열을 정리하고 모든 선생님들의 협력 하에 모든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때 교목 선생님이셨던 홍동근 선생님이 박수를 치며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광화문을 향하여 가려던 우리는 이미 통행이 막혀 시위 행렬을 돌려 시청 앞에 도달했을 때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시민들도 발 들여놓을 틈 없이 많이 집결하여 있었습니다. 광화문 방향에서 트럭에 실려 오는 총에 맞은 학생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구호를 외쳐대어, 듣는 이들은 흥분의 도가니로 휩싸였으며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연일 각 중 고등, 대학생 그리고 서울시 온 국민들도 시위에 합세하였으며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이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은 급기야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한다”는 성명을 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피 끓는 젊은 시절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이며 단순히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의감에서 우러난 행동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대광 13회 졸업생과 후배들이 빚어낸 하나의 큰 거사라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함을 금치 못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운 우리 13회 몇 명의 동창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위에 동참하고 따라준 다수의 동창들, 후배들 모두 함께 나눌 공입니다.

자랑스러운 대광의 4·19의 정신이 길이길이 후배들에게 영원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시 학창 시절 때에 글로 남겨 놓았으면 더 리얼하고 실감 나게 써졌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

끝으로 60주년을 준비하는 김삼남 회장님과 총무 김민수 총무님 이하 회장단의 노고를 감사하며 끝까지 수고하여 줄 것을 믿고 끝을 맺을까 합니다.

2019. 7. 9.

## 20. 4·19 그날을 기억하며

김민수

불공평하지 않게 전원에게 또는 단체 포상이라도 내려줘야 할 것 아닌가?

4월 18일 점심시간 운동장 담장 쪽에 있는 평행봉에서 잠시 쉬는 동안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함성에 놀라 밖을 바라보니 검은 교복을 입은 고려대생들이 스크림을 짜고 빗자루에 플래카드를 달고 구호를 외치며 신철동 방면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고려대생 몇 명이 운동장으로 뛰어와 “너희들은 뭐 하나 빨리 나와서 함께 쫓기하자!”고 외치면서 다시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내는 뒤숭숭했습니다. 틈만 나면 삼삼오오 모여 김주열 사건과 부정선거에 대한 시국을 염려하면서 모두들 조용히 하교를 하였지요.

이튿날 등교하여 조용히 자습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야! 이제 나가는 거야!” 하기에 그래 어제 낮에 함성과 함께 나가자고 외치고 뛰어나간 고대생들의 외침이 아직도 생생할 때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자 하면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운동장으로 몰려 나갔습니다.

전날 몇몇이 저녁 늦게 거사를 꾸몄고 이에 부응하여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질서 있게 교문을 박차고 신철동 방면으로 몰려가면서 함께 누군가가 시국상황을 잘 알기에 “3·15 부정선거 무효다” 김주열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부는 마산사건에 책임지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동대문에 이르렀을 때, 경찰들이 곤봉을 들고 데모대를 저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동범, 김주영 선생님 등)들이 쫓아와 “애들아, 함께 뭉쳐 있어!” 제자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쟁쟁하고 전임 교목으로 있던 홍동근 목사도 동대문 쪽으로 나와 우리들의 데모를 격려하는 모습으로 손짓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종로 5가 쪽으로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달려갔습니다.

종로 5가까지 왔을 때는 동대문을 지날 때와 달리 많은 무술경찰들이 몰려나와 우리들을 잡아 지프차에 실었고, 어떤 이들은 트럭에 실려 끌려 나갈 수밖에 없어 무리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일은행(?)” 앞에서 무술경찰에게 잡혀 트럭에 실렸는데 출발 직전에 뛰어내려 손바닥에 약간의 찰과상을 당했지만 붙들리지 않기 위해 도로를 횡단, 대학로 쪽으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모두 흩어져 서울대학 방면으로 뛰어갔고 나는 이미 길을 잃은 양 한 마리가 아닌가? 몇 명 되지 않는 우리들이 서울대학에 이르렀을 때는 다른 학생들이 더 멀리 떠난 후였나 봅니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기에 서울대학 병원으로 뛰어 들어가 정문으로 나오는 동안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의 간간이 손짓을 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 정문으로 나올 때는 원남동에서 종로 2가 쪽으로 가는 길가에 모여 있는 시민들의 박수와 격려로 우리의 일이 철부지들의 어리석은 짓은 아니었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왕 거사에 나왔으니 하나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은 어제 고대생들이 운동장으로 뛰어와 외친 외마디 생각에 잡힐 때까지라도 “부정선거는 무효다” “김주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사전에 준비된 것도 없었지만 각자 즉흥적으로 외치면서 뛰었다.

지금 생각하면 서울의대 후문으로 뛰어 들어가 구호를 누가 정해진 구호도 아니고 당시 상황을 모두가 알기에 즉흥적으로 만든 구호를 외치면서 정문 밖을 나가니 이미 삼엄한 상태고 시민들은 밖으로 나와 고등학생들이 앞장을 섰다는 것이 안쓰러웠는지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도망을 하는 것이 목적인지 시청 앞까지 갈 것인지 망설이다가 골목길로 들어가 광화문까지 뛰자는 생각이었지만 화신백화점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들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쫓아오기에 다시 골목길로 들어갔지만 불행히도 경찰관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와 마주치게 된 상황에서 경찰은 “옷을 벗어!” 라고 외치는데 그 의도를 눈치챈 나는 옷을 벗는 척하다가 경찰을 밀쳐버리고 뛰기 시작하였지만, 막상 숨을 곳이 없었고 중국집으로 들어갔으나, 숨겨주지를 않아 다시 백화점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3층인지 5층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화장품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때 여점원들이 “학생 이리 와 이곳에 숨어 있어” 하고 물을 가져다주면서 손바닥에 찰과상을 보더니 어디서 소독약을 갖다 주면서 우선 피를 멈추게 씻고 “가만히 있어 밖에 상황을 보아 알려 줄 테니 그때 나와” 하더군요.

얼마 후 여자 점원이 “이리 와서 밖을 봐” 하니 밖에는 서울대생들이 여학생을 무등을 세우면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가는 엄청난 데모대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대생 데모대에는 흰 가운을 입은 의대생들이 앞장을 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대 병원으로 외치면서 댄 것이 서울대 형님들을 나서게 했구나 생각하니 매우 고마웠습니다.

이미 정세는 무정부 상태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점원들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지금 상태에 고등학생 잡을 여가가 없을 테니 조심해서 돌아가라고 하기에 나는 화신백 화점에서 나와 다시 학교로 돌아가니 아침에 나갔던 많은 친구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교목 황광은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해 좋은 일에 나서는 만큼 털끝만큼도 다치는 곳 없도록 우리들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매우 감명 깊은 웅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질서 정연하게 밴드부가 앞장을 서서 “십자가 군병들이” 찬송을 연주하면서 시내로 향하여 서울시청까지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감사기도를 하고 모두들 헤어졌습니다.

우리들의 거사는 큰 부상자도 없었고 희생자도 없었으나 혁명의 선발대 아니 메신저 역할을 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광이 4월 혁명의 선발대로서의 극대화된 사연은 적절한 시간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등교 시간, 출근 시간에 맞추어 거리로 뛰쳐나온 그 날은 이를 모의한 몇몇 사람의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 후 우리 학교는 4·19에 대한 명맥이 끊어진 상태로 이어오다 2007년 우리의 역사적인 혁명을 우리들의 후배들에게 그 정신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하여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시 고등학교(13회, 14회, 15회) 모두가 참여했기에 가능했던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모교 교정에 4·19 기념비를 세우기로 하고 “4·19 혁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진행키로 하여 이에 조직화하여 2008년에 기념비 건립과 이후 모교 강당에서 4·19 정신을 이어 가도록 4·19 기념행사를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기념비의 비문은 “4·19 혁명 기념비”로 할 것이냐, “4·19 의거 기념비로 할 것인가?” 하는 논의 끝에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나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겸손하게 의거로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배면 비문은 “1960년 4월 19일 불의와 부정에 저항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에서 비롯된 4·19 정신이 끝없이 이어지리라 믿어 이에 그 터 위에 비를 세운다”로 기록, 그때 그 교정에 세워졌습니다.

4·19 행사는 후배들의 공부시간을 쪼개어 진행되는 만큼 질 높은 행사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학사일정으로 확정하여 후배들에게 애국심의 계기를 삼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사항이고 질 높은 행사를 위하여 외부 강사를 모셔 강연을 하도록 하여 재탄생시킬 것을 숙의하고 있습니다.



4·19 선발대인 대광고등학교에 왜 유공자가 몇십여 명밖에 없는가, 매우 아쉽습니다!

2018. 10. 24.

## 21. 아! 어찌 내가 잇으랴, 4월의 그 날을!

김기복

1960년 4월 19일, 그날은 이 나라 민주화 운동의 서막을 여는 출발점이었다. 앞서 1개월 전 3월 15일은 제4대 대통령 선거날이었다. 그러나 당시 85세의 이승만 독재정권은 사전투표, 공개투표, 대리투표 등을 통해 공공연한 부정선거를 감행했고, 이를 본 수많은 학생들은 데모에 나섰다.

그러나 최루탄을 발사하며 경찰들은 극렬하게 제지에 나섰다. 더욱이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 군 시체가 떠오른 것을 본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진리와 정의에 사로잡혔던 나는 이러한 부정과 불의에 참을 수가 없었고 4월 19일 아침 우리 대광고교생들은 학교 정문 밖을 뛰쳐나가게 되었다.

아침 일찍 등교에 나섰던 나는 친구로부터 플래카드를 적은 것을 학교 뒤쪽에 있는 2층 이발실에 놔두었으니 갖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한 친구와 함께 그 플래카드를 들들 말아서 팔에 감고, 그 높은 학교 뒤 담장을 뛰어넘었다.

우리 대광고교생들은 학교 정문을 뛰어넘고 넘어 벌써 대열은 신설동 로터리 동보극장 앞을 지나고 있었고, 나도 그 대열 선두그룹에 합세했다.

연도에 서 있던 수많은 시민들은 함성과 박수갈채로 우리를 격려했다. 창신동 앞 동묘를 거쳐 동대문을 지나 종로 5가에 이르렀을 때 동대문경찰서에서 나온 수많은 경찰들의 곤봉 세례를 받고 우리 데모 대원들은 순식간에 흩어졌고, 대원들의 일부는 서울대학교 측 혜화동 방면으로 가기도 했고, 내가 있던 대열은 계속해서 세종로를 향해 질주했다.

우리들은 경찰들의 곤봉 세례와 물대포를 마다 않고 삼엄한 경찰의 저지망을 뚫고, 앞으로 앞으로 질주했다. 거리의 시민들은 더 큰 함성으로, 더욱더 힘찬 박수를 보내왔고 우리는 이에 힘입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독재정권 물러가라”고 힘차게 외치며 앞으로 전진했다. 그러나 화신백화점(지금의 종각 앞 건물) 앞에 이르렀을 때 다시 수많은 경찰들을 태운 진압부대가 출동했다. 무장경찰들은 우리를 향해 닥치는 대로 곤봉을 내리쳤고, 우리들은 순식간에 대열이 흩어졌다. 한쪽 귀가 찢어진 채 붙들린 학생도 있었고, 신발이 벗겨진 채 도망가기도 했고, 모자가 벗겨지는 등 데모 대원들은 이수라장으로 변했다. 나도 무장경찰에 쫓기던 중 위 교복이 찢어진

채 붙잡혀 종각피출소로 연행되어 갔다. 연행되어온 학생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상부의 지시로 풀려났다.

학교로 되돌아오자 극도의 긴장감이 물리고 피곤함이 엄습해오면서 온몸이 탈진되어 정신 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친구들의 등에 업혀 학교 인근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조용히 요양하라는 진단을 받고 되돌아왔다.

지금 생각하면 그 무서운 무장경찰들의 곤봉 세례의 두려움도 없이 오직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4·19 혁명 대열에 참여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결실은 4월 26일 대학교수들의 데모에 이어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으로 맺어졌다.

이제 그로부터 세월은 50여 년이 흘렀고 4·19 혁명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으며, 또한 그 역사성을 인정받게 됨에 감회가 새로울 뿐이다. 그리고 내가 그 주역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 매우 자긍심을 갖게 되어 가슴이 뿌듯하다.

아! 어찌 내가 잊으랴 4월의 그 날을 ...

2009. 11. 29

## 22. 4·19! 그날의 기억들

김원민

4·19 혁명이 났던 해, 나는 고교 3학년이었다. 나라는 이례적 원성이 높았고, 특히 3·15 선거에 대해 이상한 말이 돌았다. 부정선거였다는 것이다. 마산에서 학생데모가 있었고, 학생이 죽었다. 우리는 분개했다.

4월 19일 아침 8시 30분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며 교문을 향해 뛰었다. 그러나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저는 그때 앞쪽에 섰었는데, 정문을 지키는 수위 아저씨에게 열어 줄 것을 간청했다. “꼭 가야겠느냐” 하셔서 “네, 꼭 가야 합니다” 하고 일제히 합창하듯이 외쳤습니다. “알았다” 하시며 문을 선선히 열어주셨다. 정말 눈물이 나도록 고맙다. 수위아저씨도 눈시울이 붉어지셨다. 내 어깨를 어루만져 주셨다. 우리는 뛰었다. 후배들에게 스크럼을 짜라고 했다. 신설동 로터리가 다가올 즈음 김주영 선생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으시며 “위험하다! 꼭 가야겠니?” 하셨다. 우리는 일제히 “네 선생님!” 하니, “그렇다면 나도 같이 가겠다”고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셨다. 무섭고 불안했지만, 선생님이 곁에 계시니깐 무척 위안이 되었다.

낙오될까 봐 서로 손을 잡고 동대문을 지나 언제 왔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니 종로 화신 앞(보신각) 종로 네거리에 당도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비명이 들려 돌아보니 트럭을 타고 온 제복을 입은 청년들이 닥치는 대로 곤봉으로 때리니 뒤쪽 열이 와르르 무너졌고, 앞에서도 제복의 청년들이 달려드니 대열이 무너지고 있었고, 나도 궁둥이 쪽 허벅지를 맞았지만 빗겨 맞아 그리 심하지 않았으나, 내 바로 앞에 있던 친구 이문길이는 귀 있는 부분을 맞았는데 피가 흘러내렸다. 삼시 간에 대열이 다 무너졌다. 한 청년이 나를 쫓아왔다. 차도로 뛰다 급해 인도로 사람 속을 비집고 들어갔다. 그때 학생들만 공격했고 가두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나는 파고다 공원 못미처 낙원 아케이트 근처에서 더 갈 수 없어 어느 양복점으로 뛰어들었다. 그 양복점 주인은 나를 뒷문으로 해서 숨겨 주었고, 밖이 잠잠하다고 알려 주었다. 나는 뛰었다 학교를 향해. 뛰고 또 뛰었다. 온몸은 아프고 무서웠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학교에는 친구들이 와 있었다. 우리는 다시 동승동 서울대로 향했다. 그런데 서울대생들은 교문 밖에서 경찰들이 막고 있어,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었다. 서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손을 잡고 안타까운 눈물만 흘렸다. 우리가 온 것을 안 경찰은 사정없이 몰아세웠다. 그러는 와중에 이동범 선생님께서 경찰을 말리려다 “너는 뭐야” 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셨다. 그들은 선생님의 양팔을 잡고 트럭에 태웠다.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니깐 병원으로 간다고 했다. 우리는 서울대생과의 합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고 우리 힘만으론 감당할 수 없었다. 땀인지 뭍지 끈적끈적하고 텁텁하고 허기가져 초보를 옮기기 어려웠다. 참으로 암담했다. 수가 적어 번번이 밀려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 고려대로 가기로 했다. 고려대는 우리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그러나 고대생들도 역시 학교 안에서 갇혀 꼼짝 못 하고 있고 우리는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매만 얻어맞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학교로 오니, 학교가 텅 비어있었다. 날이 어두워 몇 명이 있다 뿔뿔이 흩어졌다.

집으로 오는데 (신철동) 신당동) 몸은 지치고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파, 몇 번을 주저앉았다 걸었다. 어둠이 깔렸는데도 총소리가 들렸고 집에 와서 방송을 들으니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 다음날 우리는 대오도 정연하게 시위에 나섰다. 시청 앞을 돌아 지금 조선일보사 쪽으로 가려고 구 국회의사당(부민관) 근처까지 왔는데 경무대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사상자가 들것에 실려 나갔다. 시위대가 길을 꼭 메워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늘은 저지하는 경찰도 없고 학교란 학교는 다 나온 것 같다. 그날 밤은 무법천지가 되어 차에 올라타고 사람들이 시위를 했다. 기가 막히고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모른다.

나는 뜻한 바가 있어 최기철이란 고교 선배 권유로 대학을 중퇴하고 농촌운동을 하게 되었다. 한인수(5·16 민족상 수상) 선생, 대학 친구 김윤상과 젊음을 불태웠다. 그 후 나는 다시 복학하여 단국대 상대 한양대 대학원을 나와 방산업체에서 30년을 근무하다 93년 명퇴하고 지금은 조용히 농촌에서 살고 있다.

2010. 3. 10.

## 23. 4·19 혁명의 아침

방정웅

1960년 4월 19일 아침 교사회의 시간에 교사들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느라 교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각 교실은 학생들만이 있었다. 시위는 오전 8시 30분경부터 전개되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위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는데 힘 있는 학생들이 교무실 문을 막아서 선생님들의 저지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호각을 불어 학생들을 운동장 단상 앞으로 모았다. 시위대는 교문을 나와서는 동대문을 거쳐 종로 5가, 시청 앞을 향해 구호를 외치면서 스크림을 형성하여 시위를 벌였다. 종로 5가에서 소방차가 물을 뿌렸으며 곤봉을 든 청년(깡패이거나 반공청년단으로 추정)들을 만났다. 이렇게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이른 시간에 시내로 진출하면서 그 길에 있던 서울대 문리대와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12시경 가두로 나갔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다. 학생들은 다소 흥분한 모습으로 운동장에 모였고 전교생 1천 명의 대부분이 학년과 반별로 정렬하여 대기하였다. 이미 학생들은 4월 18일, 인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앞길을 지나며 시위하는 모습을 학교 담장 위에서 보았고 정치깡패들의 테러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운동장 집합으로 교사들은 운동장으로 나와 당황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보았다. 학생회장이었던 나는 단상에 올라가 시국 개선을 위한 시위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학교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교장실로 갔다. 당시의 이창로 교장 선생님은 교장실에 혼자 계셨고 나는 교장 선생님에게 시위를 나가야 하므로 학교의 허락을 받으러 왔다고 하며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교장님은 학생주임 송성찬 선생님을 불렀고 교목이었던 황광은 목사님도 불렀다. 계속 허락을 요청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웃기만 하며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 생각해도 학생이 시국 개선을 위한 시위를 나가겠다는데 허락할 교장이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무모한 요청이었지만 당시에는 학교의 허락이 없는 불법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교장 선생님의 답변이 늦어지고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 반대를 하지 않으니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겠다고 말을 한 후에 황광은 교목님에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니 쾌히 허락을 하셨다. 운동장으로 다시 나가서 단상에 올라 시국선언문을 낭독하였다. 내용은 나라가 부정선거와 부정부패로 어지러우니 선거무효와 그리고 학원의 자유를 주

장하며 시국 개선을 원하는 학생들의 외침을 알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데모를 위한 행진 코스를 발표하였다. 학교에서 동대문으로 을지로를 통해 시청 앞으로 가고 그 후 시청에서 종로를 거쳐 동대문을 지나 신설동 로터리를 거쳐 학교로 돌아온다는 계획이었다. 누구도 이 행진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교문을 나섰다. 학생회 임원들이 앞장을 서고 선생님들은 행렬의 좌우에서 학생들을 엄호하고 신설동 로터리를 돌아 동대문으로 향했다. 행진은 고3 학생들이 앞장을 서고 고2 고1 학생들이 뒤를 따랐다. 학교를 출발하여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며 부정선거 무효와 부정부패 철폐의 구호를 계속 외쳤다. 길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하며 박수를 쳐 주었다.

을지로를 지나 시청 앞 광장에 도착하니 광장은 군중들로 꽉 차 있었다. 600여 명의 학생 행렬이 도착하니 군중들은 길을 비켜 주었다. 주변의 대학생들 대오와 군중들은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하자고 제의가 들어왔다. 그러나 학교를 떠나기 전에 이미 행진 코스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경무대 방향을 거절하고 종로로 행진하였다. 시청에서 종로를 거쳐 동대문을 지나 신설동으로 향했다. 종로를 지날 때 아무런 저항도 없었고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시위 행렬에 합세하고 성원을 하였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 모두가 학교에 무사히 도착했다. 교문 앞에는 어느새 학부모님들이 가득 몰려와 있었고 학생들의 도착을 박수로 맞아 주었다. 학생들은 교정에 다시 집합하였고 나는 다시 단상에 올라 예정대로 데모 행진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 모두에게 감사하고 행진을 옆에서 지켜준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해산을 선언하였다.

이때 아침의 데모 행렬에 빠진 학생들과 고1 학생들이 시위 행렬에 참여 못했더니 다시 2차 시위행진을 하자고 간청하였다. 앞에서의 시위행진에서 시민들의 환호와 격려로 예정대로 빠른 행진을 마친 학생들은 이쉬움에 다시 행진하자고 주장하며 많은 학생들이 앞다투어 교문으로 향했다. 수위를 보는 분이 교문을 닫았으나 학생들은 강제로 교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2차 행진 요구로 다시 행진이 시작되어 동대문에서 종로로 향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염려되어 학생들을 따라갔다. 3학년이 선두에 서고 1, 2학년이 뒤에 섰다. 처음에는 뛰어나오느라 대열을 제대로 짜지 못했지만, 동대문에서는 정연한 대열이 되었다. 종로 5가에서 경찰과 반공청년단의 제지와 검거가 시작되었다. 경찰병력의 강력한 데모 제지로 행진 대열이 와해되고

각자 분산하였다. 종로 거리는 시위대와 경찰병력으로 복잡했고 이 와중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경찰이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몰려드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고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본교 학생들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국이 혼란해지자 전국에 계엄령 선포되고 모든 학교는 휴교하여 학생들은 집에서 머물렀다. 하루는 학교로부터 연락이 왔다. 계엄군 사령부에서 데모 주동자로서 학생회장을 찾으니 당분간 숨어 있으라는 연락이었다. 나는 아주 가까이 지내던 친구 집으로 피신하였다. 친구는 성동고등학교에 다녔고 친구의 큰형은 당시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중의 이야기지만 친구의 큰형님은 호랑이 새끼가 집에 들어온 줄 몰랐다고 웃으며 말했다. 며칠 후에는 양주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친구의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아침 일찍 송이버섯도 따고 냇물에서 고기도 잡으며 시골의 생활을 즐기며 친구와 지냈다.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하야를 하여 정국의 소용돌이가 잦아들면서 학교가 다시 개학을 하였다. 4월 19일 이전에 타교의 학생대표가 학생회장인 나에게 대학생 모임에 동참해 줄 것을 여러 번 제의해 왔다. 그러나 나는 고등학생은 학업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대학생들이 주동인 정치적 목적의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얼마 후에 KBS 방송국에서 4·19 시위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 송성찬 학생주임과 동행하여 대광고등학교의 시위 경위와 목적 그리고 학생들의 각오에 대한 대답을 하였고 인터뷰는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또한, 당시에 유명 잡지인 사상계지에서 주최한 4·19 데모에 앞장선 대학교와 고등학교 대표들의 시국좌담회에 초청이 되었는데 10여 명의 참석자 중에서 고등학교 대표는 대광고등학교와 동성고등학교 대표 2명뿐이고 모두 대학교 대표였다. 좌담회 내용이 사상계 잡지에 실리고 전국에 배포되었다.

학생들은 시위로 얻은 힘을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주장과 요구 표시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서울의 여러 학교에서 학교 비리나 교사의 자질 시비로 혼란이 일어났다. 특히 재단의 비라,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교사 축출, 무자격 교사의 강의 배척 등 심지어 두발의 자유나 복장의 개선문제로 학교와 마찰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학생회 임원회에서 교사와 학교 문제로 학생들의 항의나 갈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학교가 평온한 분위기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 24. 4·19의 회고록

주성기

1960년 4월 19일,

새벽 4시 30분 삼위일체 학습서를

다시 반복하다.

8시 20분 승인동 집 출발 10분 후에 교문에 도착했다.

회장 박웅균이 반갑게 맞이한다.

“오늘 우리 함께 데모하기로 했어!”

교정 운동장엔 아침 조례로 모든 학생이 집합해 있었다.

전날 고대생들의 데모 후에 깡패들과 충돌로 신설동을 돌아 부상자들과 학교로 복귀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충격과 의문을 일으켰다. 나중에 들으니 회장단과 행동대원들이 밤새 동대문 양조장 친구 집에서 플래카드 등 거사 준비를 하였고, 선생님들의 아침 조례가 끝나기 전에 전교생이 종로 쪽 경무대로 행진하기로 학생회 간부들이 결정했다고 한다.

32호실에 책가방을 두고 나오니, 선생님들이 벌써 정보를 듣고 송성찬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이 행동대원 상리 군과 원보 군을 잡고 교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순간 우리 계획이 물거품인가 하는데 갑자기 “와” 하고 함성이 터지며 교문을 밀고 3학년부터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체육 선생님과 교문 수위가 문을 잠그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신설동 로터리까지 뛰어나오다 보니 3학년이 앞 대열에 2학년 후배들이 따라왔다.

우리는 스크럼을 짜고 동대문으로 뛰고 선생님들이 같이 따르셨다. 동대문을 지나자 갑자기 교감 선생님이 경찰 지프차를 타고 우리 앞에 서더니 데모 방법을 알려 준다고 진정시키려 하나 못하게 하려는 것을 알고 종로 쪽으로 더 세차게 뛰었다.

버스에서 고대생, 서울대생 선배들이 함성과 박수를, 거리에선 시민들이 박수로 호응해 주셨다. 나는 상호 군과 어깨동무를 하고 종로 5가를 지나는데 너무 숨이 찼다. 시계를 보니 8시 30분이었다. 앞에 백차가 3대 길을 막고 섰다. 우리는 더욱더 스크럼을 짜고 백차 한 대를 덮어 버리고, 도로의 시민들은 열광하는 가운데 앞으로 돌진 돌진했다. 후에 들으니 후미 쪽에 따라붙은 경찰차로 인해 200여 명은 갈라져 혜화동 쪽으로 뛰며 동성고교와 서울대

에 데모 소식을 전했다 한다. 거리에는 시민들이 모두 나와 환호와 응원해 주셨다.

화신백화점 앞을 지날 때 뒤쪽에 소란하여 보니 경적 소리가 요란하며 순경이 한 트럭 뛰어내리며 방망이를 마구 휘두르며 무차별 구타를 시작한다.

무저항으로 부상한 친구들을 부축하고 뛰었다.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마구 방망이가 난무하니 우리 대열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비겁하게 뒤 약한 부분부터 곤봉을 휘두르며 순경, 형사 어른들 원망스럽고 인간 같지 않았다.

비무장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 여기저기 얻어맞고 지치고 수도 부족하니. 아! 더 나갈 수 없구나. 인도로 나오니 잡으려고 동물 같은 형사들이 쫓아오며 멧살, 허리띠를 잡는다. 어느 음식점으로 7~8명이 몰려들어 가니 주인이 친절히 얼른 뒷문을 인도하며 뒷담을 넘게 해준다.

다시 인도로 나오는데 고2 현기 군이 서 있다가 나오지 말라고 하며 울먹인다. 대세를 보아 다시 행진하려고 기다리는데 상일 군을 어떤 반공청년단 표식을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구하려고 달려 붙으니 갑자기 누가 경적을 불고 우르르 순경 형사들이 포위하며 무차별 구타당하며 모두 잡혔다. 목과 엉덩이를 잡고 군용차에 집어던진다. 운전수가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 눈에 불이 번쩍했다.

때려놓고서 뒤를 힐끗 보고 동물적 비웃는 얼굴은 동물 그 자체였다.

만옥 군과 고2 후배와 같이 종로 1가 파출소에 잡혀 들어갔다. 응균 군, 재영 군이 먼저 와 있었고 기복이는 너무 많이 맞아 누워 있었다. 형사 하나가 권총 뽑으며 우리에게 큰 소리로 공갈친다. 데모대에 대한 경계가 대단한 것 같다. 어느 청년이 고무신 신고 잡혀 들어와 “구경하는데 왜 잡아와요?” 뚱한 순경이 도둑놈이라 하니 “내가 도둑놈이면 우리 형은 자유당 간부인데 당신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어 보겠소?” 하니 움찔 꿈무늬를 뺀다. 갑자기 신문기자들이 3~4명이 들어와 기복 군 맞은 것 물어보고 사진도 찍었다.

송성찬 선생님이 간절한 부탁으로 경감이란 사람이 들어와 이름 적고 주의를 주고 선생님 인솔하여 학교로 차를 타고 돌아왔다. 종로 4가 지나면서 혜화동 쪽이 동성학교 학생들이 데모 시작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교정에 돌아와서 4차까지 후배들이 따라 나갔고, 4차 200명이 행렬은 고대 쪽으로 갔는데 아직 안 돌아와서 장윤철 선생님이 걱정이 대단하셨다. 고대

쪽으로 다시 가려고 학생회 간부들이 의논하고 선생님들은 말리신다. 떠들썩한 고함소리와 함께 고대 향했던 후배들이 돌아오기 시작, 열렬히 박수로 환영했다.

학생회가 다시 의논, 다시 대열을 정돈하여 1,000명이 오후 2시에 선생님들 엄호 속에 고3, 고1, 고2 순으로 길이 뻑뻑하게 장악하고 교목이신 황 목사님 기도 후, 출발 구호, 교가를 노래 하며 행진 광화문, 남대문 돌아 을지로 길로 교정에 돌아왔다.

광화문 지날 때 경무대 쪽으로 못 가게 선생님들이 힘을 많이 쓰셨고 우리도 아침 데모로 너무 많이 지쳐 있었다. 그쪽으로 그때 가지 못하게 해서 많은 사상자들 발생을 막아주셨다.

경무대 쪽에서 발포로 시체가 나오기 시작하고 남대문을 돌 때 서울신문사가 불에 타기 시작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수많은 군중이 시체를 메고 발포 정권 타도를 외쳐댔다. 매우 피곤했다. 학교 교정에 돌아오니 교장 선생님이 계엄령이 오후 1시에 선포되었으니 당분간 우리 학교도 휴학을 선포하신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차분해진다.

한잠 자고 나서 저녁에 다시 나가니 거리에는 파출소에 불을 지르고 자동차는 학생들이 운전하며 무질서 천지였다. 어찌 되려는가, 냉정해야 된다고 올바른 정치의 나라 걱정과 공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잠을 청한다.

4월 22일

삼엄했던 계엄령도 좀 풀린 듯하다.

응균 군을 저녁에 만나니 어제 조승호 군이 며칠째 행방불명되어 집에서 걱정 이 대단하여 조승호 군 찾다가 12시간 경찰서에 잡혀 있었다고 한다. 후에 조승호 군은 4일 동안 서대문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었다고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고 3으로 내일 걱정, 동생들 걱정과 정치는 정직해야 한다고 다시 생각하며 잠을 청하다.

## 25. 나에게 있어서 4·19가 가지는 의미를 돌아봅니다

김 윤

1960년 4월은 대광, 특히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였던 것 같다. 3·15 부정선거와 마산에서 발생한 김주열 군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나라를 위한 울분과 걱정 속에서 가까운 친구끼리 삼삼오오 모여 걱정을 하며 뒤숭숭하던 시기였다.

대광이라는 이름도 모르던 그 당시 한경직 목사님이 북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하신 미션스쿨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부님의 권고와 어머니의 손에 끌려서 대광의 문을 두드린 지 어느덧 6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은 아직 대한민국이 6·25의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정치, 경제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였지만 어린 나는 이런 상태에서 빨리 의사가 되어서 집안을 일으켜서 안정시킨 후 내가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단순한 계획을 가지고 비교적 열심히 공부하는 축에 속했던 것 같다. 이런 와중에서도 가깝게 지나는 친구들을 하나둘씩 만나게 되었고 중학교 시절부터 조심스럽게 비교적 가까이 지나던 성관, 문길(작고),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가깝게 지나는 친구들을 생각해본다. 진호, 예정(작고), 기풍을 떠올리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나라를 걱정하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에 걱정만 하던 시기였다. 이런 상태에서 발생한 4·19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순수하고 우발적인 젊은 우리들의 부정선거 타도를 외치는 혁명이었다.

### 1) 4·19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운명의 날이 되어버린 1960년 4월 19일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전날인 4월 18일 밤에 고려대학교 선배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던 중 민족청년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깡패 집단에게 집단 구타당한 일이 있었기에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내부의 분위기는 뒤숭숭하였다(나중에 안 일이지만 몇몇 친구들은 전날 시위에 참여한 것을 알게 되었다). 4월 19일 아침 조회를 마칠 즈음 누구인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 급우 중 한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또 마산에서의 김주열 군의 비참한 죽음을 애도하며 성토했다는 상황에서 전날 고려대 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당한 일로 극도로 예민해 있던 우리는 우리도 나가자 하며 정문으로 모두 뛰기 시작했다. 당황한 수위 아저씨는 정문을 닫고 잠

갔지만 일부는 문을 넘어서 하나의 대열을 이루었고, 나는 뒷문으로 가지는 소리에 뒷문 방향으로 달려갔지만 뒷문도 이미 잠겨 있었으므로 우리는 뒷담을 넘어서 대열을 만들고 시내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로 뒷문 가까이에 있던 파출소에서 순경들이 뛰어나와 “대광 학생들이 왜 그래” 하면서 막는 것을 그대로 밀고 시내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신설동 로터리를 지난 우리 대열은 서울대학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신설동과 동대문을 지나 서울대학 방향으로 들어서서 한참을 뛰다가 서울대학 앞을 지나며 우리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서울대생을 향해 “형들 뭐 하는 거요? 빨리 나와요” 하면서 서울대학을 지나 동성고등학교가 있는 혜화동 쪽으로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면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지프차 한 대가 우리 곁을 지나 우회하여 우리 앞으로 가더니 우리 대열보다 멀리 가서 정지한다. 뒤를 보니 몇 대인지 알 수 없는 트럭에서 푸른 제복을 입은 소위 반공청년단들이 내리더니 우리 대열을 뒤에서부터 무너트리며 몽둥이로 때리면서 쓰러지면 들어서 트럭에 집어던지는 것이었다. 앞에는 지프차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 곁에 있던 친구들과 동료들이 몽둥이에 맞고 쓰러져서 트럭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 앞으로 오는 자를 무슨 힘이었는지 모르지만 힘을 다해 이마로 받았다.

그때 내 가까이 있던 진호도 몽둥이에 맞아 트럭에 실리는 것 같았지만 당황하고 너무 급했던 나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길가 어느 집으로 담을 넘어 뛰어들었다. 방에 있던 아주머니가 나를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나를 벽장에 숨겨 주시고 자신이 “밖으로 나가 상황을 볼 테니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신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나오라고 해서 그 집을 나온 후 모자를 벗고 골목길로 해서 학교에 가니 모두 제2진을 만들어 시청을 향해 갔다고 한다. 혼자 가기에 자신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저녁까지 아무 소식이 없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니 동생은 내가 변을 당한 줄 알고 울고 있었고 할아버님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들으시며 걱정을 하고 계셨다.

## 2) 4·19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한다.

4·19 데모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학생과 국민의 비무장 봉기로 세계사에 기록될 위대한 민주혁명으로서 당시에 대광고등학교생으로서 사전 모의를 하고 총동원해 이끌고 투쟁에 임했다는 사실에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잊지 않고 살아왔다.

본인은 대광고교 시절 편모슬하에서 미아리에서 의원을 개업하시던 할아버지의 재정적 후원으로 공부를 해 왔기에 나의 학창 생활은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사가 되는 것이 할아버지의 뜻과 본인의 갈 길이라고 생각하여 비교적 공부에 치중하는 편이었다.

학창생활 특히 고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까운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 특히 백진호는 고교 입학의 계기로 기독교에 입문, 지금까지 60년 동안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는바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본인과 동기인 김성관 목사(연세대 사학과 졸업, 전 총현교회 담임목사) 서울문리대 영문과를 졸업한 허영진 목사(미국 거주) 등의 도움과 영향이 컸기에 오늘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백진호는 고2 때 어머니께서 별세하셨기에 본인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며 고등학교 생활을 함께 했고 친형제처럼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본인은 고등학교 시절 대광학원재단 주요 인사님들과 실향민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깊은 친교를 맺고 계시던 의료인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교내 활동에는 신중함 내지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다. 이는 수시로 학교생활을 지인을 통해 확인하시는 할아버지의 열정에 부응키 위함이었다. 나는 진호와 (故)이문길이가 학교 교지에 4·19 혁명에 관한 기사를 투고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에서 원고를 작성할 때 함께 있으며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 진호와 문길은 둘이 똑같은 양의 원고지를 사용, 기록하기로 하고 나서 진호는 “4·19는 의거가 아니고 혁명이다. 의거나 봉기나 쫓기는 걸코 4·19에는 격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면서 교지 시가에 …… 혁명”이라고 함께 기술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당시 교지 기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당시 나도 같이 투고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표면에 나서지 못한 학교생활의 환경을 지금 회상해 보면 아쉽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본인은 59년 전의 4·19 데모 시 표면에 나서지는 못 했지만 앞장서서 대열에 동참했다는 사실과 오랫동안 잊혀진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시려는 뜻에 감사를 표하며 4·19의 순수한 뜻이 왜곡되지 않아서 후세에 대한민국의 역사의 장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되기를 바라며 간단하지만 당시 상황과 저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한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 제2장 14회 대광동문

2019. 7. 22.

### 1. 1960. 4. 19

이춘동

선배의 지시로 미술반에서 플래카드를 작성하여 ‘숨겨두었다가’ 아침 8시 30분 배극일 선배의 신호에 따라 2학년 전체를 선동하여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동대문 쪽으로 가두시위를 하던 중 경찰과 깡패들의 무자비한 구타에 연행되어 있던 중 옆 담으로 도망하여 동성고등학교를 선동하였습니다.

광화문을 거쳐 이기봉 자택 앞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구호를 외친 후 늦게 모교에 도착하여 담임선생님께 꾸지람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다시 전교생의 가두시위에 참석하여 목이 터져라 외쳐댄 4·19!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가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2. 신들의 함성 - 천심의 승리

김영수

한 평생을 사는 동안 험난한 풍파 겪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가혹한 일제의 식민지 시절에 이어 분단의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 한민족이 당해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알맞은 운명이 아닐 수 없다. 민권을 찾기 위해 혁명을 하다 부패한 관권과 이들이 불러들인 일본인들의 총 칼 앞에 쓰러져 죽은 수십만 동학 농민들, 3·1 독립만세를 외치다 희생된 수많은 동포들, 요상한 외래 사상의 도입으로 야기된 한국전쟁에서 죽은 수백 만의 양민들, 휴전이 되어 좀 잠잠한 듯하더니 이번엔 또 내부에서 독재라는 독충이 생겨나 제 백

성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반공을 구실 삼아 평생 집권을 꾀하던 자유당 정권은 일제의 앞잡이 노릇하던 과거 친일분자들 대거 경찰로 발탁하고, 한편으로는 이정재 같은 정치 깡패들을 비호, 후원하며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시켰다. 민심은 날로 흉흉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노육인지, 노망인지 헌법을 뜯어고쳐 삼선 집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드디어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를 치르며 자유당 정권은 경찰과 깡패를 동원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전국의 민심은 부글부글 끓었다.

그때 마산에 있던 AP통신원은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세계를 향해 타전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위에 나섰다가 실종된 마산고 1년생 김주열 군의 시체가 한 낚시꾼에 의해 건져졌다는 얘기였다. 경찰이나 깡패들에 의해 타살로 보고 전국은 울분의 불길로 타 올랐다. 그 뜨거운 불길은 북으로 북으로 번져 서울까지 타 올랐다. 그해 4월 18일 고려대생들이 국회의사당까지 가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하다 돌아오던 중 정치깡패들의 잔인한 습격을 받게 된다.

드디어 운명의 날 4월 19일의 아침이 밝아왔다.

필자가 다니던 대광고등학교 캠퍼스 언덕 위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러나 온 언덕을 뒤덮은 찬란한 봄의 빛깔과는 달리 학교 내 구석구석에는 무언가 무거운 분위기가 내리누르고 있었다. 조회가 끝나고 우리들은 교실로 들어가 수업을 위해 선생님을 기다리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후다닥 거리는 소리와 함께 피성이 터져 나왔다. “나가자! 모두 나와! 뿔들 하고 있어!” 우리들은 그 순간의 절규를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순식간에 교실 밖으로 뛰어나와 운동장에 모였다. 돌발적인 학생들의 난리에 놀란 선생님들은 우선 우리를 저지해 보려 했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학생들은 학교 담장을 넘어 한 대<sup>는</sup> 동대문 쪽으로 또 한 대는 혜화동 쪽을 향해 스크럼을 짜며 정신없이 뛰었다.

그러나 중도에 경찰들의 저지에 걸려 귀가 찢어지고 머리가 터졌다. 대오는 중도에서 흩어졌으나 그날 아침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과 고대생들에 혁명의 불씨를 던진 사실을 큰 위로로 삼고 우리는 일단 학교로 돌아와 집합, 대오를 재정비한 후 곧 고려대 학생들에게 호소하여 함께 행동할 목적으로 고대 쪽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날 오후 고대생들은 전날 4월 18일 정치깡패들의 테러를 당한 것에 매우 흥분한 가운데 전 학생이 운동장에 모여 유진오 총장의 훈시를 듣고 있던 중이었다. 우리는 밖에서 그들을 향



해 빨리 거리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대며 아우성을 쳐댔다. 얼마 후 그들 모두는 플래카드를 높이 쳐들고 물밀 듯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날 오후 3시경 대광학교의 모든 선생과 학생들은 모두 손잡고 시위에 나섰다. 구호를 목 터져라 부르며 국회의사당과 시청 쪽으로 가니 이미 의사당 앞과 넓은 거리는 사람들로 꽉 메워져 있었다. 피 묻은 와이셔츠를 깃발처럼 흔들며 함성을 지르는 젊은 청년들을 태운 차들이 질주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시위대들이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하는 폭도들이라 규정하고 마구 총질을 하기 시작했다. 광화문 쪽에서는 총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냥 늦게 우리는 해산했다.

혁명의 물결로 황량해진 서울 거리를 터벅터벅 걸으며 집을 향하고 있을 때 야릇한 허탈감이 엄습해 왔다. 파출소마다 유리창이 모두 박살 나 있고, 안에 있는 집기들도 불타 흩어져 있었고 경찰관들의 모습은 한 명도 보이질 않았다. 멀리 청량리 경찰서 옥상으로부터 검은 연기가 붉게 물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다음날인가? 대통령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 떨리는 음성으로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왔다. 2인자였던 이기붕 가족의 집단 자살 발표가 나오고 이어 이승만이 하와이로 몰래 빠져나갔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방송국은 연일 혁명을 승리로 이끈 학생들을 찬양했다. 대광고등학교 선생 한 분과 학생대표도 승리의 기쁨을 전국에 생방송으로 전하기도 하였다. 한국 역사상 민중봉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으나 승리를 이끈 것은 4·19 학생혁명뿐일 것이다.

이것은 물론 동학혁명 정신과 3·1 독립정신의 맥을 이어 온 것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옛말에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고 신이란 것도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란 말이 있듯이 4·19 혁명은 신들의 함성으로 일구어낸 천심의 승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의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를 외치다 쓰러진 순진무구한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 끝으로 4·19를 노래한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 중 한 편을 읊어보자.

“우리는 하늘을 보았다. 1960년 4월 역사를 짓누르던 검은 구름 짙은 찢고, 영원의 얼굴을 보았다. 잠깐 빛났다. 당신의 얼굴은 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 하늘 물 한 아름 떠다, 1919년 우리는 우리 얼굴 닦아 놓았다. 1894년쫓엔 돌에도 나무등걸에도, 당신의 얼굴은 전체가

하늘이었다”

민주혁명 만세!

[김영수, 코리아모니터, 2007.3, 161~164쪽 발췌]



## 제3장 15회 대광동문

### 1. 4·19 기억

김한영

내가 겪은 4·19는 남다른 구석이 있는데 -

그때 선생님 이름은 잊었지만 안경을 쓰시고 혼자 칩 튀기며 열강 하시던 사회과목 선생님의 사회 시간에 학생들이 뛰어 나가고 교실에 몇 명 남았는데 그때 연규호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는 역사”라고 제법 어른스럽게 얘기한 기억이 있다.

교실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1차 교문 나갔던 애들이 쫓겨 들어온 후에 다시 운동장에 모일 때 나도 스크럼을 짜고 창신동 입구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그래서 동덕여고로 뛰어 들어갔다가 그 학교 여교사 설득으로 학교로 되돌아오다가 길이 막혀 다시 동대문 방향으로 데모대에 합류돼서 옆에 누군지도 모르는 데모대와 광화문 일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발포가 시작되었었다.

서울신문사가 연기에 싸인 장면을 보면서 서린호텔 자리 조선집 뒷길을 들어서자 내가 경찰의 총대에 옆구리를 얻어맞아 나동그라지는 장면을 미국인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미국인이 또 내려치려는 경찰을 제지해서 다행히 나를 구해 비원 옆 원서동 자기 숙소까지 데리고 와서 총개머리판으로 맞은 옆구리의 통증 부위를 문질러 주었다. 그 후 그 집을 나와 돈암동을 거쳐 정능 집에 걸어서 왔다.

참고로 나를 구해준 그 미국인은 보스턴 출신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인 Mr. Karl L. Bruce(1928년생)이다. 그는 NAP라는 통신사 운영과 LATT라는 당시 한국 공무원 해외 근무를 위한 영어 시험 전문을 설립했고 한국 경제기획원 남덕우 장관을 보좌하다가 아시아 개발은행 한국 담당으로 일했었고 나와는 틈틈이 만나는 인연을 50여 년 지내 오다가 몇 년 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임종하였다.

## 2. 4·19 기억담

이석철

동대문까지 스크림을 하고 뛰어나가는 중 조문성 선배가 사진반에서 활동하면서 현장을 실감 있게 촬영하기 위하여 경찰 저지망을 육탄으로 돌파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으로 희미한 기억이 있다.

아마도 그 형님이 그 필름을 아직도 보관하고 계시다면 불후의 명작이 될 것이다.

## 3. 4·19 추억담

김문담

아침 조회 중 같이 가지는 소리에 달려 나가 신설동을 지나 종로 4가에서 동대문경찰서의 저지를 받고 연좌를 한 후 다시 광화문으로 가서 경무대 쪽으로 돌 무렵 축구하던 선배 이문길 형이 머리가 터져서 피를 흘리고 이동범 선생이 따라와서 도와주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교실에 들어오니 화학담당 교사인 이창린 선생이 야유하며 놀리던 기억이 난다.

미국 멤피스에서

## 4. 4·19 기억

오영열

홍수길 동문과 함께 철봉대에 올라앉아 담 너머를 보니 고려대생들이 외치는 소리가 “동생들 나와, 대광 나와라”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한참 후 축구부 선배가 경찰 곤봉에 맞았다며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우리들도 담 너머 나가려 하였다. 중학생은 빼고 고등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무대로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행진하여 반도호텔을 지나니 시민들이 물을 나누어 주며 격려하였다.

광화문을 조금 지나니 경무대에서 총에 맞아 피를 흘리거나 피가 잔뜩 묻은 윗도리를 차 위에서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경무대 진입은 실패하고 해산했으며 집(울지로 3가)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더니 돌아 돌아 한남동에서 내려 걸어서 집에 오니 가게 문은 다 닫았고 아버지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호주 시드니에서

## 5. 4·19 기억

김성용

난 그때까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도 못 나가고 집에 있었던 중 4·19 날 광화문까지 가서 데모하는데 군인들이 발포하기 시작해서 덕수궁을 지나 아마 시청까지 도망갔는데 옆에서 총 맞고 사람들이 막 쓰러졌지 ...

그곳까지 후퇴하니까 그때 군인들이 아니라 경찰들이 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

어느 골목으로 도망가면서 총 맞아 죽는다는 공포를 난생 처음 느꼈었지 ...

하얀 가운 입고 총 맞아 쓰러진 사람들을 구조하던 사람들이 어찌 그리 용감해 보이던지 ...

## 6. 4·19 기억담

정선관

한영이 글을 읽으며 4·19 그날 스크림을 하고 시청 앞에서 광화문으로 향했을 때, 청와대에서 총을 맞고 피 흘리며 죽은 시체를 들고 나오는 무리와 마주쳤던 일이 생각나며 목이 멍니다.

23일 지난 주일에는 교회의 내가 맡은 연장자 반에서도 6·25 때 전사한 윌리엄 해밀터 쇼와 그의 아버지 선교사를 소개하고 6·25 노래를 불렀는데 한국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대광입니다.

미국 LA에서





4 · 19  
이후의 대광  
학생운동

제1장\_1964년 한일회담 반대 학생운동

제2장\_1967년 6·8 부정선거 규탄

제3장\_1969년 3선 개헌과 반대 학생운동

1. 3선 개헌 파동과 학원 휴교

2. 3선 개헌 반대 학생운동

3. 언론에 나타난 3선 개헌 반대 운동



## 제1장 1964년 한일회담 반대 학생운동\*

한일 국교 정상화를 서두르는 정부 방침에 맞서 소위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의 여론이 점고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동태가 주시되어 왔거니와 6월 3일(수) 마침내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시내 각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안암동 로터리에서 신설동 로터리의 구간에서 고려대학교 데모대와 경찰 측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대치하고 거리에서 최루탄의 연막이 자욱하였다.

휴식시간에 운동장으로 나온 본교 학생들도 담장 위에 올라가 지나가는 데모대를 성원하며 경찰을 야유하는 언동을 보였다.

운동장에서는 이를 만류 저지하려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쫓고 쫓기는 광경이 벌어졌으며 아차 하는 일순간에 운동장 서편의 담장이 수 십m 아래 그대로 넘어가 주저앉고 말았다. 담장 위에 까맣게 매어 달렸던 학생들의 중압에 의해 그렇지 않아도 빈약했던 담이 무너져버린 것이었다. 다행히 큰 희생자는 없었으나 두 명의 학생이 중상을 입어 입원하였고 기타 소수 학생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뒤 튼튼하게 개축된 현재의 담장은 6·3 사태가 빚어낸 결과의 하나이다.

6월 3일 하오 3시를 기해 마침내 서울시 일원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고 각 학교에 대하여 휴교령이 하달되었다. 그리하여 6월 4일부터 시내 각 대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부득이 휴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는 일주일 후에 개교가 되었으나, 6월 22일(월)에 휴교 조치가 해제되기까지 약 20일간 고등학교의 교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휴교기간 중 교직원들은 계속 출근하여 정상 근무에 임했으며 공휴일인 현충일에도 출근 시무하지 않을 수 없었다.

---

\* 『대광 35년사』에서 발췌





## 제2장 1967년 6·8 부정선거 규탄\*

1967년은 제6대 대통령 선거와 7대 국회의원 선거의 해였다. 5월 3일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 후보 박정희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지만, 6월 8일 국회의원 선거는 여야 간의 과열된 선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선거가 끝나자 선거 부정에 대한 규탄의 소리가 비등하여 갔다. 이에 자극받은 대학가에서 성토와 시위 등이 잇달아 일어나게 되자 4·19 이래 대광의 전통을 과시하려는 듯 본교 학생들은 6월 13일 2교시 후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와 약 2시간 동안 성토를 한 후 학교 측의 권유로 교실에 들어갔다.

6월 15일 다시 학원의 분위기가 이상해짐으로 고1, 2학년 학생을 학년별, 학급별로 귀가조치하였으나 고3 학생들은 불응하여 데모를 기도하였으며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은 강당에 들어가 농성, 종국에는 '부정선거 화형식'을 운동장에서 가지고 오후 10시경에야 해산하였다.

6월 16일 학교는 다시 휴교령에 의하여 문을 닫게 되고, 교사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거리에 나가서 귀가시켰다. 이 휴교 조치는 6월 21일, 7월 1일 두 차례 연기가 거듭되어, 고3이 21일 만인 7월 7일에 개학하고, 고1, 2는 한 주일 더 늦게 26일 만인 7월 12일에야 개학하였다.

이 휴교 기간중 학교에서는 가정 학습물을 준비하여 각 가정에 우송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여름방학을 단축하여 8월 21일 개학하여 복중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

\* 『대광 50년사』에서 발췌



## 제3장 1969년 3선 개헌 반대 학생운동

### 1. 3선 개헌 파동과 학원 휴교\*

1969년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여섯 번째 개헌 파동을 겪은 해이다. 우리 헌정사의 쟁점은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책임제냐 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와 대통령 임기 문제로 집약할 수 있는 것으로 69년 개헌의 주요 골자도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 개헌에 대한 논의는 극히 신중하게 논의되어왔는데 드디어 표면화되자 야당인 신민당이 주도하여 3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켜 대결함으로써 정국이 점차 격화되었으며 대학가에 다시 데모가 번지기 시작함으로 7월 5일 전후하여 조기 방학을 하기에 이르렀다. 본교생들도 7월 5일 데모를 시작하였으나 교사들의 강력한 저지로 일단 중단되어 무사히 1학기를 넘겼다.

한편, 개헌안이 8월 9일 발의되어 9월 14일 오전 2시 50분 국회 별관에서 공화당 의원만으로 변칙 통과됨으로써 9월 17일 아침 드디어 1,000여 명의 학생들은 교사들이 직원조회를 하고 있는 동안 교문을 뛰쳐나가 송인동 로터리까지 진출하였다가 경찰의 제지로 학교로 되돌아왔다. 이어 교정에서 성토대회, 다시 강당에 들어가 학생총회를 열었다. 이와 같은 데모사태로 9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고등학교로서는 가장 긴 19일간의 휴교를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학습 지도를 하는 한편, 각서를 받아 조기 개학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였다.

### 2. 3선 개헌 반대 학생운동\*\*

1969년 9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안이 시민회관 별관에서 기습적으로 처리된다.

당시 대광고등학교 학생회는 3선 개헌을 앞두고 사전 모임을 갖고 거사계획을 세운다.

한편 서울 시내 몇몇 고교 학생대표들은 (동성고 김달인 회장, 경기고 임지순 대의원 의장 등) 모임을

\* 『대광 50년사』에서 발췌

\*\* 대광 22회 동문들의 회고 및 증언(당시 고3)

갖고 연대해서 개헌저지 운동을 하자고 의논했으나 각 학교 별로 하기로 하고 더이상 진전은 없었다.

9월 15일 월요일 오후 1교시가 끝나자 고3 학생 전원이 운동장으로 나가 3선 개헌 반대 집회를 갖고자 했지만 교사들의 강력 제지로 결국 실패하고 30분 만에 교실로 복귀한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학교 인근 중국음식점에서 학생회 임원을 비롯한 수명의 학우가 모여 앞으로의 거사 일정을 다시 협의하고, 선언문, 결의문, 플래카드 등의 준비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천득 동문은 “아버님(삼천리 그룹 창업)이 하시는 사업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 내가 직접 가담은 못하지만 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거사 이후 주동 친구들의 도피 자금 등 내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여 학우들에게 썩한 감동을 주었다. 1차 회동을 마친 후 일부 학생들은 다시 조현재 회장 안암동 하숙집에 모여 세밀한 거사계획을 세우게 된다.

당시 이 진 동문은 선언문, 결의문을 준비하고, 양영원 동문은 미술실 밀실에서 각종 플래카드와 게시물을 준비한다. 한편 학생회 간부들은 교내에서 전혀 내색을 하지 않은 채 16일 방과 후에 전원 이민호 동문 집(충무로 소재)에서 합숙하고, 17일 새벽에 나와 가까이 있는 초동 교회에 가서 학생부 담당 목사님께 부탁드려 잠시 예배드리고 학교로 향한다.

9월 17일 등교 후 8시 자습 종료 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마자 각자 부여받은 역할대로 일부는 교무실을 봉쇄하여 선생님들의 출입을 막고, 일부는 하급생 반에 들어가서 독려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대로 1,200여 명이 순식간에 운동장에 모였다.

불법 변칙으로 통과한 3선 개헌안은 무효다!

전국의 학생들이여 총궐기하라!

선언문(조현재 회장)에 이어 결의문, 민선영 동문의 기도 후에 바로 교문 밖으로 진출을 시도 하였으나 교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철문을 넘거나 담을 넘는 상황이 되자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여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교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기습 시위였기에 아무런 제지가 없었고 1진은 학생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2진은 김형기, 부길만 동문 등이 맡아 거리로 향했다. 주동 학생이 경찰의 망원렌즈에 바로

찍혀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명이 둘러싸는 등 신경을 썼다.

워낙에 이른 시간이라 경찰도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워커 끈도 제대로 못 묶고 현장에 투입된 경찰도 많이 눈에 띄었다. 보문로 - 신설동 - 동대문까지 가야 결국 전투경찰과 맞서게 되었고, 아침 출근길에 이를 지켜본 버스, 택시, 연도의 시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적극 호응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는 경찰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루탄이 난무하고 경찰의 저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일부는 동덕여고, 광희고로 피신하고 나머지는 학교로 복귀하였다.

학생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는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창로 교장 선생님 외 여러 선생님들도 부상을 당하는 등 학생들 편에서 보호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였다. 이날 선생님들 모두 운동장에 나와 복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최루탄으로 괴로워하는 학생들 눈을 소금물로 일일이 씻어 주시고 다친 학생들을 파악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 시위 중에 선봉대로 연행된 박익주 동문 등 여러 명은 동대문경찰서에서 2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전원 학교로 복귀하였다.

각 반별로 인원을 확인 후 강당으로 몰려가 김형기 동문(대의원 의장), 부길만 동문 등이 주도하여 성토회를 계속 이어갔다. 학교는 이날 바로 무기한 휴교를 결정하였다.

이 진 동문이 작성한 그 날의 선언문은 상당한 명문으로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되어 주동 학생들이 다치는 것이 걱정되어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수거하여 폐기했다고 후에 이관일 선생님께서 전해주셨다.

엄정한 군사정권 아래 당시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3선 개헌 반대 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명문 미션스쿨로 1960년 4·19 혁명 당일 대광고 선배들이 가장 먼저 거리로 뛰어나가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한 사실이 있었다는 전통과 학생회, 대의원회의 자치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교육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민주의식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선생님들 또한 겉으로는 만류하지만 내심 격려하는 모습이 역력하였고, “내 자식이 라면 나가서 외치라”고 하겠지만, 너희들이 다치거나 잘못 될까봐 그리 못하겠다면 김유영(1회), 이호유(6회), 방용필(역사) 선생님 등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한다.

당일 저녁 귀가할 때 교문 주위에는 사복경찰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학생회 임원 및 선언문 작성자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주동 학생들은 여러 친구들이 에워싼 가운데 겨우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

당시 군사정부는 학교 정문에서 일정 거리 이상 학생 데모대가 진출하면 경찰서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데모 진압에 백골단, 전투경찰, 경찰 등 총력을 다 해 막아서서 대학생들도 교문 앞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고교생들이 이렇게 장거리 시위를 한 보기 드문 사건이었지만 언론 탄압이 심한 상황이라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입소문으로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고려대, 서울문리대에 알려져서 이후 3선 개헌 반대 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결국 당국의 강압에 조현제, 백관호, 이민호, 임경식, 양무철 등 입시를 앞두고 고3 학생들이 무더기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 교직원들과 한경직 목사님(대광 이사장), 김수한 추기경님(동성 이사장)이 적극 나서서 약 한 달 간의 휴교와 정학은 해제되었으나, 주동자로 낙인된 조현제, 백관호 동문은 정학이 풀리지 않아 ‘대학입학예비고사’를 지방학교 재학생 자격으로 인천시에서 치르는 어려움을 겪었다.

### 3. 언론에 나타난 3선 개헌 반대운동

#### 대광고 휴교

대광고교생 약 1천2백 명은 17일 오전 등교하자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무효다> 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뛰쳐나와 기습데모를 감행, 동대문까지 진출했다.

이들은 뒤늦게 출동한 경찰 제지로 오전 8시쯤 학교로 다시 돌아가 강당에서 학생총회를 가진 다음 교사들의 설득으로 해산했다.

이날 데모를 말리던 동교 이창로 교장이 경찰의 곤봉에 맞자 학생들이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동교 3학년 2반 박익주(19)군 등 10명을 동대문 경찰서로 연행했다 훈방했으며, 동교 직원회의에서는 무기한 휴교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1969. 9. 1일자)



**대광고등학교**

DAE GWANG HIGH SCHOOL



# 부록

국가유공자 명단

4·19 혁명의 용사 명단

4·19 전야와 당일의 서울시 데모 상황

편집 후기

참고문헌

4·19 행사 성원해 주신 분 명단

『대광과 4·19』 편찬위원회 명단

## 국가유공자 명단

### 4·19 혁명 유공자(건국포장) 18명 명단(2010.4.19)

13회 동문(당시 고3)

김기복	김명권	김재영	김춘삼	김태웅	박예정	박웅균	백진호
방정웅	배극일	서용남	이문길	이인행	조승호	최완택	

이상 15명

14회 동문(당시 고2)

고원석 김형욱 이상 2명

15회 동문(당시 고1)

정기원 이상 1명



## 4·19 혁명의 용사들

## 4·19 민주혁명 참가자 명단

## 제13회 당시 고등학교 3학년; 1961년 졸업

강기호	강명섭	강박유	강영도	강우구	강정웅	계경순	계기화
고광언	고윤철	구교성	권순무	권영중	권오진	금순철	김경길
김관휘	김광수	김광순	김광신	김광웅	김광육	김기복	김기완
김기원	김길호	김낙인	김길남	김덕정	김동선	김만기	김명원
김명전	김명철	김민수	김병학	김부현	김삼남	김상호	김석복
김선웅	김성관	김성수	김성용	김성준	김수길	김승범	김영강
김영길	김영환	김완권	김용선	김용일	김용일	김원민	김원필
김 윤	김응원	김의협	김익웅	김인수	김인환	김재명	김재영
김재옥	김정식	김정안	김지웅	김지호	김창구	김추로	김충삼
김태성	김태웅	김매헌	김형배	김호립	김홍건	김황준	김희집
남영일	노광국	노석갑	도호웅	독고창남	문동근	문복강	문전섭
문택진	박강남	박관준	박동수	박도웅	박문성	박영길	박영산
박예정	박옥호	박용철	박용균	박인환	박준영	박현무	박희조
방정웅	배관식	배국진	배극일	배일선	백도웅	백선영	백송철
백진호	서용남	서재복	선우승행	성백균	손종호	송기영	송명남
송수길	송인광	송재한	신기원	신동원	신재식	안재영	안희복
오명도	오승박	오영식	우형순	유병길	유지수	유효선	윤선영
윤영범	윤주영	이건삼	이금택	이기철	이길남	이남규	이대영
이도정	이동수	이동영	이문길	이병선	이봉섭	이봉호	이부송
이상철	이성봉	이승우	이승원	이신실	이영호	이웅철	이원일
이윤중	이인행	이재웅	이재윤	이정길	이정일	이종배	이진우
이창식	이창억	이춘길	이치길	이학산	이 황	임기봉	임용식
임정의	장광남	장영일	장영일	장원전	전문수	전병화	전예인
전정남	정광철	정상춘	정영일	정윤도	정정남	정형철	제찬성
조관제	조규홍	조만옥	조병일	조승호	조영선	조영철	조징상
주마서	주성기	지국정	지선장	지연해	차영식	채찬성	최건일
최경일	최경철	최기석	최덕삼	최병학	최성관	최성철	최수남
최수일	최순영	최영남	최완택	최정용	최정일	최정치	최중학
최택준	최평화	하건진	하대웅	한관석	한기풍	한상일	한순욱
한승수	한윤택	한충선	허영진	현상진	홍영남	홍정기	홍철부

홍해웅    화연삼    황경호    황승환    황영길    황원무    황정섭    황정호  
 황춘길

이상 13회 졸업생 249명

**제14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1962년 졸업**

강광국	강종만	강창립	강치원	강형식	계광열	계신희	고무성
고원석	고인석	고호남	곽명길	곽성광	곽중길	권오엽	권조현
권희현	길경은	김갑웅	김경보	김광선	김광한	김기태	김기태
김길동	김길준	김대원	김대평	김덕기	김덕영	김덕현	김도복
김동순	김동일	김동호	김등흠	김만가	김만천	김명수	김명용
김명호	김병천	김복산	김봉산	김봉태	김상형	김선익	김선일
김선정	김성락	김성모	김성삼	김성수	김성준	김성호	김성홍
김신성	김신웅	김신일	김연택	김영기	김영배	김영배	김영범
김영범	김영수	김영수	김영하	김영호	김영호	김영환	김용복
김용운	김용익	김우태	김유원	김윤희	김의홍	김의환	김익산
김인식	김재욱	김정남	김정문	김정수	김정치	김정호	김제훈
김종걸	김종수	김종수	김종훈	김준용	김창국	김창기	김창원
김창호	김채목	김춘호	김치명	김대헌	김태환	김향길	김형영
김형욱	김홍강	남기용	노광택	노승만	노영남	노원복	노인호
노종무	노창화	류성식	류장희	문병덕	문준심	문진	민동수
민병성	민성길	박광철	박기영	박기우	박동희	박상만	박성남
박성남	박수웅	박신보	박영남	박완수	박원일	박이원	박일호
박종관	박종만	박주유	박중신	박창빈	박충건	박태권	박태수
방선림	방영길	방현기	배수웅	백광영	백광일	봉필홍	서굉일
서호석	서희웅	석혜원	성경옥	성만환	소명중	손성식	손영수
손영철	손형식	송재환	송춘규	신동성	신영식	심건	안대영
안순열	안원이	안정국	양상호	양성일	양요한	양정순	양창삼
엄세민	오도선	오재왕	오창범	오창학	원상훈	원윤성	원인승
유문덕	유원금	유의신	유재홍	유정원	유종만	유창영	윤기일
윤영백	윤영중	유행립	이경수	이곤구	이광래	이광봉	이광택
이국선	이근우	이근일	이기양	이명남	이명순	이명식	이명홍
이무용	이민용	이봉서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서황	이수길
이수길	이수복	이수원	이승실	이승일	이영승	이영용	이영욱
이영일	이영철	이용희	이용부	이원길	이윤수	이은수	이용부
이의광	이일성	이정	이정	이정수	이정인	이종만	이종범

이종석	이종섭	이종화	이준남	이준성	이중일	이창언	이천우
이철남	이철익	이청일	이춘남	이춘동	이춘식	이춘식	이철익
이 한	이한영	이형치	이호준	임명우	임부영	임부웅	임완근
장대전	장홍수	장전남	장병창	장수웅	장영두	장윤삼	장재윤
장중영	전동삼	전수길	전재철	전화옥	전효길	정광영	정무일
정석재	정세훈	정승철	정영남	정영수	정의정	정창규	정철웅
정치일	정태수	정태영	정찬옥	조남재	조덕웅	조돈일	조만식
조병무	조상우	조성원	조영권	조영철	조영홍	조의성	주명기
지인환	진태수	차명근	차종신	차주희	차진모	천명상	최경모
최교성	최동근	최동욱	최병남	최선택	최순기	최승남	최영식
최완근	최원길	최의륜	최인구	최정립	최종명	최종현	최청길
탁용현	한의상	한인호	한정교	함용길	허정남	허 철	현호겸
홍남표	홍덕남	홍두표	홍문수	홍인식	홍현강	황도준	황윤서
황창무							

이상 14회 졸업생 344명

**제15회 당시 고등학교 1학년; 1963년 졸업**

강기남	강기숙	강도현	강성추	강세철	강영걸	강영민	강영수
강윤석	강정수	강호준	계병덕	고도병	고신일	고정남	공창락
곽명열	구인방	권병래	권혁시	김경수	김경일	김경준	김경현
김경호	김계훈	김광무	김광선	김광식	김광식	김권후	김길수
김길영	김길중	김도영	김동근	김동진	김동철	김두원	김만길
김명남	김명남	김명엽	김무일	김문남	김병린	김병학	김보현
김복선	김상엽	김성곤	김성연	김성용	김성현	김송일	김승국
김승남	김승윤	김승환	김신건	김 실	김 양	김양원	김영국
김영기	김영기	김영부	김영석	김영수	김영엽	김영완	김영용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영훈	김영희	김용현	김우찬	김원선
김원욱	김원일	김원호	김유민	김유재	김윤삼	김윤성	김윤철
김은희	김응하	김의명	김의정	김인성	김인수	김일웅	김재성
김재욱	김재중	김정빈	김정준	김종무	김종봉	김종우	김종원
김종일	김진용	김진홍	김창우	김철수	김철진	김춘남	김춘식
김척도	김한영	김현규	김현철	김형록	김형욱	김홍경	김휘동
나기산	남기민	노길남	노동영	노영소	노영환	노정원	동국창
류장우	문대성	민영하	박경욱	박계원	박광수	박국진	박대선

박두서	박만순	박명하	박병하	박석환	박선국	박성남	박승근
박승일	박승환	박영규	박영남	박영식	박영환	박윤수	박재성
박종성	박준남	박충길	박태민	박행본	배병용	백광선	백광수
백광일	백무남	백영덕	백유한	백의현	백 창	백형언	서상길
서의실	서장훈	성백우	선우성근	손동희	송수길	송정문	송장현
송철수	송태상	신규식	신우갑	심부일	심현일	안사웅	안순근
안영호	안종태	안준호	안형준	양건식	양동석	양신웅	양정우
양정일	양주연	양형석	어항용	엄길웅	엄방원	엄세민	엄태웅
여대성	연규호	오국영	오세춘	오승규	오영열	오일남	유성락
유성일	유순희	유승화	유양옥	유오용	유정식	유척규	윤명도
윤상준	윤승호	윤정만	윤정시	윤종길	윤태현	은광준	이갑준
이건삼	이건치	이경균	이경수	이광일	이 근	이근우	이단열
이동소	이두호	이만호	이명남	이범훈	이봉일	이석철	이성일
이성희	이세형	이수철	이순직	이역채	이영근	이영성	이영용
이영일	이영철	이요순	이용승	이우정	이원형	이윤성	이의웅
이인균	이인석	이재신	이 정	이정기	이정식	이정언	이정훈
이종명	이종배	이종철	이종태	이주훈	이중희	이지일	이철수
이충원	이충희	이태길	이해명	이해일	이해춘	이현규	이현백
이형길	이황의	이홍상	임광남	임국근	임무웅	임승철	임완규
임재유	장만근	장명훈	장봉남	장신일	장영길	장익평	장인환
장일남	장찬섭	장창국	장태환	장풍일	장효웅	전기화	전인태
전정위	정기원	정길성	정길해	정대규	정동만	정병식	정봉수
정상용	정신관	정의웅	정재훈	정진동	정진우	정창일	정 철
정혜갑	조갑수	조경봉	조경호	조규철	조남민	조덕남	조덕한
조문성	조민우	조병항	조영덕	조인옥	조정희	조형기	조형준
주창세	지성호	지우일	차경만	차광수	차영권	차형성	채동훈
최관삼	최광웅	최기청	최양림	최영수	최윤신	최인길	최인백
최일용	최정국	최종철	최준로	최창인	최춘기	최치민	최형침
최홍준	한균원	한덕인	한도식	한동일	한상기	한성일	한수남
한영갑	한정남	한정수	한정수	허수남	허 형	현기웅	홍경식
홍수길	홍연표	황규일	황길남	황승찬	황익주	황태엽	

이상 15회 졸업생 384명

총 977명

## 4·19 전야와 당일의 서울시 데모 상황\*

### 1. 혁명의 불을 당긴 4·18 고려대 데모

억지로 연명해 오던 자유당 식 민주주의는 드디어 운명을 고하고 말았다. 그것은 4·19의 햇불이던 고대 데모사건 이전인 2월 28일 제1차로 대구에서 5백여 고등학생의 데모가 불꽃이 되어 3월 5일 서울에서 약 1천여 명, 그 뒤를 이은 것을 시발로 퍼지기 시작했다.

3월 8일 대전에서 1천여 명, 3월 10일 충주에서 4백여 명, 수원에서 3백여 명, 3월 12일 부산에서 150여 명, 3월 13일 서울과 오산에서 수백 명씩, 3월 14일 다시 부산에서 6백여 명, 포항에서 2백여 명, 인천에서 1백여 명 등 ….

이렇듯 약 15일 간에 걸쳐 연쇄 반응으로 전국에서 고등학생들의 데모는 확대되어 갔다. 이런 가운데 마산의 제2 유혈 데모가 일어났다.

#### 1) 대학생의 현실참여를 촉구한 <고대신보> 사설

자유당 치하에서 영양실조로 비틀거리며 지향 없는 방향을 계속하는 동안, 고려대학교 내에서는 지식인의 달팽이적 생리를 비판하고 청년 정신의 퇴락을 공격하며 ‘지식인의 현실참여’를 부르짖는 교수와 학생들의 목소리가 여명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내 매체였던 <고대신보>의 사설이었다. 1957년 6월 24일자 <고대신보> 사설은 “오늘의 대학생은 무엇을 자임하는가” 하는 준엄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처지에서 보면 오늘날처럼 대학생이 민족의 지사를 자임하고 구국의 투사로서의 긍지를 강력히 지녀야 할 때가 다시 없을 것이다 ….

오늘의 대학생은 무엇을 자임하는가. 학문예의 참작을 방패 삼아 이 참혹한 민족적 현실에 눈감으려는 경향은 없는가. 넘치는 패기를 거세하기로 마련이어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에 관의 성가신 이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실과는 유리되거나 간접적인 우회예의 방법론을 능사로 하기에 이르렀다. 대학교육이 과연 이런 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앞길은 자못 암

\* 4·19 혁명사 상권(223 ~ 260쪽 발췌)

담한 바 있다 할 것이다. 이것을 만회하는 길은 오직 우리 대학생들의 패기가 현실에 즉하여 항상 이와의 대결로서 있어야 할 것이니 …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지사, 구국의 투사로 자임하여야 할 시기가 왔다. 아직도 민족은 우리들을 민족의 진실한 일꾼으로서 어떤 부류의 사람보다 더 믿는 것을 단념하지는 않고 있다.”

이 사실이 당시 <고대신보> 편집인이며 문리대 교수였던 조지훈이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 1959년 3월 21일자 <고대신보>에는 법대 박해암의 글 ‘지식인의 사회참여’가 실렸다. 그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식인의 현실 참여를 강력히 주장했다.

“사사오입 개헌파동, 보안법 파동, 메카시즘 선풍이 소용돌이치고, 자유와 평등이 공공연히 파괴, 질식당하는 현실에 침묵만 지켜야 하는가 … 자유가 지성을 전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유 없이 지성의 자유로운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 한 나라에 독재정권이 자리를 잡을 때, 거기에는 유독 학문의 영역만이 독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역사적 비극을 역사를 통하여 배웠다 … 오늘날 유행병처럼 만연하고 있는 지식인의 현실도피와 자기만족적인 초연주의를 펴거나 슬퍼한다.”

이어서 3·15 부정선거와 마산의 제2 유혈 데모 이후인 1960년 3월 26일 자와 4월 2일자 <고대신보> 편집국장 박찬세(법학 55)가 쓴 2편의 사설은 고대생의 ‘현실참여’를 촉구하는 결정적인 독촉장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낡은 사회에 신선한 피를 수혈하라” (1960. 3. 26)는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썼다.

“여러분은 앞으로 기성과 대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강조되어야 할 정신적인 무기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인 것이며 행동적인 무기는 오직 자기 신념과 의지에 자초한 용기가 있을 뿐이다. … 앞으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정신적인 자립과 용기를 가지고 민족의 고원한 동경과 위대한 이상을 향하여 모든 노력과 고투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회의 어두움은 견히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의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비록 이것이 치유될 수 없는 기성사회의 독소로 인하여 지지학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낡

은 사회에 신선한 혈액을 수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젊은이의 세대적 의무인 것이다. ...  
 문호 빅토르 위고의 다음과 같은 일구를 상기시킨다.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나? 싸우는 것이  
 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이나? 이기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는 무엇이나? 죽는 것이다.”

## 2) 치밀하게 추진한 4·18모의

3·15 마산 쫓기 이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고교생들의 데모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은 대학의 동태였다. 들끓는 여론의 시선은 온통 대학에 쏠리고 있었다. 그만큼 국민의 대학에 대한 기대도 점증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대학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철저하고 치밀했다. 수많은 사복 경찰들이 학생들 속에 섞여 대학 동정을 감시하고 있었고 정보원들을 캠퍼스 요소요소에 깔아놓고 있어서 좀처럼 조직적 쫓기가 불가능한 분위기였다. 다른 대학에서도 일부 학생들에 의해 시위 계획이 시도되고 있었지만 번번이 사전에 정보가 누설, 혹은 발각되어 불발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자유당 정권은 전국 주요 대학의 신입 학생회장단을 포섭하여 어용단체인 ‘구국학생총연맹(학도호국단)’을 출범시키고 있었고 거의 모든 대학이 이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대학은 각 단과대학 회장단의 연합체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국학생총연맹에 가담하지 않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4·18 시위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성공의 배경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고려대학은 민족사학으로서 항일운동과 학련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대학보다 금지와 자부심이 강한 대학이었고, 따라서 전통적으로 와일드한 이미지를 가진 대학이라는 점 때문에 당국의 감시도 더 철저했다.

고대 옆 안암파출소는 거대 학생 동정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임시 지휘소가 만들어져 성북경찰서장이 직접 나와 지휘 감독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대 5개 단과대학 학생위원장들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시위 준비를 주도면밀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김낙중 농대학생위원장이 안암동 고대 바로 옆 후문 가까운 곳에 하숙하고 있었고 상대위원장 이기택도 종암동 대학 근처에 하숙하고 있어서 야간을 이용, 경찰의 미행을 따

돌리며 수차 비밀회합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학생위원장 회의에서는 쫓겨 어떻게 할 것인가, 고대 단독으로 거사할 것인가, 아니면 타 대학과 연합하여 행동할 것인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합하면 경찰 저지 병력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으나 문제는 대부분의 서울지역 대학이 ‘구국학생총연맹’에 가담하고 있어서 비밀 유지가 쉽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다른 대학과 연합쫓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학생위원장의 일치된 의견은 단독으로라도 거사하지 않으면 역사 앞에 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그 결연함이 한결같은 뜻이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결행할 것인가. 이들은 4월 16일 학생회가 주최하는 신입생 환영회를 거사일로 잡고 준비해 나갔다.

이 계획에 따라 각 단과대학 학생위원장 중심으로 부위원장, 대의원, 학생들을 연결하는 조직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갔다. 신입생에게 나누어 줄 기념타월은 ‘축 입학’이 아니라 ‘고대’로 표기하기로 하고 이를 머리띠로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총무부장 이재환이 제작 책임을 담당하고, 그날 사용할 마이크와 스피커는 독고중훈(철학 4), 김면중(철학 4)이 정보경찰의 눈을 피해 은밀히 준비했다.

이렇게 시위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던 4월 15일, 느닷없이 학생처 직원들과 성북경찰서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거사계획이 발각되어 일제 검거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리하여 4월 16일로 예정된 신입생 환영회 겸 시위 계획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시위 계획이 무산될 위기의 순간, 이대로 중단할 것인가, 계획대로 결행할 것인가를 놓고 검토한 학생위원장들은, 대학 당국과 경찰에 거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고유 일인 4월 17일 다시 비밀 회합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단은 거사를 계속 미루다가는 결국 시위가 무산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강경한 의견에 따라 4월 18일 신입생 환영회를 빙자해서 시위를 강행한다는 합의와 함께 선언문 결의문 등을 검토하고 전교생 총동원 계획을 재검점하였다. 경찰과 학교 당국에 속임수를 쓴 것이다.

### 3) 마침내 4·18 시위 결행

4월 17일 저녁 5개 단과대 학생위원장과 선언문을 작성한 박찬세, 정경대 총무부장 이재환 등은 결연한 각오로 유서를 써놓았다.



4월 18일 아침 7시 반, 교직원 및 학생들이 등교하기 한 시간 전, 대학 건물 뒤 인촌 묘소 옆에서는 5개 대학 학생위원장들이 극비 속에 회합을 갖고 그날의 거사 순서와 각자 분담한 역할을 재확인했다.

18일 거사 날은 화창한 날씨였다. 필기 직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10시경 현승중 학생처장이 학생위원장 5명을 긴급 호출했다. 각 단과대학 학장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교수들은 학생들의 시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는 강경한 어조의 설득을 계속했다. 정보를 입수한 정부에서 고려대학교 폐교에 상응한 강경조치를 취한다는 최후통첩이 내려왔었기 때문이다. 결단을 좌우하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현승중 처장은 이기택 상과대 위원장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리며 만약 데모를 강행한다면 교칙에 따라 간부 학생들의 제적 처분도 불가피하다며 자제를 간곡히 호소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학생처장실을 뛰어나온 5명의 학생위원장은 본관 뒤 화장실에서 다시 만나 시위를 강행해야 할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평소 강경했던 법대위원장 강우정이 말했다. “이미 죽을 각오로 유서까지 써놓고 나온 것 아니냐. 그대로 밀고 나가자” 결행을 망설이지 말자는 단호한 주장이었다.

12시 50분을 신입생 환영회(시위) 시간으로 잡은 학생회 임원들은 12시경부터 “본관 앞에 집합하라”는 격문을 교내 곳곳에 뿌리고 있었다. 교실 벽, 게시판은 물론 땅바닥도 최대한 이용하였다. 전날 김면중이 종로 ‘아세아소리사’에서 임대하여 중앙도서관 뒤 숲속에 감추어 두었던 확성기를 재빨리 설치되고 1차 독고중훈이 방송을 시작하다가 학생처장에게 붙들려가자 같은 철학과 4년 최관락이 마이크를 이어받아 방송을 계속하였다. 이미 데모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었다.

그런데 5분여 동안 학생들의 집합을 독려하던 안내방송이 갑자기 뚝 멈추더니 느닷없이 “학생들은 불순분자들의 선동에 현혹되지 말라”는 등의 뒤바뀐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학교 측의 시위 저지 방송이었다. 그러나 이 방송은 오히려 학생들의 분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오후 1시가 되자 순식간에 5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다. 대열을 짜고 출발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었다. “민주 역적 몰아내자” “자유 정의 진리 드높이자”는 조남조(정의과 57)가 쓴 플래카드가 펼쳐졌다. 이세기가 육성으로 학교 측 방송에 대항하면서 선언문을 낭독하였고 이기택은 전날 작성한 결의문을 힘차게 읽어 내려갔다. 선언문과 구호는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학생동지 여러분!

한 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독재의 최후의 발악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띤 우리들 청년학도는 이 이상 역류하는 피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극단의 악덕과 패륜을 포용하고 있는 이 타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의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이 상아탑에 안주치 못하고 대사회 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20대는 확실히 불행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손으로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이 악랄한 현실을 방관하라.

존경하는 학생동지 여러분!

우리 고대는 과거 일제하에서 항일 투쟁의 총본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사수하기 위하여 멸공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 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

우리들 청년학도만이 진정한 민주역사 창조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궐기하자!”

- 기성세대는 자성하라.
- 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 마산사건의 책임자를 즉시 처단하라.
- 경찰의 학원출입을 엄금하라.
- 오늘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치 말라.

계속되는 구호 속에서 상당한 시위 대오가 형성되었다. 구경하는 학생들과 식당에서 식사 중인 학생들, 도서관에 있던 학생들까지 합세하여 순식간에 3천여 명으로 불어난 학생들이 교문 앞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선두 대열이 교문을 막아선 경찰 저지선을 돌파할 즈음 본관 쪽에서는 유진오 총장의 담화문이 발표되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학생의 본분을 잊지 말라, 모두 몸조심하라”는 내용이였다.

오후 1시, 고려대학교 교문을 박차고 나온 3천여 학생들은 책가방을 옆에 끼고 ‘고대’라고 쓰인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맸다.

그들은 안암동파출소 앞에서 다시 경찰 저지선에 부딪혔으나 이를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신설동 대광고등학교 앞에 이르자 보다 강화된 저지선이 가로막았다. 대광고 학생들은 창문을 열고 대학생들의 데모를 응원하였고 일부는 뛰쳐나와 합류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호응도 커져갔다. 학생들은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세종로 국회의사당을 향하여 전력 질주했다.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구보로 달렸다. 이들의 선두에는 운동선수들 같은 전위대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달리고 또 달렸다. 데모대 앞의 모든 차량과 장애물을 헤치고 동대문, 종로 등 경찰의 저지선을 여러 차례 기술적으로 피한 그들은 여러 대열로 나뉘어 경찰과 신경전을 전개하였다. 주류 데모대는 태평로 의사당으로, 다른 데모대는 소규모로 대열을 짜고 경찰의 집결을 방해하느라고 모든 신경을 썼다.

이들의 데모 작전은 완전히 성공이었다. 경찰은 도처에서 대열을 짜고 구보로 달리는 데모대의 숫자와 그들의 작전을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하였다.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고려대 데모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전진을 계속, 마침내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할 수 있었다. 3천 명이 한 덩어리가 된 학생들은 경찰이 더 이상 분산시킬 수가 없었다. 학생들은 연좌시위에 들어가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1. 행정부는 대학의 자유를 보장하라.
2. 행정부는 이 이상 민족의 체면을 망치지 말고 무능 정치, 부패정치, 야만 정치, 독재 정치, 몽둥이 정치, 살인 정치를 집어치우라.
3. 행정부는 명실상부한 민주정치를 실천하라.
4. 행정부는 이 이상 우리나라를 세계적 후진 국가로 만들지 말라. 행정부의 책임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농성한다.

의사당 앞에서는 박상원(경제 57), 김중위(정의 57), 김한중(경제 57), 주석환(사학 57), 독고중훈(철학 57), 조남조(정의 57), 윤덕진(법학 57) 등의 즉흥연설과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 “연행된 학생들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박종기(정치 4), 이상범(정치 4) 등이 선창하며 연좌데모를 계속했다. 경찰은 주위를 에워싸고 일반시민의 합류를 막고 있었다. “4시 경엔 정치강패가 몰려온다” “소방차가 빨간 물을 뿌리러 온다”는 소식이었지만 학생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3시 30분경, 유진오 총장이 의사당 정문에 당도하여 마이크가 준비된 4시 10분경 농성 학생들 앞에 나와 총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학교의 책임자로서 학생 제군들이 사회에 편재해 있는 무정의에 대하여 항거하는 용기는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 학원을 버리고 거리로 나온 것은 유감됨이 있으나, 지성인다운 이성을 잃지 않은 데모를 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제군들은 여러 시간 동안 치안을 방해하고 있으니, 더 계속될 경우 사태가 악화될 염려가 있다. 연행된 학생은 다 석방하기로 결정되었으니 평화적으로 학교까지 돌아가기 바란다”

유총장의 간곡한 설득에 처음에는 환성을 올리던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가자”는 말에는 응하지 않고 계속 농성을 폈다. “내무장관이 나와서 답변하라” “연행학생 석방만이 우리의 요구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계속 외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 장택상이 격려 겸 설득을 위해 학생들 앞에 나섰다. “정치적 골동품 물러가라!”는 호된 비판을 받고 비켜섰다. 6시 30분경 고대생의 선배인 국회의원 이철승이 학생들 앞에 나서 설유이다.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고대 후배 여러분! 오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아픈 마음과 더 나은 조국 건설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결기한 여러분의 용기에 이 나라 국회의 원으로서, 또 여러분의 선배로서 무한한 격려와 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부정부패의 척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오늘도 투쟁하고 내일도 투쟁하고 쉬지 않고 투쟁하여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꽃피고 부정과 부패가 척결되는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길고 험난한 투쟁의 길을 여는 활화산 같은 봉화불을 올렸으니 이제 그만 유총장 말씀대로 학교로 돌아갑시다.”

6시 40분경 연행된 학생들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유진오 총장의 간곡한 만류와 이철승 선배의 설득을 받아들여 고대생들은 평화적인 데모를 성공리에 마치고 학교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 4) 분화구에 불을 붙인 깡패 습격

7시 넘어 거리는 어둡이 내리고 있었다. 연좌 농성을 풀고 경찰과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질서 정연하게 학교로 돌아가던 학생들은 을지로 4가에서 종로 4가로 통하는 천일백화점 앞에서 뜻하지 않았던 참변을 당했다.

학생들을 호위하는 경찰 백차에 타고 있는 경찰관과 잡담을 주고받으며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었으며 다리가 아프다는 학생을 경찰차에까지 정답게 태워주던 경찰관들과 연관 있는 듯한 깡패들의 피습을 받을 줄을 그 누구도 몰랐다.

당초 고대생들은 을지로를 거쳐 동대문 운동장에서 신설동으로 방향을 바꿔 안암동 교사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이런 함정이 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천일백화점 앞에서 쇠갈고리와 곡괭이 자루, 쇠사슬 등으로 무장을 한 1백여 명의 깡패들에게 습격을 받은 학생들은 일시에 질서를 잃고 쓰러지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선두 대열이 무너지면서 떠밀려 후퇴하는 학생들이 압사당할 것 같은 순간 김면중(철학 4)은 마침 곁에서 있는 총장 지프차에 올라가 “앞으로 전진하라. 물러서면 모두 죽는다.”하고 긴급하게 소리를 쳤다. 그때 깡패들이 달려와 “이놈부터 죽여! 죽여!”하면서 끌어내리고 쇠갈고리로 사정없이 후렷했다. 김면중은 피투성이가 되어 땅바닥에 쓰러졌다. 불과 10분 내외의 짧은 순간의 습격이었다. 깜깜한 밤거리에서 급습을 당한 평화적인 시위대열은 무너지고 삼시간에 10여 명의 중상자가 길바닥에 피를 흘리며 나동그라졌다.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대던 깡패집단은 이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감쪽같이 사라졌다. 천일백화점 앞에는 학생들이 흘린 핏물로 낭자했다. 그 자리에서 김면중을 비롯하여, 황효선(경제 1), 안재필(농대 4), 한동운(정의 3) 등 10여 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정일(사학 2) 등 10여 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여덟 살의 재동초등학교 1년생 조남행 양을 비롯하여 중국인 소년 왕홍빈 군 등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장을 취재 중인 세계일보사 곽형근 기자와 미국 NBC 방송 이경모 기자 등 10여 명의 신문 방송 기자들도 중경상을 입었다.

이런 유혈극을 보고 분노한 중 고교 학생들은 가로수 옆에 세워 놓은 보호 막대기를 뜯어 움켜쥐고 주위에 있던 벽돌조각과 돌맹이를 든 채 종로 4가에서 세종로를 향해 새로운 데모를 시작했다.

경찰관을 보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투석 세례를 퍼부었다. 그들은 천일백화점 앞에서 고대생을 습격한 깡패가 경찰이 사주한 깡패로 단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극심한 분노에 찬 고교생과 소년들의 폭력 데모가 시작되자 곤봉과 흉기로 무장한 정사복 경찰관들이 연달아 트럭에 실려 왔다. 이들은 청진동 어귀에서 데모대와 정면충돌을 일으켰다가 통금시간이 가까워서야 겨우 행동을 중지하였다.

폭력적인 보복 데모를 중단하고 각자 삼삼오오 짝을 지어 돌아가는 학생들의 입에서는 제각기 “내일 보자!” “전 시내 학생들과 함께 데모를 하자!” “경찰이고 뭐고 다 때려부시자!”는 등의 과격하고 섬뜩한 말들까지 오고 갔다.

한편 대오를 정돈하고 교정으로 돌아온 천여 명의 고대 학생들은 본관 앞 인촌 동상 앞 잔디밭에 운집했다. 철후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아직도 분노와 흥분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는 학생들 앞에 지프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비추며 유진오 총장이 등단하여 “오늘 학생들의 행동은 의로운 것이었다. 학생들의 목적이 하루 이틀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아무쪼록 무사히 귀가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그리고 울분을 삭이며 어둠 속으로 뿔뿔히 헤어졌다.

이튿날 깡패 습격사건을 조간신문은 크게 보도했다. 특히 ‘고대생 1명 피살’(오보: 필자 주)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본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다. “깡패들이 학생을 죽이다니 …!” 이 기막힌 사실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치를 떨었다. 마침내 일촉즉발의 위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했던 고대 데모대 중 끝내 귀교를 거부하고 저녁 늦게까지 잔류, 연좌데모를 계속했던 50여 명은 아래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1.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짓밟힌 오늘 하늘과 땅이 분노하고 있으며, 불법, 공갈, 협박, 사기의 3·15 선거에 울분한 마산시민의 애처로운 그 참극상을 주권 국민인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
2. 쫓기하라 애국동포여, 36년을 두고 피 흘려 전취한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 몽둥이와 총검 앞에서 피 흘리며 애도하는 저 구슬픈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지 않는가. 민족을 위한다는 위정자들이여, 그대들의 이름은 부귀요 영화이며, 몰인정한 위선자라고

우리 국민은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3. 집권당 위정자여, 그대들이 떼어버렸던 양심을 다시 찾지 않으려는가, 지금 거국적인 피 끓는 이 호소를 듣고, 어서 그 양심을 다시 찾아 민권 수호에 목숨을 바친 지하에 계신 선열과 지금 시달리며 통곡하는 우리 국민 앞에 늦지 않았으니 어서 사과하라.
4. 우리는 지금도 용서하여 줄 용의가 있다. 같은 핏줄의 단군의 자손이기에 동포여 어서 일어나 집권당의 사과를 들어보자.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평화적인 데모는 4·19 총궐기의 신호탄이 되었고, 정치깡패라고 불리는 청년들(반공청년단 소속의 동대문 폭력집단)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습격한 사건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분화구에 불을 붙인 도화선이 되었다. 마침내 제2의 4월 학생 민주혁명의 대축제를 이루어 내는 피의 화요일을 예고한 것이다.

[발췌 : 4·19 혁명사 상권]

## 2. 4·19 총궐기의 경과

### 1) 19일 데모 전의 학원 표정

18일의 고려대학교 데모는 대학교 학생들의 가슴에다 분노의 불길을 질러 놓았다. 더구나 데모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대 학생들이 을지로 4가와 종로 4가 사이의 천일백화점 앞에서 경찰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깡패들에 의해 몽둥이, 쇠갈고리 등의 살인적인 폭력 세례를 당하고 피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져있는 신문보도는 생생한 현장 사진과 함께 그 참상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 이를 본 대학생들의 분노를 극도로 자극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 중·고등학교들의 데모가 그칠 줄 모르고 있는 때에 이를 지켜보는 대학생들은 21일 기하여 서울 시내만이라도 일제히 일어나자고 간부들 간에 연락이 돼 있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데모의 시발은 문리대 정치학과생들에 의해서였다.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마산에서 김주열의 시체가 발견된 사실이 신문에 대서특필되자 문리대 교정에서

는 삼삼오오 시국담에 열들이 올라 있었다.

4월 16일 김성희 교수의 정당론 강의를 끝난 후 정치학과 2, 3학년생들의 일부가 자연스레 정치학과 연구실에 모였다. 당연히 시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3.15 부정선거와 지방 고등학생들의 데모에 우리 대학생들이 침묵만 지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학의 지성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가. 일부는 세미나나 토론을 하자는 측이 있었고 그것은 너무 온건한 방식이니 데모나 항의 집회를 하자는 등 갑론을박, 방법론을 두고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다음날에도 의과대학 구내의 함춘원 숲속에서 반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대한 항의 논의는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결론은 우리 서울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교가 연계하여 대규모 항의 데모를 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각 대학교 대표들에게 은밀히 사발통문을 전하고 거사일을 4월 21일로 정했다. 정치학과생들을 중심으로 시위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1차 데모에 이어서 2차, 3차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동원 조편성도 하고 선언문과 격문, 플래카드 등을 마련하여 정치학과 연구실에 숨겨두었다.

이처럼 비밀리에 준비를 진행하는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고려대 학생들이 먼저 데모를 하고 그것도 서울대학교 가까운 종로 4가에서 깡패들에게 공격을 받은 일이 터진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서울대생들은 다시 날짜를 앞당겨 19일로 정하고 이런 사실을 각 대학에 긴급히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19일 아침 등교 시간을 전후하여 이미 각 대학 학도호국단 간부들 간에 데모 쫓기의 사전 연락이 이루어져 시내 각 대학 단위의 데모 개시 시간 및 데모 코스가 결정되어갔다.

일부 학생들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설 때 학부모들에게 19일의 학생 데모 사실을 알리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들이 알린 데모 계획은 끝끝내 “평화적인 데모”를 할 것이니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위험하다고 말리는 학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못 믿는다면 나와 보십시오. 절대 평화적인 데모로 우리들의 요구 조건을 정부와 국회에 알리는 것 뿐입니다.”라는 말로 웃으면서 집을 나섰던 것이다.

피의 참극이 있은 후, 헤아릴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쏟아져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더 비통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그중에는 올해 대학교에 들어간 귀여운 여동생의 합격을 축하하고 데모가 끝나면 같이 극장 구경을 가자는 약속을 오후 1시로 정하고 나왔던 중앙



대학교 3학년 고병대 군이 바로 그 약속 시간에 심장 관통상으로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그를 끌어안은 누이동생의 처절한 울음이 천지에 사무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대학생들의 데모 계획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행동의 원칙에서 세워졌다. 또한, 그들은 이 평화적인 데모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것이 데모 전의 갖가지 행동으로 입증되고 있다.

데모가 끝나면 학교에 돌아가서 가방이며 노트, 도시락을 가져갈 생각으로 그대로 교실이나 강당에 놓고 나왔던 그 학생들이 어찌 그렇게도 무자비한 무력의 만행과 총포가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 2) 데모대의 행동 개시

“여기 대학의 양심은 증언한다. 우리는 보다 안타까이 조국을 사랑하기에 보다 조국의 운명을 염려한다. 우리는 공산당과의 투쟁에서 피를 흘려온 것처럼 우리는 또한 사이비 민주주의 독재를 배격한다. 조국에의 사랑과 염원이 맹목적 분격에 흐를까 우리는 얼마나 참아 왔는가.

보라! 갖가지 부정과 사회악이 민족적 정기의 심판을 받을 때는 왔다. 이제 우리는 대학의 엄연한 양심으로 일어나노니 총칼로 저지 말라. 우리는 살아 있다. 동포의 무참한 살상 앞에 안일만을 탐할 소냐! 한숨만 쉴소냐!

학도여! 우리 모두 정의를 위하여 총궐기하자!”

4월 19일 아침 서울대학교 문과대학과 법과대학 캠퍼스 게시판에 정치학과 3학년 황선필이 붓글씨로 쓴 격문이 나붙었다.

19일의 대학생 데모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에 의하여 맨 먼저 횃불이 올려졌다. 오전 9시 20분 서울대학교 문리대, 음악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의 학생 약 2천 여 명은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 후 동숭동에 있는 문리대 교문을 박차고 나섰다. 아래 선언문은 정치학과 3학년 이수정(작고 전 문화부장관)이 쓴 것이다.

“상아의 진리 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오늘의 우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양심을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악과 잔악의 현상을 규탄

광장하려는 주체적 판단과 사명감의 발로임을 떳떳이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지성은 암담한 이 거리의 현상이 민주와 자유를 위장한 전체주의의 표독한 전횡에 기인한 것임을 단정한다. 무릇 모든 민주주의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다. 그것은 또한 여하한 형태의 전제로 민중 앞에 군림하던 ‘중이로 만든 호랑이’ 같이 어설픈 것임을 교시한다. 한국의 일천한 대학사가 적색 전제의 과감한 투쟁의 구획을 정하고 있는데 크나큰 자부를 느끼는 것과 꼭 같은 논리의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위장한 백색 전제에의 항의를 가장 높은 영광으로 우리는 자부한다. 근대적 민주주의의 기간은 자유다. 우리에게서 자유는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아니 송두리째 박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의 혜안으로 직시한다. 이제 막 자유의 전장엔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정당하게 가져야 할 권리를 탈환하기 위한 자유의 전역은 바야흐로 풍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인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 가부장적 지배권력의 하수인으로 발 벗었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대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락되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의 불빛은 무식한 전체 권력의 악랄한 발악으로 하여 깜빡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긴 칠혹 같은 밤의 계속이다.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사를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체주의 전횡의 별거벗은 나상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을 보라! 비굴하게도 위협과 폭력으로써 우리들을 대하려 한다. 우리는 백보를 양보하고라도 인간적으로 부르짖어야 할 것 같은 학구의 양심을 강렬히 느낀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퇴 하에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 사수파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보라! 현실의 뒷골목에서 용기 없는 자학을 되씹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른다. 나가자!

자유는 비결은 용기일 뿐이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에의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

9시 50분 데모대 선두는 종로 4가 전매청 앞에서 경찰 저지선에 부딪혔다. 약 200m 거리를 유지하던 데모대의 옆 골목마다에서 약 50여 명씩의 경찰관이 나타나 경찰봉과 막대

기를 휘두르며 데모 대열에게로 달려들었다.

진압하던 경찰관들의 함성, 이를 물리치려는 데모대의 아우성, 선두에서 터져 나오는 목이 메인 애국가, 그 가운데 무자비한 경찰관들에 의한 폭력이 자행되어 머리가 터지고 볼이 찢어진 학생들은 경찰의 공격을 받은 지 약 5분 만에 전매청 공장과 범원관사 쪽으로 피 묻은 머리를 봉대로 감고 터진 입술을 손수건으로 누른 채 쫓겨 갔다. 그러나 학생들은 재집결하기 시작했다.

이때 데모대의 뒤쪽에서 다시 경찰의 폭행이 시작되었다. 난투 속에서 경찰관이 휘두르던 경찰봉이 하나 부러져 날아갔다. 학생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다. 마침내 학생들은 폭행을 피해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선두는 모진 폭행이 빗발치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달아났다.

발을 다친 학생 하나가 낙오를 했다. 정복과 전투복의 경찰관 10여 명이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그의 전신에 잔혹한 폭행이 빗발치듯 했다. 계속되는 폭행 속에서 길가에 섰던 할머니 한 사람이 “저놈이 사람 죽인다!”라고 외치다가 대열에 밀려 길가에 쓰러졌다. 할머니는 쓰러진 채 영영 울고 있었다.

10시경 경찰은 다시 과고다 공원 앞에 강력한 저지선을 확보했다. 이때 뒤 떨어졌던 약 7백여 명의 학생 대열이 선두에 섰던 5백여 명과 합류했다. 그 순간 최루탄이 터졌다. 사정없이 매운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최루탄은 계속해서 발사되었다. 그러나 흰 연막을 뚫고 대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 종로 2가에서 을지로로 향했다. 뒤따른 5백 명은 종로 4가에서 3가로 행진해 오고 있었다. 이 무렵 경찰은 완전히 학생들의 대열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대열은 대오를 유지하며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 3) 학교별 데모 호응 상황

19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대 학생들의 궤기에 앞서 1천여 명의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이들로 나뉘어 데모를 시작했다. 1진 2진으로 나누어 대열을 짜고 교문을 나선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에게는 평화적 데모의 자유가 있다!” “경찰은 학원에 간섭말라!” “민주 대한을 위하여 학도는 일어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구보로 동대문을 통과, 종로 5가에 까지 이르렀다. 이때 경찰의 무차별 곤봉 세례를 받고 수 명은 연행되고 제1진 데모대 7백

명은 강제해산을 당했다.

제1진 데모대가 흩어지자 9시 10분경 제2진 데모대 약 3백여 명이 학교 담을 뛰어넘어 다시 대열을 짜고 종로 5가를 지나 국회를 향하여 달려가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코스를 서울대학교 앞으로 돌렸다.

9시 20분경 서울대학교 앞을 지나가는 이들에 대해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내면서 격려를 보냈다. 그러나 제2진 데모대가 혜화동 로터리에 이르자 돌연 백차를 선두로 나타난 3대의 민간 트럭에 실려 온 2백여 명의 정사복 경찰들이 무차별 곤봉 세례를 퍼부었다. 경찰에게 잡힌 학생들은 피를 흘리면서 트럭에 실려 동대문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어서 10시경 서울대의 제1진 데모대가 세종로에서 국회 앞으로 선회할 때 숙명여자대학교의 김홍진 양이 선두에 뛰어들어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플래카드를 두 손에 추켜들고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다.

국회 앞에서 자리 잡은 데모대는 이를 해산시키려고 덤벼드는 경찰대에게 용감히 대항하여 경찰 경계선을 시정 앞과 세종로 로터리로 물러서게 했다.

10시 40분 약 1천5백 명을 헤아리는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합세했고, 11시 35분에는 동국대학교 학생 2천여 명이, 그리고 잇달아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생 1천5백 명이 “우리는 무저항 데모를 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가세하였다.

40분에는 동성고등학교 1천여 명이, 이어 6백여 명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 및 약학대 학생 1천여 명이 흰 가운을 입은 채로 합세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종로에 이르는 거리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여 학생 데모대에 호응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와 만세로 격려를 보냈다.

한편 18일에 제1차 데모를 시작한 고려대학생 2천여 명이 19일 또다시 데모에 나섰다. 오전 10시 교문을 나서서 안암동 경찰지서 부근으로 저지하는 경찰대와의 사이에 유혈의 육박전까지 전개하면서 시내를 향하여 행진을 감행했고 오후 1시 반 경에 세종로에 다다랐다. 또한, 중앙대학교 학생 4천여 명은 “학생은 폭력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교문을 뛰쳐나왔다.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약 30명의 경찰관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학생들은 이를

돌파해 뒤따르는 소방차의 방해도 물리치고 용산, 서울역을 거쳐 세종로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합류했다.

“발작적 방종이 아닌 민주주의라는 것, 그것은 각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회 언론 결사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전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손의 건전한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선두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보다 나은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헌법 전문에 기록된 바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진장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몽매한 무지와 편협, 그리고 집권과 데모의 제지, 학생 살해, 재집권을 위한 독단적인 개헌과 부정선거 등은 이 나라를 말살하려는 행위인 것이며, 악의 오염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그 무엇이 되겠는가? 나라를 바로 잡고자 혈관에 맥동치는 정의의 양식, 불사조의 진리를 견지하려는 하염없는 마음에서 우리는 다음의 몇 사항을 엄숙히 결의하는 바이다.”

1. 부정(3·15) 공개투표의 창안집단을 처벌하라.
2. 권력에 아부하는 간신배를 축출하라.
3.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허용하라.
4. 경찰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치 말라.
5. 정부는 마산사건의 전 책임을 지라.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은 위와 같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정오를 기해 신촌 버스 종점에 집결하여 행진을 개시했다. 의과대학 학생들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위에 나섰다.

1. 부정으로 일관한 3·15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
2. 살인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3. 경찰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하라.
4. 학원에 있어서의 일체의 정치적 조종, 간섭을 배격한다.
5. 이상의 결의를 전 학생들의 의사로 채택한다.

아현동 고개에서 약 30명의 경찰관들의 저지를 받았으나 연세대생들은 이를 돌파하고

계속 전진을 해서 서대문에서 남대문, 서울시경 앞을 통과하여 동화백화점 앞에서 다른 학생 대열과 합류했다.

이 밖에도 성균관대학교에서 1천5백 명, 경희대학교의 1천여 명, 경기여자대학교와 음악대학의 여학생 2백여 명, 그밖에 단국대학교, 국학대학교, 국민대학교, 한양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성신여대, 홍익대학교 등 시내 27개 각 대학생 외에도 대광중고등학교, 동성중고등학교, 흥국중고등학교 등 수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꺾기에 합세해 19일 참극이 일어날 무렵의 학생 데모대는 거의 18만을 헤아렸다.

#### 4) 데모대에 대한 경찰 태도

18일의 고려대학교 데모가 있자 오후 내무부에서는 외부 인사의 출입을 일제 통제하고 차관, 치안국장 및 과장들이 모여 오후 7시까지 비밀회의를 계속했다.

이날 내무부 고위 당국자는 “서울에서 전개 중인 고대 학생의 데모 및 부산에서의 데모 등에 비추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전국적인 데모의 수습책을 29일 오전 일반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학생 데모에 대한 경찰 측의 행동 대책이 이미 서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밝히지 않은 채 19일의 유혈 데모를 맞은 것이다.

또한, 유충열 서울시 경찰국장은 18일에 있었던 고대 학생 데모대가 강패의 습격을 받아 입은 피해를 즉각 발표하겠다고 경찰 출입기자들에게 약속했으나 우물쭈물 얼버무려 불투명한 경찰 태도를 보였다.

계속해서 내무부 고위당국자는 19일 오전 12시 5분 치안국에서 신문기자들과 회견하고 18일 감행된 고대 학생들의 데모를 언급하여 “고대 신입생 환영회를 빙자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학생들이 계획적인 데모를 했다는 것은 순수한 학생들의 집회를 데모로 이용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언급하여 학생들의 데모가 소위 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경찰의 경비 태도 및 강패들의 습격 등 불상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기자들이 이날 “고대생들의 데모는 신입생 환영회장에 경찰관이 수십 명 끼어 있어 학생들이 경찰이 학원의 자유를 침범한 것으로 보고 격분해서 데모를 감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질문하자 내무부 고위당국자는 “그것은 별도로 따질 문제가 아닌가”라고 경찰의 학원

간섭에 대한 답변도 회피했다.

서울시 경찰국장을 비롯한 내무부 고위당국자 등 치안책임의 수뇌 진들이 이러한 불투명한 대외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채로 맞았던 19일의 대규모 데모에 대한 일선 경찰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19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의 요소요소에는 완전무장한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자극적이고도 살벌한 공기를 자아냈다.

이와 병행해서 각 대학교 주변에 경찰관이 사전 배치되어 학생들의 신경을 자극했다. 이러한 경찰 태도는 마침내 서울 대학생들이 교문을 나서자마자 구타 세례를 가하는 태도로 변했고, 그래도 막을 수 없으면 맨주먹으로 데모대에 소방차를 동원시켰다. 그러나 소방차의 방수와 도로 차단도 효과가 없어지자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준무력사용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것은 효력이 없어지자 드디어 총기를 발사하여 경찰국가의 종언을 고하는 사태를 경찰 스스로가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 5) 참극 직전

시내 도처에서 집결하기 시작한 학생 데모대는 19일 정오 전후해 국회 앞과 세종로를 중심으로 그들의 요구 조건과 구호를 외치면서 무자비한 경찰관들의 저지를 물리치는데 전력을 다 했다.

그들은 “역적을 몰라내자!” “데모가 이적이냐 폭정이 이적이냐!” “3·15선거를 다시 하라!” “기성층은 각성하라!” “공산당을 타도하라!” 등의 구호를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고 해방의 노래, 전우가를 합창하면서 자기들 앞에 돌아오는 경찰대의 무력 폭행 앞에 분노를 마지막으로 터뜨리고 말았다.

더구나 중앙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권총 발사로 말미암아 동국대 1명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지자 데모대는 마침내 견잡을 수 없는 흥분의 도가니로 변하여 최고 책임자 이승만 대통령이 20년 권세의 아성이었던 경무대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밀려갔다.

그러나 그것은 폭동을 의식한 계획적 행동은 아니었고, 너무나도 억울한 국민과 학생들의 평소 이념을 국가의 원수요 행정부의 수반인 이 대통령에게 호소함으로써 진정한 국민복을 쟁취하고자 꺾기했던 학생의 저항이었던 것이다.

이와 때를 전후하여 국회 앞에서 한 대열은 대법원으로, 다시 한 대열은 내무부로, 그리고 서대문 이기봉 국회의장 사저로, 사무쳤던 부정과 부패에의 규탄을 외치면서 달려갔던 것이다.

경무대 앞으로 달려간 이 나라의 꽃이요 민족의 얼인 젊은 청년들은 전투복을 입은 3개 소대의 경찰 병력으로부터 빗발치는 총포의 사격을 받아 피 흘리며 조국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쓰러져 갔다. 마침내 전대미문의 전율할 참극이 벌어졌던 것이다.

## 6) 피투성이의 수도 서울

1차, 2차 무차별 쏘아대는 학살의 총포 앞에 10명, 20명 젊은 생명들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쓰러져 갔다. 그러나 이 참극은 경무대 앞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청 앞, 태평로 국회 앞에서도 그러했고, 광화문, 내무부 앞, 서대문에서도 그러했었다. 각 장소별로 그날의 참상을 살펴본다.

### 경무대 앞

무장경찰이 발사한 최루탄 가스로 경무대 쪽을 향하던 3천여 명의 대학생 데모 대원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최루탄 쓴 놈을 잡아라!”고 외치며 멈추지 않고 전진을 계속한 데모 대원들에게 경찰은 마침내 본격적으로 총탄을 발사했다. 이에 부상자가 발생하자 흥분한 데모 대열은 “죽여라!”를 외치며 경찰대를 향하여 빗발치듯 돌을 던졌다.

경무대 앞으로 맨 먼저 질주해온 데모대의 선두는 동국대생들이었다. “협잡과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교문을 박차고 비호처럼 달려 나온 제1진 2천여 동국대생들은 을지로 4가, 내무부 앞을 거쳐 서울신문사 옆 골목에서 부딪침 10여 명 무장경찰차를 따돌리고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다. 이미 서울대 연대 등 다른 대학생들도 와 있었으나 동국대 학생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러 경무대로 가자고 외치고 곧바로 중앙청 앞을 돌아 해무청 앞에 도착했다. 이때 붉은 물감을 섞은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이 무자비하게 최루탄을 쏘아대자 동대생들은 상수도관을 굴리면서 육탄전으로 맞섰다. 경찰은 해무청 앞 1차 저지선에서 후퇴했다. ‘동국대학교’라는 붉은 현수막을 앞세운 동국대생들은 최선봉에서 경무대로 질주했다. 그 뒤를 동성고, 서울대생들이 뒤따랐다. 경찰과 격렬한 공방전을 벌이던 동대생들은 정차되어 있던 전동차를 밀고 데모



중에 뺏은 소방차 3대에 수십 명씩 나눠 타고 경무대로 향했다.

이때 경무대를 지키고 있던 무장 경찰이 무차별 총격 사격을 가해서 선두에 섰던 법학과 3년 노희두가 그 자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았으며, 법과 2년 김종서 일행이 시신을 운구 병원으로 후송했다. 당시 외신들은 효자동 종점에서 동국대학교라고 쓰인 현수막 사진을 보도하면서 이는 4·19 혁명의 결정적 기폭제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처절했던 당시의 상황을 시간별로 상술하면 이렇게 전개된다. 12시 10분경 카빈총으로 무장한 헌병 3백여 명이 지프차를 탄 소령 1명의 지휘를 받아 7대의 트럭에 분승하여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청 앞 광장에 도착했다. 곧바로 뒤에서는 경찰소방차 2대와 3대의 시내버스에 탄 3백여 명의 경찰 증원부대가 도착했다. 이를 발견한 데모 대열은 서두를 헌병대 쪽으로 다시 돌려 사나운 물결처럼 밀어닥쳤다. 빗발처럼 날아가는 데모 대원의 돌팔매에 맞아 선두에 섰던 지프차의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트럭에서 뛰어내려 집총을 하고 정렬하던 헌병들은 약 5분 후에 다시 트럭을 타고 삼청동 쪽으로 빠져나갔다.

12시 15분경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학생들을 저지할 목적으로 경찰은 국민대학교 앞 길을 가로질러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학생들은 ‘전우가’를 부르며 계속 돌진하였다. 애당초 30여 발의 최루탄과 수십여 발의 실탄과 위협 발사를 한 경찰은 국민대학교 앞 바리케이드에 의거하여 전투적인 발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데모 선두와 경찰 바리케이드 간의 거리는 30미터, 마침내 경찰은 일제 사격을 개시했고 연신 최루탄을 터뜨렸다.

그래도 데모 대열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경무대를 향하여 전진을 계속했다. 마침내 통의동파출소를 점거하고 쉬지 않고 바리케이드에 육박했다. 이에 경찰은 제1의 바리케이드에서 후퇴를 시작하여 실탄 사격을 계속하면서 경무대 어귀인 효자동 종점에 구축한 최후의 바리케이드에 집결했다.

이미 동료들의 피를 본 학생 데모 대열은 “살인귀를 잡아 죽여라!”, “자유와 민주주의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노한 폭풍처럼 외치면서 총탄을 무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경찰의 마지막 거점을 향해 압박해 갔다.

전투복으로 완전무장을 한 경찰 사격 병력은 약 3개 소대, M1 소총, 갈빈총, 연막탄, 최루탄이 연달아 발사되어 경무대로 통하는 중앙청 담벼락을 낀 최고 권좌 자리는 완전히 처절한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도 데모 대열은 흠어지지 않고 전진을 계속했다.

경찰의 마지막 거점까지 불과 50m, 경찰의 총기 난사는 광란의 그것으로 변했다. 데모 대열의 선두는 총탄에 힘없이 계속 쓰러지기 시작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짧은 피가 싸늘히 식어가는 시체를 감돌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 험악한 길을 강물처럼 휩쓸고 있었다.

그래도 데모대는 굴복하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철조망이 쳐진 바리케이드를 향해 다가섰다. 홍수와 같이 밀려든 학생들은 총탄이 비 오듯 쏟아지는 속에서 그 철조망을 뚫으려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M1 총탄이 사정없이 날아오는 가운데 학생들은 효자동 종점에 멈춰있던 전차 2대를 밀고 점점 철조망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다시 지프차 트레일러 하나를 얻은 학생들은 그것을 밀고 철조망을 뚫으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툽으로 철조망을 끊고 말았다.

총격은 한층 심해졌으나 학생들은 별떼처럼 몰려가 소방차를 밀며 점점 경무대로 접근했다. 많은 동료들이 눈앞에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목숨을 걸고 경복궁 뒷문을 통과해 경무대 정문을 바라보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방어하는 경비경찰과 후퇴한 경찰대가 합세하여 쏘아대는 일제사격으로 학생들의 데모대는 시신을 넘으며 전진했던 코스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의 시간이 오후 2시경, 다시 효자동 종점의 바리케이드를 점거한 경찰대와 데모대는 약 200m 사이를 두고 대치 태세로 들어섰다.

그러나 끝내 맨주먹의 학생들은 목적을 관철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후 5시경에 이르러 증파된 경찰대의 여세에 밀려 바리케이드를 넘어서면서 학생들을 압박하는 총포의 만행 앞에 데모대는 적선동 해무청 앞으로 다시 중앙청 앞으로 밀려났다. 이곳저곳에서 경찰대의 무력이 어둠과 더불어 더욱 위세를 부리자 학생들은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밀리고 뛰어들어 마침내 뿔뿔이 교외로 분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 중앙청 앞

피를 보고 흥분한 학생들은 이날 12시 넘어 통의동 파출소에 뛰어들어 유리창과 기물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중앙청 안에 대기 중이던 완전무장 기동경찰대 30여 명이 일제히 학생들을 향해 뛰어들면서 권총과 M1 총으로 수백 발의 실탄을 하늘에 대고 쏘

았다. 놀란 학생들은 뒤로 밀렸고 이 틈을 타서 경찰은 수십 발의 최루탄을 사방에다 던졌다. 실전 그대로의 상태가 계속되었다.

한 손으로 눈물을 닦는 학생들은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살인경찰은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한편 ‘전우가’를 부르며 시위를 계속했다.

이윽고 데모 대원들은 “최루탄 쏜 놈을 잡아라!”고 외치며 굴하지 않고 전진을 계속하자 경찰은 이들에게 난사를 했다. 몇 명의 학생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더욱 흥분한 데모 대원들은 “죽여라! 죽여라!”하는 함성을 지르며 경찰관을 향하여 빗발치듯 돌을 던졌다.

이때 경찰소방차 2대와 3대의 시내버스에 탄 3백여 명의 경찰 증원부대가 도착했다. 이것을 본 데모 대원들은 사나운 물결처럼 그쪽으로 밀어닥쳤다. 다음 순간, ‘죽여라!’하는 함성과 함께 돌이 날랐으며 두 대의 소방차는 산산이 부서져 할 수 없이 후퇴해버렸다.

중앙청 앞은 시시각각으로 몰려드는 학생들로 뒤덮였으며 데모대를 바라보는 군중들의 박수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오후 1시경 동국대학교를 선두로 한 학생 데모대는 다시 해무청 앞 저지선을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최루탄이 터지고 소방 호스에서는 세찬 물이 뿜어졌다. 눈먼 총탄이 날랐다.

절규하는 학생들의 포효, 미친 듯 쏘아대는 총성, 그 속에서 들려오는 ‘전우가’, 또 학생들의 흥분은 절정에 달하고 대열은 결사적인 전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경찰 방어선을 뚫고 2만여 명의 학생이 노도와 같이 경무대 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이 무렵 데모대에 섞였던 남루한 의복을 입은 청소년 약 3천여 명이 갑자기 중앙청 돌담을 뛰어넘어 문교부 장관 차 등 6대를 파괴했다. 이들은 중앙청 등사실을 부수고 수만 매의 종이를 허공에 뿌렸으며 문교부 영화 검열실도 파괴했다.

이 소동으로 중앙청 본청에 내에 있는 공보실 1, 2, 3층의 유리창과 2층에 있는 국무위원 회의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경무대를 다녀온 전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실에 모여 철문을 닫고 초조와 불안 속에서 떨고 있었다.

## 시경 무기고 주변

경무대 어귀에서 처절한 동족 살육의 피비린내가 풍기고 있을 무렵, 데모대의 일부는 중앙청 앞 경기도청 길 건너편에 있는 서울 경찰국 무기고로 들이닥쳤다. “선량한 학생들이 죽어 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다, 우리도 총으로 살인 경찰을 없애자!” 데모대들은 이렇게 외치면서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군복을 입은 경찰관의 발포로 한 두 명이 쓰러지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뒤로 밀렸다.

“수류탄을 얻어라!” 데모대는 또다시 성난 짐승처럼 돌과 몽둥이로 무기고 동쪽 담을 뚫었다. 안에서 구멍에다 대고 경비 경관이 총을 쏘았다. 기어들어 가려던 청년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거꾸러졌다. 총격은 더 심해졌다.

경기도청 앞에서도 두 명이 가슴에 총을 맞고 넘어졌다. “기관포를 빼앗아라!” 군중들은 이번에는 남쪽 담을 허물기 시작했다. 담을 넘어가려고 기어오르던 청년 하나가 또 총에 맞아떨어졌다.

드디어 커다란 구멍이 뚫렸으나 안에서 내민 총부리는 더욱 심한 불을 뿜었다. 얼마 후 군에서 증원부대가 파견되자 데모대는 점령을 단념해 버렸다.

## 태평로 국회 앞

10시 반경 서울대학교 학생 데모대는 몽둥이로 제지하는 경찰대와 충돌 끝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도착했다. 3천여 남녀 학생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격문 낭독과 구호를 외쳤다.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나라!” “불법으로 치른 3·15 선거 다시 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흥분에 싸인 학생들을 또한 “3·15 선거를 불법으로 감행한 책임자를 이 자리에 불러내자!”고 부르짖었다.

이때 숙명여자대학생 김종자 양이 뛰어나와 “선거를 다시 하자!”는 플래카드를 양손에 쳐들고 목매어 외쳤다. 데모대는 김 양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만세를 부르고 도로변 시민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데모대의 기세는 충천하고 각 대학 학생들은 점점 증원되어 갔다. 학생들은 주위에 경찰관이나 소방차가 어른거리기만 하면 물러가라고 소리치며 돌맹이까지 던졌다. 경찰 경비선은 부득이 시청 앞과 세종로 로터리로 밀려났다.

약 한 시간 동안 의사당 앞에 주저앉은 농성 시위대는 “부정과 살인 선거법 최인규를 불러내라!” “홍진기 내무장관과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불러내어 공개투표가 합법이라고 우긴 3·15 선거의 설명을 듣자!” “총을 쏘라고 준 것이라고 말하는 이기봉을 불러내어 즉시 자진 사퇴를 요구하자!”라고 외치며 각각 교가와 군가를 부르며 사기를 높여갔다.

그러는 동안 학생 대표 3명이 “대한민국의 생명선은 대법원에 달려 있으니 9명의 대법관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자!”고 제의하자 학생들은 이에 모두 찬성했다. 곧이어 학생 대표가 법원으로 가고 11시 반 연행된 학생을 석방하도록 경찰에 교섭을 갔던 학생대표 4명마저 구속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학생들의 노기는 걷잡을 길이 없게 되었다.

학생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도로변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일부는 끝끝내 “최인규 나오라!”, “이기봉 의장 나오라!”의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 앞 도로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 법원 주변

국회 앞에서 학생대표로 법원에 갔던 오동섭, 최인호 외 2명의 학생들은 11시 30분 조용순 대법원장을 만나 데모 현장에 나와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러 갔으나 대법원장의 부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대법원 행정처장만을 만나고 왔는데 이들이 제시한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3·15 선거가 합법이나 불법이냐에 대한 대법원장의 답변
2. 선거 소송을 양심적으로 판결해 주겠는가
3. 평화적인 데모를 하는 학생들에게 강권을 써서 본의 아닌 불상사를 일으킨 데 대하여 책임을 규명하라.

이와 같이 대법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뜻을 이루지 못한 뒤 12시 15분경에는 약 2천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교 데모대가 법원 정문과 뒷문 등 4개의 문으로부터 법원에 진입했다.

그들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문이 단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법원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청사 정면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소리 높이 구호를 외쳤다.

1. 법원은 행정부에 아부하지 말라!
2. 3·15선거는 무효다. 공명선거 다시 하라!
3. 대한민국의 살길은 대법원에 달려있다.

### 서울신문사 방화

오후 3시경 경무대 앞에서 경찰관의 사격을 받아 수없는 학생들이 죽어가자 “우리 학교 학생이 죽었다. 내 친구가 죽었다!”라고 울부짖으며, 세종로 쪽으로 돌아오던 1천여 명의 데모대는 “공산주의를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반공회관에 방화했다. 아세아 반공연맹과 대한반공청년단이 함께 쓰는 이 3층 건물은 삼시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부정선거에 협력한 대한 반공청년단은 해체하라!”는 서리가 데모 대열에서 터져 나오 고 건물 앞에 우뚝 서있는 전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 앞에서 데모 대는 공산침략을 막아준 ‘맥아더 장군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수 분 후 광화문 파출소에 다다른 데모대는 파출소를 반파하고 전진을 계속했다. 서울신문사 앞에 다다랐을 때 “서울 신문 때려 부셔라!” “불태워 버려라!”고 한 데모 대원이 외치자 일시에 “태워 없애라!” 하는 함성과 함께 서울신문사로 몰려 들어가 방화를 했다. 완전한 자유당 정부 기관지이며 우리나라 신문사 시설로서는 최대의 규모를 갖춘 서울신문사 3층 건물은 수만 명의 데모 군중 앞에서 삼시간에 불길을 뿜으면서 활활 타올랐다. 불길이 하늘을 찌르자 중부소방서 소방차 3대가 동원되어 진화작업을 하려 했으나, 흥분이 고조된 데모대는 일시에 소방차에 수천 개의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차를 후려갈기면서 운전석으로 뛰어 올라갔다.

운전석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던 소방대원이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쥐고 뛰어내려 사 람들을 헤치고 도망치자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소방차에 뛰어올랐다. “방향을 돌려라! 동지를 구하러 가자!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타라!”고 어떤 학생의 소리가 떨어지 자마자 3대의 소방차는 동시에 데모대원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만 명의 데모 대원들은 태평로가 떠나갈 듯 환성을 울리며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서울신문사가 타는 불길을 뒤로한 채 소방차 3대를 빼앗은 데모 대원들은 요란스럽게 사이렌을 울리며 시청 쪽으로 향했다. 그 사이렌 소리가 멀리 사라지려고 할 때, 이번에는 광화문 쪽에서 미친 듯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달려드는 자동차 한 대가 있었다. 녹색의

구급차였다. 자동차 앞머리에 매달린 학생 하나가 소리치며 데모 대원에게 비키라고 외쳤다. 구급차는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달렸다.

경찰관들은 완전히 데모대에게 기선을 빼앗겼고 불길은 서울신문사 4층까지 치솟았다. 그 앞을 두 대의 자동차가 데모대를 헤치고 달려갔다. 경무대 쪽에서 총을 맞아 죽은 시체를 싣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구급차들이었다.

### 서울시경 점령기도

을지로 입구 내무부 청사를 점령하려다 맹렬한 총격 때문에 실패한 데모대는 오후 4시 반경 남대문 쪽에 있는 서울특별시 경찰국 쪽으로 몰렸다.

소방차에 편승한 데모 대원들을 앞세우고 시경으로 몰려 들어가려는 순간 2층에서 겨누고 있던 총부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차에 탔던 학생들이 산탄에 맞아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다. 이때 중앙청에서 남대문으로 통하는 길에는 10여만 명의 군중이 운집해 있었다. 이 군중을 헤치고 탈취한 자동차를 타고, 혹은 소방차 사이렌을 울리면서 데모 대원들의 시위는 저물어가는 석양 아래 절정에 다다랐다. 학생들은 피살된 동료의 시체를 차에 싣고 목이 터져라 외치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여기저기서 피를 본 학생과 이에 가세한 시민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이 보였다. 데모대는 또 시경으로 돌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 아무리 억센 힘을 가진 데모대라 하더라도 가슴을 뚫고 나가는 총탄을 쉽사리 이길 도리는 없었다. 앞장을 섰던 학생 수 명이 총에 맞았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쓰러졌다. 피를 뿜으면서 ‘조국 만세!’를 불렀다. 두 번째 돌진에 실패한 데모대가 다시 대열을 정돈하여 뚫고 들어가려고 할 때 지원대가 급파되어 있었다.

### 내무부 앞의 참사

데모대는 서울시경찰국 주변에 배치된 군인들을 보자 시경 점령을 단념했다. 온 국민에게 부정선거를 강요한 총본산인 내무부 앞에서의 데모 투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다.

여기에서도 수많은 학생이 고귀한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다. 3·15 선거의 부정이 드러나자 여론의 규탄을 호되게 맞고 물러난 최인규 내무장관과 전국 경찰의 지휘권을 한 손에 쥐고 있던 이강학 치안국장은 이미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 내무장관과 서울지방검찰청 정보부 부장검사가 치안국장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데모대는 아침부터 산발적으로 내무부 앞에 모여서 “내무장관은 마산사건을 해명하라!”, “국민을 우롱하는 내무부는 필요 없다!”는 구호를 소리 높이 부르짖으며 질서 정연한 데모를 했다.

오후가 되어 전 시가지의 공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자 그 질서는 무너지고 데모대는 내무부 점령을 기도했다. 피를 보고 분노가 치솟은 데모대는 살인 경찰은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내무부 앞에서 연좌하고 있는 데모 대열을 뚫고 수십 명이 매달린 두 대의 소방차가 나타났다. 그 소방차는 내무부 청사를 뚫고 들어가려고 정문을 향해 힘차게 움직였다. 이때 경비경찰관은 기다렸다는 듯 일시에 총을 쏘았다. 길가에 주저앉아 농성 데모를 하고 있던 학생들이 벌떡 일어나 담을 넘으려고 했다. 총탄은 더욱 날아오고, 좌우편에서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가 자빠졌다. 하는 수 없이 소방차는 후퇴하고 데모 대열은 원각사 쪽으로 몰려들어 내무부 청사를 지키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위기에 직면한 내무부 청사 안에서는 이때부터 중요 기밀 서류를 이송하기 시작했다. 데모대는 다시 길가에 나와 주저앉아서 청사에 뛰어 들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오후 6시 5분경 데모대가 또다시 내무부를 뚫고 들어가려고 할 때 시청 쪽으로부터 두 대의 경찰 장갑차가 나타났다. 그 뒤로 2열 종대의 경찰관들이 뒤따라오며 소총과 경기관총을 발사했다. 원각사와 조선전업 등에서 내무부 일대를 포위하고 있던 데모대는 하는 수 없이 총탄을 피하여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 서대문 이기봉 집 앞

데모 주류대가 경무대를 향하여 돌진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19일 오후 12시 30분경 서울대학생 약 1천여 명이 광화문에서 서대문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대열은 이기봉 씨 집에 채 이르지도 못한 송월동 로터리에서 제지 경찰과 충돌하였다. 학생들의 일부가 돌을 던지며 저지선을 돌파하려고 하자 대기하던 소방차가 일제히 붉은 물을 뿌려 데모대의 기세에 도전했다.

부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완강한 경찰의 제지를 뚫고 이기봉 씨 집 입구에까지 간 학생들 중 일부는 길에 주저앉고 일부는 대문 안으로 들이닥치며 “이 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연달아 외쳤다. 선두는 이기봉 씨 집 앞 5미터 지점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하여 태극기를 높이 흔들면서 애국가를 연달아 불렀다.

12시 10분경, 신촌 방면에서 구보로 몰려온 연세대학교 학생 약 3천여 명이 이 지점에서 서울대학생과 합류했고 뒤이어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가세함으로써 분위기는 점점 긴박하게 조성되어 갔다.

오후 5시가 지나 경찰 장갑차가 출동하여 세종로와 을지로 일대의 데모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으로 해산시키고 있었다. 이기봉의 집 앞 충정로 일대에서 때마침 발표된 7시 통행금지 시간에 쫓기어 집으로 돌아가는 군중들 중에 학생이면 무조건 잡아내어 그 허리를 풀어 양손을 묶고 이유 없이 곤봉이며 소총 개머리판으로 후려갈기고는 어디론가 연행해갔다.

## 방송국 점령기도

이날 데모가 절정에 달한 오후 2시 반경 태평로 일대의 데모대는 아카데미 극장 뒤쪽에 있는 서울 중앙방송국 제2방송국의 점령을 기도했다. 데모대가 탈취한 2대의 소방차를 앞세우고 들어가려던 대열은 제2방송국으로 통하는 문충회관 앞에서 경비 중인 수명의 군인들을 보자 암전하게 되돌아섰다.

한편 남산의 제1방송국을 습격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만일 방송국이 점령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서강에 있는 연희송신소에서 전파를 끊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아니나 다를까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5, 6명의 경찰관이 총을 쏘며 막으려 했으나 성난 데모대를 막지는 못했다.

학생들은 방송국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내부시설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우왕좌왕하며 시설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뒷문으로부터 해병대원 수십 명이 들어와서 그들을 나가라고 타일렀다. 학생들은 군인들의 말을 듣고 아무런 반항도 없이 나가버렸다.

만일 이날 데모 대원이 방송국을 점령하고 마이크를 쥐었다 하더라도 연희송신소를 함께 점령 못한 이상 그 방송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 경찰 장갑차 출동

일단 저항을 포기했던 경찰은 오후 5시 두 대의 경찰용 경장갑차를 앞세우고 완전무장한 경찰 1개 중대를 2열 중대로 산개하여 소총과 경기관총을 마구 쏘며 데모대를 해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에 접어들었다.

광화문 쪽으로부터 을지로 쪽으로 몰리는 데모대는 이미 학생만이 아니었으며 학생 차림을 한 청소년들도 상당수 섞여 있었다.

저녁 7시가 되어 통행금지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온 장안에 울렸다. 미처 해산하지 못하고 한 곳으로 밀린 데모 군중은 이때를 신호로 삼은 듯 을지로와 돈암동 방면으로 시위를 계속하면서 눈에 보이는 파출소란 파출소는 돌아가면서 불을 지르고 부수어 버렸다.

당국의 집계에 의하면 이날 하루에 전과 13개소, 반과 30개소 도합 43개소의 파출소가 피해를 입었다. 복구비는 2억 환으로 집계되었으며 소방차를 포함한 각종 차량 복구비로 11억 환의 피해가 났다.

### 무장 기동대가 된 데모대

학생들의 노랫소리와 아우성, 그리고 총성이 잠잠해진 계엄령 하의 서울 거리는 공포와 불안 속에 밤을 맞았다.

동쪽으로 밀린 군중은 낮에 탈취한 버스며 택시를 몰고 을지로와 종로 등지에서 신설동과 돈암동 쪽으로 향하였다. 여기저기에서 파출소가 타고르는 불길은 사람 발길을 끊긴 장안을 온통 뒤덮으며 비추고 있었다. 군중들은 파출소마다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총을 탈취하여 뒤따르는 경찰관에게 응사하였다. 밤거리는 시가전을 방불하게 하는 공포를 자아냈다. 신설동과 돈암동 일대의 주민들은 밤공기를 뒤흔드는 총소리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밤 10시경 신설동 쪽으로 행진하던 군중들은 계엄군이 서울로 들어오는 바람에 진로를 바꾸어서 산 등을 넘어 고려대학교 쪽으로 밀리고 일부는 정릉 산속으로 몰려가고, 또 다른 한쪽은 뚝섬 방향으로 떼를 지어 나갔다. 그중에 데모대가 가장 많이 몰려든 곳은 고려대학교였다.

낮에 탈취한 각종 차량 30여 대에 분승한 데모대는 근 40여 자루의 소총을 갖게 되었고 이로써 맨주먹이었던 데모대는 마치 소규모의 무장 기동대화한 장비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진로를 잃은 데모대 약 1천여 명은 이날 밤 고려대학교 강당을 점거했다. 때는 이미 계엄군이 서울을 진주한 후였고 시내에는 육중한 탱크의 캐터필러 소리가 밤하늘을 진동하고 있었을 때였다.

정보를 접한 계엄군은 고려대학교를 완전히 포위하고 빨리 나오라는 선무 공작을 하였으나 투항하는 사람은 없었다.

날이 밝자 계엄군은 그 포위망을 압축하여 강당에 농성 중이던 데모 군중을 해산시키고 무기를 가진 약 30명을 연행했다.

고려대학교 총장인 유진오 씨는 며칠 후 이날 밤 강당을 점령한 데모대 속 학생은 섞여 있지 않았다고 시내 각 대학교 총장 긴급회의 석상에서 밝혔다.

(이하 지방의 데모 현황은 생략)

## 편집후기

책을 발간한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그 기록은 우리의 생각과 주장 그리고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모교 대광과 선배님들의 4·19 민주혁명의 시위와 기록은 방대한 역사적 사료도 아니고 거대한 담론의 행위는 아닐지라도 그 개개인의 몇 시간에 지나지 않은 그날의 행위와 기억이 당신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고, 삶의 지향점이 되며 의지하고 살아온 기둥이 되었을 것이다.

60주년을 맞이하는 4·19를 통해 우리 모교와 선배들의 회고와 증언의 기록을 보고 우리 후배들은 이에 공감하며 모교 대광과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을 느꼈으면 한다. 또한, 모교 건학 정신의 발현인 이런 정신 - 하나님의 공의, 경천애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 들이 그날 4·19 아침에 나타난 행위로 표출된 것임을 알았으면 싶다.

본서에는 4·19에 대한 재해석이 없다. 1960년 이후 학교 내부나 외부에서의 여러 기록을 수집한 것이다. 더이상 기억이 희미해지고 왜곡되어 개인의 기억이 객관성을 잃기 전에 세상에 나왔다는 점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본 서적으로 나타난 회고, 증언 그리고 정신들은 우리 모교와 동문들의 자산이기에 동문들이 모두 공유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 후에 이런 기록이 대광의 교육이 한국 사회의 변화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과 진전이 있었는지 성찰하고 역사적 의미를 더해 더욱 풍성한 내용의 속편이 나오는 데에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4·19 전야와 4·19 당일의 서울 시내의 데모 상황을 편집하여 우리 선배들의 4차례의 시위행진으로 알 수 없는 그날의 서울시 현황에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아울러 4·19 이후 모교 대광의 학생운동을 정리해 보았다.

## 참고문헌

- 대광뉴우스 제35호(대광중고등학교 보도부, 1960,5)  
 대광뉴우스 제36호(대광중고등학교 보도부, 1960,6)  
 대광뉴우스 제40호(대광중고등학교 보도부, 1961,2)  
 대광뉴우스 제45호(대광중고등학교 보도부, 1962,4)  
 대광뉴우스 제52호(대광중고등학교 보도부, 1963,4)  
 대광뉴우스 제58호(대광중고등학교 보도부, 1964,4)  
 대광 교지 제7호(대광중고등학교 학생회, 동아출판사, 1961)  
 대광 25년사(대광 25년사 편찬위원회, 창음인쇄공사, 1973)  
 대광 35년사(대광 35년사 편찬위원회, 세신출판사, 1983)  
 대광 50년사(대광 50년사 편찬위원회, 국민문화, 1997)  
 대광 60년사(대광 60년사 편찬위원회, 아름문화사, 2007)  
 대광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보 제38호(대광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전자출판 뷰애디디자인, 1995,5)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4·19혁명잡지 기사집 04(4·19혁명기념도서관, 1989)  
 우리나라 현대사의 인식방법(삼광출판사, 이현희, 1998)  
 4·19혁명사진집(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 희생자 유족회, 2000)  
 4월 혁명통사(홍영유, 도서출판 천지창조, 2010)  
 4월 민주혁명의 재조명(전득주, 김성주, 임춘식 외, 공동체, 2010)  
 4·19혁명사(50주년 4·19혁명 기념사업회, 리윤커뮤니케이션, 2011)  
 고려대학교 4.18의거실록(4.18의거 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 4·19행사 성원해 주신 분 명단

### (개인)

13회 4·19 유공자 :

김기복, 김태웅, 방정웅, 배극일, 백진호, 이인행, 조승호

13회 동기회 :

강박유, 강우구, 계경순, 고윤철, 구교성, 권영중, 권오진, 김광수, 김광순, 김광신,  
김기완, 김민수, 김삼남, 김용일, 김 윤, 김의협, 김인환, 김재욱, 김창구, 노광국,  
도호웅, 독고창남, 문복강, 박강남, 배일선, 백도웅, 백송철, 손중호, 송기영, 이길남,  
이상철, 이신실, 이재웅, 이진우, 이창식, 이창억, 전정남, 정영일, 정윤도, 정현철,  
주성기, 조관제, 조영선, 조영철, 지선장, 최덕삼, 최정치, 최택준, 하대웅, 허영진,  
홍영남(가나다 순)

18회 변동걸

20회 김의광

32회 김명섭

### (단체)

14회 동기회

15회 동기회

16회 동기회

18회 동기회

23회 동기회

## 『대광고 4.19』 편찬위원회 명단

김민수(대광고 13회)

손재완(대광고 18회)

부길만(대광고 22회)

문 경(대광고 24회)

김철경(대광고 25, 대광고 교장)

이명수(대광고 30, 대광고 교사)

조성훈(대광고 교사)

## 대광과 4·19

2020년 4월 13일 수정판 인쇄

2020년 4월 22일 수정판 발행

저 자 / 『대광과 4·19』 편찬위원회

기 획 / 대광중고등학교총동창회사무국

발행인 / 고우용

편 집 / SH Process

인 쇄 / Total Process

제 작 / 도서출판 서훈

등록일 / 1997년 11월 25일

출판등록 / 제 2018-000062호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7가길 22

전화번호 / 02)324-6577

팩시밀리 / 02)324-6177

### 비매품

ISBN / 978-89-6249-144-9 03330

2020 © 대광중고등학교 총동창회사무국

이 책은 저작권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법에 정한 예외 이외의 무단 전재나 복제, 매체 수록 등을 금합니다.